

호남한국학 금석문자료집 2

곡성금석문

조선시대편

호남한국학 금석문자료집 2

조선시대편

곡성 금석문



발 간 사

호남한국학 금석문자료집 출간에 붙여

산과 들을 걷거나 오래된 마을을 오가다 보면 단아한 문자가 새겨진 빗돌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때로는 비석거리라 불릴 만큼 수십 기의 비석이 줄을 지어 길손의 시선을 끌기도 합니다. 비석마다 한 줄에서 수십 행에 이르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글씨체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빗돌의 형태도 다양해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정작 쉽지는 않습니다. 비석을 세운 지 오래되어 글자의 마멸은 물론 비신을 지탱하기조차 버거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돌이나 쇠붙이에 글자를 새긴 정성과 그 비석을 어디엔가 세우게 된 동기를 들여다보면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수많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국학호남진흥원은 2022년부터 호남 지역에 흩어져 있는 금석문을 조사해 왔습니다. 보존할 만한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비석을 우선 조사하여 일일이 사진을 찍고, 난해한 한문으로 새긴 비문을 판독하여 미래 세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글로 번역하였습니다.

해마다 한두 개 시·군의 금석문을 조사했는데, 지난 3년간 장성을 비롯한 6개 시·군의 금석문 약 1,600여 기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처럼 방대하게 축적된 금석문 자료를 책으로 간행하여 시·도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호남한국학 금석문 자료집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먼저 조선시대에 건립된 금석문을 간행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번 자료집에는 조사를 처음 시작했던 장성과 곡성의 금석문을 모았습니다.

자료집에 수록된 곡성과 장성의 조선시대 금석문은 총 280여 기입니다. 대부분의 금석문은 신도비, 묘비, 충효열비, 송덕비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그 많고 적음의 편차가 있는데, 아




마 해당 지역의 정체성이나 역사적 전통과 관련이 깊을 것입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 장성과 곡성의 400년 금석문 역사의 시대적 흐름을 살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번 자료집 발간을 계기로 사료적 가치가 큰 금석문의 문화유산 지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금석문 조사의 책임을 맡아 자료집의 해제를 작성한 권수용 수석연구위원과 이름 모를 산천에 산재한 비석을 조사하느라 애쓰신 참여연구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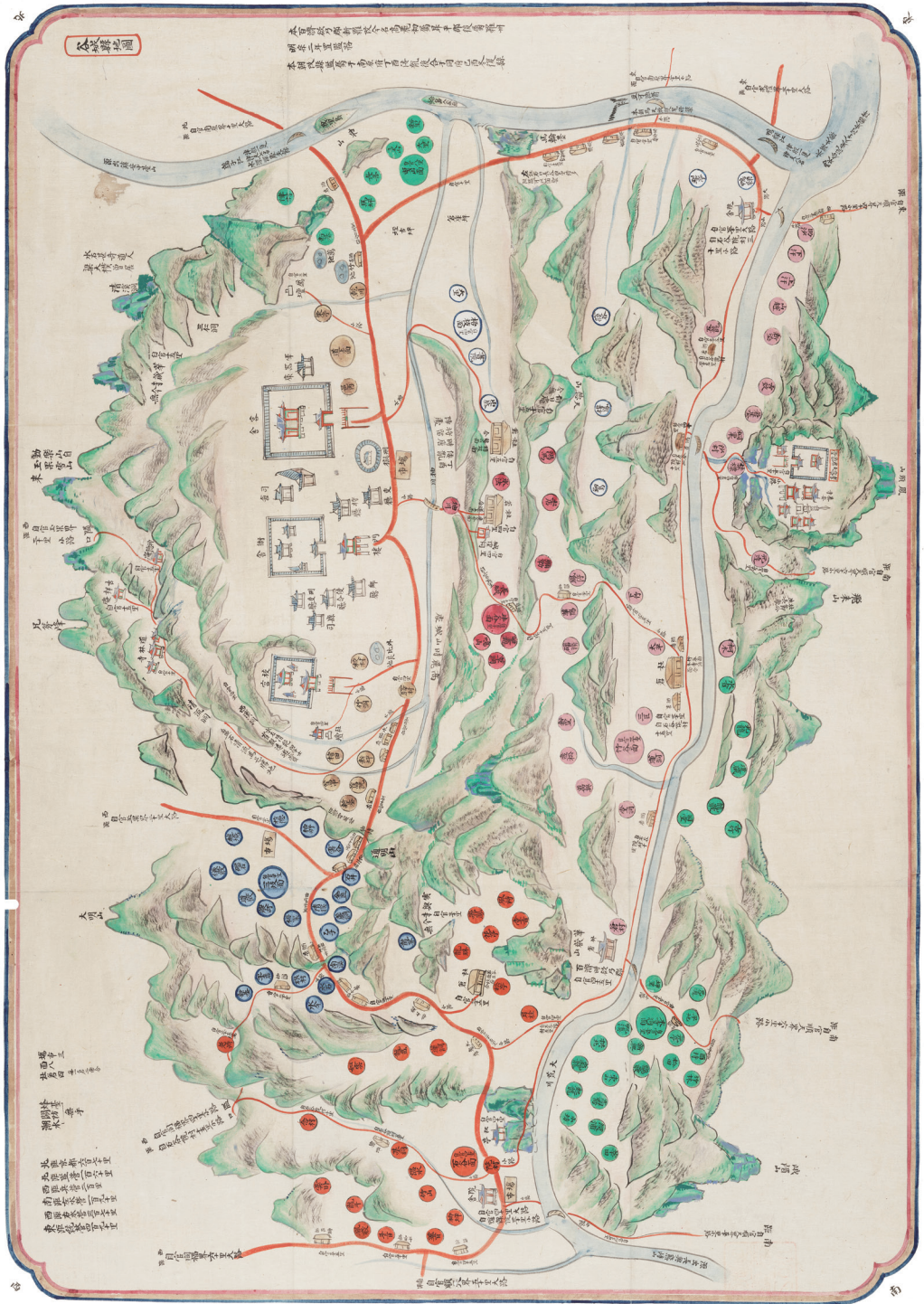
2025.10.

한국학호남진흥원장 홍 영 기

일 러 두 기

- 본서는 곡성군 지역의 금석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 본서에서는 1910년 이전에 제작된 금석문만을 선별하여 주제별로 꾸몄다.
- 금석문의 사진은 대부분 판독이 불가하여 앞면만을 싣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금석문에는 해설문과 판독문 및 번역문을 실었다.
- 판독문은 비석이나 현판에 새겨진 대로 하고 임의로 줄바꾸기나 띄워쓰기를 하지 않았다. 다만 공간 절약을 위해 한 줄에 2~3자씩 쓰인 경우에는 ‘ ’ 표시를 하고 이어서 적었다.
- 주소는 찾아가기 쉽게 도로명 주소가 아닌 마을명 주소를 사용하였다.
- 금석문의 글자가 마모되거나 깨진 부분은 ‘’로 표시하였다.
- 금석문의 크기 단위는 ‘cm’이다.
- 디지털 탁본 자료는 문화유산 사진연구소장 장선필 연구원님이 수행한 것이다.
- 금석문의 명칭은 ‘면명+리명+이름+분류명’으로 하였고, 이름의 경우에는 한글명(한자명)으로 표기하였으며, 지정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지정명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노력했다.
- 비문의 행자수는 행의 경우 4면의 행수를 적고, 자의 경우 기본이 되는 줄의 글자 수를 적었다.
- 금석문 조사는 면별로 진행하였으며, 정리는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곡성의 1872년 지방지도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옥과의 1872년 지방지도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곡성 금석문의 현황과 특징

권 수 용 한국학호남진흥원 수석연구위원

목차

1. 호남 금석문의 조사
2. 곡성의 금석문 현황
3. 금석문의 지역적 특징
4. 문화유산 지정의 필요성

1. 호남 금석문의 조사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 2022년부터 금석문을 시군별로 전수 조사하고 있다. 금석문의 대상은 돌이나 금속에 새긴 글뿐만 아니라, 나무나 도자기 등에 새긴 명문까지도 포함한다.

우리의 문화유산인 금석문의 경우 대부분은 세월의 흐름 속에 방치된 채 잊혀가고 있다. 비바람에 풍화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져서 비문도 따라서 마멸되고 있으니, 이런 상태로는 많은 금석문이 곧 대부분 내용을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 것이다.

금석문은 개인사나 지역사를 알게 해주는 원초 기록이다. 그것을 제작 건립할 때도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을 것이지만 백 년도 지나지 않아서 기억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에서는 이처럼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 금석문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이것을 판독하고 번역하여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각각의 금석문에 대해서는 사진뿐만 아니라 해설문까지 곁들여서 이해하기 쉽고 찾아보기 쉽게 만들어서 문화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왕의 비문 판독문은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에서 실재 비문과 한

자한자 비교하여 바로잡는 정본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금석문의 조사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호남의 각 시군에 해당하고, 시간적으로는 지금까지 건립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정작 중요한 것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은 1980년대까지로 하되, 여력이 있을 경우 2000년까지 확장하도록 하였다.

금석문의 전수조사는 그동안 대학박물관이나 연구원·연구소에서 조사 발행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각 지역 문화원 등에서 자체적으로 발간한 책자 등을 참고하였다. 전국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문화유적분포지도』의 경우에도 어떤 지역은 비교적 조사가 잘 이루어졌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누락된 금석문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묘비는 거의 조사된 적이 없다. 때문에 기존 조사의 결과만으로는 호남지역 또는 각 지역의 금석문에 대한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본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조사된 지역은 장성, 영광, 곡성, 광주, 강진, 함평 등이다. 앞으로도 지역별로 꾸준한 조사를 해나갈 계획이며, 그 결과 호남지역에 소재한 금석문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번 책자에 수록한 금석문의 범위는 시간적으로 1910년에 제작된 것까지로 한정하였고, 현재 곡성군 지역에 소재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책의 구성은 주제별로 크게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니, 송덕비, 묘비, 충효열비, 기타 금석문이 그것이다.

송덕비의 경우에는 선정비(善政碑), 불망비(不忘碑), 시혜비(施惠碑), 영사비(永思碑), 흥학비(興學碑) 등이 모두 포함되고, 묘비의 경우에는 묘갈(墓碣), 묘표(墓表), 묘지(墓誌), 상석(床石) 등이 포함된다. 충효열비는 충의비(忠義碑), 효자비, 열녀비, 정려비와 정려각도 포함되었으니, 정려각의 경우 별도로 조사할 여력은 앞으로도 갖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기타 금석문의 경우에는 위의 주제들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것만을 모은 것으로, 사적비, 기적비, 유허비, 중건비, 단비, 승탑, 불교금동구, 하마비, 암각문 등이 해당된다. 불교유적을 기타 금석문에 포함시킨 이유는 다른 금석문에 비해 불교 금석문은 그동안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중심주제로 다루지 않기 위해서이다. 또한 태안사에 있는 2기의 탑비는 조선시대 이전의 금석문이지만,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기 힘들어서 본서에 포함시켰다.


기록방법은 면별로, 마을별로 정리를 하되, 가나다순으로 순서를 정하였으며, 기타 금석문의 경우 주제별로 묶어 정리를 하였다. 금석문의 명칭은 ‘면명+리명+이름+분류명’으로 하였고, 이름의 경우에는 ‘한글명(한자명)’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정명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노력하였다. 어떤 기관에서는 비석 앞면에 새겨진 대로 금석문 명칭을 정한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명칭만 보고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본원에서는 금석문 내용에서 모두 이름을 찾아 명칭 속에 넣음으로써 금석문 명칭만 보고도 누구를 위한 비인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수록 내용은 해설문에 앞서 ‘주소-제작연대-크기’ 및 문화유산 지정여부를 표시하였다. 주소는 찾아보기 쉽도록 현재 도로명 주소가 아닌 마을명 주소를 사용하였다. 금석문을 조사할 때는 카카오맵을 많이 활용하였는데,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카카오맵 3D 스카이뷰로 볼 수 있어서 금석문 조사에 매우 유용하였다. 이 책자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제작연대를 표기할 때는 서기년도를 우선으로 하고 괄호안에 비문에 적힌 연호나 간지를 적었다. 많은 금석문이 제작연대를 적지 않았는데 그럴 때는 ‘미상’이라고 적고 괄호안에 추정연대를 넣었다. 비석의 크기는 대체로 전체 높이, 비신 높이, 비신 너비, 비신 두께 등을 재어서 표기하였는데, 너무 세부적인 면은 생략하여 단순 명료하게 하는 데 집중했다.

다음으로 해당 금석문에 대한 해설문을 적었는데, 먼저 위치를 설명하고, 생김새를 설명했으며, 다음으로 비문의 찬자와 서자 등을 적고, 이어서 비석 주체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위치에 대한 설명은 누구나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묘비의 경우 대개 산 주소로 나오고 있어서 그 주소만 가지고는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글이 필요하다. 비석의 구성은 대체로 비석 받침대인 기대석과 비석 몸체인 비신, 그리고 비석 머리부분인 비수 등 3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의 생김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사진이 없더라도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문의 찬자(撰者)는 대체로 잘 알려진 사람이 짓는데, 그러다보니 문집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는 문집에 실린 글과 비문의 글을 대조하여서 다른 점을 밝혔다. 그렇지만 1910년 이전 금석문은 문집에 실린 글과 비문에 새겨진 글이 한두 자의 출입만 있을 뿐 내용은 거의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곡성 금석문의 경우 찬자는 많지 않으니, 김종한 1, 정의림 2, 이희인 1, 신태준 1, 최익현 2, 류요영 1, 기우만 3, 기정진 1, 정해창 1, 이재극 1, 곽종석 1, 정봉현 2, 정석 1, 조종필 1, 심영석 1, 홍진연 1, 윤정진 1, 신응조 1, 이서구 1, 정진묵 1, 심건택 1, 신기선 1, 송병순 1, 서기보 1, 신현 1 등이 있을 뿐이다. 기우만이 3편으로 가장 많이 남아있고, 다음으로 최익현과 정봉현이 2편씩 남아있다.

비석의 원문에 대한 입력은 비문 그대로 옮겨적되, 깨지거나 마멸된 부분은 ‘’로 표시를 하였다. 비문이나 현판은 오래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마멸되거나 깨진 경우도 많았다. 그리하여 원문을 모두 판독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었다. 기존에 파악된 원문에도 오류가 많이 나와서 이러한 것도 최대한 바로잡았다.

해설문의 끝에는 비문의 행수와 자수도 적었는데, 4면의 행수를 모두 적고, 자수는 기본이 되는 줄의 글자 수를 적어서 원래 비석에 새겨진 행수와 한 줄당 쓰인 글자 수를 대략 알 수 있도록 했다.

비석은 원래 세로로 쓰여있지만, 이것을 가로쓰기로 하고 또한 A4용지에 작성하기 때문에 길이가 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줄바꿈이 일어나기 때문에 행수와 자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전]의 경우에는 행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비석에 쓰인 글씨는 대체로 해서체로 쓰이긴 했지만, 조선체를 쓰거나 이체자를 쓰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모두 정체자나 본체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원문 아래에는 번역문을 실었는데, 누구나 금석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또 본 자료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비면에 한두 줄의 제목만을 쓴 경우에는 번역을 생략하였다. 이밖에도 해당 금석문의 사진을 실었는데, 지면 관계상 주로 앞면만을 신도록 하였고, 중요 비석의 경우 뒷면이나 전체화면을 싣기도 했다. 4면을 모두 실으면 좋겠지만 공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앞면만 싣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지금까지 조사한 금석문을 보면 대상은 대부분 ‘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비석은 대체로 ‘대석(臺石)-비신(碑身)-개석(蓋石)’으로 이루어진다. 비석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대석(臺石)은 비좌(碑座)는 또는 대좌(臺座)라고 부르며, 비석의 몸체로서 글씨를 새기는 공간은 비신(碑身)이라 부르고, 비신 위에 얹는 돌을 개석(蓋石)이라 부른다. 대석은 대체로 사각형의 받침돌인 방부형(方趺形)이 많고, 가끔 거북이 형상을 한 받침돌인 귀부형(龜趺形)인 것도 있는데, 대개는 불교 사찰에 있는 탑비나 사적비, 그리고 유교 유적 중 신도비의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비신의 경우에는 돌의 재질에 따라 오래가기도 하고 금방 풍화되기도 하니, 이에 따라 금석문의 판독도 용이하거나 난해하게 된다. 개석은 머릿돌을 비신 위에 얹는 것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붕모양을 한 가첨석이 많고, 이밖에 용(이무기)의 형상을 조각한 이수(螭首)가 있다. 그러나 개석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비신의 머리 부분을 뜻하는 비수(碑首)의 모양에 따라 방형(方形), 원수형(圓首形), 규수형(圭首形) 등으로 구분한다. 비석 머리부분이 반듯하게 깎여있으면 방형이라 하고, 둥그스름하면 원수형 또는 호패형(上圓下方)이라고 하며, 양쪽 귀퉁이를 귀접이식으로 각지게 깎아내면 규수형이라고도 부른다. 또한 비신과 한몸인 비석 머리 부분을 조각하여 장식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문양에 따라 하엽수(荷葉首), 운수(雲首), 이수(螭首)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엽수는 연잎의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고, 운수는 구름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며, 이수는 이무기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금석문 조사는 주로 불교계 유적과 관련된 것이 많았고, 그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금석문에 치중했던 편이다. 그와 상대적으로 유교관련 금석문이 대부분인 호남의 금석문은 체계적인 조사가 아닌 산발적인 조사만 있었고, 연구도 거의 심화되지 못했다. 본 조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해소되리라 보는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으니, 돌의 재질에 대해 구분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판독장비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금석문 대상 인물에 대한 고증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다. 특히 묘비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읍지의 총묘 조에 나오는 내용만으로는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조사연구원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최대한 노력하여 찾는 것으로 한정된 점이 아쉽다. 조사와 연구가 집적되다보면 이러한 문제점도 점차 해결되리라 본다.

2. 곡성의 금석문 현황

1) 곡성의 금석문 현황

곡성지역 금석문은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누락된 곳도 많아서 그동안 꾸준히 보충조사를 실시하여 이제야 자료집으로 간행해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본서에서는 1910년까지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였지만, 이후 1980년까지 제작된 것이 많다. 1910년까지 제작된 것이 141건, 1911년부터 1980년까지 제작된 것이 274건으로 모두 415건이 조사되었다. 이밖에 1981년부터 1999년까지 제작된 것이 모두 67기로, 겸면 2, 곡성읍 16, 목사동 1, 삼기 8, 석곡 4, 오곡 4, 오산 1, 옥과 23, 입면 12, 죽곡 14개 등이 있고, 2000년 이후에 제작된 것도 18개가 더 조사되었다. 1980년까지 조사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곡성 금석문 조사 통계표

분류\연도	겸면	고달	곡성읍	목사동	삼기	석곡	오곡	오산	옥과	입면	죽곡	총계	도합	
신도비	1910	0	0	0	0	0	0	0	0	0	0	0	2	
	1980	0	0	0	0	0	1	1	0	0	0	2		
송덕비	1910	0	2	15	5	2	11	4	5	25	1	7	77	150
	1980	7	6	7	5	12	13	1	1	3	8	10	73	
묘비	1910	0	9	0	3	0	8	2	2	0	4	0	28	69
	1980	1	8	1	7	5	5	8	4	1	1	1	42	
충효열	1910	3	0	2	1	2	1	1	2	2	2	2	18	107
	1980	10	10	13	10	10	5	12	0	4	4	9	89	
기타	1910	1	1	5	1	0	0	3	0	0	1	6	18	88
	1980	2	6	13	6	4	12	10	3	1	3	9	70	

총계	1910	4	12	22	10	4	20	10	9	27	8	15	141	415
	1980	20	30	35	28	31	36	32	8	9	16	29	274	
총합		24	42	57	38	35	56	42	17	36	24	44	415	

곡성의 금석문에서 신도비는 1기도 조사되지 않았고, 송덕비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을 볼 수 있다. 송덕비는 1910년까지 제작된 것이 77기, 이후 1980년까지 제작된 것이 73기, 도합 150기나 된다. 송덕비 중 수령의 선정비는 51기로, 곡성 19기, 옥과 31기, 고달 1기가 있다. 곡성군은 곡성현과 옥과현의 두 고을과 남원부에 소속되어 있던 고달면을 합하여 이루어진 곳이다. 그래서 송덕비도 크게 곡성현의 송덕비와 옥과현의 송덕비, 그리고 고달면의 송덕비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옥과현감 선정비는 27기, 곡성현감 선정비는 14기, 관찰사 7기, 어사 1기, 기타(남원부사, 태안군수) 2기로 나눌 수 있다. 비석을 주로 언제 세웠는지를 살펴보니, 재임 중에 세운 것이 6기, 떠난 후 한참 뒤에 세운 것이 2기이고, 나머지는 대체로 떠난 후에 바로 세웠음을 볼 수 있다. 곡성현 지역의 송덕비는 대부분 곡성향교와 석곡면소재지에 집중되어 있고, 옥과현 송덕비는 옥과 객사터와 옥과향교 및 오산면사무소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곡성지역 송덕비는 수령이 아닌 아전이나 일반 지역유지의 행적을 칭송한 시혜비나 불망비가 유독 많아서 26기나 된다.

곡성지역 선정비 중 건립연대가 가장 오래된 것은 1564년에 죽곡면 당동리에 세워진 남궁침·소해의 설창선정비이다. 다음으로 1637년경으로 추정되는 옥과현감 이흥발, 1648년 옥과현감 문익준, 1654년 옥과현감 신득홍·신훈, 1697년 관찰사 김만길의 선정비가 있다.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시기별 송덕비 건립 갯수

지역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1980)
곡성군	1	5	6	47	15+73

즉 곡성지역의 송덕비는 1기만 빼고 모두 임진왜란 이후에 세워진 것들이다. 송덕비의 형태는 장방형 비신 위에 가첨석을 얹은 형태가 가장 많아서 44기가 이에 해당되고, 개석이 없는 형태가 22기(6기는 방형, 16기는 원수형), 비수가 하엽수형인 것이 5기, 자연석 등 기타형식이 6기 등으로 구성된다. 즉 곡성에서는 가첨석을 갖춘 비를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묘비의 경우 27기가 조사되었는데, 고달면 9기와 석곡면 8기가 가장 많이 조사된 지역이고, 그밖

에 입면 4기, 목사동면 3기, 오산면 2기, 오곡면 1기가 조사되었다. 그런가 하면 곡성읍, 삼기면, 옥과면, 죽곡면은 1기도 보이지 않았다. 묘비는 모두 조사된 것이 아님을 밝히는데, 도로에서 보이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만 일부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비석의 형태는 가침석이 12기, 원수형 11기, 규수형 1기, 하엽수형 3기로 분류된다. 가장 많이 조사된 고달면과 석곡면의 비석을 비교해보면 그 형태의 유행을 알 수 있다.

표3. 고달면 대사리 소재의 묘비

			
고영호 묘표(1510)	김소석 묘표(1525)	순창조씨 묘표(1559)	김혜 묘표(1564)

표3. 석곡면 방송리 소재의 묘비

					
마천목 묘표 (1431년경)	정혜택주이씨 묘표	마승 묘표	덕수이씨 묘표	마중규 묘표	옥천설씨 묘표

위쪽 표에 보이는 4기의 비석은 모두 고달면 대사리에 있는 묘비로, 16세기에 세워진 것이고, 아래쪽 표에 보이는 6기의 비석은 모두 석곡면 방송리의 한 묘역에 있는 것으로, 15세기에 세워진 것이다. 고달면의 묘비들은 한마을에 있는 것으로, 두 집안인 고영호의 묘역과 김소석의 묘역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김소석(金召奭)-순창조씨-김혜(金諱)) 이 묘비에는 모두 제작연도를 표기한 것이 특징이다.

석곡면의 묘비들은 곡성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마천목(馬天牧, 1358~1431) 부부, 그의 아들 마

승 부부, 그리고 손자 마중규 부부의 묘비이다. 마천목 부부묘와 마승 부부묘가 한 곳에 있고, 같은 언덕이긴 하지만 이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마중규 부부묘가 자리한다.(마천목·정혜택주이씨·마승·덕수이씨·마중규·옥천설씨) 마천목 집안 묘비에는 모두 제작연대가 표시되지 않았다.

곡성군 두 지역의 묘비를 비교해보면 하엽수형 묘비는 고달면에 집중되어 있고, 원수형 묘비는 석곡면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앞서도 말했지만 고달면 지역은 1914년 이전까지는 남 원부에 속했었다.

한편 곡성의 충효열비는 검면 3기, 곡성읍 2기, 목사동 1기, 삼기 2기, 석곡 1기, 오곡 1기, 오산 2기, 옥곡 2기, 입면 2기, 죽곡 2기 등 모두 18기가 조사되었는데, 1910년 이후부터 1980년 사이에 제작된 것은 모두 89기나 되어 송덕비 다음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충효열비는 몇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사진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곡성의 충효열비 제 형태

			
①허정량 정려비	②효자조유검·열녀문경송씨 정려각	③안동김씨 이세사효(二世四孝) 정려문	④안효천 정려각비

우선 곡성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정려비의 형태는 ①과 같이 석조 기둥을 양쪽에 세우고 그 사이에 네모난 석판을 끼운 후 위에 가침석을 얹은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정려비는 허정량(許廷亮) 정려비, 배정식(裴正植)·배현(裴暉) 정려비, 김태광(金兌光) 정려비, 김태명(金兌明) 정려비, 김노숙(金魯淑) 정려비, 허서(許瑞) 정려비, 김몽애(金夢愛) 처 김해김씨(金海金氏) 정려비, 함풍이씨(咸豐李氏) 효열비, 그리고 형태가 조금 변형된 김창옥(金昌玉) 정려비 등 9기나 된다. 다음으로 ②와 같은 정려각 형태는 건물 속에 현판만 걸려 있거나 비석이 있어도 후대에 세워진 경우로, 효자조유검(趙有儉)·열녀문경송씨(閔慶宋氏) 정려각, 안사백(安師佰) 정려각, 류팽로(柳彭老) 정려각, 박언배(朴堰培)·완산이씨(完山李氏) 충렬문, 진주강씨(晉州姜氏) 효열복호문, 신흥구(申泓求) 정려각 등 6기가 있다. ③과 같은 형태는 건물이긴 한데 지붕만 있는 문의 형태로 되어 있고 처마에 현

판이 걸려 있는 형태로, 안동김씨 이세사효(二世四孝) 정려문이 있다. ④와 같은 형태는 정려각 속에 비석이 들어있는 형태로, 류연(柳演) 정려각비, 안효천(安孝天) 정려각비가 있다.

기타 금석문은 유허비, 기적비, 단비, 불교 승탑 및 금동구, 표지석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곡성의 금석문은 18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허비나 단비 등은 곡성의 역사인물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곡성에는 전통사찰이 2곳이나 있어서 불교관련 유산도 많은 편이니, 모두 8건이나 된다.

3. 금석문의 지역적 특징

금석문의 형태 중 곡성지역에는 특이하게 정려비 중에서 석조 기둥을 양쪽에 세우고 그 사이에 네모난 석판을 끼운 후 위에 가침석을 얹은 형태의 정려비가 많다. 왜 유독 곡성지역에만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언제부터 이런 형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가를 보면, 가장 이른 것이 옥과 김몽애 처 김해김씨 정려비로 건립연대가 1824년이다. 나머지도 모두 19세기에 나타난 형태이다. 아마도 비용이 적게 들면서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다보니 이런 형태를 얻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곡성에는 국보와 보물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죽곡 태안사와 곡성 도림사 등 불교사찰에서이다. 태안사는 나말여초의 구산선문 중 하나로, 국보 1건과 보물 4건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가 즐비하다. 적인선사(寂忍禪師) 탑비는 깨지고 부서져서 새롭게 건립했고, 적인선사 조륜청정탑은 최근에 국보로 승격되었다. 광자대사(廣慈大師) 탑비는 귀부와 이수가 온전하고 옆에 비신 일부도 남아있어서 광자대사탑과 함께 일찌감치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밖에도 동종과 청동대바라도 보물로 지정된 문화유산이고, 금고는 최근에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런가하면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세웠다고 전하는 도림사에도 보물과 유형문화유산이 많이 있는데, 금석문 조사대상에 들어간 동종과 3기의 승탑은 아직 문화유산 목록에 올라 있지 않은 형편이다.

곡성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것은 송덕비이다. 그런데 곡성지역 송덕비 중에는 관찰사나 현감을 기린 선정비가 아닌, 향리나 지역유지의 선행을 기린 시혜비나 불망비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것만 가려보면 다음과 같다.

표5. 곡성군 송덕비 중 수령의 선정비가 아닌 경우

번호	면명	마을명	대상자	비석명	인물구분	건립연대
1	고달면	뇌죽리	노영수(盧永壽)	시혜비	지역유지	1890
2	곡성읍	교촌리	정일택(丁日宅)	유혜비	아전	1907
3			정일택(丁日宅)	영세불망비	아전	1907
4		구원리	정일우(丁日宇)	시혜불망비	아전	1907
5		장선리	류한모(柳漢模)	유혜비		1882
6	목사동면	공북리	정일우(丁日宇)	유혜불망비	아전	1907
7		대곡리	이상악(李尙岳)	유혜비		미상
8		신기리	서양권(徐良權)	영세불망비		1876
9		죽정리	이익원(李益源)	향약창시비		1886
10		평리	류집(柳集)	향약유혜비		1886
11	삼기면	원등리	정일택(丁日宅)	불망비	아전	1907
12			정기로(鄭基老)	권학비		1885
13	석곡면	석곡리	신중(申樞)	영세불망비	아전	1908
14			신윤조(申潤祚)	유혜불망비	아전	1903
15			정기두(丁箕斗)	유혜비	아전	1890
16		온수리	이성석(李聖錫)	유혜불망비		1703
17		죽산리	최홍민(崔弘岷)	유혜비		1883
18	오곡면	명산리	오치윤(吳致潤)	유혜비		1908
19		승법리	신윤조(申潤祚)	시혜비	아전	1886
20		오지리	안제원(安濟遠)	영사비	지역유지	1873
21	죽곡면	동계리	이기의(李其義)	영영불망비		1876?
22			이종익(李鐘翊)	애홀불망비1		1909
23			이종익(李鐘翊)	애홀불망비2		1909
24		신평리	김병수(金秉洙)	유혜불망비		1910
25		용정리	정일택(丁日宅)	시혜비	아전	1909
26		원달리	신석지(申錫祉)	유세불망비	아전	1910

위에 든 일곱 면중 한 면만 빼고는 예전에 모두 곡성현에 속했던 지역이다. 위 26건 중에서 아전이 행한 선행을 칭송한 것이 9기로 가장 많은데, 정(丁)씨와 신(申)씨가 곡성의 대표 향리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향리에 속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겠고, 다만 지역유지였음

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또한 위 27건 중 향약 실시와 관련된 비가 많은 것도 큰 특징인데, 모두 6건이 해당된다. 그 인물로는 류한모, 이익원, 류집, 최홍민, 오치윤, 안제원 등을 들 수 있다. 향약을 시행한 안제원 영사비는 1873년에, 향약을 설치한 류한모의 유혜비는 1882년에, 향약장을 오래도록 맡아 덕을 베푼 최홍민의 유혜비는 1883년에, 향약을 창시한 이익원과 류집의 향약비는 1886년에, 향약을 증창한 오치윤의 유혜비는 1908년에 세워졌다.

위 향약 관련 비는 기타 금석문으로 분류한 곡성 향약비문과도 관련이 깊다. 향약비문(鄉約碑文)은 곡성향교 내의 비석군 중에서 있는 것으로, 1862년에 현감 서기보(徐箕輔)가 비문을 지은 것이다. 향약을 시행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향약전을 두었음을 알 수 있는데, 오곡면의 오지리, 송정리, 봉조리 일대에 전답 19두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곡성의 이곳 저곳에서 다시 향약이 부흥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비록 금석문은 아니지만 곡성에 향안(鄉案)이 잘 남아있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으니, 곡성향안은 1604년 향안부터 시작하여 1837년에 작성한 향안까지가 곡성향교와 전북대 박물관에 나뉘어져 보관되어 있다.

4. 문화유산 지정의 필요성

어느 나라이건 어느 지역이건 문화의 저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지표는 문화유산 지정건수라고 할 수 있다. 곡성지역의 금석문 중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다음과 같다.

유평로 정렬각, 박언배·완산이씨 충렬문, 서산사 동종, 태안사 동종,
태안사 금고, 태안사 청동대바라, 태안사 광자대사탑비

곡성군의 경우 유교유적이 2건, 불교유적이 5건 지정되었을 뿐이다. 즉 금석문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7건뿐인 것이다. 앞으로 중요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하여 보호하고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곡성 지역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라 생각된다.

문화유산 지정이 우선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들어보면, 유교유적은 2건의 정려각만 되어있는데, 곡성은 효녀 심청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효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실상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효에 관련한 비석이나 정려각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적이 아직 없다. 곡성의 충효 열비로 조사한 18건 중 3건을 제외한 15건이 모두 효와 관련된 정려비이다. 곡성이 효녀 심청의 고장이란 것이 무색하지 않도록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보다 한발자국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규모로 효행을 표창하는 일 등을 시행해간다면 당연히 1등 효의 고장이 될 것이다.

또한 곡성은 오래된 묘비가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비석으로 보이는 마천목 묘비와 그 일가족 묘비, 그리고 제작연도가 확실한 고영호 묘비와 그 손자 묘비 등도 문화유산의 지정과 보존의 노력이 필요하다. 곡성 출신의 훌륭한 인물을 비석과 함께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면 훨씬 생생한 문화유산 설명이 되리라 생각한다. 지역 인물을 발굴하고 선양하는 일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풍부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차 례

I. 송덕비

1. 고달면 뇌죽리 노영수(盧永壽) 유혜비	27
2. 고달면 뇌죽리 구연익(具然翼) 선정비	29
3. 곡성읍 교촌리 이서구(李書九) 영세불망비	30
4. 곡성읍 교촌리 이호준(李鎬俊) 인화선정비	31
5. 곡성읍 교촌리 김만길(金萬吉) 영세불망비	33
6. 곡성읍 교촌리 박희순(朴希淳) 청덕선정비	35
7. 곡성읍 교촌리 어재윤(魚在潤) 청덕선정비	36
8. 곡성읍 교촌리 신석주(申錫疇) 청백선정비	37
9. 곡성읍 교촌리 이희하(李熙夏) 홀민불망비	38
10. 곡성읍 교촌리 송상희(宋祥熙) 영세불망비	40
11. 곡성읍 교촌리 정진묵(鄭晉默) 청덕선정비	42
12. 곡성읍 교촌리 조학점(趙學點) 영세불망비	43
13. 곡성읍 교촌리 심문영(沈文永) 거사대	44
14. 곡성읍 교촌리 정일택(丁日宅) 영세불망비	45
15. 곡성읍 교촌리 정일택(丁日宅) 유혜비	48
16. 곡성읍 구원리 정일우(丁日宇) 시혜불망비	51
17. 곡성읍 장선리 류한모(柳漢模) 유혜비	53
18. 목사동면 공북리 정일우(丁日宇) 유혜불망비	55
19. 목사동면 대곡리 이상악(李尙岳) 유혜비	57

20. 목사동면 신기리 서양권(徐良權) 영세불망비	59
21. 목사동면 죽정리 이익원(李益源) 향약창시비	61
22. 목사동면 평리 류집(柳漣) 향약유혜비	63
23. 삼기면 원등리 정기로(鄭基老) 권학비	64
24. 삼기면 원등리 정일택(丁日宅) 불망비	66
25. 석곡면 석곡리 신종(申縱) 영세불망비	68
26. 석곡면 석곡리 김진현(金鎭賢) 선정비	71
27. 석곡면 석곡리 신윤조(申潤祚) 유혜불망비	73
28. 석곡면 석곡리 정진묵(鄭晉默) 영세불망비	74
29. 석곡면 석곡리 어재윤(魚在潤) 유혜불망비	75
30. 석곡면 석곡리 이면상(李冕相) 영세불망비	76
31. 석곡면 석곡리 정기두(丁箕斗) 유혜비	77
32. 석곡면 석곡리 조장교(趙章教) 영세불망비	78
33. 석곡면 연반리 윤세영(尹世英) 유혜비	80
34. 석곡면 온수리 이성석(李聖錫) 유혜불망비	82
35. 석곡면 죽산리 최홍민(崔弘岷) 유혜비	84
36. 옥곡면 명산리 오치윤(吳致潤) 유혜비	87
37. 옥곡면 승법리 신윤조(申潤祚) 시혜비	89
38. 옥곡면 오지리 안제원(安濟遠) 영사비	92
39. 옥곡면 오지리 이조식(李祖植) 흥학불망비	94
40. 오산면 봉동리 홍정주(洪鼎周) 영세불망비	95
41. 오산면 봉동리 민철호(閔喆鎬) 영사비	96
42. 오산면 봉동리 이현영(李顯永) 애홀비	97
43. 오산면 봉동리 임홍준(任弘準) 영사비	98
44. 오산면 청단리 정화석(鄭華錫) 영세불망비	100
45. 옥과면 옥과리 조인영(趙寅永) 불망비	101
46. 옥과면 옥과리 서기순(徐箕淳) 영사비	102
47. 옥과면 옥과리 이유원(李裕元) 영사비	103
48. 옥과면 옥과리 이돈상(李敦相) 불망비	105

49. 옥과면 옥과리 신혼(申混) 청덕선정비	106
50. 옥과면 옥과리 이동직(李東稷) 선정비	107
51. 옥과면 옥과리 이규헌(李奎憲) 영세불망비	108
52. 옥과면 옥과리 홍희철(洪羲喆) 거사비	110
53. 옥과면 옥과리 홍진연(洪晉淵) 거사비	111
54. 옥과면 옥과리 최원(崔瑗) 영사비	112
55. 옥과면 옥과리 정세창(鄭世昌) 영사비	113
56. 옥과면 옥과리 윤희선(尹會善) 선정비	114
57. 옥과면 옥과리 정화석(鄭華錫) 영사비	115
58. 옥과면 옥과리 정화석(鄭華錫) 흠민영사비	116
59. 옥과면 옥과리 김도근(金度根) 영사비	117
60. 옥과면 옥과리 박제만(朴齊萬) 영사비	118
61. 옥과면 옥과리 민철호(閔哲鎬) 영사비	119
62. 옥과면 옥과리 문익준(文益駿) 선정비	120
63. 옥과면 옥과리 신득홍(申得洪) 청덕선정비	121
64. 옥과면 옥과리 신이정(愼爾定) 거사비	122
65. 옥과면 옥과리 이흥발(李興浚) 흥학비	123
66. 옥과면 옥과리 신익(申儺) 흥학비	124
67. 옥과면 옥과리 이종휘(李種徽) 흥학비	126
68. 옥과면 옥과리 최원(崔瑗) 흥학비	128
69. 옥과면 옥과리 윤희선(尹會善) 흥학비	130
70. 입면 입석리 신익(申儺) 선정비	131
71. 죽곡면 당동리 남궁침(南宮枕)·소해(蘇邂) 설창선정비	132
72. 죽곡면 동계리 이기의(李其義) 영영불망비	135
73. 죽곡면 동계리 이종익(李鐘翊) 애홀불망비 1	137
74. 죽곡면 동계리 이종익(李鐘翊) 애홀불망비 2	139
75. 죽곡면 신평리 김병수(金秉洙) 유혜불망비	141
76. 죽곡면 용정리 정일택(丁日宅) 시혜비	144
77. 죽곡면 원달리 신석지(申錫祉) 유세불망비	146

II. 묘 비

1. 고달면 뇌죽리 류기수(柳期壽) 묘갈명	151
2. 고달면 뇌죽리 순창조씨(淳昌趙氏) 묘표	155
3. 고달면 뇌죽리 류충수(柳忠壽) 묘표	156
4. 고달면 뇌죽리 류헌(柳憲) 묘갈명	159
5. 고달면 대사리 고영호(高永豪) 묘표	163
6. 고달면 대사리 고득뢰(高得賚) 의리장비	164
7. 고달면 대사리 김소석(金召奭) 묘표	170
8. 고달면 대사리 순창조씨(淳昌趙氏) 묘표	172
9. 고달면 대사리 김혜(金諱) 묘표	174
10. 목사동면 대곡리 하동정씨(河東鄭氏) 묘갈명	176
11. 목사동면 대곡리 이기돈(李基墩) 묘갈명	179
12. 목사동면 대곡리 이명두(李明斗) 묘상석	182
13. 석곡면 방송리 마천목(馬天牧) 묘표 1	183
14. 석곡면 방송리 마천목(馬天牧) 묘표 2	185
15. 석곡면 방송리 정혜택주이씨(定惠宅主李氏) 묘표	186
16. 석곡면 방송리 마승(馬勝) 묘표	187
17. 석곡면 방송리 덕수이씨(德水李氏) 묘표	188
18. 석곡면 방송리 마중규(馬仲規) 묘표	189
19. 석곡면 방송리 옥천설씨(玉川薛氏) 묘표	190
20. 석곡면 연반리 이성(李城) 묘표	191
21. 오곡면 구성리 류담(柳潭) 묘표	192
22. 오곡면 오지리 안제원(安濟遠) 묘갈명	193
23. 오산면 청단리 이몽득(李夢得) 묘표	198
24. 오산면 청단리 김재봉(金在琫) 묘표	199
25. 입면 삼오리 박상화(朴尙華) 묘표	201
26. 입면 약천리 양녀안씨(良女安氏) 묘표	202
27. 입면 제월리 심광형(沈光亨) 묘표	203
28. 입면 제월리 심기(沈錡) 묘표	204

III. 충효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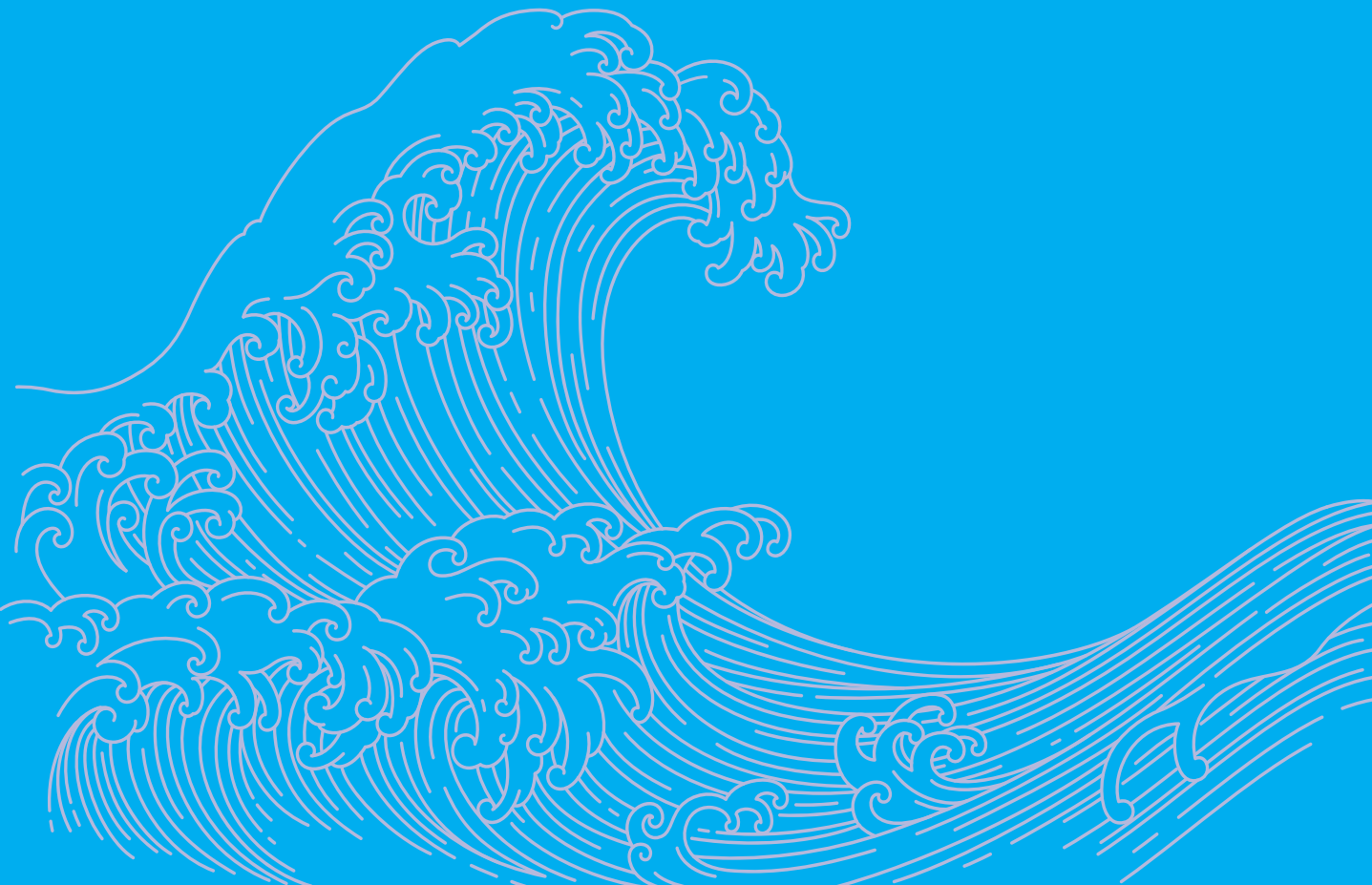
1. 겸면 남양리 허정량(許廷亮) 정려비	207
2. 겸면 상덕리 김창옥(金昌玉) 정려비	209
3. 겸면 운교리 배정식(裴正植)·배현(裴暉) 정려비	212
4. 곡성읍 동산리 효자조유검(趙有儉)·열녀문경송씨(閔慶宋氏) 정려각	214
5. 곡성읍 죽동리 안동김씨이세사효(安東金氏二世四孝) 정려문	220
6. 목사동면 평리 류연(柳演) 정려각비	222
7. 삼기면 의암리 김태광(金兌光) 정려비	226
8. 삼기면 의암리 김태명(金兌明) 정려비	228
9. 석곡면 염곡리 안사백(安師佰) 정려각	229
10. 오곡면 오지리 효자 안효천(安孝天) 정려각비	233
11. 오산면 가곡리 김노숙(金魯淑) 정려비	237
12. 오산면 연화리 허서(許瑞) 정려비	239
13. 옥과면 죽림리 김몽애(金夢愛) 처 김해김씨(金海金氏) 정려비	241
14. 옥과면 합강리 류팽로(柳彭老) 정렬각	243
15. 입면 삼오리 박언배(朴堰培)·완산이씨(完山李氏) 충렬문	252
16. 입면 약천리 함풍이씨(咸豐李氏) 효열비	262
17. 죽곡면 동계리 진주강씨(晉州姜氏) 효열복호문	264
18. 죽곡면 태평리 신흥구(申泓求) 정려각	266

IV. 기타 금석문

1. 고달면 고달리 심희(沈澹) 유허비	271
2. 목사동면 구룡리 신승겸(申崇謙) 유허비	275
3. 입면 제월리 심씨4선생(沈氏四先生) 조두유허비	280
4. 곡성읍 교촌리 향약비문(鄉約碑文)	284
5. 오곡면 덕산리 덕양서원(德陽書院) 기적비	287
6. 오곡면 오지리 남주(南耆) 원지봉단비	291
7. 오곡면 오지리 이경(李敬) 원지봉단비	293
8. 곡성읍 교촌리 서산사(西山寺) 동종	295

9. 곡성읍 월봉리 도림사(道林寺) 동종	297
10. 곡성읍 월봉리 도림사(道林寺) 승탑	299
11.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泰安寺) 동종	300
12.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泰安寺) 금고	302
13.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 청동대바라	303
14.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 적인선사(寂忍禪師) 탑비	305
15.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 광자대사(廣慈大師) 탑비	311
16. 겸면 괴정리 정장령(鄭掌令) 하마비	321
17. 곡성읍 동산리 운강정(雲江亭) 표석	322
18. 죽곡면 동계리 봉황대(鳳凰臺) 표석	323
색인	325

1. 송덕비



1. 고달면 뇌죽리 노영수(盧永壽) 유혜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528-2 • 제작연대 1890년(柔兆攝提格=丙寅)
- 크 기 전체높이 185, 비신높이 114, 너비 43, 두께 19

1890년에 세운 노영수(盧永壽)의 유혜비는 고달면 소재지에서 대사리 가는 길로 가다가 죽림마을 앞 고달교회 서쪽 길가에 세워진 4개의 비석군 중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것이다. 비는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가첨석을 올렸다. 비석 아랫면의 박락이 심하다. 노영수는 고종 27년(1890) 6월 25일 승정원일기에 감찰(監察)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비를 세운 시기는 1890년 1월인데 1890년 6월 이전에도 노영수가 감찰을 지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비문을 지은 사람은 김종한(金宗漢, 1844~1932)이고, 글씨는 신현태(申鉉台)가 썼다. 글씨를 쓴 사람은 가운데 글자가 박락되었지만, 1925년(乙丑)에 쓴 <석곡면 구봉리 장수황씨(長水黃氏) 효열비>를 참조하면 신현태임을 알 수 있다. 즉 장수황씨 효열비는 김종한(金宗漢)이 짓고, 글씨는 신현태(申鉉台)가 쓴 것이다. 비문은 16행 26자이다.

【전면】

監察盧公永壽遺惠碑

【좌면】

道湖南來者津津道愛人以德至如谷城古達之鄉監察盧公也肇有而知無幾焉聞之不覺起敬興嗟也公諱永壽字汝華號星坡系出豐川清白吏松齋諱叔全享道谷院弘窩諱士豫其十世以上

【후면】

也生而岐嶷性又仁厚爲隣里者服其德爲僕乏猶恐不及族戚知舊多賴以活廩儲不贍尙者焚其券逋租者流年緩收收亦平其斗澤及人之德足爲一鄉矜式鄉人士詢謀僉同將立石頌今之滄俗超然不羣惟公一人是已窮餓以道薦有天秩之褒公能趾其三世一德纘乃舊服者乎吁其盛矣頌之二五紛糅小醇多醜公于何稟獨得仁無忝世德可知

【우면】

柔兆攝提格元月上弦
崇祿大夫行禮曹判書原任 奎章閣提學安東金宗漢撰
通訓大夫軍部員外郎平山申台書

2. 고달면 뇌죽리 구연익(具然翼) 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528-2 • 제작연대 미상(1881년 추정)
- 크 기 전체높이 110, 비신높이 70, 너비 39, 두께 10.5

1881년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연익(具然翼)의 선정비는 죽림마을 앞 고달교회 서쪽 길가에 서있는 4개의 비석군 중 왼쪽에서 두 번째(노영수 유혜비 왼쪽) 것이다. 비좌는 흙에 묻혔고 비신 위에 가침석을 올렸다. 비석 재질은 여느 비석에서 보기 힘든 돌이다. 정면의 표제 외에 좌측·후·우측면에 아무런 글씨가 없다. 구연익은 1880~1881년에 남원부사를 역임하였다. 곡성군 고달면은 원래 남원부 고달방에 속했던 지역으로, 1914년에 곡성군 고달면이 되었다. 비문은 1행 11자이다.

【전면】

府使具侯然翼清德善政碑

3. 곡성읍 교촌리 이서구(李書九)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94(곡성향교) • 제작연대 미상(1795년경 또는 1822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60, 비신높이 141, 너비 51, 두께 26

이서구(李書九) 영세불망비는 곡성향교 내 명륜당(明倫堂)의 향우측 빈터에 세운 13기의 비석 중 향좌측에서 첫 번째에 자리한다. 비좌는 땅속에 묻혀 있어 자세히 알기 어려우나 장방형의 비좌로 추정되며 그 위에 비신을 꽃아 연결하고 그 위에 팔작지붕 모양의 가첨석을 올렸다. 이서구(李書九, 1754~1825)의 자는 낙서(洛瑞), 호는 척재(惕齋)·강산(薑山)·소완정(素玩亭)·석모산인(席帽山人),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아버지는 이원(李遠)이며, 어머니는 평산신씨(平山申氏) 부사 신사관(申思觀)의 딸이다. 이덕무 등과 함께 『한객진연집(韓客巾衍集)』에 참가함으로써 사가시인(四家詩人, 이서구·이덕무·박제가·유득공) 또는 실학사대가(實學四大家)라는 칭호를 얻게 됐다. 이서구는 전라도 관찰사를 두 차례 재임하였다.(1793.8~1795.4, 1820.10~1822.3) 문집으로 『척재집(惕齋集)』과 『강산초집(薑山初集)』이 전한다. 비문은 1행 14자이다.

【전면】 觀察使李相國諱書九永世不忘碑

4. 곡성읍 교촌리 이호준(李鎬俊) 인화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94(곡성향교) • 제작연대 1872년(壬申)
- 크 기 비신높이 129, 너비 59, 두께 21.5

곡성향교 명륜당(明倫堂) 곁의 비석군 가운데 향좌측 2번째에 자리한 이호준의 선정비이다. 비좌는 땅속에 묻혀있어 자세히 알기 어려우나 장방형의 비좌로 추정되며 그 위에 지붕 없이 방형의 비신만 꽃아 연결했다.

이호준(李鎬俊, 1821~1901)은 1870년 3월부터 1872년까지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면서 전라도 지방의 행정에 진력해 외침에 대비한 성의 보수(補修)와 군사훈련에 주력하였다. 1896년에는 품계가 정1품에 오르고 1898년 궁내부 특진관이 되었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비문은 6행 13자이다.

【전면】

自公宣化 弊矯田結

全省安措 澤洽軍布

觀察使李相公鎬俊仁化善政碑

遏謬糴簿 湖山千里

蠲歉民庫 輿望咸注

【우면】

壬申七月日

〈관찰사 이호준(李鎬俊) 인화선정비(仁化善政碑)〉

自公宣化	공이 교화를 베풀고부터,
全省安措	도내가 평안해졌으니,
弊矯田結	전결의 폐단을 바로잡았고,
澤洽軍布	군포의 은택을 베풀었다네.
遏謬糴簿	환곡 장부의 속임을 막고,
蠲歉民庫	민고가 축나는 것을 줄이니,
湖山千里	천리 호남의 백성들이,
輿望咸注	모두 공에게 기대를 걸었네.

1872년 7월에 세움

5. 곡성읍 교촌리 김만길(金萬吉)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94(곡성향교) • 제작연대 1697년(康熙三十六年)
- 크 기 전체높이 154, 비신높이 104.7, 너비 52, 두께 20.5

곡성향교 명륜당(明倫堂) 향우측 빈터에 세운 13기의 비석 가운데 향좌측 3번째에 자리한 김만길의 불망비로, 1697년에 세웠다. 비좌는 땅속에 묻힌 것으로 보이며, 하엽형 비수의 비신을 세웠다.

김만길(金萬吉, 1645~?)의 자는 자적(子迪), 본관은 광산(光山)으로, 김장생(金長生)의 증손이다. 할아버지는 김반(金槃)이고, 아버지 김익후(金益煦)와 어머니 심정화(沈廷和)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1695년 9월부터 1697년 2월까지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비문은 4행 13자이다.

【전면】

賑濟民生 清德昭著

觀察使金令公萬吉永世不忘碑

獎進儒業 仁化浹洽

【후면】

康熙三十六年四月日

〈관찰사(觀察使) 김만길(金萬吉)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비〉

賑濟民生 백성을 진휼하여 구제하고,
獎進儒業 유학을 장려하고 진흥했네.
清德昭著 맑은 덕이 환하게 드러나고,
仁化浹洽 어진 교화가 두루 퍼졌네.

강희(康熙) 36년(1697) 4월에 세움

6. 곡성읍 교촌리 박희순(朴希淳) 청덕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94(곡성향교) • 제작연대 미상(1861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49, 비신높이 112, 너비 46.5, 두께 14.2

1861년경에 세운 박희순(朴希淳) 청덕선정비는 향교 명륜당(明倫堂) 향우측 빈터에 세운 13기의 비석 가운데 향좌 5번째에 자리한다. 주변 비석 7개를 시멘트 대좌로 연결해 놓았다. 지붕돌은 팔작지붕 모양의 가첨석이다.

현감 박희순은 1859년부터 1861년까지 곡성 현감으로 재임(在任)했다. 비문은 1행 11자이다.

【전면】

縣監朴侯希淳清德善政碑

7. 곡성읍 교촌리 어재윤(魚在潤) 청덕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94(곡성향교) • 제작연대 1893년(光緒十九年癸巳)
- 크 기 전체높이 165, 비신높이 137, 너비 44.3, 두께 18.8

1893년 4월에 세운 어재윤(魚在潤)의 선정비는 곡성향교 명륜당(明倫堂) 곁의 비석군 중 향좌 6번째에 자리한다. 주변 비석 7개를 시멘트 대좌로 연결해 놓은 위에 비신을 꽂고 팔작지붕 모양의 가침석을 얹었다. 현감 어재윤은 곡성현감을 1892년부터 1894년까지 역임했다. 비문은 2행 11자이다.

【전면】

縣監魚侯在潤清德善政碑

【후면】

光緒十九年癸巳四月 日

8. 곡성읍 교촌리 신석주(申錫疇) 청백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94(곡성향교) • 제작연대 1851년(咸豐元年辛亥)
- 크 기 비신높이 143, 너비 62, 두께 17.5

1851년 12월에 세운 신석주(申錫疇)의 선정비이다. 곡성향교 비석군 중 향좌 7번째에 자리한다. 주변 비석 7개를 시멘트 대좌로 연결해 놓은 위에 지붕 없이 방형의 비신만 꽂았다. 현감 신석주는 곡성현감에 1849년부터 1851년까지 재임했다. 비문은 2행 11자이다.

【전면】

縣監申侯錫疇清白善政碑

咸豐元年辛亥十二月 日

9. 곡성읍 교촌리 이희하(李熙夏) 홀민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94(곡성향교) • 제작연대 1891년(光緒十七年辛卯)
- 크 기 비신높이 132, 너비 44.8, 두께 21.4

1891년 3월에 세운 이희하(李熙夏)의 불망비는 곡성향교 비석군 중에서 향좌 8번째에 자리한다. 주변 비석 7개를 시멘트 대좌로 연결해 놓은 위에 지붕 없는 방형의 비신을 꽂았다. 이 비석은 석곡면 염촌 마을에서 세운 것을 비석 후면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희하는 곡성현감에 1889년부터 1892년까지 재임했다. 비문은 9행 23자이다.

【전면】

捐廩除瘼 化合還珠

恩波海深 政孚却金

縣監李侯熙夏恤民救弊永世不忘碑

幽谷陽春 始蘇千載

【후면】

右救弊事非但昭載於本邑誌與本里完文中也又列銘于

後面正鐵百斤當站錢新延時轎子所入客舍鄉校兩

虹門永滅 石念村 立

光緒十七年辛卯三月 日

〈현감 이희하(李熙夏)의 백성을 구휼하고 폐단을 구제한 것을 영원히 잊지 못하는 비〉

捐廩除瘼	녹봉을 덜어 폐단을 없애니,
恩波海深	은혜의 물결이 바다처럼 깊네.
幽谷陽春	깊은 골짜기에 봄별이 비치는 듯하고,
旱郊甘霖	가물었던 교외에 단비 내리는 듯하네.
化舍還珠	교화는 구슬이 돌아온 일 ¹ 과 부합하고,
政孚却金	정사는 황금을 물리친 일 ² 과 동일하네.
始蘇千載	천 년 만에 비로소 소생하였으니,
德頌歌吟	덕을 칭송하며 노래하네.

이상의 폐단을 구제한 일은 다만 이곳 고을의 읍지(邑誌)와 이 마을의 완문에 분명히 실려 있는 분만이 아니다. 또 뒷면에 분명히 새기니, 정철(正鐵) 100근으로 역참의 돈을 대신하고, 새로운 수령을 맞이할 때 가마에 들어가는 비용과 객사와 향교의 무지개문 비용을 영원히 없앴다. 광서(光緒) 17년 신묘(1891) 3월에 석곡면 염촌에서 세우다.

1 구슬이 돌아온 일 : 후한(後漢) 사람 맹상(孟嘗)이 진주의 산지로 유명한 합포(合浦)의 태수로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자 남획으로 인해 고갈된 진주가 다시 돌아왔다.
 2 황금을 물리친 일 : 후한(後漢) 사람 양진(楊震)이 동래태수(東萊太守)로 부임하자 왕밀(王密)이 밤중에 양진을 찾아가서 황금 10근을 바쳤으나 양진은 거절하였다.

10. 곡성읍 교촌리 송상희(宋祥熙)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94(곡성향교) • 제작연대 미상(1903년경)
- 크 기 비신높이 159, 너비 49.5, 두께 19.5

곡성향교 비석군 중에서 향좌 9번째에 자리한 송상희(宋祥熙) 불망비이다. 주변 비석 7개를 시멘트 대좌로 연결해 놓은 위에 지붕 없이 방형의 비신만 꽃았다. 송상희는 곡성군수를 1902년부터 1903까지 역임했다. 비문은 3행 11자이다.

【전면】

賑荒捐俸 居官如家
郡守宋侯祥熙永世不忘碑
延新減費 愛民若子

〈군수(郡守) 송상희(宋祥熙)를 영원히 잊지 못하는 비〉

賑荒捐俸	흉년에 진휼하려 녹봉을 털어내고,
延新減費	새 수령 맞이하는 비용을 절감했네.
居官如家	관직에 있으면서 집에 있는 것 같이,
愛民若子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했네.

11. 곡성읍 교촌리 정진묵(鄭晉默) 청덕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94(곡성향교) • 제작연대 1883년(癸未)
- 크 기 비신높이 142, 너비 55, 두께 21.5

곡성향교 비석군 중에서 향좌 10번째에 자리한 정진묵(鄭晉默) 선정비이다. 주변 비석 7개를 시멘트 대좌로 연결해 놓은 위에 지붕 없이 방형의 비신만 꽃았다. 정진묵은 곡성현감에 1881년부터 1883년까지 재임했다. 비석 측면에 '癸未二月日'이라 하여 건립년도를 밝혔다. 비문은 2행 11자이다.

【전면】

縣監鄭侯晉默清德善政碑

【좌면】

癸未二月日

12. 곡성읍 교촌리 조학점(趙學點)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94(곡성향교) • 제작연대 미상(1844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70, 비신높이 113, 너비 45, 두께 17

곡성향교 비석군 중에서 향좌 11번째에 자리한 곡성현감 조학점(趙學點)의 불망비이다. 주변 비석 7개를 시멘트 대좌로 연결해 놓은 위에 하엽형 비수를 가진 비신을 꽂았다. 조학점은 곡성현감에 1842년에 부임하여 1844년에 임기가 만료되어 바뀌었다. 비문은 1행 11자이다.

【전면】

縣監趙侯學點永世不忘碑

13. 곡성읍 교촌리 심문영(沈文永) 거사대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94(곡성향교) • 제작연대 미상(1815년경)
- 크 기 비신높이 56, 너비 133, 두께 23

곡성향교 비석군 중에서 향우 첫 번째에 누운 상태로 자리한 심문영(沈文永) 거사대(去思臺)이다. 심문영은 곡성 현감을 1812년 10월부터 1815년 6월까지 역임했다. 다른 것과 달리 원래 눕혀진 돌에 횡서로 새긴 비석이다. 비문은 1행 9자이다.

【전면】

縣監沈侯文永去思臺

14. 곡성읍 교촌리 정일택(丁日宅)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84-1(서산사) • 제작연대 1907년(疆圉協洽=丁未)
- 크 기 전체높이 240, 비신높이 167.5, 너비 49.8, 두께 21

곡성향교 입구 부근의 서산사(西山寺) 내에 있는 정일택(丁日宅) 불망비이다. 서산사(西山寺)는 이 지방의 부호였던 정진태·정수태·정규태 삼형제가 아버지 정일택(丁日宅)과 어머니의 명복을 기리기 위해 1935년에 세웠다가 1938년에 '서산사'로 바꾸었다. 서산사 법당 뒤에는 정일택 부부의 영당이 있는데, 그 계단 아래에 정일택 불망비가 자리한다. 비좌는 상부는 복련, 앞면은 무궁화문을 가득 표현하였으나 제짝이 아니며 근래에 기계로 조각한 것이다. 장방형 비좌 위에 비신을 꽂아 연결하

고 그 위에 가침석을 올렸다. 정일택의 비명은 1907년 5월에 정의림(鄭義林)이 지은 것이다.

정일택(丁日宅, 1855~1929)의 자는 중숙(仲叔), 호는 석우(石愚), 본관은 금성(錦城)이다. 아버지는 용두(容斗)이고, 어머니는 전주인 이태근(李泰根)의 딸이다. 유집이 있다. 비문은 15행 50자이다.

【전면】

參奉丁公日宅永世不忘碑

【후면】

仁是天地生物之心而人得以生焉者也惻怛慈愛之意實於中而利人澤物之功著於外此求仁體仁所以爲聖門教人第

一法也丁參奉日宅隱於浴川山中劬經力學爲數十年見多難以來世教日敗民力日困慨然歎曰古人以天下爲己任況在鄉

井之地而爲吾力可及者乎於是謀及一鄉申明約束使鄉之士讀先王之書使鄉之人守先王之法胥訓胥告異說不入又稟議于官

司凡不急之役無名之斂斟酌措劃一切刊革行之有年以成邑例至去秋見新式以紙幣徵稅而所徵比舊數減四之一列郡多不以實

而責應如故迸若痛癢在己爲之博謀周旋一依所減例昭示民間多貿紙幣廣布村閭使不得騰踊而紙商無所牟其利是以

民力大舒嗚乎四海壞壤而一境乾淨萬姓塗炭而一境蘇息在人欲橫流殘忍成風之日而此人此事何處得來數十年讀書求

仁之力信不可誣矣程夫子所謂一命之士苟存心於愛物於人必有所濟者非此人之謂耶吁可敬也鄉之人士一辭合力將伐石識之惟

石谷坊自坊內別豎一碑蓋愛賞之然已也因具其顛委屬洪君承朝來謁文余友石汀處士趙君寅錫其坊人也亦有命焉肆不

堪以非其人辭 疆圉協洽仲夏上休光山鄭義林謹識

【우면】

訓長 吳漢永

約長 馬寅燮

有司 吳云善 趙禧九 宋根學 洪承會 嚴柱華

監董 梁相采 朴孟吉

〈참봉 정일택(丁日宅)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인(仁)은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는 마음이니, 사람은 이를 얻어 태어난 것이다. 불쌍히 여기고 사

랑하는 마음이 안에 가득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만물에 은택을 입히는 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인을 추구하고 인을 실천하는 것이니, 성인의 문하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첫 번째 방법이 되는 이유이다.

참봉 정일택(丁日宅)은 옥천(浴川, 곡성)의 산중에 은거하며 수십 년 동안 경전을 힘써 배웠는데, 온갖 어려움을 겪은 이래로 세상의 교화가 날로 무너지고 백성들이 날로 곤궁해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탄식하며, “옛사람은 천하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는데, 하물며 고향 땅에 있으면서 내 힘이 미칠 수 있음에랴?”라고 말하였다. 이에 한 고을 사람들을 의논하여 규약을 거듭 밝히고, 고을의 선비들이 선왕의 책을 읽게 하고, 고을 사람들이 선왕의 법을 지키게 하며, 서로 훈계하고 서로 고하여 이단사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또 관청에 품의하여 급하지 않은 부역과 명분 없는 세금은 해아리고 조치하여 전부 없애니, 시행한 지 일년 만에 고을의 규범이 되었다.

지난 가을에는 새로운 제도를 보고 지폐로 세금을 걷었는데, 걷은 액수가 예전에 비해 4분의 1이 줄었다. 여러 군에서는 대부분 실정을 반영하지 않고 예전처럼 부과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이 자기에게 있는 듯 여기고, 널리 도모하고 두루 힘써서 하나같이 줄어든 세금 제도에 따라 백성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다. 지폐를 많이 사들이고 민간에 널리 퍼트려 가격이 뛰지 못하게 하자 지폐 상인도 이익을 취하지 못했으니, 이 때문에 백성의 부담이 크게 덜어졌다.

아! 사방이 흥흥한데도 이 한 고을만은 깨끗하였으며, 온 백성이 도탄에 빠졌어도 한 고을만은 소생하였다. 인육이 마구 흐르고 잔인함이 풍습을 이룬 시대에 이런 사람과 이런 일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수십 년 동안 독서하며 인을 추구한 노력은 참으로 속일 수 없다. 정자(程子)가 이른바, “일명(一命)³의 선비가 만물을 사랑하는 데에 마음을 둔다면 사람에 대해서도 반드시 구제하는 바가 있다.”라고 한 말이 이 사람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 공경할 만하다.

고을의 인사들이 한뜻으로 힘을 합쳐 비석에 새기려 하였는데, 석곡면은 면내에서 별도로 비석 하나를 세우니, 대개 사랑하고 기리려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다. 이어서 그 전말을 갖추고 홍승조(洪承朝) 군에게 맡겨 나에게 글을 청하였다. 나의 벗인 석정처사(石汀處士) 조인석(趙寅錫) 군도 그 면 사람인데 역시 부탁을 하기에 차마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양할 수 없었다.

정미년(1907) 5월 상순에, 광산(光山) 정의림(鄭義林)이 삼가 쓰다.

훈장(訓長)은 오한영(吳漢永)이며, 약장(約長)은 마인섭(馬寅燮)이고, 유사는 오운섭(吳云善)·조희구(趙禧九)·송근학(宋根學)·홍승회(洪承會)·엄주화(嚴柱華)이며, 감동(監董)은 양상채(梁相采)와 박맹길(朴孟吉)이 맡았다.

3 일명(一命): 가장 낮은 품계의 관직을 말한다. 주(周)나라 때 관직을 일명부터 구명(九命)까지 아홉 등급으로 나눈 데서 유래하였다.

15. 곡성읍 교촌리 정일택(丁日宅) 유혜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84-3(서산사) • 제작연대 1907년(丁未)
- 크 기 전체높이 220, 비신높이 157, 너비 51.4, 두께 19

서산사 내의 정일택 부부 영당 앞에 세워진 정일택(丁日宅)의 유혜비(遺惠碑)이다. 계단 오르기 전에 있는 불망비 비석과는 다른 비이다. 비석 주변에 연봉형 사각 석주를 세우고 쇠사슬로 연결해 놓았다. 장방형 비좌 위에 비신을 꽂아 연결하고 그 위에 가침석을 올렸다. 비문은 6행 32자이다.

【전면】

巨弊異貨 在在貪黷 郡有公議 孰執其平 愚也不愚 政人樂告 匪今斯今 石愚不功
 稅政不均 夤緣瘼民 浴川獨蘇 咸曰石愚 吏憚其直 公正以得 既庶以富 歸之太守
 正三品石愚丁公日宅遺惠碑

有尤於此 全郡賴安 孰飢孰寒 大德不德 非金非石 非我私誦 凡今之人 我言不信
關衛邪正 溢及隣境 待以舉火 式欽宛左 口有豐碑 風聲樹之 是心是力 視彼公刻

【후면】

崇禎紀元後五丁未七月日 鄉中所立

〈정3품 석우(石愚) 정일택(丁日宅) 유혜비(遺惠碑)〉

巨弊異貨	가장 큰 폐단은 화폐가 다른 것과,
稅政不均	세금 정책이 고르지 않은 것이네.
在在貪黷	곳곳에서 재물을 탐내어 더러운 짓을 하니,
夤緣瘼民	이 때문에 백성들은 병들었네.
郡有公議	고을에서 공론이 있었으니,
浴川獨蘇	욕천만 홀로 소생했네.
孰執其平	누가 그 수평을 잡았는가,
咸曰石愚	모두 석우라고 말하네.
愚也不愚	어리석지만 어리석지 않으니,
吏憚其直	아전들은 그의 강직함 꺼렸네.
政人樂告	지방관에게 즐겨 알리니,
公正以得	공정함을 얻게 되었네.
匪今斯今	오늘만 그러한 것 아니니,
既庶以富	백성이 늘어나고 부유해졌네.
石愚不功	석우는 자신의 공으로 여기지 않고,
歸之太守	지방관에게 공을 돌렸네.
有尤於此	이보다 훌륭한 점 있으니,
關衛邪正	사특함을 막고 정도를 지킨 것이네.
全郡賴安	온 고을이 덕택에 편안하여,
溢及隣境	이웃 고을까지 넘쳤네.
孰飢孰寒	누가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가,
待以舉火	이를 기다려 불을 피웠네.
大德不德	큰 덕은 덕이 아닌 것처럼 보이니,
式欽宛左	완전히 공경하였네.
非金非石	쇠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口有豐碑	사람들의 입이 큰 비석 같네.
非我私誦	내가 사사로이 칭송하는 것 아니니,
風聲樹之	풍성을 수립하였네.
凡今之人	무릇 지금 사람들의,
是心是力	이 마음과 이 힘 덕택이네.
我言不信	내 말을 못 믿겠거든,
視彼公刻	저 여럿이 세운 비석을 보라.

송정(崇禎) 기원후 다섯 번째 정미년(1907) 7월 일, 향중에서 세우다.

16. 곡성읍 구원리 정일우(丁日宇) 시혜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구원리 715-3 • 제작연대 1907년(隆熙元年)
- 크 기 전체높이 217, 비신높이 159, 너비 50.3, 두께 16.2

1907년에 세운 정일우(丁日宇) 시혜불망비는 구원리 구중제 우측 마을입구에 위치한다. 장방형의 비좌 위에 오석 비신을 꽂아 연결하고 그 위에 가침석을 올렸다.

정일우(丁日宇, 1852~1923)의 초명은 희석(晞錫), 자는 영숙(永叔), 호는 울헌(栗軒), 본관은 금성(錦城)이다. 임도(任度)의 손자로, 아버지는 용두(容斗)이고, 어머니는 전주인 이태근(李泰根)의 딸이다. 앞에 나온 정일택의 형이다. 지릉(智陵) 참봉을 역임했다. 관동(館洞)에서 묵용실(默容

室)⁴을 운영했고, 문집 『울헌집(栗軒集)』이 있다. 비문은 7행 16자이다.

【전면】

肚裏赤心 心書交致 興水折券 此猶在人
案上朱書 室中造車 萬口善譽 切己何如

參奉丁公日宇施惠不忘碑

普濟窮鄙 數百其突 口誦心祝 生祥下瑞
人人各余 歡若春嘘 善積慶餘 日居月諸

【후면】

隆熙元年强圍協洽十二月 日

有司朴正根

〈참봉(參奉) 정일우(丁日宇) 시혜불망비(施惠不忘碑)〉

肚裏赤心	흉중에는 붉은 마음이요,
案上朱書	책상 위에는 주자서(朱子書)로다.
心書交致	마음과 책에 번갈아 힘써,
室中造車	방안에 앉아서 수레를 만들었네.
興水折券	수리(水利)를 일으키고 빗 문서를 찢어 버리니,
萬口善譽	모든 사람이 선행을 칭찬하였네.
此猶在人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으나,
切己何如	자기에게 절실함은 어떠하겠는가.
普濟窮鄙	곤궁한 마을을 구제해 주니,
人人各余	사람마다 각각 여유롭고,
數百其突	수백길이나 우뚝하니,
歡若春嘘	즐겁기가 마치 봄바람 같네.
口誦心祝	입으로 칭송하고 마음으로 축원하니,
善積慶餘	선행이 쌓이고 경사가 남아돌아,
生祥下瑞	살아서도 상서롭고 땅에 묻혀서도 상서롭게,
日居月諸	날이 가고 달이 가네.

유희 원년인 1907년 12월에, 유사(有司)는 박정근(朴正根).

4 목용실(默容室): 곡성읍 읍내리 411번지에 있었던 전남 지역의 대지주이자 유력한 향리 가문인 정씨의 서실로, 만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정일우의 유언에 의해 1932년 9월에 그의 아들 정봉태가 연희전문학교(연세대 전신)에 9458책을 기증하였다.

17. 곡성읍 장선리 류한모(柳漢模) 유혜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장선리 999 • 제작연대 1882년(壬午)
- 크 기 전체높이 159, 비신높이 101, 너비 41.8, 두께 14.5

1882년에 세운 류한모(柳漢模) 유혜비는 장선교차로에서 새터길 좌측 발가에 위치한다. 옆에는 1921년에 세운 류기영(柳基永) 불망비각이 자리하는데, 모두 담장 안에 있다. 장방형의 비좌 위에 비신을 꽃아 연결하고 그 위에 가첨석을 올렸다. 우측에 장방형 평판석 신비를 세웠는데, 비문 내용을 한자로 적고 한글로 운을 달고 뜻을 풀이해 놓았다.

류한모(柳漢模, 1792~1857)의 자는 자응(子膺), 호는 청계(淸溪) 또는 오류당(五柳堂),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사정공(司正公) 집(緝)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계순(繼淳)이다. 효성이 타고나서

향인이 본보기로 삼았으며, 사우들이 비석을 세워 송덕하였다. 향약을 설치하고 남전향약의 규례를 따랐다. 비문은 6행 9자이다.

【전면】

默菴柳公漢模遺惠碑

【후면】

我鄉勗約 子弟遵教
伊誰之力 州閭取則
公不爲功 頌溢口碑
人何忘德 荐茲石勒

【우면】

壬午七月日 立

〈묵암(默庵) 류한모(柳漢模) 유혜비(遺惠碑)〉

我鄉勗約	우리 고을에 향약을 창설한 것은,
伊誰之力	누구의 힘인가.
子弟遵教	자제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 지키고,
州閭取則	온 고을은 법칙으로 삼게 되었네.
公不爲功	공은 그것을 공(功)으로 삼지 않았으나,
人何忘德	사람들은 어찌 그 덕을 잊으리오.
頌溢口碑	입으로 칭송함이 넘쳐남에,
荐茲石勒	이에 거듭 돌에 새기노라.

임오년(1882) 7월에 세우다.

18. 목사동면 공북리 정일우(丁日宇) 유혜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 621 • 제작연대 1907년(丁未)
- 크 기 전체높이 240, 비신높이 175, 너비 50, 두께 24

1907년 12월에 세운 정일우(丁日宇)의 유혜비는 공북리 청룡마을 입구 공북저수지 제방 북쪽 끝 부분에 세워져 있다.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囍’자가 음각된 가침석을 얹었다. 이 비석의 건립 주관자는 통정대부 한병섭(韓炳燮)이고, 유사는 참봉 양해주(梁海周)와 지동렴(池東濂)이었다. 정일우의 불망비는 곡성읍 구원리에도 세워져 있다. 비문은 8행 11자이다.

【전면】

參奉丁公日宇遺惠不忘碑

【후면】

惟公天姿 遺愛除瘼

純厚好仁 舊沼維新

泉流不舍 片石堪語

其德如斯 愈久愈思

主事 通政 韓炳燮

有司 參奉 梁海周 池東濂

丁未十二月日

〈참봉(參奉) 정일우(丁日宇) 유혜불망비(遺惠不忘碑)〉

惟公天姿	공의 타고난 자품은,
純厚好仁	순후하고 인을 좋아하였네.
遺愛除瘼	은택을 남기고 폐막을 제거해 주어,
舊沼維新	옛 연못을 더욱 새롭게 하였네.
泉流不舍	샘물이 쉬지 않고 흐르듯,
其德如斯	그 덕은 이와 같아라.
片石堪語	비석에 말을 새길만 하니,
愈久愈思	오래될수록 더욱 그리워하리.

비석을 세우는 데 주재한 사람은 통정(通政) 한병섭(韓炳燮)이고, 유사는 참봉 양해주(梁海周)와 지동렴(池東濂)으로, 정미년(1907) 12월에 세우다.

19. 목사동면 대곡리 이상악(李尙岳) 유혜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1016-1 • 제작연대 미상
- 크 기 전체높이 214, 비신높이 162, 너비 52.5, 두께 19.5

이상악(李尙岳)의 유혜비는 대곡리 소방마을 입구 삼거리 버스정류장 건너편 길가에 있다.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가첨석을 올렸다. 이상악은 그의 할아버지 이기돈(李基墩, 1645~1735)의 묘갈에 의하면 이수업(李壽業)의 넷째 아들이다. 비문은 3행 13자이다.

【전면】

眉山崔兀 泱髓洽骨 如帶若礪
 通政大夫眉隱李公尙岳遺惠碑
 德與之齊 有如眉溪 永世不替

〈통정대부 미은(眉隱) 이상악(李尙岳) 유혜비(遺惠碑)〉

眉山崔兀 미산이 우뚝 솟음이어,
德與之齊 덕과 더불어 나란하네.
浹髓洽骨 골수에 사무치고 뼈에 스미니,
有如眉溪 마치 미산의 시내와 같네.
如帶若礪 띠처럼 되고 숫돌처럼 될 때까지,⁵
永世不替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라.

5 띠처럼……때까지 : 한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개국 공신들을 책봉하면서 “황하가 변하여 끈처럼 되고, 태산이 바뀌어 숫돌처럼 될 때까지, 그대들의 나라가 영원히 존속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지도록 할 것을 맹세한다.[使河如帶, 泰山若礪, 國家永寧, 爰及苗裔]”라고 말했던 고사가 있다. 『史記 卷18 高祖功臣侯者年表』

20. 목사동면 신기리 서양권(徐良權)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기리 122-3 • 제작연대 1876년(丙子)
- 크 기 전체높이 164, 비신높이 109, 너비 33, 두께 14.5

1876년 5월에 신기마을 회관 앞 정자 옆에 세운 서양권의 불망비는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가첨석을 올렸다. 서양권은 마을의 형편이 쇠잔해지자 이를 가엽게 여기고 구제하는 마음으로 논 5두락과 초가 1채를 마을에 내놓았다. 비문은 9행 27자이다.

【전면】

惟公本性 一片短碣	
幼學徐良權永世不忘碑	化主 趙井浩 趙廷台
天賦真情 千古風聲	監洞 朴英來 金成在

【후면】

本里村樣殘敗將至空墟之境矣徐良權以世居之人憐此村規之可
矜特有救濟之心醜字畚五斗落果場字草家一座許給于洞中以
爲補用而不忘其惠故一村公議齊發記銘云云

光緒二年丙子五月 立

【우면】

靈垓立德 如來普濟

窮藪添榮 元振平生

〈유학 서양권(徐良權)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惟公本性	공의 본성을 보면
天賦眞情	참된 마음 본래 타고 났네.
一片短碣	작은 비석에 새기니,
千古風聲	천고에 풍성을 세우리.

화주(化主)는 조정호(趙井浩)와 조정태(趙廷台)가 맡고, 감독은 박영래(朴英來)와 김성재(金成在)가 맡았다.

본 마을의 형편이 쇠잔하고 피폐해져 장차 빈 터가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서양권(徐良權)은 대대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마을의 형편이 좋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 특별히 구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함자답(醜字畚) 5두락과 장자(場字) 초가 1채를 마을에 기증하여 부족한 곳에 보태 쓰도록 했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마을의 공론이 일제히 일어나 기명(記銘)을 운운하였다.

광서(光緒) 2년 병자년(1876) 5월에 세우다.

靈垓立德	영대에 덕을 수립하니,
窮藪添榮	곤궁한 백성들 영화가 더해졌네.
如來普濟	여래처럼 널리 구제하니,
元振平生	원기가 평생 떨치리.

21. 목사동면 죽정리 이익원(李益源) 향약창시비(鄉約創始碑)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죽정리 824-5 • 제작연대 1886년(丙戌)
- 크 기 전체높이 155, 비신높이 103, 너비 34.5, 두께 11

1886년 3월에 죽정리 원정마을 회관 건너편 언덕에 세운 이익원(李益源)의 향약 창시비이다. 자연석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가침석을 올렸다. 주위에 벽돌 담장을 둘렀다. 건립연대는 가까운 평리평호마을에 있는 류집(柳湊)의 향약유혜비가 1886년(光緒十二年丙戌)에 세워진 것을 미루어 같은 해로 판단하였다.

이익원(李益源)의 자는 겸지(謙之), 호는 관수재(觀水齋), 본관은 성주(星州)로, 문경공(文景公) 직(稷)의 후손이다. 향약을 창설하여 인륜의 기강을 세우니, 면내 사람들이 비석을 세우고 그 덕을 칭송하였다. 비문은 4행 11자이다.

【전면】

鄉言咸頌 一面蒙澤

學生李公益源鄉約勅始碑

約法隨規 萬口豐碑

【후면】

丙戌三月日

〈학생 이익원(李益源) 향약창시비(鄉約勅始碑)〉

鄉言咸頌	향리에서 모두 칭송하니,
約法隨規	향약을 만들고 법규를 따랐네.
一面蒙澤	온 면이 혜택을 입었으니,
萬口豐碑	모든 사람이 공덕을 찬양하네.

병술년(1886) 3월에 세움

22. 목사동면 평리 류집(柳漣) 향약유혜비(鄉約遺惠碑)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133-3(평호) • 제작연대 1886년(光緒十二年丙戌)
- 크 기 전체높이 136, 비신높이 99, 너비 35.5, 두께 13

1886년에 세운 류집(柳漣)의 향약유혜비는 평리 평호마을 정자[仙留亭]의 북쪽 도로가에 있다.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가첨석을 올렸다. 류집(柳漣, 1804~1885)의 자는 사집(士集), 호는 만오(晩悟), 본관은 선산(善山)이다. 유희춘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의수(義樹)이다. 병인양요(1866) 때 거의하였으며, 1885년 4월에 가감역(假監役)과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고, 5월에 돈녕도정(敦寧都正)이 되었다. 비문은 2행 21자이다.

【전면】

通政大夫行繕工監役柳公漣鄉約遺惠永世不忘碑

【후면】

光緒十二年丙戌三月日

23. 삼기면 원등리 정기로(鄭基老) 권학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원등리 425 • 제작연대 1885년(乙酉)
- 크기 전체높이 157, 비신높이 120, 너비 46, 두께 15

삼기면사무소 오르기 전 곡순로 길가에 여러 기의 비석과 함께 서 있는 진사(進士) 정기로(鄭基老, 1820~?)의 권학비이다. 권학비는 1885년 3월에 유학(儒學)으로 크게 교화를 일으킨 정기로의 권학사상을 잊지 못하고 신석정(申錫正)이 비명(碑銘)을 짓고, 박기모(朴基模)·문태송(文泰松)·황백언(黃伯彦)·김종현(金宗鉉)·최명환(崔鳴煥)이 뜻을 모아 비석을 세웠다. 정기로의 자는 덕현(德顯), 호는 송계(松溪), 본관은 초계(草溪)로, 문간공 건(虔)의 후손이며 부친은 형원(亨源)이다. 1861년에 성균진사에 합격하였으며, 같은 해 지돈령(知敦寧)에 제수되었다. 비문은 6행 16자이다.

【전면】

進士鄭公基老勸學碑

【후면】

光緒十一年乙酉三月日申錫正

文翁之石 庾信之石 鄭公之石 越千載下

大興儒化 堪可共語 不忘勸學 同出一石

主事員 朴基模 文泰松 黃伯彥 金宗鉉 崔鳴煥

〈진사(進士) 정기로(鄭基老) 권학비(勸學碑)〉

文翁之石	문옹(文翁) ⁶ 의 비석은,
大興儒化	유학의 교화를 크게 일으켰고,
庾信之石	유신(庾信) ⁷ 의 비석은,
堪可共語	함께 이야기할 만하네.
鄭公之石	정공(鄭公)의 비석은.
不忘勸學	학문 권유하기를 잊지 않았으니,
越千載下	천년이 지난 지금도,
同出一石	한 비석에서 나온 것처럼 같네.

광서(光緒) 11년 을유(1885) 3월 신석정(申錫正)이 지음

주사원(主事員)은 박기모(朴基模)·문태송(文泰松)·황백언(黃伯彦)·김종현(金宗鉉)·최명환(崔鳴煥)

6 문옹(文翁): 한(漢)나라 사람으로 오지인 촉군(蜀郡)의 태수로 부임하여 학교를 짓고 교육에 힘썼다.

7 유신(庾信): 남조(南朝) 양(梁)나라의 문인으로, 온자승(溫子升)이 지은 〈한산사비(韓山寺碑)〉를 매우 좋아하여 “오직 한산의 한 조각 비석만 함께 이야기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24. 삼기면 원등리 정일택(丁日宅) 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원등리 425 • 제작연대 1907년(光武十一年丁未)
- 크 기 전체높이 186, 비신높이 145, 너비 50, 두께 18

1907년 5월에 세운 정일택(丁日宅)의 불망비(不忘碑)는 삼기면사무소 오르기 전 곡순로 길가에 여러 기의 비석과 함께 서 있다. 사각 기단석 위에 오석에 가까운 비신을 세우고 가침석을 얹었다. 비석을 세운 유사(有司)는 정동시(鄭東時)이다.

【전면】

篤於問學 惠專鄉郡 母曰出位 全湖咸誦

參奉丁公日宅施惠不忘碑

發財施爲 器合台司 切於憂民 非惟谷人

【후면】

光武十一年丁未五月日

豎碑有司 鄭東時

〈참봉(參奉) 정일택(丁日宅) 시혜불망비〉

篤於問學	학문에 독실하고,
發財施爲	재물을 내어 베풀었다네.
惠專鄉郡	은혜를 전적으로 고을에 베풀었으니,
器合台司	그릇은 정승에 합당하네.
毋曰出位	지위를 벗어났다 말하지 마라,
切於憂民	백성 걱정 간절해서라네.
全湖咸誦	전 호남이 모두 칭송하니,
非惟谷人	곡성 사람만이 아니라네.

1907년 5월에, 비석을 세운 유사 정동시(鄭東時)

25. 석곡면 석곡리 신중(申縱)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80-2 • 제작연대 1908년(戊申)
- 크 기 전체높이 233, 비신높이 173, 너비 52, 두께 22

1908년에 세운 신중(申縱)의 불망비는 석곡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세워져 있는 비석 8기 중 하나이다. 새로 만든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가침석을 올렸다. 비문에 의하면 신중은 1907년(丁未) 종이화폐로 세금을 징수할 때 사분의 일(1/4)을 감하여 주었고, 동리의 규약을 지켜 풍속을 교화하였다. 또한 1919년부터 1922년까지 석곡면장을 지냈다. 비문은 정의림(鄭義林)이 짓고, 글씨는 정일택(鄭日宅)이 썼다.

신중(申縱)의 자는 선유(善裕), 호는 효곡(曉谷),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의관(議官)이다. 학교를 설립하고 많은 영재를 배출하여 향인들이 비석을 세워 송덕했다. 비문은 15행 40자이다.

【전면】

壯節後裔 迷津可筏 結戶諸瘼
 郡有曉谷 荒年可穀 絜淨悉掃
正三品曉谷申公樅永世不忘碑
 白首淬勵 傲於鄉約 悅之者衆
 黎民惠好 合乎時宜 念茲在茲

【후면】

天地以生物爲心仁人以利物爲心苟能平物我合內外而眷眷於惠人澤物之功者其非仁人之徒也
 耶申議官樅以浴川善士聞於人久矣慨鄉俗之不古民生之多艱與其友丁叅奉日宅一心合謀凡一
 鄉之內施有所未當斂有所未便必稟于官司議于鄉中一 綜理而刊革之去丁未見新式以紙貨徵
 稅而所徵減四之一列邑多不以實而責納如故遂具其由昭示一境使於所減之外不至有加焉又令
 坊里出入相規守望相友士焉而從事詩書農焉而服力田畝俾無外馳橫走之弊而有飢乏者賙而存
 之有冤枉者辨而伸之有爭競者和而解之是以鄉俗丕變民力大舒輿情咸頌將伐石以志之使人來
 謁其文嗚呼誰謂在今日而有此惠人澤物磊落事業耶吁可禛也余於丁叅奉事既有所稱述則於今
 日之請有不可以獨辭也茲爲之畧叙梗概云爾

歲戊申八月中休光山鄭義林識

叅奉丁日宅銘

〈정삼품(正三品) 효곡(曉谷) 신중(申樅)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壯節後裔	장절공의 후예로,
郡有曉谷	고을에 효곡이 태어나,
迷津可筏	길을 잃은 때 뗏목을 띄우고,
荒年可穀	흉년을 만나서도 배부를 수 있었지.
結戶諸瘼	결호의 여러 폐단을,
絜淨悉掃	죄다 깨끗이 쓸어내었고,
白首淬勵	늙도록 학문에 힘을 쏟으니,
黎民惠好	백성들이 은혜롭게 여기고 좋아하였네.
傲於鄉約	향약을 본받으니,
合乎時宜	시의에 부합하는지라,
悅之者衆	좋아하는 이가 많아서,
念茲在茲	언제나 이 사람을 생각하는구나.

천지는 만물을 살리려는 마음을 품고, 어진 사람은 남을 이롭게 하고자 마음을 쓴다. 만약 남과 나를 공평하게 대하고 안과 밖을 합할 수 있으며,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한결같은 사람이라면 어진 사람의 부류가 아니겠는가? 의관(議官)⁸ 신중(申縱)은 옥천(浴川, 곡성)의 선사(善士)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지 오래되었다. 고을 풍속이 예스럽지 못하고 민생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개탄스럽게 여기고, 벗인 참봉 정일택(丁日宅)과 한마음으로 의논하였으며, 한 고을 안에 온당치 못한 징수(徵收)가 있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관사(官司)에 알리고 고을에서 의논하여 하나하나 바로잡고 고쳐나갔다.

지난 정미년(1907)에 법식을 새롭게 하여 종이돈으로 세금을 거두었는데, 징수하는 액수가 4분의 1이 줄었지만 열읍(列邑)에선 대부분 실제와 맞지 않게 옛날처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자 결국 그 이유를 자세히 갖추어 온 경내에 명확히 알리고 줄어든 몫 외에는 더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방리(坊里)로 하여금 출입하면서 서로를 규찰하고 서로를 살피서 우애롭게 지내도록 하고, 선비는 시서(詩書)에 종사하고 농부는 전지(田地)에서 힘을 쏟아 밖으로 치닫고 옆으로 내닫는 폐단이 없도록 하였다. 궁핍하여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구휼하여 목숨을 보존하도록 하고, 억울함을 겪는 자가 있으면 분변하여 신원(伸冤)하도록 하며, 다투는 자가 있으면 화해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고을의 풍속이 크게 변하고 민력(民力)이 여유롭게 되자 여론이 모두 칭송하였다. 장차 돌을 다듬어 기록하려고 하면서 사람을 시켜 내게 와 글을 청하게 하였다.

아! 누가 오늘날 이렇게 남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커다란 사업을 벌이는 자가 있다고 하겠는가? 아! 높이 살만하도다. 내가 정참봉(丁參奉)의 일에 대해서 이미 칭찬해서 말한 것이 있으니, 오늘의 요청에 대해서도 사양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그것을 위해 대강을 기술한다.

무신년 8월 중순에, 광산(光山) 정의림(鄭義林)이 짓고, 참봉(參奉) 정일택(丁日宅)이 새기다.

8 의관(議官): 중추원에 속한 벼슬. 고종 32년(1895)에 둔 것으로, 뒤에 찬의로 고쳤다.

26. 석곡면 석곡리 김진현(金鎭賢) 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80-2 • 제작연대 1907년(丁未)
- 크 기 전체높이 220, 비신높이 163, 너비 49, 두께 19

1907년에 세운 김진현(金鎭賢)의 선정비는 석곡면 행정복지센터 내의 비석군 중 하나이다. 새로 만든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가침석을 올렸다. 김진현은 1906년 7월에 곡성군수에 부임하여 1908년 9월에 전라북도로 옮겼다. 1910년 이후에도 고창군수, 금산군수, 전주군수, 무주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비문은 6행 9자이다.

【전면】

惟孝友于 黎庶仁風
爲政何有 赤子慈母
郡守金侯鎭賢善政碑

牟利蝟躡 澤及四隣

稅民雀躍 陽春有脚

【좌면】

丁未九月日

〈군수(郡守) 김진현(金鎭賢) 선정비(善政碑)〉

惟孝友于 효도하고 우애하니,
爲政何有 정사에 무슨 어려움 있으랴.
黎庶仁風 백성을 어진 풍도로 대하니,
赤子慈母 어린아이와 어머니 사이 같네.
牟利蝟躡 모리배가 위축되니,
稅民雀躍 세금 내는 백성 기뻐 날뛰네.
澤及四隣 은택이 사방 이웃에 미치니,
陽春有脚 봄날의 햇살 같네.

정미년(1907) 9월 일 세움

27. 석곡면 석곡리 신윤조(申潤祚) 유혜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80-2 • 제작연대 1903년(癸卯)
- 크 기 전체높이 225, 비신높이 165, 너비 48, 두께 21.5

1903년에 세운 신윤조(申潤祚)의 불망비는 석곡면 행정복지센터 내의 비석군 중 하나이다. 새로 만든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가침석을 올렸다. 신윤조(申潤祚)의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1886년 4월에 경희궁 위장(衛將)에 임명되었고, 또 어느 때인가 돈녕부 도정(都正)이 되었다. 많은 재물을 기울여 제방을 쌓고 관개를 하여 송덕비가 세워졌다. 비문은 2행 14자이다.

【전면】

敦寧府都正申公潤祚遺惠不忘碑

【좌면】

癸卯四月日外面立

28. 석곡면 석곡리 정진묵(鄭晉默)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80-2 • 제작연대 1887년(光緒十三年)
- 크 기 전체높이 194, 비신높이 139, 너비 49, 두께 23.5

1887년에 세운 정진묵(鄭晉默)의 불망비는 석곡면 행정복지센터 내의 비석군 중 하나이다. 새로 만든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가침석을 올렸다. 정진묵은 1881년부터 1883년까지 곡성현감으로 재직하였다. 정진묵 선정비는 곡성향교에도 서 있다. 비문은 2행 11자이다.

【전면】

縣監鄭公晉默永世不忘碑

光緒十三年二月日

29. 석곡면 석곡리 어재윤(魚在潤) 유혜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80-2 • 제작연대 1893년(癸巳)
- 크 기 전체높이 190, 비신높이 141, 너비 45, 두께 18

1893년 2월에 세운 어재윤(魚在潤)의 불망비는 석곡면 행정복지센터 내의 비석군 중 하나이다. 새로 만든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가침석을 올렸다. 어재윤은 1892년부터 1894년까지 곡성현 감으로 재직하였다. 석곡면과 목사동면 2개 면민이 이 비를 세웠다. 어재윤의 선정비는 곡성향교 내 에도 서 있다. 비문은 3행 11자이다.

【전면】

石木兩面并立

縣監魚侯在潤遺惠不忘碑

癸巳二月日

30. 석곡면 석곡리 이면상(李冕相)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80-2 • 제작연대 1892년(壬辰)
- 크 기 전체높이 144, 비신높이 124, 너비 40, 두께 17.5

1892년 1월에 세운 이면상(李冕相)의 불망비는 석곡면 행정복지센터 내의 비석군 중 하나이다. 새로 만든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워져 있으나 비신 상면이 거친 것으로 보아 원래는 개석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면상은 1892년 전라도 암행어사를 제수받았다. 비문은 2행 11자이다.

【전면】

御使李公冕相永世不忘碑

壬辰正月日

31. 석곡면 석곡리 정기두(丁箕斗) 유혜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80-2 • 제작연대 1890년(庚寅)
- 크 기 전체높이 114, 비신높이 71, 너비 31.5, 두께 12.5

1890년 7월에 세운 곡성 이방(吏房) 정기두의 유혜비는 석곡면 행정복지센터 내의 비석군 중 하나이다. 새로 만든 사각 비좌에 반원형 비두와 하나의 돌로 된 비신을 세웠으며, 원촌(院村, 현재 석곡면 석곡리)사람들이 세웠다. 정기두(丁箕斗, 1828~1883)의 자는 성칠(聖七), 본관은 금성(錦城)으로, 아버지는 정임국(丁任國), 어머니는 전주인 이귀중(李貴宗)의 딸이다. 비문은 3행 8자이다.

【전면】

院村

丁吏房箕斗遺惠碑

庚寅七月日

32. 석곡면 석곡리 조장교(趙章教)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석곡리 80-2 • 제작연대 1884년(甲申)
- 크 기 전체높이 193, 비신높이 146, 너비 47, 두께 15

조장교(趙章教)의 불망비는 석곡면 행정복지센터 내의 비석군 중 하나이다. 새로 만든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가첨석을 올렸다. 조장교는 1883년부터 1885년까지 곡성 현감으로 재직하였다. 비석은 1884년 12월에 외사면(外四面, 삼기면·석곡면·목사동면·죽곡면) 사람들이 세웠다. 비문은 7행 11자이다.

【전면】

輿誦咸曰 百姓蒙福

軌式隨之 一州賁治

縣監趙侯章教教永世不忘碑

囿空訟息 容保臨政

儒化漸滋 口騰豐碑

【후면】

甲申十二月日

外四面

〈현감 조장교(趙章敎)를 영원히 잊지 못하는 비석〉

輿誦咸曰 여론이 모두 말하기를,
軌式隨之 법도를 따른다 하네.
百姓蒙福 백성이 복을 입어,
一州賁治 온 고을 잘 다스려졌네.
囿空訟息 감옥은 비고 송사는 그치니,
儒化漸滋 유학의 교화가 불어났네.
容保臨政 백성을 보전하며 정사에 임하니,
口騰豐碑 입에 오르내려 큰 비석 같네.

갑신년(1884) 12월 일, 외사면(外四面)에서 세움

33. 석곡면 연반리 윤세영(尹世英) 유혜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1432번지 • 제작연대 1785년(乙巳)
- 크 기 높이 139, 너비 50

석곡면 연반리의 산아래 논두렁에 있는 바위에 새겨진 태안군수 윤세영의 유혜비이다. 바위면을 비석 모양처럼 파서 구획을 짓고 그 안에 비문의 글씨를 새겼다. 태안군수 윤세영이 관개하여 만든 보를 태안보(泰安湫)라고도 하고 설보(雪湫)라고도 하는데, 그의 덕을 기리기 위해 1785년 5월에 새긴 것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태안군수 윤세영이 말년에 도랑을 뚫어 들에 관개하고자 하였는데 한 곳에 바위가 있어 뚫지 못하다가 밤에 하늘의 도움으로 눈이 내려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돌을 뚫어 관개하였다고 한다.

윤세영(尹世英)의 자는 경재(敬齋), 본관은 파평(坡坪)으로, 아버지는 무과에 급제하여 병조참

판에 증직된 윤상은(尹相殷)이다. 영조조에 무과에 급제하여 태안군수(泰安郡守)를 지냈다. 비문은 4행 11자이다.

【전면】

天感雪神 穿石通溝

泰安郡守尹公世英遺惠碑

地審水脈 漑田蒙澤

乙巳五月日

〈태안군수(泰安郡守) 윤세영(尹世英) 유혜비(遺惠碑)〉

天感雪神 천신과 설신이 감응하여,
地審水脈 땅에서 수맥을 찾았네.
穿石通溝 바위 뚫어 도랑을 트니,
漑田蒙澤 밭에 물대는 혜택을 입었네.
을사년(1785) 5월 일에 새김

34. 석곡면 온수리 이성석(李聖錫) 유혜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온수리 271-1 • 제작연대 1703년(崇禎紀元後癸未)
- 크 기 전체높이 159, 비신높이 101, 너비 39, 두께 14

온수리 온수마을 정자 앞에 있는 이성석(李聖錫)의 불망비는 원래 승정 기원후 계미년(1703)에 세운 것을 최근에 다시 세운 것이다. 비문에 의하면 이성석은 전답 3두락과 돈 30냥을 출연하여 구제활동을 하였다. 비문은 훈장 조면채(趙勉采)가 지었다. 일을 수행한 사람으로 화주는 김상현과 정수조, 동수는 장영문, 감독은 김흥조와 김치운이 맡았다. 비문은 10행 17자이다.

【전면】

辨財捐廩 恤荒燭役
 幼學李聖錫遺惠不忘碑
 一洞感頌 片石堪語

【후면】

一兆坪調字三斗落負數十卜

崇禎紀元後癸未四月訓長趙勉采撰

石院無亡紙所錢三十兩

頭民 化主 金尙鉉 鄭遂祚

洞首 長永汶

監督 金興祚 金致瑱

〈유학(幼學) 이성석(李聖錫) 유혜불망비(遺惠不忘碑)〉

辨財捐廩 재물 마련하고 녹봉 덜어,

恤荒燭役 흉년 구휼하고 부역 줄였네.

一洞感頌 온 마을이 감동하여 칭송하니,

片石堪語 비석에 말할 만하네.

승정(崇禎) 기원후 계미(1703) 4월, 훈장(訓長) 조면채(趙勉采)가 짓다.

일조평(一兆坪) 조자(調字)땅 3두락(斗落)- 부수(負數) 10복(卜)인 곳과 석원(石院)의 무망지소(無亡紙所)에서 돈 30냥을 내어서 세우다.

두민(頭民) 화주(化主)는 김상현(金尙鉉)과 정수조(鄭遂祚), 동수(洞首)는 장영문(長永汶), 감독(監督)은 김흥조(金興祚)와 김치운(金致瑱)이 맡았다.

35. 석곡면 죽산리 최홍민(崔弘岷) 유혜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죽산리 산5 • 제작연대 1883년(崇禎紀元後癸未)
- 크 기 전체높이 179, 비신높이 108, 너비 42.5, 두께 16

최홍민(崔弘岷)의 유혜비는 죽산리 죽산마을 앞 비석군 중 가장 왼쪽에 있다. 2단의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가첨석을 올렸다. 건립시기를 ‘송정기원후계미(崇禎紀元後癸未)’라 하였지만, 조사 당시 마을에서 만난 최인수(86세)씨에 따르면 최홍민이 자신의 6대조이고 이 비를 고조가 세웠다고 한다. 또한 옆에 있는 마을유래에도 1840년에 최홍민이 설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

라 ‘崇禎紀元後癸未’에서 ‘四’자가 탈락한 것으로 보고 승정기원후사계미(崇禎紀元後四癸未, 1883년)로 판단하였다.

최홍민(崔弘岷)의 자는 군침(君瞻), 본관은 전주(全州)로, 최유경(崔有慶)의 후손이다. 석곡면 온수리에서 죽산리로 들어와 설촌하고, 오래도록 향약장을 맡아서 마을에 두터운 덕을 베풀었다. 비문은 10행 28자로 진사 이희인(李喜寅)이 지었다.

【전면】

崔公弘岷遺惠碑

【후면】

浴川治南四十里有山曰屏巖下有村曰竹山歲丁未公始勸之
村既成戶役滋生居人未易安堵公乃出財拮据補弊塞罅於是
家保戶全自有仰事脩育之樂各修出耕販讀之業此豈小惠哉公
以實心人受實福以至於鄉約積年久任民力得舒善心所施隨處
皆然若非敦德好生之君子其能如是乎居人不忘遺惠石之而余亦卜
宅于茲賴公多今日感舊尤倍於衆乃銘曰 相土奠居四隣咸隨息
財消瘼庇寒濟飢深仁厚澤愈久愈思爰鐫凡石俾告來時
崇禎紀元後癸未三月下澣進士李喜寅撰

【우면】

監役孔順宗

〈최홍민(崔弘岷) 유혜비〉

욕천(浴川)의 남쪽 40리에 산이 있으니, 병암산(屏巖山)이라고 하고, 그 아래에 마을 하나가 있으니 죽산(竹山)이라고 하는데, 정미년(1847)에 공이 처음 세운 마을이다. 마을이 이루어진 뒤 호역(戶役)이 불어나자 주민들이 쉽게 편안히 살지 못했다. 그러자 공이 재물을 내고 재산을 길러 폐단을 보충하고 틈을 메웠다. 이에 집마다 보전할 수 있어서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기르는 즐거움을 누리며 각자 나가서 농사짓고 돌아와 글 읽는 일을 꾸려 나갈 수 있었다. 이것이 어찌 작은 은혜이겠는가?

공이 진심으로 대하니 사람들이 진실한 복을 받았다. 향약으로 말하자면 여러 해 동안 오래도록 맡아서 백성들이 힘을 펼 수 있었으니, 선한 마음으로 베풀 일이 가는 곳마다 모두 그렇게 되었다. 만약 덕을 중시하고 살리기 좋아하는 군자가 아니었다면 어찌 이처럼 할 수 있었겠는가? 주민들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 비석을 세우니, 나 역시 이곳에 집터를 잡은 것이 공의 덕택이 컸기에 지금 옛날의 감회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욱 배가 된다. 이에 다음과 같이 명을 짓는다.

相土奠居	땅을 살피 터를 잡으니
四隣咸隨	사방 이웃이 모두 따랐네.
息財消瘼	재물을 길러 폐단을 없애고,
庇寒濟飢	추운 사람 덮어주고 배고픈 사람 구제하였네.
深仁厚澤	깊은 어짐과 두터운 은택이,
愈久愈思	오래될수록 더욱 생각나니,
爰鑄凡石	이에 돌에 새겨,
俾告來時	후세에 알리노라.

승정 기원후 계미년(1883) 3월 하순, 진사 이희인(李喜寅)이 짓다.

감역(監役)은 공순종(孔順宗)이 맡았다.

36. 오곡면 명산리 오치윤(吳致潤) 유혜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명산리 219-4 • 제작연대 1908년(戊申)
- 크 기 전체높이 144, 비신높이 95.5, 너비 33.5, 두께 12.5

오치윤(吳致潤)의 유혜비는 명산리 마을 입구 도로변에 있으며, 담장이 둘러 있다. 오치윤(吳致潤, 1840~1906)의 자는 자화(滋華), 호는 석은(石隱),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아버지는 규순(奎淳)이고, 어머니는 풍천인 노종(盧琮)의 딸로, 명산에서 살았다. 향약(鄉約)을 설립하였기에 사람들이 비(碑)를 세웠다. 비문은 4행 9자이다.

【전면】

重冊約稷 一方咸誦
石隱吳公致潤遺惠碑
殖財施恩 終不可諉

【좌면】

戊申三月日 有司高柄中

〈석은(石隱) 오치윤(吳致潤) 유혜비(遺惠碑)〉

重勅約契 향약의 규약을 다시 만들고,
殖財施恩 재물을 불려 은혜를 베풀었네.
一方咸誦 한 지방이 모두 칭송하니,
終不可諉 끝내 속일 수 없네.

무신년(1908) 3월, 유사(有司) 고병중(高柄中)

37. 오곡면 승법리 신윤조(申潤祚) 시혜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승법리 77 • 제작연대 1886년(丙戌)
- 크 기 전체높이 138, 비신높이 87, 너비 36, 두께 11

승법리 작은 도로가 대밭앞에 세워진 신윤조(申潤祚)의 비는 사각 대석 위에 축색 빛을 띠는 비신을 세우고 가첨석을 얹었다. 이 비석에는 신윤조가 지은 <함벽정언지(涵碧亭堰誌)>가 새겨져 있다. 이 승법마을은 1876년 봄에 곡성의 유지였던 도정(都正) 신윤조(申潤祚)가 호수를 파고여기에 물을 담아 농민들의 눈에 물을 댈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한다. 지금의 구성저수지 호숫가에 정자를 지어 함벽정(涵碧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 함벽정은 지희정(至喜亭)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신윤조의 불망비가 석곡리에도 세워져 있다. 비문은 15행 24자이다.

황현의 『매천집』에는 다음과 같은 <신윤조추만(申潤祖追輓)>이라는 시가 있고, 그와 관련한 설명이 붙어 있는데, 그가 곡성현의 아전이었음을 밝혔다.

涵碧亭南十頃池
芙蓉楊柳弄淪漪
春風幾墮農人淚
長似垂綸繫艇時

함벽정 남쪽에 열 이랑쯤 되는 못이 있어
연꽃과 버들이 잔물결 위에 하늘거리네
춘풍이 농부들 눈물을 얼마나 흘리게 했던고
길이 배 정박하고 낚시줄 드리우던 때 같구려

신씨가 곡성(谷城) 남쪽에 호수를 파서 여기에 물을 담아 농민들의 논에 물을 댈 수 있게 해주었고, 호숫가에 정자를 지어 '함벽(涵碧)'이라 불렀다.

【전면】

涵碧亭堰誌

縣治南約二里有倉庫野摠之千頃灌未之洽旱爲憂計之九萬坪可以堰余從少心自講是見丙子尤信前筭丁丑相地役數朔成人以亭强之置山趾取於水榜曰涵碧又西易舊屋新之爲護亭皆於堰無數步而北噫是久得之心而夙願之償適丁余甲抑地之遭固有數而心之施爲亦有待不容力由以早晚者哉但人之見知堰遺亭率以爲從人强之而至其非直爲觀雖强之者不能喻堰則成而屬諸野非吾有也亭則水竹背城市山三面折旋頗不乏致非資游賞爲可讀書地矧夫此距

【후면】

家園隔一溪岡一憩可卽時以野服散髻徜徉乎烟雨壠畝之間逢人道桑麻課兒讀詩禮以娛晚節則亭堰之賜爲多而在子孫不以修缺舉廢爲塞己責須體認之爲不負亭堰然則人知不何恤堰而又十年咄子書之于石使若有以識勉旃之在於斯夫

丙戌四月上澣平山申潤祚識

〈함벽정(涵碧亭) 언지(堰誌)*〉

관아 남쪽 약 2리에 창고가 있다. 들판은 천 이랑이 되는데 물대기가 충분하지 않아서 가뭄을 걱정하였다. 계산해보면 구만평에는 독을 쌓을 만하다. 나는 어려서부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였고, 병자년(1936)이 되자 이전의 계획을 더욱 믿게 되었다.

정축년(1937)에 땅을 살피 일을 시작하니 몇 달 만에 완성하였다. 사람들이 억지로 정자를 세워 산기슭에 두었다. 물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함벽(涵碧)'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또 서쪽에 있는

*언지(堰誌): 독을 세우고 비석에 새긴 글이다.

옛집을 새로 지어 이 정자를 보호하였으니, 모두 독의 북쪽 몇 걸음 안에 있다.

아! 이것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숙원을 이룬 것이다. 때마침 나의 운수가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땅이 때를 만난 것이 운수가 있어서인지 모르겠다. 마음으로 계획한 것도 때가 있어 억지로 빨리하고 늦게 하기를 용납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독과 정자가 모두 사람이 억지로 힘써 만든 것으로 안다. 그것은 단지 볼거리를 위해서가 아니니, 비록 억지로 만든 사람일지라도 깨달을 수 없다. 독이 완성되자 들판에 속하였으니 이는 내 소유가 아니다. 정자는 물가와 대밭에 있고 저자를 뒤로 하였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운치가 적지 않다. 유람하기 위한 곳이 아니라 독서를 하기 위한 곳이다.

하물며 이곳에서 집까지는 개울 하나와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 한번 쉬면 바로 야인의 복장과 흘러내린 머리로 안개와 비가 가득한 밭과 두둑 사이를 돌아다닐 수 있다. 사람을 만나면 농사를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시례(詩禮) 설명하면서 만년을 즐길 수 있으니, 정자와 독이 가져다주는 좋은 점이 많다. 자손들은 부서진 곳을 수리하고 무너지면 다시 짓는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였다고 여기지 말고, 부디 체득하여 알고 정자와 독을 만든 뜻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무엇을 근심하랴? 독을 쌓은 지 또 십년이 지나서 아들에게 말하여 돌에 새기니, 가령 기록해두고 힘쓰는 것은 여기에 달려 있다.

병술년(1886) 4월 상순, 평산(平山) 신윤조(申潤祚)가 기록하다.

38. 오곡면 오지리 안제원(安濟遠) 영사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401-7 • 제작연대 1873년(癸酉)
- 크 기 전체높이 250, 비신높이 190, 너비 55, 두께 22

안제원(安濟遠)의 영사비는 오지리 마을 끝의 길가에 세워진 비각 속에 손자인 진사(進士) 해사(海史) 안중섭(安重燮)의 영사비(永思碑)와 함께 세워져 있다. 이 비석은 계유년(1873) 10월에 오지면 향약소에서 세웠는데, 이때 유사는 이남재(李南宰)와 정동신(鄭東臣)이었고, 병인년(1986) 4월에 증수했다.

안제원(安濟遠, 1796~1873)의 자는 내집(乃楫), 호는 덕암(德菴),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효자(孝子) 효천(孝天)의 손자이며, 아버지는 사순(師舜)이다. 일찍 경세제민(經世濟民)에 뜻을 두고 서사(書舍) 영수정(永守亭)을 축조, 책을 장만하여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향약(鄉約)을 증손(增損)하여 예(禮)를 일으켰다. 어사(御使) 심동신(沈東臣)의 추천으로 1878년에 통훈대부 사헌부 감찰(監察)

에 증직되고, 그해 고을 사람들이 영사비(永思碑)를 세웠다. 비문은 7행 9자이다.

【전면】

德庵安公濟遠永思碑

【후면】

吾鄉設約 藍田美俗
與衆大同 社倉遺風
坊有餘貯 伊誰之力
戶蒙其功 猗歟我公

【우면】

癸酉十月日梧枝面鄉約所立 有司李南宰 鄭東臣

丙寅四月日重豎

〈덕암(德庵) 안제원(安濟遠) 영사비(永思碑)〉

吾鄉設約	우리 고을에 향약을 만들어,
與衆大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였네.
藍田美俗	남전의 아름다운 풍속이며,
社倉遺風	사창 ¹⁰ 의 남겨진 풍습이라.
坊有餘貯	방내에는 남은 저축이 있고,
戶蒙其功	집집마다 그 공덕을 입었네.
伊誰之力	이는 누구의 힘이겠는가,
猗歟我公	아아 우리 공이시로다.

계유년(1873) 10월에 오지면 향약소에서 세웠다. 유사는 이남재(李南宰)와 정동신(鄭東臣)이다.
병인년(1986) 4월에 다시 세웠다.

10 사창(社倉): 남송(南宋)의 주희(朱熹)가 재해를 입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창고를 설치하여 곡식을 비축해 두고 백성에게 빌려주었다.『宋史 道學列傳』

39. 오곡면 오지리 이조식(李祖植) 흥학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464(덕계사) • 제작연대 1838년(戊戌)
- 크기 전체높이 155, 비신높이 114, 너비 44, 두께 12

오지리 덕계사 내에 서 있는 현감 이조식(李祖植)의 흥학불망비(興學不忘碑)이다. 새로 만든 사각 대석 위에 화강암으로 된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가첨석을 얹었다. 이조식은 을미년(1835)에 곡성현감으로 부임하여 무술년(1838)에 임기 만료로 떠났다.

【전면】

縣監李侯祖植興學不忘碑

【좌면】

戊戌四月日

40. 오산면 봉동리 홍정주(洪鼎周)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609-2(오산면사무소) • 제작연대 1838년(戊戌)
- 크 기 전체높이 158, 비신높이 103, 너비 47, 두께 17

오산면사무소 앞마당에 나란히 세워져 있는 5기의 비석 중 제일 오른쪽에 세워져 있는 비석이 홍정주(洪鼎周)의 불망비이다. 최근에 조성한 지대석 위에 원수형 비신이 세워져 있는데, 지대석에는 비명과 재위 기간과 한글 풀이가 적혀 있다. 홍정주는 1836년 옥과현감에 부임하여 1840년에 한산군수로 옮겨갔다. 비문은 2행 11자이다.

【전면】

縣監洪侯鼎周永世不忘碑

【후면】

歲在戊戌十二月日

41. 오산면 봉동리 민철호(閔喆鎬) 영사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609-2(오산면사무소) • 제작연대 미상(1872년경)
- 크 기 전체높이 222, 비신높이 165, 너비 58, 두께 24

오산면사무소 앞마당에 나란히 세워져 있는 비석 중 오른쪽에서 2번째에 서 있는 민철호(閔喆鎬)의 영사비이다. 새로 만든 지대석 위에 원수형 비신이 세워져 있다. 민철호는 1868년에 옥과현감에 부임하여 1872년에 고부군수로 옮겨갔다. 비문은 1행 9자이다.

【전면】

縣監閔侯喆鎬永思碑

42. 오산면 봉동리 이현영(李顯永) 애홀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609-2(오산면사무소) • 제작연대 미상(1877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97, 비신높이 140, 너비 55, 두께 21.5

이현영(李顯永) 애홀비는 오산면사무소 앞마당에 나란히 세워져 있는 5기의 비석 중 가운데에 있는 비석이다. 새로 만든 지대석 위에 원수형 비신이 세워져 있다. 이현영은 1875년에 옥과현감에 부임하고 1877년에 예천군수로 옮겨갔다. 비문은 1행 9자이다.

【전면】

縣監李侯顯永愛恤碑

43. 오산면 봉동리 임홍준(任弘準) 영사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609-3(오산면사무소) • 제작연대 미상(1897년경)
- 크 기 전체높이 239, 비신높이 151, 너비 53, 두께 23

임홍준(任弘準) 영사비는 오산면사무소 앞마당에 나란히 세워져 있는 비석 중 향좌 2번째에 위치한다. 새로 만든 지대석 위에 가첨석을 얹은 비신이 세워져 있다. 기단석에는 판독문과 번역문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글자가 많이 다르다. 임홍준은 옥과현감에 1895년부터 1897년까지 재직하였다. 비문은 5행 9자이다.

【전면】

繫我有福 望隆北洛
 天惠仁侯 頌騰南州
 郡守任侯弘準永思碑

火粟祛瘼 之德曷忘

川結舒憂 以永千秋

〈군수 임홍준(任弘準) 영사비(永思碑)〉

繁我有福	아, 우리들이 복이 있어서,
天惠仁侯	하늘이 어진 군수님을 보내주셨네.
望隆北洛	조정에서 명망이 높으신 분으로,
頌騰南州	이곳 남쪽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네.
火粟祛瘼	화속세의 병폐를 제거하시고,
川結舒憂	천변의 전답은 근심을 풀어주셨네.
之德曷忘	그의 덕을 어찌 잊으랴,
以永千秋	천년이 지나도록 영원하리라.

44. 오산면 청단리 정화석(鄭華錫)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청단리 52-3(청단) • 제작연대 미상(1866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95, 비신높이 159, 너비 58, 두께 20

오산면 청단리 청단마을 입구 마을정자 앞에 있는 현감 정화석(鄭華錫)의 불망비이다. 자연석 기 대 위에 원수형 비신을 세운 것이다. 정화석(鄭華錫)은 진사로서 갑자년(1864) 11월에 옥과현감에 도임하여 을축년(1865) 12월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체직되었다. 비문은 3행 11자이다.

【전면】 太平保身 一境咸守
 縣監鄭侯華錫永世不忘碑
 惠乎安民 化自圓泰

〈현감(縣監) 정화석(鄭華錫) 영세불망비〉

太平保身	태평성대에 자기 몸 지키고,
惠乎安民	은혜 베풀어 백성을 편안히 하였네.
一境咸守	온 경내 사람이 모두 지키니.
化自圓泰	교화가 저절로 원만하고 태평하네.

45. 옥과면 옥과리 조인영(趙寅永) 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미상(1830년경)
- 크 기 전체높이 231, 비신높이 172, 너비 59, 두께 19.5

관찰사 조인영(趙寅永) 불망비(不忘碑)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첫 번째에 서 있는 비석이다. 조인영은 전라도 관찰사에 기축년(1829) 2월에 도입했다. 전면의 글자 외에 측면, 후면에는 글자가 없다. 비문은 1행 11자이다.

【전면】

觀察使趙相公寅永不忘碑

46. 옥과면 옥과리 서기순(徐箕淳) 영사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미상(1843년경)
- 크 기 전체높이 228, 비신높이 167.5, 너비 57, 두께 23

서기순(徐箕淳) 영사비(永思碑)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2번째에 서 있는 비석이다. 서기순은 전라도 관찰사에 임인년(1842) 8월에 도입했다. 비석의 생김새가 앞서 살핀 관찰사 조인영(趙寅永) 불망비(不忘碑)와 똑같다. 전면의 글자 외에 측면과 후면에는 글자가 없다. 비문은 1행 11자이다.

【전면】

觀察使徐相公箕淳永思碑

47. 옥과면 옥과리 이유원(李裕元) 영사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1852년(咸豐二年)
- 크 기 전체높이 213.5, 비신높이 168.5, 너비 49.5, 두께 18.5

이유원(李裕元) 영사비(永思碑)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3번째에 서 있는 비석이다. 가첨석이 올려져 있다. 관찰사 이유원은 신해년(1851) 2월에 도입했다. 비문은 4행 11자이다.

【전면】

士曰民曰 八則秉均
觀察使李相公裕元永思碑
患我福我 一國咸安

【후면】

咸豐二年二月日

〈관찰사(觀察使) 이유원(李裕元) 영사비(永思碑)〉

士曰民曰 선비와 백성들이 말하기를,
患我福我 우리를 근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네.
八則秉均 여덟 가지 법칙¹¹ 모두 지키니,
一國咸安 온나라가 모두 평안하네.
함풍(咸豐) 2년(1852) 2월 일에 세움

11 여덟 가지 법칙: 다스림에 필요한 제사(祭祀), 법칙(法則), 폐치(廢置), 녹위(祿位), 부공(賦貢), 예속(禮俗), 형상(刑賞), 전역(田役)이다.

48. 옥과면 옥과리 이돈상(李敦相) 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미상(1877년경)
- 크 기 전체높이 239, 비신높이 176.5, 너비 58.5, 두께 26.5

이돈상(李敦相) 불망비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4번째에 서 있는 비석이다. 비석의 생김새는 향좌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세워져 있는 비석과 비슷하다. 관찰사 이돈상은 병자년(1876) 9월에 도입했다. 비문은 1행 11자이다.

【전면】

觀察使李相公敦相不忘碑

49. 옥과면 옥과리 신혼(申混) 청덕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1654년(順治十一年)
- 크 기 전체높이 138, 비신높이 138, 너비 59.8, 두께 18.5

현감 신혼(申混) 청덕선정비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5번째에 서 있는 비석이다. 1654년 4월에 세운 것으로 새롭게 만든 대좌에 원수형 비신이 세워져 있다. 비석에 비해 글자 크기가 작게 새겨져 있다. 신혼은 무관으로 임진년(1652) 2월에 옥과현감에 도임했으며, 갑오년(1654) 1월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비문은 2행 10자이다.

【전면】

縣監申侯混清德善政碑

【후면】

順治十一年四月日建

50. 옥과면 옥과리 이동직(李東稷) 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1657년(順治十四年)
- 크 기 비신높이 163.5, 너비 65, 두께 19.8

현감 이동직(李東稷) 선정비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6번째에 서 있는 비석이다. 1657년 2월에 세운 것으로 원수형 비신을 새로 만든 대좌에 세웠다. 이동직은 옥과현감에 갑오년(1654) 2월에 도입해 정유년(1657) 1월에 부모가 연로하다는 것으로 상소를 올려 체직되었다. 비문은 2행 9자이다.

【전면】

縣監李公東稷善政碑

【후면】

順治十四年二月日

51. 옥과면 옥과리 이규헌(李奎憲) 영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1862년(同治元年壬戌)
- 크 기 전체높이 234.5, 비신높이 187.5, 너비 60.5, 두께 28.5

현감 이규헌(李奎憲) 불망비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7번째에 서 있는 비석이다. 1862년 봄에 세운 것으로, 가침석을 갖춘 비석이다. 뒷면에는 이 비석을 세운 내력에 대해서 적었다. 이규헌(李奎憲)은 진사로서 병자년에 옥과현감에 제수되어 정축년(1817) 1월에 도임하였고, 경진년(1820) 6월에 임피현령(臨陂縣令)으로 옮겨갔다. 비문은 7행 11자이다.

【전면】

縣監李侯奎憲永世不忘碑

【후면】

公之去後建永思閣於衙之南矣星
霜屢移自至傾圮輿論復起
同治元年壬戌春仍豎是石以計于
百禩永壽鄉有司成均進士沈樂麟
色吏時戶長金邦黠幹事而邦黠
公之由吏金性彥之孫也

〈현감 이규헌(李奎憲) 영세불망비〉

공이 떠나간 후 영사각을 관아의 남쪽에 세웠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되자 무너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여론이 다시 일어나 동치 원년 임술년(1862) 봄에 이 비석을 세우고 백년토록 영구할 것을 계획하였다. 향유사는 성균진사 심낙린(沈樂麟)이고, 색리(色吏)로 이때 호장인 김방묵(金邦黠)이 일을 주관했는데, 방묵은 유리(由吏) 김성언(金性彦)의 손자이다.

52. 옥과면 옥과리 홍희철(洪羲喆) 거사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미상(1822년경)
- 크 기 비신높이 153, 너비 44.5, 두께 15.8

현감 홍희철(洪羲喆) 거사비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8번째에 서 있는 원수형 비석이다. 홍희철은 옥과현감에 경진년(1820) 6월 제수되어 7월에 도임하였으며 임오년(1822) 10월에 풍기군수로 옮겨갔다. 비문은 1행 9자이다.

【전면】

縣監洪侯羲喆去思碑

53. 옥과면 옥과리 홍진연(洪晉淵) 거사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미상(1832년경)
- 크 기 비신높이 166, 너비 41.8, 두께 18.8

현감 홍진연(洪晉淵) 거사비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9번째에 서 있는 비석으로, 원수형과 규수형의 복합형태이다. 홍진연은 옥과현감에 경인년(1830) 7월에 도입해서 임진년(1832) 12월에 옮겨갔다. 비문은 1행 9자이다.

【전면】

縣監洪侯晉淵去思碑

54. 옥과면 옥과리 최원(崔瑗) 영사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미상(1844년경)
- 크 기 비신높이 148, 너비 53.8, 두께 18.8

현감 최원(崔瑗) 영사비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10번째에 서 있는 비석이다. 비수는 규수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최원은 옥과현감에 경자년(1840) 12월 1일 제수되어 같은 달 29일 도임했고 갑진년(1844) 6월에 고양군수로 옮겨갔다. 최원 비석은 옥과향교 정문 옆에 흥학비로 세워져 있다. 비문은 1행 8자이다.

【전면】

縣監崔侯瑗永思碑

55. 옥과면 옥과리 정세창(鄭世昌) 영사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미상(1847년경)
- 크 기 비신높이 136, 너비 53.5, 두께 26

현감 정세창(鄭世昌) 영사비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11번째에 서 있는 비석이다. 방형에 가까운 규수형 비이다. 정세창은 최원 다음으로 자리를 이어받아 갑진년(1844) 7월에 도입했고 병오년(1846) 12월에 김제군수로 옮겨갔다. 비문은 1행 9자이다.

【전면】

縣監鄭侯世昌永思碑

56. 옥과면 옥과리 윤회선(尹會善) 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1852년(咸豐二年)
- 크 기 비신높이 161, 너비 56.3, 두께 23

현감 윤회선(尹會善) 선정비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12번째에 서 있는 원수형 비석이다. 1852년 3월에 세워졌다. 윤회선은 정세창 다음으로 이어받아 옥과현감에 정미년(1847) 2월에 도임했고 경술년(1850) 6월에 진산군수로 옮겨갔다. 비문은 2행 9자이다.

【전면】

縣監尹侯會善善政碑

【후면】

咸豐二年三月日

57. 옥과면 옥과리 정화석(鄭華錫) 영사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미상(1866년경)
- 크 기 전체높이 242.5, 비신높이 197.5, 너비 62.8, 두께 25.8

정화석(鄭華錫) 영사비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13번째에 서 있는 비석이다. 가첨석이 올려져 있는 형태이다. 정화석은 옥과현감에 갑자년(1864) 11월에 도입하여 을축년(1865) 12월에 모친상을 당하여 체직되었다. 바로 옆에도 또다른 정화석의 홀민영사비가 세워져 있고 오산면 청단리에도 비석이 세워져 있다. 비문은 1행 7자이다.

【전면】

鄭侯華錫永思碑

58. 옥과면 옥과리 정화석(鄭華錫) 흥민영사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1866년(同治五年丙寅)
- 크 기 비신높이 173, 너비 57.5, 두께 22.8

정화석(鄭華錫) 영사비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14번째에 서 있는 비석이다. 1866년 3월에 현내면에서 세운 것으로, 원수형 비석이다. 정화석은 옥과현감에 갑자년(1864) 11월에 도임하여 을축년(1865) 12월에 모친상을 당하여 체직되었다. 고종 2년인 을축년 8월 17일에 왕은 경상도와 전라도에 위로하고 유시하는 윤음을 내렸는데, “태풍과 폭우가 때없이 몰아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여 영남(嶺南)지방이 가장 큰 피해를 받았고 호남(湖南)지방에서도 재해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1865년은 봄 여름 기후가 고르지 못해 태풍과 폭우로 영호남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문은 2행 12자이다.

【전면】

鄭侯華錫恤民永思碑

同治五年丙寅三月日縣內面

59. 옥과면 옥과리 김도근(金度根) 영사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미상(1867년경)
- 크 기 전체높이 222, 비신높이 171.5, 너비 59.8, 두께 22.7

현감 김도근(金度根) 영사비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15번째에 서 있는 비석이다. 비신에 가첨석이 올라있다. 김도근은 정화석에 이어 옥과현감에 부임한 인물로 병인년(1866) 2월에 도임해 정묘년(1867) 3월에 고양군수로 옮겨갔다. 가첨석이 올려져 있는 비석이다. 비문은 1행 9자이다.

【전면】

縣監金侯度根永思碑

60. 옥과면 옥과리 박제만(朴齊萬) 영사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미상(1868년경)
- 크 기 전체높이 220.5, 비신높이 170.5, 너비 58.3, 두께 23.7

현감 박제만(朴齊萬) 영사비(永思碑)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16번째에 서 있는 비석이다. 비신에 가침석이 올라있다. 박제만은 김도근 뒤를 이어 옥과현감에 부임했으니 정묘년(1867) 4월에 무장에서 도임하여 무진년(1868) 8월에 순창군수로 옮겨갔다. 가침석 뒷면 처마부분과 서까래 부분이 깨져있다. 비문은 1행 9자이다.

【전면】

縣監朴侯齊萬永思碑

61. 옥과면 옥과리 민철호(閔哲鎬) 영사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미상(1878년경)
- 크 기 비신높이 178.5, 너비 59.7, 두께 22.4

민철호(閔哲鎬) 영사비(永思碑)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17번째에 서 있는 비석이다. 원수형 모양이다. 옥과현감을 역임한 인물 중 민철호는 2명이다. 한 명은 1868년에 도입한 민철호(閔喆鎬)이고, 다른 한 명은 영사비가 있는 민철호(閔哲鎬)로 1877년 7월에 도입해 1878년 10월에 강서현령으로 옮겨갔다. 비문은 1행 7자이다.

【전면】

閔侯哲鎬永思碑

62. 옥과면 옥과리 문익준(文益峻) 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1648년(順治五年)
- 크 기 비신높이 154.5, 너비 68, 두께 24

문익준(文益峻) 선정비(善政碑)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18번째에 서 있는 비석이다. 1648년 3월에 세운 원수형 비이다. 문익준은 무관으로서 정해년(1647) 2월에 옥과에 도임해 무자년(1648) 2월 4일에 어사의 계에 의해 파직되었다. 인조실록에 따르면 당시 암행어사 심택은 “옥과현감(玉果縣監) 문익준(文益峻)은 소를 잡고 세금을 거두고 함부로 과부를 데리고 있었다.”라고 아뢰었다. 비문은 2행 9자이다.

【전면】

縣監文公益峻善政碑

【후면】

順治五年三月日

63. 옥과면 옥과리 신득홍(申得洪) 청덕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1654년(順治十一年)
- 크 기 비신높이 141.5, 너비 60.5, 두께 24

현감 신득홍(申得洪)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19번째에 서 있는 비석이다. 1654년 1월에 세운 원수형 비이다. 신득홍은 무자년(1648) 윤3월 6일에 옥과에 도임하여 임진년(1652) 1월 5일에 군기(軍器)를 보수하지 않았다는 병사(兵使)의 계에 의해 파직되었다. 비석 가운데 부분이 동강난 것을 이었다. 비문은 2행 9자이다.

【전면】

縣監申侯得洪淸德善政碑

【후면】

順治十一年正月日建

64. 옥과면 옥과리 신이정(愼爾定) 거사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04-9(객사터) • 제작연대 1715년(康熙五十四)
- 크 기 비신높이 156, 너비 64.3, 두께 24.2

현감 신이정(愼爾定) 거사비(去思碑)는 옥과 객사터 비석군 중에 향좌 20번째에 서 있는 비석이다. 1715년 2월에 세운 원수형 비로, 비석은 아랫부분이 동강난 것을 이어 붙였다. 신이정은 옥과현감에 계사년(1713) 9월 9일에 도임하였고 갑오년(1714) 12월 16일에 말미를 얻어 상경했다가 순무어사의 계에 의해 파직되었다. 비문은 2행 9자이다.

【전면】

縣監愼公爾定去思碑

【후면】

康熙五十四年二月日

65. 옥과면 옥과리 이흥발(李興淳) 흥학비(興學碑)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4-1(옥과향교앞) • 제작연대 미상(1637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67, 비신높이 12.5, 너비 62.7, 두께 37

이흥발(李興淳) 흥학비(興學碑)는 옥과향교 앞에 세워져 있는 비석군 중에서 향좌 첫 번째에 자리한 비석이다. 대석은 보이지 않고, 비수는 하엽형이다. 비 뒷면에도 글자가 새겨져 있지만 마모가 심해 알아보기 어렵다. 이흥발은 옥과현감으로 계유년(1633) 8월 18일에 도입하였고, 병자년(1636)에 의병을 일으켜 근왕(勤王)하였으며, 정축년(1637) 5월 8일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흥발의 자는 유연(悠然), 호는 운암(雲巖), 본관은 한산(韓山)으로, 이색(李穡)의 후손이다. 저서로는 『운암일고』가 있고, 영귀서원에 배향되었다.

【전면】

李侯興淳興學碑

66. 옥과면 옥과리 신익(申愷) 흥학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4-1(옥과향교앞) • 제작연대 1778년(乾隆四十三年戊戌)
- 크 기 전체높이 195.5, 비신높이 141.5, 너비 59.2, 두께 36.2

신익(申愷) 흥학비(興學碑)는 옥과향교 앞에 위치한 비석군에서 왼쪽에서 2번째에 있는 비석이다. 1778년 5월에 세운 것으로 비수는 하엽형이다. 신익은 병신년(1776) 1월에 옥과현감에 도임하여 무술년(1778) 4월 25일에 한양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비석의 형태는 이흥발 흥학비와 유사하다. 비문은 7행 26자이다.

【전면】

縣監申公愷興學碑

【후면】

公平山人象村之後性質溫厚文識博雅愛人下士教誨不倦新設

養士勸課做讀故者功課有士曰勸學民則安堵之語嘗捐錢五百
緡以付民役又出八十緡買養士基址營建齋舍將大有爲未及始
役天奪之速本年四月二十五日病卒于本宅聞訃之日一世大小
如悲親戚士民之受教者殫誠出力立石銘功以誌于後
乾隆四十三年戊戌五月日

〈현감 신익(申儼) 흥학비〉

공은 평산인(平山人)으로, 상촌(象村) 신흠(申欽)의 후손이다. 성품이 온후하고 학문이 넓고 고상하였으며,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어 선비를 예우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았다. 새로이 양사재를 개설하여 일과로 학업을 하길 권장하였는데, 옛날에도 공과(功課)에 선비에게는 학문을 권하고, 백성들은 안도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

일찍이 돈 500민(緡)을 털어서 민역(民役)에 붙였고, 또 80민을 내어 양사재의 터를 사고 재사(齋舍, 건물)를 건립하여 장차 큰일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으나 일이 시작도 되기 전에 하늘이 속히 빼앗아 갔으니, 본년 4월 25일에 병으로 본택(本宅)에서 죽게 되었다. 부음을 들은 날 한 시대의 대소 사람들이 친척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였다. 가르침을 받은 사민(士民)들이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비석을 세우고 그의 공을 새겨서 뒤에 기록한다.

건륭 43년 무술년 5월 일.

67. 옥과면 옥과리 이종휘(李種徽) 흥학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4-1(옥과향교앞) • 제작연대 1788년(乾隆五十三年戊申)
- 크 기 비신높이 142.5, 너비 43.5, 두께 11.5

이종휘(李種徽) 흥학비(興學碑)는 옥과향교 앞에 위치한 비석군에서 왼쪽에서 3번째에 있는 비석이다. 1788년 2월에 세운 것으로, 대석은 보이지 않고 비신에는 가첨석이 없어져 있는데, 일부가 깨졌다. 이종휘는 옥과현감에 계묘년(1783) 6월에 도입하였고 정미년(1787) 11월 정사에서 양천현령으로 옮겨갔다. 비문은 4행 11자이다.

【전면】

李侯種徽興學碑

【후면】

子叔之猛

文翁之化

乾隆五十三季戊申二月日

〈이종휘(李種徽) 흥학비〉

子叔之猛 자숙의 맹렬함으로,

文翁之化 문옹의 교화를 펼쳤네.

건륭 53년 무신(1788) 2월에 세움

68. 옥과면 옥과리 최원(崔瑗) 흥학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4-1(옥과향교앞) • 제작연대 1844년(崇禎紀元後四甲辰)
- 크 기 전체높이 169.5, 비신높이 119.5, 너비 51, 두께 17.7

현감 최원(崔瑗) 흥학비(興學碑)는 옥과향교 앞 비석군에서 왼쪽에서 5번째에 있는 비석이다. 1844년 10월에 세운 것으로, 비석의 개석은 비신에 비해 크게 느껴지는 가첨석이 없어져 있다. 최원은 경자년(1840) 12월에 옥과현감에 도입하여 갑진년(1844) 6월에 고양군수로 옮겨갔다. 최원의 영사비가 옥과 객사터에도 세워져 있다. 비문은 4행 11자이다.

【전면】

縣監崔侯瑗興學碑

【후면】

師比趙德

復隨文翁

崇禎紀元後四甲辰十月日

〈현감 최원(崔瑗) 흥학비〉

師比趙德 스승으로서 조덕(趙德)에 비할만하고,

復隨文翁 다시 문옹(文翁)을 따르듯 하였네.

승정 기원후 4 갑진(1844) 10월에 세움

69. 옥과면 옥과리 윤희선(尹會善) 흥학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14-1(옥과향교앞) • 제작연대 1850년(道光三十年庚戌)
- 크 기 전체높이 155.5, 비신높이 122, 너비 50.8, 두께 20.7

1850년 7월에 세운 현감 윤희선(尹會善) 흥학비(興學碑)는 옥과향교 앞에 위치한 비석군에서 왼쪽에서 6번째(맨 오른쪽)에 있다. 대석은 보이지 않으며, 개석은 가침석 형태이다. 윤희선은 옥과현감에 정미년(1847) 2월에 도임하여 경술년(1850) 6월에 진산군수로 옮겨갔다. 윤희선은 대성전, 명륜당, 제기고, 내신문 등을 중창하였다. 윤희선의 선정비가 1852년에 옥과 객사터에도 세워져 있다. 비문은 3행 13자이다.

【전면】

縣監尹侯會善興學碑

【후면】

聖殿明倫堂祭器庫內神門重勅
道光三十年庚戌七月日

70. 입면 입석리 신익(申翼) 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석리 303-6 • 제작연대 1778년(戊戌)
- 크 기 전체높이 173, 비신높이 173, 너비 64, 두께 21

옥과현감(玉果縣監)을 지낸 신익(申翼, 1726~1778)의 선정비(善政碑)는 입석1구 마을 입구 버스 승강장 근처 길가에 있다. 비는 신익이 사망하기 두 달 전인 1778년 2월에 자연석의 앞면을 다듬어 제목을 썼고, 입면(立面) 사람들이 건립하였다. 신익의 호는 소심(素心)·대관재(大觀齋),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1775년에 옥과현감으로 부임하였다. 3년간 옥과현감으로 재임하면서, 제방(堤坊)을 쌓고 급히 흐르는 강물을 막아 백성들에게 이익을 주자 제방 이름을 '신공제(申公堤)'라 하였으며, 또한 학사(學舍)를 건립하여 양반자제들을 가르쳐 문풍(文風)이 번성하였다. 신익은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얻은 감질(感疾)로, 1778년 4월에 53세로 사망하였다. 신익의 흥학비가 옥과향교 앞에 세워져 있다. 비문은 2행 10자이다.

【전면】 縣監申侯翼清德善政

戊戌二月日 立面建

71. 죽곡면 당동리 남궁침(南宮忱)·소해(蘇邂) 설창선정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당동리 100-1 • 제작연대 1564년(甲子)
- 크 기 전체높이 108, 비신높이 87, 너비 36, 두께 11.5

당동리 서정마을에서 당동마을로 가는 큰 길가 정자 옆에 세워진 3기의 비석 중에 좌측 첫 번째에 있는 비는 관찰사 남궁침(南宮忱, 1513~1567)과 현감 소해(蘇邂)가 창고를 설치하고 선정을 베푼 것을 기리기 위해 1564년에 세운 것이다. 양옆으로는 1991년 7월에 보수하여 세운 비석이 붙어 있다. 원비는 원수형 비신에 사각형 비좌를 갖춘 일체형 비석인데, 주변을 오석으로 비신과 비좌 및 지대석을 보강하고 화강석으로 보주를 얹은 옥개석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구비의 글씨가 잘 보이지

않자 비 앞면 좌우와 하단에 비명과 약력 및 보수기를 새겨놓았다.

소해(蘇邂)는 생원으로서 중훈대부이며, 한성판관으로써 계해년(1563) 8월에 곡성현감에 부임하여 갑자년(1564) 12월에 바뀌었다. 사창(社倉)을 설립하였다. 비문은 1행 15자이다.

【전면】

觀察使南宮忱縣監蘇邂設倉善政碑

【보수비】

觀察使南宮忱縣監蘇邂設倉善政碑

觀察使南宮公略譜

公之諱忱字誠仲咸悅人李朝中宗八年(西紀一五一三年)癸酉生丁酉

生員庚子文科甲辰司諫院正言明宗元年丙午司憲府持平

戊申江原道暗行御史己酉議政府舍人庚戌中宗實錄編纂

壬子弘文館直提學慶尚道暗行御史癸丑承政院左承旨兼藥房

〈전면 하단〉

이 碑는 李朝明宗十九年甲

子(西紀一五六四年)에 當時觀察使인

南宮公이 稅穀을 遠距離인

全州監營까지 運搬하여 上

納해온 어려움을 減어주기

爲해서 이 고을 縣監에게

指示하여 이곳 竹谷面에 倉

庫를 設置케 한것 以므로

縣民들이 公의 고마움을 永

世不忘코저 善政碑를 만들

어 세웠던것이다 이제 扶

餘사는 公의 十三世孫인 南

宮 祥氏가 風化된것을 보고

송구하여 保修하다

西紀一九九一年辛未七月日

咸悅南宮氏宗親會 記

【좌면】

提調 甲寅 成均館大司成 丁巳 開城留守 癸亥 漢城府判尹
 掌隸院判決事 明宗十九年(西紀一五六四年)甲子 全羅道觀察使 乙丑 吏曹
 參判 丙寅 咸鏡道觀察使 丁卯 漢城府判尹 宣祖元年(西紀一五六八年)戊
 辰 五衛都摠府副摠管 以上 (事載李朝實錄)

【우면】

縣監 蘇公略歷
 公之諱邈 晉州蘇氏三十一世興陽縣監諱世得之長男 谷城縣監
 綾城郡守 至濟用監僉正 (晉州蘇氏世譜興陽公派編依據)

〈관찰사 남궁침(南宮忱)과 현감 소해(蘇邈)의 설창(設倉) 선정비〉

관찰사 남궁침의 간략 이력

공의 휘는 침(忱)이고, 자는 성중(誠仲)이며, 본관은 함열(咸悅)이다. 이조 중종 8년 계유년에 태어났고, 정유년에 생원이 되었으며, 경자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갑진년에 사간원 정언이 되었고, 명종 원년 병오년에 사헌부 지평이 되었으며, 무신년에 강원도 암행어사를 지냈고, 기유년에 의정부 사인이 되었으며, 경술년에 증중실록을 편찬하였다. 임자년에 홍문관 직제학과 경상도 암행어사를 지냈고, 계축년에 승정원 좌승지 겸 약방제조를 지냈다. 갑인년에 성균관 대사성이 되었고, 정사년에 개성유수를 지냈으며, 계해년에는 한성부판윤 장예원판결사를 역임했다. 명종 19년 갑자년에는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고, 을축년에는 이조참판을 지냈으며, 병인년에는 함경도 관찰사를 지냈다. 정묘년에는 한성부 판윤이 되었고, 선조 원년 무진년에는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지냈다.

현감 소해의 간략 이력

공의 휘는 해(邈)이고, 진주소씨(晉州蘇氏) 31세인 흥양현감 세득(世得)의 장남이다. 곡성현감과 능성군수를 지내고 제용감 첨정에 이르렀다.

72. 죽곡면 동계리 이기의(李其義) 영영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동계리 599 • 제작연대 1816년 혹은 1876년(丙子)
- 크 기 비신높이 88, 너비 29.5, 두께 7

1816년 혹은 1876년에 세운 이기의(李其義)의 불망비는 동계마을회관에서 우측으로 200여m 거리에 위치한 ‘晉州姜氏孝烈復戶門旌閭’의 담장 안 시멘트 기반석 위에 5등분으로 조각난 채 놓여져 있다. 비좌와 개석은 보이지 않고 장방형 비신만 남았다.

이기의(李基義)의 호는 가옹(稼翁),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처음으로 구보(溝洫)를 통하게 하여 백성들이 고루 혜택을 받았다. 그의 부인 진주강씨는 효열로 복호를 명받았다. 비문은 7행 10자이다.

【전면】

桐山之下 耕養之人

稼翁李公其義永永不忘

引水利漑 永賴厥民

【후면】

有司 朴東楠

李思性

丙子三月日 金鳳植

李崱圭

〈가옹(稼翁) 이기의(李其義) 공을 영영 잊지 못함〉

桐山之下 동산(桐山) 아래에서,
 引水利漑 물을 끌어 관개에 이롭게 하니,
 耕養之人 농사지어 봉양하는 사람들,
 永賴厥民 그 백성이 영원히 의지하네.

병자년 3월에, 유사 박동남(朴東楠)·이사성(李思性)·김봉식(金鳳植)·이음규(李崱圭)

73. 죽곡면 동계리 이종익(李鐘翊) 애홀불망비 1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동계리 696-14(동계) • 제작연대 1909년(隆熙三年)
- 크 기 전체높이 183, 비신높이 105, 너비 39.7, 두께 17

1909년에 세운 정삼품 이종익(李鐘翊) 애홀불망비는 죽곡 동계마을로 들어가는 동계1교 입구 농협창고 앞에 위치한다. 붉은색 벽돌로 담장을 ‘ㄷ’자로 두르고 2단의 비좌 위에 비신을 꽂고 둔중한 가침석을 올렸다. 같은 마을에 또 다른 이종익(李鐘翊) 애홀불망비가 있다.

이종익(李鐘翊)의 자는 사익(士益), 호는 봉계(鳳溪), 본관은 전주(全州)로, 아버지는 시형(時馨)이다. 참봉이며, 타고난 자질이 고결하고 효우하며 돈목하였다. 일에 처하여 명민하고 빈궁한 자를 구휼하였으며, 고을 사람들이 칭송하여 애홀비가 있다. 비문은 7행 14자이다.

【전면】

一命愛物 邨塾重建

於今復見 學業勸勉

正三品鳳溪李公鐘翊愛恤不忘碑

不畏疆禦 片石堪語

相恤患難 永世於歎

【후면】

竹谷面

隆熙三年十月日 重建

〈정삼품 봉계 이종익(李鐘翊)이 아끼고 돌본 일을 잊지 않는 비〉

一命愛物 낮은 관리라도 백성 사랑하라는 말,

於今復見 지금 다시 보았네.

邨塾重建 마을 학교를 다시 세우고,

學業勸勉 학업을 권면하였네.

不畏疆禦 강하고 사나운 자 두려워 않고,

相恤患難 환난을 서로 도왔네.

片石堪語 비석에 말할 만하니,

永世於歎 영원히 찬탄하리라.

융희 3년(1909) 10월에 죽곡면 사람들이 중건하다

74. 죽곡면 동계리 이종익(李鐘翊) 애홀불망비 2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동계리 599 • 제작연대 미상(1909년경)
- 크 기 전체높이 183, 비신높이 105, 너비 39.7, 두께 17

참봉 이종익(李鐘翊) 애홀불망비는 동계마을회관에서 우측으로 200여m 거리에 위치한 ‘晋州姜氏孝烈復戶門旌閭’ 담장 안 바닥에 상하 2등분으로 조각난 채 놓여져 있다. 비좌와 개석은 보이지 않고 장방형 비신만 남았다. 똑같은 이종익의 애홀비가 동계마을로 들어가는 동계1교 입구 농협창고 앞에 있다. 건립연대는 정삼품 이종익(李鐘翊) 애홀불망비의 건립연대인 1909년이나 그 이전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비문은 5행 11자이다.

【전면】

一命愛物 村塾重建
於今復見 學業勸勉

參奉李公鐘翊愛恤不忘碑

不畏疆禦 片石堪語
相恤患難 永世於歎

〈참봉(參奉) 이종익(李鐘翊) 애휼불망비〉

一命愛物	낮은 관리라도 백성 사랑하라는 말,
於今復見	지금 다시 보았네.
邨塾重建	마을 학교를 다시 세우고,
學業勸勉	학업을 권면하였네.
不畏疆禦	강하고 사나운 자 두려워 않고,
相恤患難	환난에 처했을 때 구휼해 주었네.
片石堪語	비석에 말할 만하니,
永世於歎	영원히 찬탄하리라.

75. 죽곡면 신평리 김병수(金秉洙) 유혜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신평리 603 • 제작연대 1910년(庚戌)
- 크 기 전체높이 192, 비신높이 142, 너비 43.6, 두께 15

1910년에 세운 도사 김병수(金秉洙) 유혜불망비는 신평리 신평마을 오른쪽 골목길에 자리한 숙호사(肅豪祠)의 출입문인 숙례문(肅禮門) 향우측 담장 밖에 위치한다. 사각형 비좌 위에 비신을 꽃아 연결하고 그 위에 가첨석을 올렸는데, 담장에 너무 가깝게 붙여 세웠다. 비 좌면부터 후면 및 우면까지 도사 김공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신태준(申泰俊)이 찬술하고, 경술년(1910) 12월에 밀양인 박상래(朴庠來)가 글씨를 썼으며, 유사는 박노홍(朴魯洪)과 이인우(李仁宇)가 담당하였다.

김병수(金秉洙)의 본관은 김해(金海)로, 충훈부도사(忠勳府都事)를 역임하였다. 15세에 학업을 시작하였으나 재주와 성품이 총명하고 민첩하여 한번 보면 문득 남김이 없이 이해하였다. 어머니를

봉양함에는 극진했으며, 마을의 일을 봄에도 자기 집안일을 돌보듯이 하였다. 동네 사람들이 비(碑)를 세워 그 공을 기록하였다. 비문은 17행 40자이다.

【전면】

都事金公秉洙遺惠不忘碑

【좌면】

都事金公碑文

谷城郡治之南通明山下有俗有仁厚之里卽新豐是已乃里之先長老都事金公敬梓之區也 公之諱秉洙貫金海鶴城君諱完九世孫自幼鄉黨有孝友之稱及壯憂里中後進之失學且民戶祇殘多不

【후면】

成樣 公乃奮然出力釀略爾之金獨自拮据縷積毫增幾至巨款可謂良工獨苦者也 公曰苟爲不用奚以財爲遂首建塾舍多購經史之初學可觀者庠其架矣凡師長餼饋之奉至於油柴之細費皆資於是而用之誘進村秀之可教者使叢爾峽村衣冠成列松篁蒙密之中詩書之聲琅琅可聽洵佳村也 又里中人戶三十有強而年年公賦之許多名目不待官隸呵督皆取息於是財而畢輸然則里人之粗解裏由者皆曰我有子弟 公乃教之我有田疇 公乃耕之至於不識丁之愚民如魚忘水共作古所稱太平民者垂五十年矣噫 公歿後十年來搶攘中事蕩析無餘以若 公之井井規例今則掃地盡矣非直爲後死者守之不謹而然也撫今懷古良可發喟是年冬村議齊發以爲失今不圖則將使徽蹟至於終泯是烏可已也於是衆皆湊心協力鑄諸石而欲圖不朽屬余而文之余亦十年前同閨人也常服 公之義而獲 公之惠者亦已多矣其於知 公之行亦已深矣仍感觸于中不敢以辭拙辭之略叙其大槩如右使百世後過此者知有 公焉 平山申泰俊謹撰

【우면】

密陽 朴庠來謹書

庚戌十二月日 豎碑有司 密陽 朴魯洪

全州 李仁宇

〈도사(都事) 김병수(金秉洙) 유혜불망비〉

도사 김공 비문

곡성군(谷城郡) 치소(治所) 남쪽 통명산(通明山) 아래 풍속이 어질고 후한 마을이 있으니, 신풍(新豐)이 바로 이곳이다. 곧 마을의 돌아가신 어른 도사(都事) 김공(金公)의 고향이다.

공의 휘(諱)는 병수(秉洙)이고, 본관은 김해(金海)로, 학성군(鶴城君) 완(完)의 9세손이다. 어릴 적부터 마을에서 효성과 우애로 이름났고, 장성해서는 마을의 후진들이 공부할 때를 놓치고 또 마을 사람들이 피폐하여 모양을 이루지 못한 것을 근심하였다. 공은 분연히 힘을 내고 약간의 돈을 거

돈 후 혼자서 힘을 써서 길러가 거의 거대한 자금이 이르게 하였으니, 뛰어난 장인이 홀로 고생했다고 할만하다.

공이 “만약 쓰지 않을 것이라면 재물을 모아 무엇하겠는가?”라고 하며 마침내 먼저 서당을 세우고 처음 배우는 사람이 불만한 경서와 역사서를 많이 사서 책장에 쌓아놓았다. 훈장의 봉급부터 기름과 땀감 같은 자질구레한 비용까지도 모두 이 돈에서 썼다. 마을의 가르칠 만한 젊은이들을 유도하여 나아가게 함으로써 보잘것없는 산골 마을에 의관을 입은 선비들이 행렬을 이루게 하였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우거진 가운데 시와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여 들을 만하니, 참으로 아름다운 마을이다.

또 마을이 30가구 남짓인데, 해마다 허다한 명목의 세금이 있었으나 관청의 하인이 독촉할 필요도 없이 모두 이 돈에서 이자를 취하여 전부 납부하였으니, 마을 사람 중 대강 속사정을 아는 자들은 모두 “나에게 자식이 있으니 공이 가르쳐주셨고, 나에게 밭이 있으니 공이 경작해 주셨다.”라고 말하였다. 글자를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까지도 물을 잊은 물고기처럼 함께 하였으니, 옛날에 말한 ‘태평성대의 백성’이 된 세월이 50년이나 이어졌다.

아! 공이 세상을 떠난 지 십 년만에 혼란한 일을 겪느라 완전히 탕진되어 남은 것이 없다. 공의 질서정연한 규범으로 말하자면 이제는 씻은 듯이 없어졌다. 단지 후세 사람들이 삼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지금을 미루어 옛일을 생각하면 진실로 한숨만 나온다. 이 해 겨울에 마을에서 논의가 일제히 나와 ‘지금 도모하지 않으면 빛나는 자취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니 어찌 그만둘 수 있겠냐’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 모두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돌에 새겨 불후히 전하고자 하면서 내게 글을 써달라 부탁하였다.

나 또한 십년 전 같은 마을 사람이었다. 늘 공의 의로움에 감복하고 공의 은혜를 얻은 적도 매우 많았다. 그러니 공의 행적에 대해 아는 것도 매우 깊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하여 글이 서툴다고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큰 즐거만 대략 서술하니, 백 년 뒤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공이 있었음을 알게 하고자 한다.

평산(平山) 신태준(申泰俊)이 삼가 짓고, 밀양인 박상래(朴庠來)가 삼가 쓰다.

경술년(1910) 12월에, 수비(豎碑) 유사 밀양인 박노홍(朴魯洪)과 전주인 이인우(李仁宇)가 세우다.

76. 죽곡면 용정리 정일택(丁日宅) 시혜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용정리 16 • 제작연대 1909년(隆熙三年)
- 크 기 전체높이 122, 비신높이 82, 너비 33, 두께 11.3

1909년에 세운 정일택(丁日宅) 시혜비는 용정리 북소마을 우측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길 우측 당산나무 두 그루 사이에 위치한다. 장방형의 비좌 위에 오석 비신을 꽃아 연결하고 그 위에 가침석을 올렸다. 비문은 4행 10자이다.

【전면】

敏而好學 旣恤我裁 豈徒石爲
正三品丁公日宅施惠碑
儉而喜施 又振吾飢 已有豐碑

【후면】

隆熙三年十二月日

〈정3품 정일택(丁日宅) 시혜비(施惠碑)〉

敏而好學 민첩하고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儉而喜施 검소하고 베풀기를 기뻐하였네.
既恤我裁 재난 당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又振吾飢 또 굶주린 우리를 진휼하였네.
豈徒石爲 어찌 한갓 비석만 세우겠는가,
已有豐碑 이미 풍비¹²가 있네.

융희 3년(1909) 12월에 세움

12 풍비(豐碑): 구비(口碑), 즉 백성의 칭송을 말한다.

77. 죽곡면 원달리 신석지(申錫祉) 유세불망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971 • 제작연대 1910년(隆熙四年)
- 크 기 전체높이 173, 비신높이 110.5, 너비 42.2, 두께 13.6

1910년 5월에 죽곡 하도에서 세운 신석지(申錫祉) 유세불망비는 태안사 입구 석천산장 맞은편에 위치한다. 자연석 비좌 위에 비신을 꽂아 연결하고 그 위에 가침석을 올렸다.

신석지(申錫祉, 1813~?)의 자는 사언(士彦),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죽곡 출신이며, 신태일(申泰一)의 부친이다. 감찰로, 성격이 곧고 뜻이 높았다. 흉년을 당하자 재산을 기울여 궁한 자를 도와 주었다. 향천이 있었고, 송덕비가 세워졌다. 비문은 5행 11자이다.

【전면】

有約如石 事以時立 如吾不信

監察申公錫祉遺世不忘碑

既惠且康 論當允明 盍往觀銘

【후면】

隆熙四年五月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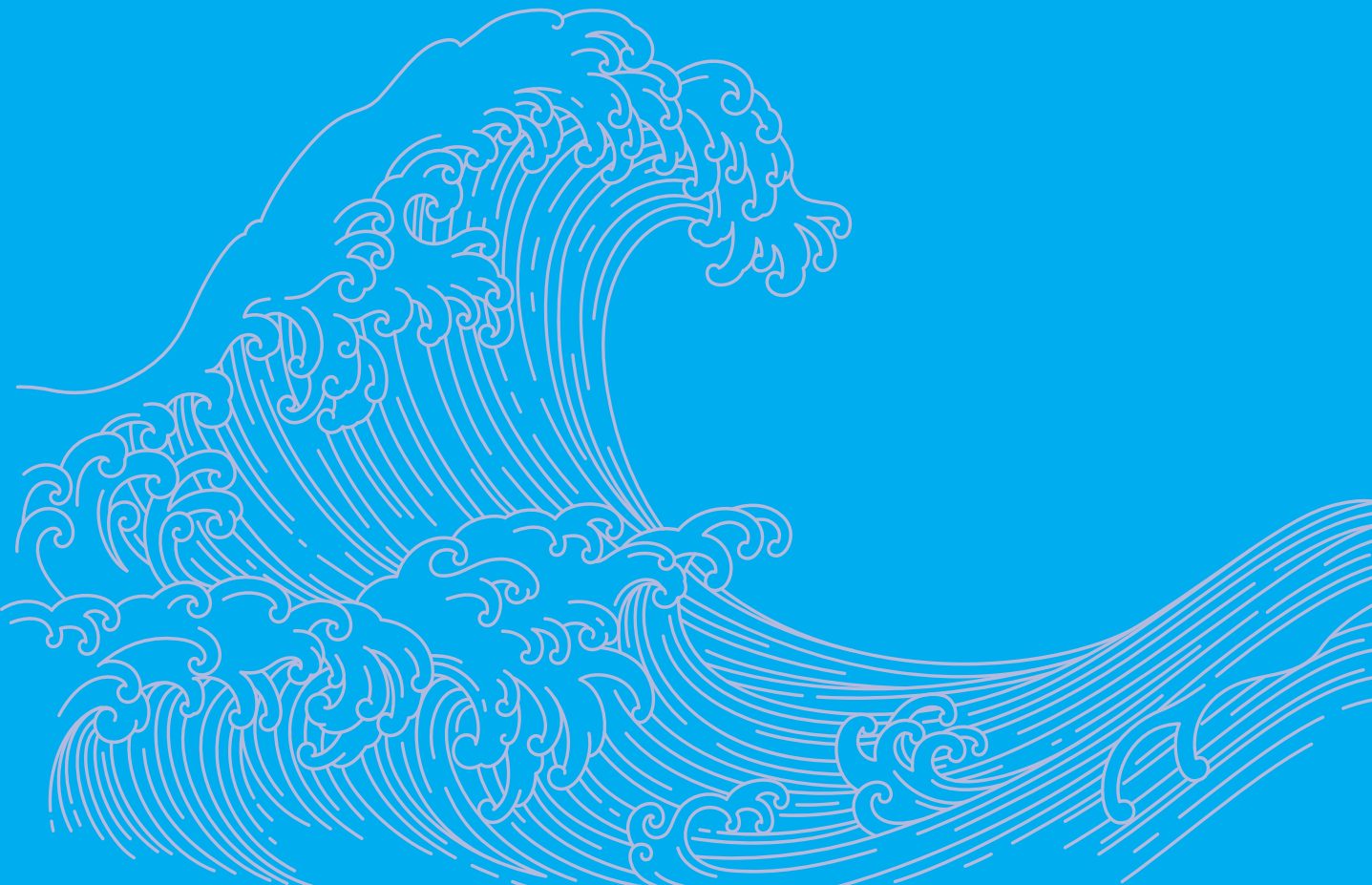
竹谷下道

〈감찰(監察) 신석지(申錫祉) 유세불망비(遺世不忘碑)〉

有約如石	바위 같은 약속이 있으니,
既惠且康	이미 은혜롭고 편안하였네.
事以時立	때맞추어 일을 세우고,
論當允明	논의는 참으로 분명하였네.
如吾不信	만약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盍往觀銘	어찌 비명(碑銘)을 보러 가지 않는가.

융희(隆熙) 4년(1910) 5월, 죽곡(竹谷) 하도(下道)에서 세움

II. 묘비



1. 고달면 뇌죽리 류기수(柳期壽) 묘갈명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산67-1 • 제작연대 1905년(乙巳)
- 크 기 전체높이 245, 비신높이 140, 너비 52, 두께 18.7

1905년에 세운 류기수(柳期壽, 1507~1572)의 묘갈비는 죽림마을 문화유씨 묘역 가장 윗쪽에 있는데, 고달면에서 남원가는 지방도(고주로)를 따라가다 죽림마을 지나서 왼쪽에 문화유씨 제각인 저존재(著存齋)와 세장천(世葬阡)을 알리는 큰 표석 북쪽에 있다.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가침석을 올렸다. 비문은 최익현(崔益鉉, 1833~1907)이 짓고, 글씨는 윤상섭(尹相燮)이 썼다. 최익현의 문집인 『면암집』에 실린 글과 비교해보면 한두 자의 출입이 있을 뿐 내용은 똑같다.

류기수의 자는 인백(仁伯), 호는 죽림(竹林), 본관은 문화(文化)로, 충경공(忠景公) 양(亮)의 후손이다. 아버지 류담(柳潭)과 어머니 경주김씨 김석명(金錫命)의 딸 사이에 태어나 어모장군(禦侮將軍)을 지냈다. 비문은 23행 30자이다.

[두전] 禦侮將軍竹林先生柳公墓碣銘

【전면】

禦侮將軍竹林軒柳公墓碣銘

叁牽柳君興澈泊健永根敬不佞晚交也日踵門告曰吾先祖竹林公葬近三百餘年墓無表願借公一言之重庸信來世余重違其懇不容固辭則謹按公諱期壽字仁伯姓柳氏文化人譜自麗朝大丞車達始歷文簡公公權文正公璫貞慎公陞溫靖公仁琦入我朝佐命功臣忠景公亮名義勳閎磊落相望爲東方巨族曾大父緝司正大父副司勇承孫父禦侮潭外祖慶州金錫命生中廟二年丁卯卒宣祖五年癸未爵階禦侮將軍今南原府南距數十里竹林村上負坎而封者卽其藏公孝友天植事親無違志病致憂喪盡哀晨謁祠

【좌면】

板朔望展墓不以風雨或廢篤於友于嘗言古人有九世同居者豈於兄弟而可分爨乎族戚中貧不能辦吉凶費者并殫誠拮据無間親踈鮮經多深造自得如曰明善誠身先本後末乃士子之法門入孝出悌晝耕夜讀是御家之矩

【후면】

範以之而率子孫以之而教後進者皆言足聽聞是致遺風餘韻罔不泯至於牧兒樵叟咸指點其所居地謂竹林先生蒞軸舊址者尤以見邃德懿行之入人深也配淑人龍潭高氏考末山無育弟忠壽有一子曰汀春階展力副尉出爲公嗣因戒之曰我祖我兄賴有依托死無憾矣惟我祀事汝其知之副尉公遵奉教誡及喪窆于公墓下歲時上壟同日薦享至今如一日副尉男憲主簿趾述先美芝種醴源不可誣矣銘曰

我讀我書我穡我田思不出位以遺後人睠茲斧堂歲月其積刻詞阡途警彼樵牧

【우면】

前嘉善大夫戶曹叅判同知義禁府事月城崔益鉉謹述

前通訓大夫行弘文館副校理知製教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南原尹相燮謹書
上之四十二年乙巳二月 日

〈어모장군 죽림헌(竹林軒) 류기수(柳期壽) 묘갈명〉

참봉(參奉) 류흥철(柳興澈) 군과 건영(健永)·근경(根敬)은 내가 만년에 사귀 벗이다. 어느 날 내 집을 찾아와 고하기를 “우리 선조 죽림공(竹林公)을 장사 지낸 지 300여 년이 되었는데 묘소에 표문(表文)이 없으니, 바라건대 공의 중한 한마디 말을 빌려서 후세인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그 간절한 뜻을 어기기 어려워 굳게 사양하지 못하였다.

삼가 살피건대, 공의 휘는 기수(期壽), 자는 백인(伯仁), 성은 류씨(柳氏),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보계는 고려 때 대승(大丞) 차달(車達)로부터 시작하고 문간공(文簡公) 공권(公權), 문정공(文正公) 경(暲), 정신공(貞愼公) 승(陞), 온정공(溫靖公) 인기(仁琦) 등을 거쳐 우리 조선에 들어와 좌명공신(佐命功臣) 충경공(忠景公) 량(亮)이 있었으니, 명의(名義)와 훈벌(勳闕)이 성대하여 끊이지 않아 동방의 거족(巨族)이 되었다. 증조부 집(緝)은 사정(司正)이며, 조부는 부사용(副司勇) 승손(承孫)이고, 부친은 어모(禦侮) 담(潭)이며, 외조부는 경주(慶州) 김석명(金錫命)이다. 증종 2년 정묘년(1507)에 태어나 선조 5년 계미년¹³에 돌아가셨고, 작위는 어모장군(禦使將軍)이다. 지금 남원부(南原府)에서 남쪽으로 수십 리 거리의 죽림촌(竹林村)에 감좌(坎坐)를 등지고 봉해진 것이 바로 그 묘소이다.

공은 효성과 우애를 천성으로 타고나 아버이를 섬김에 뜻을 어기지 않았고, 병상에 계실 때는 근심을 극진히 하고 상을 당하여서는 슬픔을 다하였으며, 새벽에 사당의 신주를 배알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성묘(省墓)하면서 비바람 때문에 흑시라도 폐하지 않았다. 우애가 돈독하여 일찍이 말하기를 “옛사람 가운데 9대가 함께 살았던 사람¹⁴이 있다고 하는데, 어찌 형제이면서 살림을 나누어 밥을 지어 먹겠는가?”라고 하였다. 족척(族戚) 중에서 가난하여 길흉사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모두 정성을 다하여 주선해주길 친소(親疎)에 차이가 없게 하였다.

경전을 해석함에 깊이 나아가 자득한 것이 많았는데, “선을 밝히고 몸을 정성스럽게 하며, 근본을 먼저하고 말단을 뒤로 하는 것은 바로 선비들의 법문(法門)이고,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나와서는 공손하며, 낮에 경작하고 밤에 독서하는 것은 바로 집안을 다스리는 규범이니, 이것으로 자손을 거느

13 선조 5년 계미년: 선조 5년은 1572년 임신년이고, 선조 때 계미년은 1583년이니, 착오가 있다.

14 옛사람……사람: 당나라 때 사람 장공예(張公藝)를 말한다. 장공예는 당나라 때의 수장(壽張) 사람으로 9대가 한집에서 살았는데, 고종(高宗)이 그 집에 찾아가 한집에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물으니, 인(忍)자 1백자를 써서 올렸다는 고사가 있다. 『唐書 卷195』

리고 이것으로 후진을 교육한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은 모두 말할만하니, 이는 유풍(遺風) 여운(餘韻)이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목동과 나무꾼의 경우에도 모두가 살던 곳을 가리키며 “죽림선생(竹林先生)이 은거¹⁵하시던 옛터이다.”라고 한 것에서 깊은 덕과 아름다운 행실이 사람들에게 깊숙이 스며들었다는 것을 더욱 볼 수 있다.

숙인(淑人)은 용담고씨(龍潭高氏)로, 부친은 말산(末山)인데, 아들이 없었다. 아우 충수(忠壽)의 외아들 정춘(汀春)은 품계가 전력부위(展力副尉)인데 출계하여 공의 후사가 되었다. 충수가 그로 인해 말하기를 “아조(我祖)와 아형(我兄)이 덕분에 의탁할 바가 있으니, 죽어도 유감이 없을 것이다. 나의 제사는 네가 알 것이다.”라고 하였다. 부위공(副尉公)은 훈계를 받들어 생부가 돌아가시자 공의 묘소 아래에 장사 지내고, 세시(歲時)에 산소에 올라 같은 날 제향하는데, 지금까지도 한결같다. 부위(副尉)의 아들 헌(憲)은 주부(主簿)로, 선대의 아름다움을 이어서 전술하니 영지 같은 종자에 예전 같은 근원이라는 것은 속일 수 없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我讀我書	나는 나의 책을 읽고,
我穡我田	나는 나의 밭을 경작하네.
思不出位	생각이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아,
以遺後人	후인에게 남겨주네.
睠茲斧堂	이 묘소 ¹⁶ 를 돌아보건대,
歲月其積	세월이 많이 흘렀네.
刻詞阡途	묘소 앞에 비문을 새겨,
警彼樵牧	저 나무꾼과 목동을 경계하네.

전 가선대부 호조참판 동지의금부사 월성(月城) 최익현(崔益鉉)이 삼가 서술하고, 전 통훈대부 행 홍문관부교리 지제교 겸 경연시독관 춘추관기주관 남원(南原) 윤상섭(尹相燮)이 삼가 쓰다.

금상 42년 을사년(1905) 2월 일.

15 은거 : 원문의 ‘과축(適軸)’을 풀이한 말이다. 『시경』 「위풍(衛風) 고반(考槃)」에 “고반이 언덕에 있으니, 석인의 마음이 넉넉하다.……고반이 높은 언덕에 있으니, 석인이 한가로이 서성어도다.[考槃在阿, 碩人之適。……考槃在陸, 碩人之軸.]”라고 한 데에서 나온 말이다.

16 묘소 : 원문의 ‘부당(斧堂)’을 해석한 것인데, 부당은 봉분(封墳)을 이르는 말이다. 『예기』 〈단궁(檀弓)〉에,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옛날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건대, 봉분하는 것을 마치 마루처럼 쌓아 올린 것이 있고……도끼날처럼 위가 좁게 쌓아 올린 것도 있었으니, 나는 도끼처럼 하는 것을 따르겠다.’ 하였다.[昔者, 夫子言之曰, 吾見封之若堂者矣。……見若斧者矣, 從若斧者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2. 고달면 뇌죽리 순창조씨(淳昌趙氏)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산67-1 • 제작연대 미상(1905년 추정)
- 크 기 전체높이 186, 비신높이 101, 너비 40.5, 두께 13.5

1905년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류헌(柳憲)의 부인 순창조씨의 묘비이다. 묘는 뇌죽리 문화유씨 묘역 위에서 두 번째(류기수의 묘 아래)에 있다. 비는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가첨석을 올렸다. 비석을 세운 시기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묘역 내에 많은 비가 1905년(乙巳年)에 세우고, 또한 뒷면에 남편인 류헌의 묘가 네 번째 자리에 있고, 묘갈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같은 시기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비문은 2행 9자이다.

【전면】

淑人淳昌趙氏之墓

【후면】

公主簿墓第四位有碣

3. 고달면 뇌죽리 류충수(柳忠壽)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산67-1 • 제작연대 1905년(乙巳)
- 크 기 전체높이 218, 비신높이 122, 너비 43.5, 두께 16

1905년 2월에 세운 류충수(柳忠壽, 1514~1574)의 묘비는 뇌죽리 죽림마을 문화유씨 묘역의 위에 서 세 번째(순창조씨의 묘 아래)에 있다. 비는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가침석인 개석을 올렸다. 빗돌의 재질이 특이하게 녹슨 쇠빛이다. 비문은 11대손 류요영(柳堯永)이 짓고, 글씨는 11대손 류한영(柳漢永)이 썼다. 류충수의 자는 인계(仁季), 호는 임정(林亭)으로, 충경공의 5세손이다. 비문은 15행 30자이다.

【전면】

林亭處士柳公之墓
孺人延安李氏附左

【좌면】

我柳籍文始麗朝大丞公諱車達至我 朝忠景公諱亮傳十三世共執文衡
遂爲東方大姓公諱忠壽字仁季號林亭即忠景公五世孫漢城判尹諱京生

【후면】

玄孫也曾大父司正公諱緝絕意仕宦落鄉于谷城曳山面講習禮義開進後
學鄉人士咸稱學門宗長大父副司勇諱承孫考禦侮諱潭皆以文學顯妣
淑人慶州金錫命女克有婦德無違夫子生三男長竹林先生諱期壽仲
季公也謹按公性賦坦率務遵大體孝友文學與伯氏相齊槩載勉菴崔先生
所撰伯氏碣銘隨兄搬移于龍南竹林村同住一室晝夜聯枕暫不相離私淑
經傳遠近知名之士多造於竹林兩先生之門伯氏無育以一男展力副尉汀
春立嗣副尉極孝兩庭克遵先述 中廟甲戌 宣祖甲戌是公之寄與歸也
葬于伯氏墓下第三位子原配延安李氏附左嗚呼不肖生於三百載之後敢

【우면】

營三百載之未遑事財力不逮見又淺薄然庸效潘岳始述之風以撮其槩
歲乙巳二月 日十一代孫堯永謹誌
十一代孫漢永謹書

〈임정처사(林亭處士) 류공(柳公)의 묘, 유인 연안이씨(延安李氏) 왼쪽에 부장〉

우리 류씨(柳氏) 문적은 고려조 대승공 휘 차달(車達)에서 시작하여 우리 조선 충경공(忠景公) 휘 량(亮)에 이르도록 13대가 전해져 함께 문형(文衡)을 맡아 드디어 동방의 대성(大姓)이 되었다.

공의 휘는 충수(忠壽), 자는 인계(仁季), 호는 임정(林亭)이니, 바로 충경공의 5세손이고, 한성부 판윤 경생(京生)의 현손(玄孫)이다. 증조부 사정공(司正公) 집(緝)은 벼슬에 뜻을 끊고 곡성(谷城)의 예산면(曳山面)으로 낙향하여 예의(禮義)를 강습하고 후학(後學)을 열어 진보시켰으니, 고을

인사들이 모두 ‘학문종장(學門宗長)’이라고 일컬었다. 조부는 부사용(副司勇) 승손(承孫)이고, 부친은 어모(禦侮) 담(潭)이니, 모두 문학으로 현달하였다. 모친 숙인(淑人)은 경주(慶州) 김석명(金錫命)의 따님인데, 부인의 덕이 있어 남편을 어기지 않았다. 3남(男)을 낳았는데, 장남은 죽림선생(竹林先生) 기수(期壽)이고 둘째는 ○○이며, 막내가 공이다.

삼가 살펴보건대, 공은 타고난 성품이 평탄하고 솔직하여 대체(大體)를 따르기에 힘썼고, 효우(孝友)와 문학(文學)은 백씨(伯氏)와 나란하였으니, 그 대강은 면암(勉菴) 최선생(崔先生)이 지은 백씨(伯氏)의 묘갈명에 실려 있다. 형을 따라 용성 남쪽의 죽림촌(竹林村)으로 이사하여 한집에 함께 살면서 밤낮으로 침상을 나란히 하여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경전을 사숙(私淑)하였는데, 원근(遠近)의 이름 있는 선비가 죽림(竹林) 두 선생의 문하에서 많이 나왔다.

백씨(伯氏)가 아들이 없자 자신의 외아들 전력부위(展力副尉) 정춘(汀春)을 후사로 세웠다. 부위공은 생가와 양가에 지극히 효성스러워 선친의 유업을 잘 따랐다. 중종 갑술년(1514)과 선조 갑술년(1574)은 공의 생졸년이다. 백씨의 묘소 아래 세 번째 자리 자좌(子坐) 언덕에 안장하였고, 배위 연안이씨를 왼쪽에 부장하였다.

오호라! 불초한 나는 3백년이 지난 뒤에 태어나서 3백년 동안 경황이 없었던 일을 경영함에 재력은 미치지 못하고 견해가 또 알았으나 반악(潘岳)이 처음 서술한 풍모¹⁷를 본받아 그 대강을 추린 것이다.

을사년 2월 일에 11대손 류요영(柳堯永)이 삼가 짓고, 11대손 류한영(柳漢永)이 삼가 쓰다.

17 반악(潘岳)이……풍모 : 반악은 진(晉)나라 중모(中牟) 사람으로, 자는 안인(安仁)이다. 『세설신어(世說新語)』〈문학(文學)〉에 “하후담이 〈주시(周詩)〉를 지어 보여 주자, 반악이 ‘이 글은 단지 온아(溫雅)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효제(孝悌)의 성정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였다. 반악이 이로 인해 마침내 〈가풍시(家風詩)〉를 지었다. 반악의 〈가풍시〉는 조상의 덕을 노래하고 자신을 경계한 것이다.”라고 한 것을 말한다.

4. 고달면 뇌죽리 류헌(柳憲) 묘갈명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뇌죽리 산67-1 • 제작연대 1905년(乙巳)
- 크 기 전체높이 234, 비신높이 141.5, 너비 46.5, 두께 15.5

1905년에 세운 류헌(柳憲, 1589~1672)의 묘갈명이다. 류헌의 묘는 뇌죽리 죽림마을 문화유씨 묘역 위에서 네 번째(류충수씨의 묘 아래)에 있다. 류헌은 같은 묘역에 안장된 류기수의 손자로 자는 경도(慶度), 호는 담재(淡齋)이며, 아버지는 류정춘이고 어머니는 흥덕장씨 장응전(張應甸)의 딸이다. 비는 사각의 3단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가침석을 올렸다. 비문은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이 짓고, 글씨는 9대손 류창영(柳彰永)이 썼다. 기우만의 문집인 『송사집』의 글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고 대개 한두 자의 출입만 있는데, 다만 3행의 方略이라는 단어 뒤에 문집에는 ‘必有可觀而嗚呼其無及矣’라는 구절이 들어간 대신 비석에는 ‘苑有可仗而雖不幸而殉身使一死強於百萬以爲重恢之基於不休哉’라는 구절이 들어간 것이 다르다. 또한 문집에 잘못 쓰인 글자도 있으니, 어머니 흥덕장씨 부친 이름인 ‘응전(應甸)’을 ‘응각(應角)’으로 오기한 것이다. 비문은 19행 27자이다.

[두전] 主簿淡齋柳公墓碣銘

【전면】

忠勇殉國盖公所抱而丙子虜變以居憂而莫伸其志事畢生爲恨自廢林泉詩酒遣日絕意當世臨死遺命薄葬盖以主辱未效臣死之義也見今國勢亦一丙子起公於九原必義膽輪困施設方略苑有可仗而雖不幸而殉身使一死強於百萬以爲重恢之基於不休哉公諱憲字慶度自號淡齋柳氏文化大姓始祖車達大丞忠景公亮七世孫祖期壽考汀春世著行義妣興德張氏父應角公生 宣廟戊申生而孝友事親養志體前後喪皆廬墓嘗未葬默禱得吉地夢有神人指示人

【좌면】

稱積誠致感能文章當朝公卿爭致韻語盖欲得公酬詩也修學校選人材爲爲政之基本使公得政其施爲可槩而官至主簿以公不求而

【후면】

不能見用於世家政嚴肅性喜施散家貲以周族戚窮交所交遊皆志行之士此其行己大方也卒 顯宗壬子葬竹林先兆下夫人玉川趙氏后夫人咸陽吳氏墓附左八男起漢興漢振漢光漢粵漢榮漢昌漢翊漢孫曾不盡錄爲家狀後孫健永奉以走寒泉寓舍求爲牲石之銘銘曰

善事爲孝移之則忠忠勇素抱可以折衝時有丙子方公居憂志事未伸遺恨千秋得遇今日義聲崢嶸九原莫作曠感爲銘

【우면】

歲乙巳二月 日承仕郎前行 貞陵參奉幸州奇宇萬謹撰

九代孫彰永謹書

〈주부(主簿) 담재(淡齋) 류헌(柳憲) 묘갈명〉

충성과 용맹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대개 공이 품고 있던 것인데, 병자년(1636)에 오랑캐의 변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상중(喪中)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사업을 다 펴지 못한 것을 죽을 때까지 한스럽게 여겨 스스로를 임천에 폐하고 시와 술로 날을 보내면서 당세에 대한 뜻을 끊었다. 죽음에 임하여 유명(遺命)으로 박장(薄葬)하게 한 것은 대개 임금이 치욕을 당함에 신하가 목숨을 바치는 의리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나라의 형세가 또한 병자년과 같은데, 구천에서 공을 일으켜 의로운 마음과 윤곤(輪困)¹⁸으로 방략(方略)을 시행하면 반드시 불만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비록 불행히 몸을 바쳐서 죽을지라도 한 번의 죽음이 백만의 군사보다 강하게 하여 중흥하는 기반으로 만들었을 것이니, 아름답지 않겠는가?

공의 휘는 헌(憲), 자는 경도(慶度), 호는 담재(淡齋)이며, 류씨(柳氏)는 문화(文化)의 대성(大姓)이다. 시조는 대승(大丞)을 지낸 차달(車達)이며, 충경공(忠景公) 량(亮)의 7세손이다. 조부는 기수(期壽)이고 부친은 정춘(汀春)이니, 대대로 행의(行義)가 드러났다. 모친은 흥덕장씨(興德張氏)로 부친이 응전(應甸)인데, 공을 선조 무신년(1589)에 낳았다. 태어나면서부터 효우(孝友)하고, 어버이 섬김에 뜻과 몸을 봉양하였으며, 양친의 초상에 모두 여묘살이를 하였다. 일찍이 장사를 치르지 않았을 때 묵묵히 길지(吉地)를 얻기를 빌었는데, 꿈속에 신인(神人)이 지시해 주었으니, 사람들은 정성이 쌓여 감응이 이른 것이라고 말한다.

문장에 능하여 당시 조정의 공경(公卿)들이 다투어 시를 보냈으니, 대개 공의 수창시를 얻고자 한 것이었다. 학교를 정비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정치의 기본으로 여겼으니, 공으로 하여금 정사(政事)를 하게 했더라면 그 시행하는 것을 가늠해볼 수 있었을 것인데, 관직이 주부(主簿)에 그친 것은 공이 구하지 않아 능히 세상에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집안을 다스리는 것은 엄숙하였고, 성품은 베푸는 것을 기뻐하여 재산을 흠어 친족과 궁한 벗들을 구휼하였으며, 교유한 사람은 모두가 지조와 덕행을 갖춘 선비였으니, 이것이 그 행기(行己)의 대방(大方)이었다.

현종(顯宗) 임자년(1672)에 돌아가시어 죽림(竹林)의 선영 아래에 장사지냈다. 부인 옥천조씨

18 윤곤(輪困): 반송의 가지에 웅이가 있어 울퉁불퉁 기괴한 형상을 나타낸 말인데, 여기서는 겉모습은 기괴하지만 가슴에는 천자를 보필할 기국과 역량이 있음을 말한다. 전한(前漢)의 문장가 추양(鄒陽)의 〈우옥중상서자명(于獄中上書自明)〉에 “반목의 뿌리는 기괴하기 이를 데 없는데 만승천자가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것은 어찌서인가? 좌우 근신이 먼저 겹치레를 꾸미기 때문이다.[蟠木根柢，輪困離奇，而爲萬乘器者，何則？以左右先爲之容也.]”라고 하였다.

(玉川趙氏)와 후부인 함양오씨(咸陽吳氏)를 왼쪽에 부장하였다. 8남을 두었으니, 기한(起漢), 흥한(興漢), 진한(振漢), 광한(光漢), 유한(粵漢), 영한(榮漢), 창한(昌漢), 익한(翊漢)이다. 손자와 증손은 다 기록하지 않는다. 가장(家狀)을 지어 후손 건영(健永)이 받들고 한천(寒泉)의 우사(寓舍)로 달려와 묘갈명을 요구하였다. 명(銘)은 다음과 같다.

善事爲孝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효가 되니,
移之則忠	그것을 옮기면 충이 된다.
忠勇素抱	충성과 용맹은 평소 품은 뜻이니,
可以折衝	적의 창을 꺾을 수 있었지만,
時有丙子	당시 병자년에,
方公居憂	바야흐로 공은 상중에 있었네.
志事未伸	뜻과 일을 펴지 못하여,
遺恨千秋	천고에 여한이 남았네.
得遇今日	오늘같은 날을 만났다면,
義聲崢嶸	의로운 명성이 우뚝할 것인데,
九原莫作	구천에서 일으키지 못하니,
曠感爲銘	광감 ¹⁹ 이 있어 새기네.

을사년(1905) 2월 일에 승사랑(承仕郎) 전 행 정릉참봉(貞陵參奉) 행주(幸州) 기우만(奇宇萬)이 삼가 짓고, 9대손 창영(彰永)이 삼가 쓰다.

19 광감(曠感): 광세지감(曠世之感)의 준말로, 동시대에 태어나지 못해 서로 만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감회이다.

5. 고달면 대사리 고영호(高永豪)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산43-2(대동) • 제작연대 1510년(正德五年庚午)
- 크 기 전체높이 125, 비신높이 80, 너비 35, 두께 19

1510년 12월 20일에 건립한 고영호(高永豪)의 묘비는 대사리 대동마을에서 남원으로 가는 길(대사로) 왼쪽에 있다.(대사리 515번지 주택 뒤) 문인석과 상석을 갖추고 있어 도로에서도 잘 보이는 편이다. 문인석 하나는 머리가 없는데 일찍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을 사람들은 고영호의 묘를 장군묘라고 부른다. 비좌와 비신 하단부는 흙에 묻혀 확인하지 못하였고, 비신과 하엽수형 비수는 하나의 돌로 조성하였다.

고영호(高永豪)의 본관은 용담(龍潭)으로, 할아버지는 고수례(高守禮)이고, 아버지는 고희(高熙)이다. 손자가 고득뢰(高得賚, ?~1593)이다. 비문은 2행 12자이다.

【전면】

昭威將軍行副司猛高永豪之墓

【후면】

正德五年庚午十二月二十

6. 고달면 대사리 고득뢰(高得賚) 의리장비(衣履藏碑)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산43-2(대동) • 제작연대 1859년(崇禎紀元後四己未)
- 크 기 전체높이 170, 비신높이 104, 너비 53.5-50, 두께 23-20

1859년 5월에 건립한 고득뢰(高得賚, ?~1593)의 의리장비는 대사리 대동마을에서 남원으로 가는 길(대사로) 왼쪽에 있다. 의리장(衣履藏)은 어떤 사정으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을 경우 고인의 옷과 신발(소지품)을 묻고 봉분을 만든 것을 말하는데, 가끔 시신이 있는 묘를 지칭하기도 한다. 비는 사각 비좌 위에 비신을 세우고 개석을 올렸다. 비신은 상부가 하부보다 넓고 두껍다. 비문은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이 짓고, 글씨는 황신묵(黃愼默)이 썼다. 기정진의 문집 『노사집』과 비교하면 대체로 관직명이나 인명에서 출입이 있을 뿐, 내용에서는 다른 점이 없다. 비문이 잘 안 보이는 곳은 문집을 참조하여 메꾸었다.

고득뢰의 자는 은보(殷甫), 본관은 용담(龍潭)으로, 고영호(高永豪)의 손자이다. 아버지 고희륜

(高孝倫)과 어머니 김응성(金應星)의 딸 사이에 남원 고달에서 태어났다. 무과에 들어 어란만호(於蘭萬戶), 사헌부감찰, 평창군수를 지냈다. 임진왜란 초에 의병장 최경회(崔慶會)의 부장이 되어 영남에서 공을 세우고, 진주성에 들어가 1593년 6월 29일에 성이 함락되자 순국하였다. 성이 함락되는 와중에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다. 후에 우윤에 증직되고 남원 정충사(旌忠祠)에 배향되었다. 황위(黃暉, 1605~1654)의 『당촌집(塘村集)』에 그의 행장이 실려 있다. 비문은 30행 34자이다.

【전면】

贈嘉善大夫漢城府右尹行通訓

大夫平昌郡守高公衣履藏碑

【좌면】

東國晉陽城卽唐之睢陽也當時之爲張許南雷者可歷歷數而平昌郡守高公其一也城陷體魄失家人以遺衣履瘞于南原府南古達坊擁上洞負亥之原以替佳城之阡春秋致芬苾焉蓋南是公鄉里也八代孫時和九代孫命浩等懼夫歲寢久而封域莫識也謀伐石以表之徵銘於正鎮正鎮謹按衣履爲阡禮不經見然公之忠義入人深使其鄉里思慕至爲立祠祀之家人之哀痛慘怛當益靡不用極今日所當講者公之忠義葬埋之正經與否待別時說其狀曰公諱得賚字殷甫其先龍潭人也自始祖桓至考孝倫凡

【후면】

八世世有官蔭妣副司正金應星女公生而軀幹壯大寡言語經史皆所通涉筆法又妙健而武藝超倫尤長於馳馬竟以武出身擢爲司憲府監察出爲海南假將方貢鹿皮見却於上營再三下吏曰近例以牛皮代之多用賂踵而行之保無憂公第許之果然卽親持鹿皮請謁曰欺上官代供牛皮烏無罪水使大慙而嚙之未幾奔母喪水使使軍官搜公衙眷行囊只有未粧弓一張水使歎服反厚賻之辛卯倭使至公知將有大難問列坐諸武士曰國有難爲人臣者當赴急而死乎逃難而生乎一人應曰食祿之臣何忍苟活公笑而頷之殉國之意蓋素定矣壬辰變初爲義兵將崔公慶會副將自長水轉向嶺南公所斬獲居多其未入晉城也有平昌之除官吏來迎人皆以平昌僻邑可全家避兵相賀公以討賊爲急辭不赴蓋是時賊必欲甘心於晉州倡義使金公千鎰以爲晉州湖南藩蔽無晉則無湖南也決死守之計崔公議與之合故公隨崔公入城被圍九日城陷而殉乃癸巳六月二十九日也 宣廟朝遣官賜祭 贈工議後加 贈右尹鄉人所建之祠額曰旌忠首享武愍黃公而公次之安清溪瑛又次之安公亦南原人從高忠烈殉于錦山者嗚呼公私哀榮盡於此耶公娶太漢鼎女生子曰敏德武科同知女婿曰宣傳官蔡希澄學生陸晃武科朴俊孫曰纘門僉知慶門武科司果女學生朴瑄曾孫曰虎臣玄孫曰尙峻以下遠不盡錄大抵戶未滿十後承不振黃武愍公後孫再洙推感念先之心

扶助同力以經始者此公下世五六年役乃既成亦可悲矣正鎮非能立言者而於公竊

【우면】

不勝其感慨之私系之詩曰 偉幹高材武韜書籠得之天姿非公之獨不媚于帥不
豐于歸是公操履勉亦可幾平昌之郡其山周匝率家而嬉燹莫我及公胡不赴赴彼孤
壟許身義重彼魚此熊是真死國凡夫之驚我銘昭之詔彼千齡

幸州奇正鎮 撰

正言黃愼默 書

崇禎紀元後四己未五月 日 七代孫廷文八代孫時淳九代孫喆浩 建

〈증 가선대부 한성부우윤 행 통훈대부 평창군수 고득뢰(高得賚)의 의리장(衣履藏) 비〉

우리나라의 진주성은 바로 당(唐)나라의 수양성(睢陽城)이니, 당시 장허(張許),²⁰ 남뢰(南雷)²¹와 같은 사람은 일일이 셀 수 있는데 평창군수(平昌郡守) 고공(高公)이 한 사람이다. 성이 함락되고 체백(體魄)을 잃어버리자 집안사람이 남긴 의리(衣履)를 남원부(南原府) 남쪽 고달방(古達坊) 응상동(擁上洞) 해좌(亥坐)를 등진 언덕에 묻어서 가성(佳城)²²의 무덤을 대신하여 봄가을로 향기로 온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 대개 남쪽은 공의 고향 마을이다.

8대손 시화(時和)와 9대손 명호(命浩) 등이 세월이 오래됨에 봉토(封土)를 알 수 없을까 두려워 하여 비석을 세워 표시하기를 도모하고, 나 정진(正鎭)에게 명(銘)을 요구하였다. 정진은 삼가 살펴 보건대, 의리로 무덤을 만드는 것은 예가 경전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공의 충의(忠義)가 사람들에게 깊이 들어가 향리(鄉里)에서 사모하여 사당을 세워 향사까지 하니, 집안사람들의 애통하고 참담한 마음은 마땅히 더욱 지극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강명해야 할 것은 공의 충의(忠義)이니, 의리장의 정당한 여부는 별도의 때를 기다려 말하리라.

20 장허(張許): 안녹산의 난 때 수양성을 지키다가 순절한 장순(張巡, 709~757)과 허원(許遠, 709~757)을 이른다.

21 남뢰(南雷): 안녹산의 난 때 장수 남제운(南霽雲)과 뇌만춘(雷萬春)을 말한다. 남제운은 안녹산의 난 때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을 따라 수양성(睢陽城)을 사수하다 식량이 떨어져 위기에 처하자 남제운은 하란진명(賀蘭進明)에게 찾아가 구원을 청하였는데, 하란진명은 장순 등이 공을 세우는 것을 시기하여 응하지 않고 도리어 음식상을 크게 차려 내와 남제운을 회유하여 부하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남제운은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생각하며 해당 말로써 음식을 거절하고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쓰고 돌아와 장순 등과 함께 장렬히 죽었다. 뇌만춘은 장순의 막료로 활약한 인물이다. 안녹산이 호조(狐潮)를 시켜 용구(雍丘)를 포위하였을 때 호조의 군사가 쏜 화살 여섯 발을 안면에 맞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고 뒤에 장순과 함께 진중에서 죽었다.

22 가성(佳城): 무덤을 말한다. 등공(滕公)이 수레를 타고 동도문(東都門)에 이르렀을 때 말이 울며 멈춰 서서 땅을 헤비자, 사람을 시켜 파게 하여 석곽(石槨)을 얻었는데, 그 명문(銘文)에 “가성이 감감하니 3천 년 만에 밝은 해를 보리라. 아, 등공이 이 방에 거처하리라.[佳城鬱鬱, 三千年見白日. 吁嗟, 滕公居此室.]”라고 하여, 죽은 뒤에 그곳에 장사 지내게 했다는 고사가 있다. 『西京雜記 卷4』

그 행장에 이르기를, 공의 휘는 득궤(得賚), 자는 은보(殷甫)이고, 그 선대는 용담(龍潭) 사람이 다. 시조 환(桓)으로부터 부친 효륜(孝倫)에 이르기까지 모두 8대이고, 대대로 음덕(蔭德)으로 벼슬하였다. 모친은 부사정(副司正) 김응성(金應星)의 따님이다.

공은 태어나면서 키가 장대하고 말이 적었다. 경사(經史)는 모두 통섭(通涉)하였고 필법(筆法)은 또 오묘하고 강건하였다. 무예가 무리에서 뛰어났고, 더욱 말타기를 잘하여 마침내 무과 출신으로써 발탁되어 사헌부감찰이 되었고, 외직으로 나가 해남가장(海南假將)이 되었는데, 방공(方貢, 方物)의 사슴 가죽이 상영(上營)에서 퇴짜 당한 것이 두세 번이었다. 하리(下吏)가 말하기를 “근례(近例)대로 소가죽으로 대신하고 뇌물을 많이 주어 행하면 근심이 없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 공은 다만 허락하였는데, 과연 그러하였다. 곧장 직접 사슴 가죽을 가지고 가서 만나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상관을 속여 소가죽으로 대신하여 바쳤으니,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라고 하자, 수사(水使)가 크게 부끄럽게 여기고, 원망을 품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상을 당하여 떠나게 되자, 수사(水使)가 군관(軍官)을 보내 공의 아권(衙眷)²³의 행낭(行囊)을 수색하게 하였는데, 단지 미장궁(未粧弓) 한 자루만 있었으니, 수사가 탄복하여 도리어 부의(賻儀)를 후하게 하였다.

신묘년(1591)에 왜의 사신이 이르렀는데, 공은 장차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서 나열하여 앉은 무사(武士)들에게 말하기를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신하 된 자는 마땅히 위급한 상황에 달려가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난리를 피하여 살 것입니까?”라고 하자, 한 사람이 응하여 말하기를 “녹을 먹는 신하가 어찌 차마 구차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공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뜻은 본디 평소 정해진 것이었다. 임진년 변란 초기에 의병장 최경회(崔慶會)²⁴의 부장(副將)이 되어 장수(長水)에서 영남으로 향하였는데, 공이 참획(斬獲) 한 자가 많았다. 그가 진주성에 들어오기 전에 평창(平昌)에 제수되어 관리가 와서 맞이하자 사람들이 모두 평창은 궁벽한 고을이기 때문에 집안을 온전히 하여 병화를 피할 수 있다고 서로 축하하였다. 공은 적을 토벌하는 것을 급선무로 여겨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대개 이때는 적이 기필코 진주(晉州)에서 뜻을 풀고자 하였는데,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²⁵은 진주는 호남의 울타리이니 진주가

23 아권(衙眷): 외방(外方)에 부임한 관원이 임지에서 데리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

24 최경회(崔慶會, 1532~1593): 자는 선우(善遇), 호는 삼계(三溪). 일휴당(日休堂), 본관은 해주(海州)이다. 1561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567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였고, 전사한 고경명(高敬命) 휘하의 병력이 합류함으로써 의병장에 추대되었다. 금산·무주에서 전주·남원으로 향하는 일본군을 막아 싸우고 금산에서 퇴각하는 적을 우지치(牛旨峙)에서 격파하였다. 이 공으로 경상우병사에 임명되었다. 1593년 가등청정(加藤清正) 등이 진주성을 다시 공격하자 김천일(金千鎰)·황진(黃進)·고종후(高從厚) 등과 함께 항전하다가 9일 만에 성이 함락되자 남강에 투신 자결하였다.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진주 창렬사(彰烈祠) 등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25 김천일(金千鎰, 1537~1593): 자는 사중(士重), 호는 건재(健齋). 극념당(克念堂), 본관은 언양(彦陽)이다. 1573년 은일지사(隱逸之士)로 천거받아 군기시 주부가 된 후 경상도 도사·수원 부사 등을 역임하였다. 1593년에 가등청정(加藤清正) 등이 진주성을 공격하자 최경회(崔慶會)·황진(黃進) 등과 함께 항전하다가 성이 함락될 때

없으면 호남이 없다고 여겨 죽음을 각오하고 지킬 계획을 하자, 최공(崔公)이 더불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공도 최공을 따라 성에 들어갔다. 포위를 당한 지 9일 만에 성이 함락되어 순절하였으니, 바로 계사년(1593) 6월 29일이었다.

선조의 조정에서 관원을 보내 사제(賜祭)하고, 공조참의를 추증하였고, 뒤에 한성부우윤을 증직하였다. 향인(鄉人)이 세운 사당에 편액을 ‘정충(旌忠)’이라고 하고, 맨 먼저 무민(武愍) 황공(黃公)²⁶을 제향하고, 공이 그 다음이었으며, 청계(淸溪) 안영(安瑛)²⁷을 또 그다음으로 하였다. 안공 또한 남원(南原) 사람으로, 고충렬(高忠烈)²⁸을 따라 금산(錦山)에서 순절한 분이니, 오호라! 공사(公私)간의 슬픔과 영광이 여기에서 다한 것인가?

공은 태한정(太漢鼎)의 따님에게 장가들어 아들 민덕(敏德)을 낳았으니,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동지(同知)이고, 사위는 선전관 채희징(蔡希澄), 학생 육황(陸晁), 무과 박준(朴俊)이다. 손자 찬문(贊門)은 첨지이고, 경문(慶門)은 무과 급제하여 사과(司果)이다. 손녀사위는 학생 박선(朴瑄)이다. 증손(曾孫)은 호신(虎臣)이고, 현손(玄孫)은 상준(尙峻)이다. 이하는 멀어 다 기록하지 않는다.

대개 호구가 10호도 안 되어 후손이 떨치지 못하자, 황무민공(黃武愍公)의 후손 재수(再洙)가 선조를 추념하는 마음으로 도와 힘을 함께하여 일을 경영하기 시작한 사람이다. 이분이 돌아가신지 5~6년이 되어 일이 이루어졌으니, 또한 슬퍼할 만하다. 정진(正鎭)은 말을 잘할 수 있는 자가 아니지만, 공에 대해 감개(感慨)한 사정(私情)을 이기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시를 붙인다.

偉幹高材	흰칠한 체구에 뛰어난 재능으로
武韜書麓	무예를 익히고 글을 읽혔네.
得之天姿	타고난 자질은,
非公之獨	공이 홀로 가진 것 아니라,

남강에 투신 자결하였다. 사후 좌찬성에 추증되고 영의정이 더해졌다.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26 무민(武愍) 황공(黃公) : 황진(黃進, 1550~1593)으로, 시호가 무민이다. 자는 명보(明甫), 호는 아술당(蛾述堂),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황희(黃喜)의 5대손이다. 임진왜란 때 진안에 침입한 왜적 선봉장을 사살하고 안덕원(安德院)에 침입한 적을 격퇴하였으며 훈련원판관으로 이현전투(梨峴戰鬪)에 참가해 왜적을 격퇴하였다. 적의 대군이 진주를 공략하자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병마절도사 최경회(崔慶會)와 함께 진주성으로 들어가 성을 굳게 지키며 9일간이나 용전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뒤에 좌찬성에 추증되고, 진주의 창렬사(彰烈祠), 남원의 민충사(愍忠祠)에 제향되었다.

27 안영(安瑛, ?~1592) : 자는 원서(元瑞),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임진왜란 때 서울이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고경명(高敬命)의 휘하에 들어갔다가 금산의 싸움에서 고경명과 함께 순국하였다.

28 고충렬(高忠烈) :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을 말한다. 자는 이순(而順), 호는 제봉(霽峰). 태헌(苔軒), 본관은 장흥(長興)이다. 1558년 식년 문과에 장원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천일(金千鎰).박광옥(朴光玉)과 의병을 일으킬 것을 약속하고, 여러 마을에 격문을 돌려 6000여 명의 의병을 담양에 모아 진용을 편성했다. 여기에서 전라 좌도 의병대장에 추대되었고 유팽로(柳彭老).안영(安瑛).양대박(梁大樸)을 종사관으로 임명했다. 금산에서 아들 고인후(高因厚).유팽로.안영 등과 함께 전사했다.

不媚于帥	장수에게 아첨하지 않고,
不豐于歸	돌아갈 때 풍성하지 않았네.
是公操履	이것이 공의 지조와 행실이니,
勉亦可幾	힘쓰는 것 또한 미칠 수 있었네.
平昌之郡	평창 고을은,
其山周匝	그 산이 둘러싸여 있으니,
率家而嬉	가족을 거느리고 즐기면서,
燹莫我及	화가 나에게 미칠 수 없다고 하였네.
公胡不赴	공은 어찌 부임하지 않고,
赴彼孤墉	저 외로운 성으로 갔던가.
許身義重	몸을 의리의 무거움에 맡기니,
彼魚此熊	저것은 물고기 이것은 곰 발바닥이었네. ²⁹
是真死國	이는 참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것이니,
凡夫之驚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네.
我銘昭之	내가 명을 지어 밝힘으로서,
詔彼千齡	무궁한 후세에 고하네.

행주(幸州) 기정진(奇正鎭)³⁰이 짓고, 정언(正言) 황신묵(黃愼默)이 쓰다.

숭정(崇禎) 기원후 네 번째 기미년(1859) 5월 일에 7대손 정문(廷文), 8대손 시순(時淳), 9대손 철호(喆浩)가 세우다.

29 저것은……발바닥이었네 : 삶과 죽음을 선택할 때 의(義)에 맞는 쪽을 택한다는 뜻이다.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물고기도 내가 원하는 바요, 곰 발바닥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다면 물고기를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하겠다. 삶도 내가 바라는 바이고 의도 내가 바라는 바이지만 이 둘을 다 가질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魚我所欲也, 熊掌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30 기정진(奇正鎭, 1798~1879) : 자는 대중(大中), 호는 노사(蘆沙), 본관은 행주(幸州)이다. 1831년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한 후 과거에 대한 생각을 끊고 성리학에 몰두했다. 서경덕·이황·이이·이진상·임성주 등과 함께 성리학의 6대가로 꼽힌다. 유집으로 『노사집』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7. 고달면 대사리 김소석(金召奭)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산35-1(대동) • 제작연대 1525년(乙酉)
- 크 기 전체높이 147, 비신높이 87, 너비 44.5, 두께 17

1525년(乙酉)에 건립한 김소석(金召奭, 1464~1523)의 묘표이다. 묘는 대사리에서 남원가는 길 오른쪽 언양김씨 묘역에 있다. 비는 사각 비좌에 하엽수형 비수와 하나의 돌로 비신을 세웠다. 연잎의 무늬가 닳아지지 않고 잘 살아있다. 고달면의 언양김씨는 김계보(金季甫)의 후손들로, 김소석은 김계보의 손자이다. 김계보는 호가 유은(遊隱)이며, 김약(金躍)의 셋째 아들로 세종(世宗)때 무과에 급제하여 형조도관정랑(刑曹都官正郎)에 이르렀으나 단종(端宗)의 양위(讓位)를 보고 울분에 사직하고 섬진강가에 오대정(鰲戴亭)을 짓고 은거하였으며, 순창(淳昌)의 귀래정(歸來亭)에 은거(隱居)한 신말주(申末舟)와 교유하며 여생을 보냈다. 후면에 김소석의 가계와 생몰연대, 장지를 간단히 기록하였다. 김소석의 아버지인 김종(金淙)의 부부묘가 한 묘역에 있는데, 비석은 사라지고 없고 대석만 남았으며, 문인석도 한 개만 남아있다. 비문은 8행 22자이다.

【전면】

生員金公之墓

【후면】

公諱召奭字姬卿彥陽人考宣務郎淙祖刑曹都官正郎
季甫曾祖 贈工曹叅議躍外祖安東府使申松舟天順
甲申八月十九日生中壬子年生員公性好飲一日過飲
墮馬面傷母氏痛哭自此悔恨終身絕飲人以為難嘉靖
癸未十月十日以疾終十二月十八日葬于南原府南村
屯山之下娶縣監趙智崑之女生一男二女男諱娶生員
陳俊之女一女無後早寡一女適尹河 乙酉春立

〈생원 김공의 묘〉

공의 휘(諱)는 소석(召奭), 자(字)는 희경(姬卿)이니, 언양(彦陽) 사람이다. 부친은 선무랑(宣務郎) 종(淙)이고, 조부는 형조 도관정랑(刑曹都官正郎) 계보(季甫)이며, 증조는 공조참의에 증직된 약(躍)이고, 외조는 안동부사(安東府使) 신송주(申松舟)이다. 천순(天順) 갑신년(1464) 8월 19일에 태어나서 임자년(1492)에 생원이 되었다.

공의 성품이 술을 좋아하였는데, 하루는 과음하고 말에서 떨어져 얼굴을 다치니 모친이 통곡하였다. 이때부터 후회하여 증신토록 술을 끊었으니, 사람들이 이를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가정(嘉靖) 계미년(1523) 10월 10일 병에 걸려 죽었으니, 12월 18일 남원부(南原府) 남촌(南村) 둔산(屯山) 아래에 장사 지냈다. 현감 조지곤(趙智崑)의 딸에게 장가가서 1남 2녀를 낳았다. 아들 혜(諱)는 생원 진준(陳俊)의 딸에게 장가갔고, 딸 하나는 자식 없이 일찍 과부가 되었으며, 딸 하나는 윤하(尹河)에게 시집갔다.

을유년 봄에 세우다.

8. 고달면 대사리 순창조씨(淳昌趙氏)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산35-1(대동) • 제작연대 1559년(己未)
- 크 기 전체높이 135, 비신높이 114, 너비 41.5, 두께 13.5

디지털 탁본

1559년(己未)에 건립한 김소석(金召奭)의 부인 순창조씨(淳昌趙氏, 1469~1557)의 묘비이다. 묘는 대사리에서 남원가는 길 오른쪽 언양김씨 묘역에서 김소석의 묘 왼쪽에 있다. 비는 사각 비좌에 규수형 비신을 세웠다. 부부의 묘를 나란히 조성할 때 부인의 묘를 오른쪽(남편 묘를 기준으로 하면 좌측)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소석 부부의 경우는 부인의 묘를 왼쪽에 두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묘표도 부부를 하나의 비석에 쓰는데 이곳은 따로 건립하였다. 후면에 순창조씨의 가계와 생몰연

대, 장지를 간단히 기록하였다. 비문은 8행 25자이다.

【전면】

宜人淳昌趙氏之墓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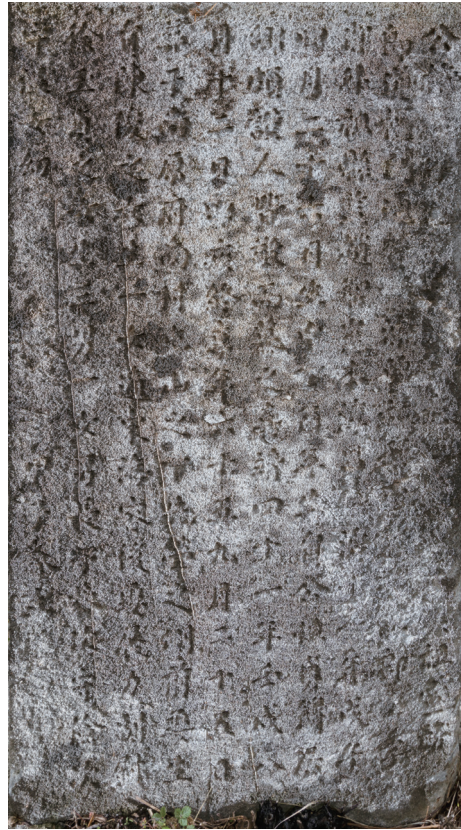
趙氏淳昌人父通訓大夫行井邑縣監 智崑祖 贈通政大夫
刑曹叅議 斯文曾祖嘉善大夫檢漢城府左尹 瑜外祖通政
大夫安東府使梁敬老 本南原成化己丑三月九日生嘉靖丁
巳十二月十日終享年八十九戊午二月三十日窆于君子塋之
右生一男二女男曰諱中丁酉年生員娶生員陳俊之女生一女
適宋海容中戊午年生員長女無後次女適尹河生二女一適柳
濟次適柳普中壬子年生員 己未春立

〈의인(宜人) 순창조씨(淳昌趙氏)의 묘〉

조씨는 순창인(淳昌人)으로, 부친은 통훈대부(通訓大夫) 행 정읍현감(井邑縣監) 지곤(智崑)이고, 조부는 통정대부 형조참의에 증직된 사문(斯文)이며, 증조는 가선대부 검한성부좌윤(檢漢城府左尹) 유(瑜)이고, 외조부는 통정대부 안동부사(安東府使) 양경로(梁敬老)로 본관은 남원(南原)이다. 성화(成化) 기축년(1469) 3월 9일에 태어나 가정(嘉靖) 정사년(1557) 12월 10일에 죽었으니, 향년 89세이다. 무오년(1558) 2월 30일에 남편 무덤 오른쪽에 묻혔다. 1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 이름은 혜(諱)로, 정유년(1537)에 생원이 되었으며 생원 진준(陳俊)의 딸에게 장가갔다. 딸 하나를 낳았는데 송해용(宋海容)에게 시집갔으니, 송해용은 무오년(1558)에 생원이 되었다. 장녀는 자식이 없었고 차녀는 윤하(尹河)에게 시집가서 딸 둘을 낳았다. 장녀는 류제(柳濟)에게 시집갔고 차녀는 류보(柳普)에게 시집갔는데, 류보는 임자년(1552)에 생원이 되었다.

기미년 봄에 세우다.

9. 고달면 대사리 김혜(金諱)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대사리 산35-1(대동) • 제작연대 1564년(甲子)
- 크 기 전체높이 130, 비신높이 66, 너비 37, 두께 10

디지털 탁본

1564년(甲子)에 건립한 김혜(金諱, 1498~1562)의 묘표이다. 묘는 대사리에서 남원가는 길 오른쪽 언양김씨 묘역에 있다. 비는 사각 비좌에 하엽수형 비두와 하나의 돌인 비신을 세웠다. 김혜는 김소석(金召奭)과 순창조씨의 아들로, 1537년에 생원시(生員試)에 들었다. 송순(宋純)의 『면앙집(俛仰集)』에 그에게 보낸 시가 실려 있다. 김소석과 그의 부인 순창조씨, 그리고 아들 김혜의 묘표는 모두 사망한 지 2년 후에 건립되었다. 비문은 11행 18자이다.

【전면】

生員金公之墓

【후면】

公諱諱字愚夫彥陽人考生員召奭公祖宣務
郎通禮門通贊 滄曾祖刑曹都官正郎 季
甫外祖縣監趙智崑本淳昌弘治十一年戊午
四月二十六日生中丁酉冬生員公性貞簡居
鄉頗謹人皆敬而慕之嘉靖四十一年壬戌八
月十二日以疾終享年六十五九月二十五日
葬于南原府南村屯山之下先塋之側前妻生
員陳俊之女生一女適宋海容後妻展力副尉
徐玉貞之女生三男一女男長守參次守儉次
守溫女幼 甲子春立

〈생원 김공의 묘〉

공의 휘(諱)는 혜(諱)이고, 자는 우부(愚夫)이며, 본관은 언양(彦陽)이다. 부친은 생원 소석(召奭)이고, 조부는 선무랑(宣務郎) 통례문통찬(通禮門通贊) 종(滄)이며, 증조는 형조도관정랑(刑曹都官正郎) 계보(季甫)이고, 외조는 현감 조지곤(趙智崑)으로 본관은 순창(淳昌)이다. 홍치(弘治) 11년 무오년(1498) 4월 26일에 태어나 정유년(1537) 겨울에 생원이 되었다. 공은 성품이 곧고 간명하여 향촌에 살면서도 매우 청렴하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고 흠모하였다. 가정 41년 임술년(1562) 8월 12일 병에 걸려 죽었으니, 향년 65세이다. 9월 25일 남원부(南原府) 남촌(南村) 둔산(屯山) 아래 선영 옆에 장사 지냈다. 전처는 생원 진준(陳俊)의 딸로 딸 하나를 낳았으니, 송해용(宋海容)에게 시집갔다. 후처는 전력부위(展力副尉) 서옥정(徐玉貞)의 딸로 3남 1녀를 낳았으니, 장남은 수삼(守參), 차남은 수검(守儉), 삼남은 수온(守溫)이며, 딸은 어리다.

갑자년 봄에 세우다.

10. 목사동면 대곡리 하동정씨(河東鄭氏) 묘갈명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산172 • 제작연대 1905년(上之三十二年乙巳)
- 크 기 전체높이 205, 비신높이 145, 너비 50, 두께 23.5

1905년에 세운 이홍경(李弘慶)의 부인 하동정씨(河東鄭氏)의 묘비이다. 묘는 곡성 대곡리 당산 마을 건너편 전주이씨 제각인 성모재(誠慕齋) 뒤의 전주이씨 묘역 중 가장 위쪽에 있다. 비는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개석을 올렸다. 비문은 이해창(李海昌, 1865~1945)이 지었다. 비문에 의하면 ‘하동정씨(?~1631)는 현감(縣監) 정인모(鄭仁模)의 딸로 도평군 이말생의 7대손 이홍경(李弘慶)에게 시집갔다. 이홍경이 임진왜란 때 병으로 죽자 남원의 선영아래 장사하고, 난을 피하여 두 아들을 데리고 곡성 목사동면 대곡리로 이거하였는데 난이 끝나고도 계속 살았다. 슬하에 이기돈(李基墩)과 이기린(李基麟)을 두었다.’라고 한다.

하동정씨의 생존시기와 곡성이주 사유를 비문대로 서술하였으나, 두 아들 기돈(基墩),

1645~1735), 기린(基麟)의 묘갈에 보이는 생존연대(?~1691)와 상충된다. 남편이 임진년(1662년)에 죽자 곡성으로 이주한 것을 묘갈을 지은 이해창이 1주갑 전의 임진년(1592년)으로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립시기는 ‘上之三十二年乙巳’라 하였는데, 고종(高宗) 32년은 간지가 을미(乙未)이고, 고종 42년이 을사(乙巳)이다. 비문은 17행 40자이다.

【전면】

嘉善大夫行忠武衛副司直
贈工曹參判全州李公諱弘慶
配貞夫人河東鄭氏之墓

【좌면】

貞夫人河東鄭氏墓碣銘并序

貞夫人鄭氏籍河東考縣監諱仁模妣淑人金氏進士萬善女夫人自幼端莊靜淑性且至孝持身以禮
嫺習女紅及笄歸于我 定宗王子桃平君諡恭昭諱末生七代孫嘉善大夫行忠武衛副司直 贈工

【후면】

曹參判諱弘慶事舅姑服勤無違家貧力辦甘旨必得舅姑之心舅姑見背哀動傍人饋奠必親執克盡
誠禮三年如一日參判公偶嬰奇疾露禱求代擗踊逾禮值龍蛇之亂權厝于南原先塋下負子原率二
子避兵于谷城郡木寺洞面大谷里難已仍居焉教子以義持身必嚴傍無子弟雖至親不許相見每當
忌日經夕廢饌以盡如在之誠積瘁致損 仁祖辛未八月三日卒葬于本洞九億山負坤原有二男長
基墩參奉同樞次基麟嘉善基墩生壽業文科大司憲基麟生壽斗通政曾玄以下今爲數百嗚呼夫人
生長儒素天稟肅烈壺範嚴和當崩城之日矢志殉節回念家事之零替携幼避兵擇地而居教育成就
兼盡慈嚴之道勤儉謹約乃致門戶之昌數百年間雲仍蕃衍此豈非夫人積累不食之報歟七代孫松
茂齋藏平日行錄來請狀德之文乃敢摭其實而表其墓銘曰
性純其孝禮盡于節當燮³¹善處能保一室垂裕後昆永世無替宜篆露籀享以嘗禘

【우면】

上之三十二年乙巳九月 日
資憲大夫昌山君宗人海昌 謹撰

〈정부인(貞夫人) 하동정씨(河東鄭氏) 묘갈명(墓碣銘) 병서〉

정부인 정씨(鄭氏)는 본관이 하동(河東)으로, 아버지는 현감 인모(仁模)이고, 어머니는 숙인(淑人) 김씨(金氏)로, 진사 만선(萬善)의 따님이다. 부인은 어려서부터 단정하고 정숙하며 타고난 성품도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몸가짐을 예로써 하여 여홍(女紅)을 익숙하게 익혔다. 성년이 되어 우

31 變자를 잘못 새긴 것으로 보인다.

리 정종(定宗) 왕자 도평군(桃平君), 시호가 공소(恭昭)이신 말생(末生)의 7대손인 가선대부(嘉善大夫) 행 충무위부사직(行忠武衛副司直) 공조참판에 추증된 홍경(弘慶)에게 시집왔다.

시부모를 섬김에 부지런히 종사하여 어김이 없었다. 집이 가난하였지만 맛있는 음식을 힘써 마련하여 반드시 시부모의 마음을 얻었다. 시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슬퍼함이 옆 사람을 감동시켰다. 제물을 올리는 것은 반드시 친히 행하여 정성과 예를 다하여 3년을 하루처럼 하였다. 참판공(參判公)이 우연히 기이한 병에 걸리자 맨땅에서 기도드려 대신하기를 바랐다. 가슴을 두드리며 극도로 슬퍼함이 법도를 넘었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남원(南原) 선영 아래 자(子)향을 등진 언덕에 임시로 매장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大谷里)로 피난하였는데 난이 끝나서도 그대로 살게 되었다. 자식에게 의로써 가르치고 몸가짐을 반드시 엄하게 하여 곁에 자제가 없을 적에는 비록 가까운 친척이라도 서로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매번 기일(忌日) 때면 밤새도록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계실 때와 같은 정성을 다하였다. 쌓인 피로로 인해 손상을 입고, 인조(仁祖) 신미년(1631) 8월 3일에 졸하여 본동의 구억산(九億山) 부곤(負坤) 언덕에 장사지냈다.

두 아들을 두었으니 장자는 기돈(基墩)으로, 참봉 동지중추부사이며, 차자는 기린(基麟)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이다. 기돈은 수업(壽業)을 낳았으니,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을 지냈고, 기린은 수두(壽斗)를 낳았으니, 통정대부(通政大夫)이다. 증손과 현손 이하는 지금 수백 명이다.

아! 부인은 유가의 집안에서 성장하여 타고난 자품이 엄숙하고 강하였으며 곤범(壺範, 부녀의 모범)이 엄하고 화목하였다. 남편이 죽던 날 따라 죽을 것을 맹세하였지만, 집안이 영락(零落)한 것을 되돌아보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병란을 피하여 땅을 가려 살았다. 교육하여 성취시켰으며 겸하여 자애롭고 엄격한 도리를 다하였으며, 근검하고 근약(謹約)하여 마침내 문호(門戶)를 창성하게 함으로써 수백 년 동안 후손이 번성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부인이 쌓은 은덕의 보답이 아니겠는가?

7대손 송무(松茂)가 간직하고 있던 평소 행록을 가지고 와서 덕을 기리는 글을 써달라고 청하니, 마침내 그 실제 일을 모아서 그 묘소에 드러낸다. 명은 다음과 같다.

性純其孝	성품은 효성에 순수하였고,
禮盡于節	예는 절도에 다 맞았네.
當變善處	변란에 잘 대처하여,
能保一室	한 집안을 온전히 보존하였네.
垂裕後昆	훌륭한 도를 후손에게 물려주었으니,
永世無替	대대로 영원히 폐하지 말라.
宜篆露籀	마땅히 글자를 새겨서 드러내고,
享以嘗禘	상제(嘗祭) 체제(禘祭)를 지내리.

고종 32년 을사년 9월 일에 자헌대부(資憲大夫) 창산군(昌山君) 종인(宗人) 이해창(李海昌)이 삼가 찬하다.

11. 목사동면 대곡리 이기돈(李基暉) 묘갈명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산172 • 제작연대 1905년(上之三十二年乙巳)
- 크 기 전체높이 230, 비신높이 150, 너비 48, 두께 21

이기돈(李基暉, 1645~1735)의 묘갈명비는 대곡리 당산마을 건너편 전주이씨 묘역 중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다. 자연석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개석을 올렸다. 이기돈은 아버지 이홍경과 어머니 하동정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효종 때 영릉참봉(英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오래지 않아 돌아왔고, 장수하여 노인직으로 서추(西樞)에 제수되었다. 비문은 이재극(李載克)이 지었는데, 이재극은 대한제국기 법부대신, 학부대신, 궁내부대신 등을 역임한 관료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이다. 건립시기는 어머니 하동정씨 묘갈과 마찬가지로 ‘上之三十二年乙巳’라 하였는데, 고종 재위년과 간지가 맞지 않아, 일단 간지를 중심으로 1905년으로 추정하였다. 비문은 17행 43자이다.

【전면】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全州李公諱基暉之墓

【좌면】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李公墓碣銘并序

公諱基暉字吉南系出 天潢 定宗大王第十二男桃平君諱末生諡恭昭公八代孫也恭昭公會孫全羅監司石城君諱歲龜石城君之孫諱芮早遊朱溪君深源之門篤學力行士林推重薦授孝敬殿參奉燕山甲子朱

【후면】

溪君被禍公乃無意輦轂志在林園隱居南原曾祖諱希芬文科吏曹參判祖諱諤郡守左承旨考諱弘慶嘉善大夫忠武衛副司直 贈工曹參判妣河東鄭氏貞夫人公生於 仁祖乙酉四月五日天姿溫粹志行敦篤孝廟朝特除英陵參奉未久謝歸乃築室于峨眉山親兆下自號慕齋盖寓終身慕父母之義也且公內行甚備前後居喪惟禮是遵以不得終養爲恨平生不近華服家雖饒而不喜營殖恤貧而且喜周急寓情詩酒放懷山水逍遙乎若將終焉此槩見公之大權也壽濟隆奎 朝家以優老典陞二品階除西樞啣年九十有一以天年考終于正寢乃乙卯二月三日也葬于谷城郡木寺洞面大谷里古老洞負子原配貞夫人昌寧曹氏主簿諱成南女墓同原有一男壽業文科大司憲有孫四人長尙得參奉次尙德僉知尙眞主簿尙岳都正曾玄多不盡記後昆松茂漢植請文于不佞而以若平昔慕仰之心兼有百世一室之誼不可以不文辭遂爲之銘曰 士林之髦宗室之英脫屣千鍾詩酒寓情孝友睦任盖公平生銘公之德鐫公之行

【우면】

上之三十二年乙巳九月 日

崇政大夫行判敦寧司事兼奎章閣學士侍講院日講官宗人載克謹撰

八代孫允植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이기돈(李基暉) 묘갈명 병서〉

공의 휘는 기돈(基暉)이고, 자는 길남(吉南)이며, 세계(世系)는 천황(天潢, 왕실)에서 나왔으니, 정종대왕(定宗大王) 제12남 도평군(桃平君) 휘 말생(末生) 시호 공소공(恭昭公)의 8대손이다. 공소공의 증손은 전라감사 석성군(石城君) 세귀(歲龜)이고, 석성군의 손자 예(芮)는 일찍이 주계군(朱溪君) 심원(深源)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독실하게 배우고 힘써 행하여 사람들이 추중하여 천거로 효경전 참봉(孝敬殿參奉)에 제수되었다. 연산군(燕山君) 갑자년에 주계군(朱溪君)이 사화를 입자 공은 서울에 있을 뜻이 없고 원림(園林)에 뜻을 두어 남원(南原)에 은거하였다. 증조 희분(希芬)은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참판을 지냈고, 조부 필(黼)은 군수와 좌승지를 지냈으며, 아버지 홍경(弘慶)은 가선대부(嘉善大夫) 충무위부사직(忠武衛副司直)을 지내고, 공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어머니는 하동정씨(河東鄭氏)로 정부인(貞夫人)이며, 공을 인조 을유년(1645) 4월 5일에 낳았다.

공은 타고난 자질이 온화하고 순수하며 지조와 행실이 돈독하고 독실하였다. 효묘조(孝廟朝)에 영릉(英陵) 참봉에 특별히 제수되었는데, 오래지 않아 사례하고 돌아왔고, 바로 아미산(峨眉山)의 아버이 무덤 아래에 집을 짓고 자호를 모재(慕齋)라고 하였으니, 이는 종신토록 부모를 사모하는 뜻을 부친 것이다. 또 공은 평소 집에 있을 때의 조행(操行)을 매우 갖추었으니, 전후 거상(居喪) 때 상례를 준수하였지만 끝까지 봉양을 다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겨 평소에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집안이 비록 넉넉했지만 재산 늘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가난한 사람을 구휼하고 또 급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였다. 마음을 시와 술에 붙이고 산수(山水)를 마음대로 소요하면서 장차 생을 마감하려 하였으니, 여기에서 대개 공의 대략을 엿볼 수 있다.

나이가 많아 조정에서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을 베풀어 2품의 품계를 올리고 서추(西樞)에 제수하였으며, 나이가 91세에 천수를 누리고 정침에서 별세하였다. 바로 을묘년(1735) 2월 3일로,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의 고로동(古老洞) 부자(負子) 언덕에 장사지냈다. 배위는 정부인(貞夫人) 창녕조씨(昌寧曹氏)로, 주부(主簿) 성남(成南)의 따님이다. 묘소는 남편과 같은 언덕에 있다. 1남을 두었으니 수업(壽業)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을 지냈다. 손자는 4인이니, 장남은 상득(尙得)으로 참봉이고, 차남은 상덕(尙德)으로 첨지이며, 상진(尙眞)은 주부(主簿)이고, 상악(尙岳)은 도정이다. 증손과 현손은 많아서 다 기록하지 않는다. 후손 송무(松茂)와 한식(漢植)이 나에게 글을 청하였다. 평소 앙모하는 마음과 백세(百世)동안 한 집안의 정의가 있어서 문사가 없다는 이유로 사양하지 못하고 마침내 명을 짓는다.

士林之髦	사람의 훌륭한 분이고,
宗室之英	종실의 영재일세.
脫屣千鍾	천 종의 재산을 버리고,
詩酒寓情	시와 술에 마음을 붙였네.
孝友睦任	효우와 화목으로 자임했으니,
蓋公平生	이는 공의 평소 행실일세.
銘公之德	공의 덕을 새기고,
鐫公之行	공의 행실을 새기네.

상의 32년 을사년 9월 일에, 승정대부 행 판돈녕사사 겸 규장각학사 시강원일강관 종인(宗人) 재극(載克)이 삼가 찬하다. 8대손 윤식(允植).

12. 목사동면 대곡리 이명두(李明斗) 묘상석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산172 • 제작연대 1904년(甲辰)
- 크 기 가로 135, 세로 92, 두께 36

이명두(李明斗)의 묘상석은 전주이씨 제각인 성모재(誠慕齋) 마당에 들어서기 전 입구의 '효자 농암이공철국기적비' 앞에 놓여있다. 총 4기의 묘상석이 놓여있는데, 그중 향좌 2번째에 있는 묘상석이다. 전주이씨 묘역을 조성하면서 상석을 옮겨다가 현재의 자리에 상석끼리 나란히 놔둔 것으로 보인다. 이명두(李明斗)는 이홍경(李弘慶)의 후손으로 보인다.

【전면】

通政大「夫李公」明斗之墓

配淑夫「人慶州」李氏附左

甲辰十二「月」日「

六世孫貞」謹書

13. 석곡면 방송리 마천목(馬天牧) 묘표 1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산83-1 • 제작연대 미상(1431년경)
- 크 기 전체높이 68, 비신높이 65, 너비 35, 두께 15

조선 전기에 세운 마천목(馬天牧, 1358~1431)의 묘비는 석곡 방송리[통명산 기슭 방주골] 영모재(永慕齋) 북쪽 묘역에 있다. 상단의 2기 묘 중 뒤(北)에 있는 것이 마천목의 묘이고, 앞(南)에 있는 것이 부인 경주이씨(慶州李氏)의 묘이다. 묘비는 경주이씨의 묘앞 왼쪽에 서 있다. 사각 비좌와 원수형 비신이 하나의 돌로 이루어졌다. 묘(墓)를 ‘廟’라고 썼으며, ‘住北’이라고 묘의 위치를 밝혔다. 조선시대에 부부의 묘를 상하에 조성할 경우 일정한 규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천목 부부 묘 아래에 있는 아들 마승(馬勝) 부부는 부인의 묘가 위에 있다. 마천목 묘와 재실은 2019년 12월 26일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마천목의 자는 군련(君戀), 호는 오천(梧川), 본관은 장흥(長興), 시호는 충정(忠靖)이다. 할아버

지는 좌찬성에 추증된 회령군(會寧君) 치원(致遠)이고, 아버지는 좌찬성에 추증된 회령군(會寧君) 영(榮)이며, 어머니는 평산인(平山人) 대장군 신용재(申用材)의 딸이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안군(靖安君)을 도와 공훈을 세웠고, 1399년에 상장군(上將軍)에 올랐다. 이듬해 제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하자 다시 정안군의 선봉이 되어 크게 공헌하였다. 이 공으로 1401년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책훈되고 회령군(會寧君)에 봉해졌는데, 이때 그에게 내려진 공신녹권(功臣錄券)이 전해져 2006년 4월 28일 보물 제1469호로 지정되었다. 1414년에는 장흥군(長興君)으로 봉해졌다. 1429년에 연로를 이유로 치사를 청했으나 도리어 장흥부원군(長興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다. 순자강 하류에 도깨비들로 하여금 물을 막아 어전(漁箭)을 만들게 하였다는 전설이 전한다. 비문은 4행 8자이다.

【전면】

推忠翊戴佐命功臣
輔國崇祿大夫長興
府院君贈諡忠靖公
馬天牧之廟住北

14. 석곡면 방송리 마천목(馬天牧) 묘표 2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276 • 제작연대 미상(조선전기 추정)
- 크 기 전체높이 155, 비신높이 129, 너비 44-38, 두께 17.5

조선 전기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천목(1358~1431)의 묘비는 방송리 영모재(永慕齋) 앞에 있다. 자연석 비좌에 규수형 비신을 세웠다. 현재 묘소 앞에 세워놓은 묘비와 내용이 비슷하지만 증직된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영경연(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 증직 이후에 묘비를 다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비문은 4행 15자이다.

【전면】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諡忠靖公行推忠翊戴佐命
功臣輔國崇祿大夫長興府院君集賢
殿大提學判三軍府事馬天牧之廟

15. 석곡면 방송리 정혜택주이씨(定惠宅主李氏)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산83-1 • 제작연대 미상(조선전기)
- 크 기 전체높이 67, 비신높이 65, 너비 33, 두께 16.5

조선 전기에 세운 마천목(馬天牧, 1358~1431)의 부인 정혜택주 경주이씨의 묘표이다. 택주(宅主)란 군(君)의 처를 뜻하는 호칭이다. 묘는 방송리 영모재(永慕齋) 북쪽 묘역 중 상단에 있는 2기의 묘 중 앞에 있는 묘이다. 사각형 대석과 원수형 비신이 하나의 돌이다. 묘(墓)를 ‘庙’라고 썼으며, ‘住南’이라고 묘의 위치를 밝혔다. 비문은 2행 5자이다.

【전면】

定惠宅主李
氏之庙住南

16. 석곡면 방송리 마승(馬勝)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산83-1 • 제작연대 미상(조선전기)
- 크 기 전체높이 83, 비신높이 78, 너비 45, 두께 15.5

조선 전기에 세운 마승(馬勝)의 묘비이다. 묘는 방송리 영모재(永慕齋) 북쪽 묘역 중에 있는데, 하단 2기의 묘 중 뒤(北)에 있는 것이 부인의 묘이고, 앞(南)에 있는 것이 마승의 묘이다. 상면에 연판문이 있는 사각형 대석과 원수형 비신이 하나의 돌이다. 묘비는 마승의 묘 왼쪽에 서 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 9년 9월 16일 조에는 시호를 ‘충간(忠簡)’이라 하였으나, 『여지도서(輿地圖書)』 곡성 인물조에는 시호가 문간(文簡)이라 하였다. 묘비에 시호가 ‘忠’자와 ‘文’자를 겹쳐 새긴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충간이었던 시호가 나중에 문간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 시호가 바뀌었지만 묘비를 새로 제작하지 않고, 옛 묘비의 글자를 수정한 것이다. 마승(馬勝)의 본관은 장흥(長興)으로, 마천목(馬天牧, 1358~1431)의 아들이다. 벼슬이 경주부윤(慶州府尹)에 이르렀고, 시호(諡號)는 문간(文簡)이다. 비문은 3행 7자이다.

【전면】

崇政大夫長興

君贈諡文〔忠〕簡公

馬勝之墓住南

17. 석곡면 방송리 덕수이씨(德水李氏)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산83-1 • 제작연대 미상(조선전기)
- 크 기 전체높이 93, 비신높이 80, 너비 46, 두께 15

마승(馬勝)의 부인 덕수이씨(德水李氏)의 묘비는 방송리 영모재(永慕齋) 북쪽 묘역 가운데 있는데, 하단 2기의 묘 중 뒤(北)에 있는 것이 부인의 묘이고, 앞(南)에 있는 것이 마승의 묘이다. 원수형의 넓적한 비신이 사각형 대석 위에 세워져 있다. 덕수이씨는 이양(李揚)의 딸이다. 묘비 첫줄의 ‘풍덕정경부인(豐德貞敬夫人)’ 중 ‘정경(貞敬)’은 ‘군정(郡貞)’과 겹쳐 새겨져 있다. 족보에 의하면 덕수이씨가 마승보다 8년 먼저 죽었는데, 처음에 ‘풍덕군정부인(豐德郡貞夫人)’으로 새겼다가 남편의 품계가 올라가자 ‘풍덕정경부인(豐德貞敬夫人)’으로 고쳐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상면에 연판문이 있는 사각 비좌와 원수형 비신이 하나의 돌이다. ‘住北’이라고 묘의 위치를 밝혔다. 비문은 2행 8자이다.

【전면】

豐德貞敬[郡貞]夫人

李氏之墓住北

18. 석곡면 방송리 마중규(馬仲規)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산83-1 • 제작연대 미상(조선전기)
- 크 기 전체높이 74, 너비 30.5, 두께 15

마중규(馬仲規)의 묘비는 방송리 영모재(永慕齋)에서 서북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의 묘역에 있는데, 여기에는 마천목의 아버지 마영(馬榮)의 묘가 있고, 마영의 묘 아래에 있는 2기의 묘가 마중규 부부의 묘로서 뒤(北)에 있는 것이 마중규의 묘이고, 앞(南)에 있는 것이 부인의 묘이다. 묘비는 옥천설씨 묘 왼쪽에 있다. 비좌는 문혀 알 수 없고 비신은 원수형이다. 마중규의 자는 공우(公愚)로, 마승(馬勝)의 큰아들, 즉 마천목(馬天牧, 1358~1431)의 장손이다. 음직으로 상호군(上護軍) 행이조참의를 지냈다. 비문은 2행 6자이다.

【전면】

折衝將軍馬仲

規之廟住北

19. 석곡면 방송리 옥천설씨(玉川薛氏)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산83-1 • 제작연대 미상(조선전기)
- 크 기 전체높이 73, 너비 28.5, 두께 14

마중규(馬仲規)의 부인 옥천설씨(玉川薛氏) 묘비는 방송리 영모재(永慕齋)에서 서북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의 묘역에 있다. 마영의 묘 아래에 있는 2기의 묘 중 앞(南)에 있는 것이 부인의 묘이다. 비좌는 문혀 알 수 없고 비신은 원수형이다. 묘(墓)를 ‘廟’라고 썼으며, ‘住南’이라고 묘의 위치를 밝혔다. 비문은 2행 6자이다.

【전면】

玉川郡淑人薛
氏之廟住南

20. 석곡면 연반리 이성(李城)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산12 • 제작연대 미상(조선후기)
- 크 기 전체높이 150, 비신높이 127, 너비 54-50, 두께 16

성주이씨 이성(李城, 1562~1629)의 묘비는 연반리 전기마을 성주이씨 재실 비봉재(飛鳳齋) 뒤 고조부 이전(李詮)의 묘 아래에 있다. 대석 상면에 연꽃문이 새겨져 있고 측면 구획을 나누어 안상을 새긴 사각 비좌에 원수형 비신을 세웠다. 이성은 이언충의 아들로, 전생서 봉사(典牲暑奉事)로 있던 1618년 인목대비 폐위와 서궁유폐(西宮幽閉) 소식을 듣고, 벼슬을 그만두고 가족들과 함께 보성[山陽]으로 낙향하였다. 비문은 4행 20자이다.

【전면】

贈貞夫人順天金氏之墓
 贈嘉善大夫吏曹叅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
 府副摠管行通善郎典牲署奉事李公諱城之墓
 贈貞夫人完山李氏之墓

21. 오곡면 구성리 류담(柳潭)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구성리 산139-1(명성) • 제작연대 1903년(癸卯)
- 크 기 전체높이 105, 비신높이 76, 너비 37, 두께 12

류담(柳潭, ?~?)의 묘비는 구성저수지 가에 있는 문화유씨 사정공 세장산에 있는데, 이 묘역은 구성리 61-3번지 구성재(龜成齋) 뒤편에 있다. 묘역은 일렬 종으로 늘어져 있는데, 류담의 묘는 제일 위쪽에 자리한다. 사각형 대석 위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가침석을 올렸다. 이 비 옆에는 비문이 있는 신비(新碑)가 있다. 묘는 숙인(淑人) 경주김씨와 쌍분(雙墳)이다. 류담은 연산군 4년(1498)에 무오사화를 피하여 곡성으로 피신하여 온 곡성의 입향조(入鄕祖) 사정(司正) 류집(柳緝)의 손자이다. 부친은 부사용(副司勇) 승손(承孫)이고, 아들로 기수(期壽)·이수(頤壽)·충수(忠壽)를 두었는데, 류기수(柳期壽, 1507~1572)와 류충수(柳忠壽, 1514~1574)의 묘비는 고달면 뇌죽리 산67-1번지의 문화류씨 제각 뒤의 묘역에 있다. 비문은 9행 15자이다.

【전면】

淑人慶州金氏之墓
禦侮將軍柳公之墓

【후면】

公諱潭本文化生三子長曰期壽
次曰
頤壽三曰忠壽
考諱承孫副司勇

祖諱緝行左部副司正
配金氏諱錫命女
塔下墓第二孫艷春墓
癸卯十二月日

22. 오곡면 오지리 안제원(安濟遠) 묘갈명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391-1 • 제작연대 1902년(壬寅)
- 크 기 전체높이 243, 비신높이 150, 너비 63, 두께 35

오곡면 오지리에서 압록가는 길의 산밑에 위치한 묘비이다. 사각형 대석에 녹슨 쇠빛이 나는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가침석을 얹었다. 안제원(安濟遠, 1796~1873)의 자는 내집(乃楫), 호는 덕암(德菴),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효자(孝子) 효천(孝天)의 손자이며, 아버지는 사순(師舜), 생부는 사맹(師孟)이며, 생모는 풍천노씨(豐川盧氏)이다. 일찍 경세제민(經世濟民)에 뜻을 두고 서사(書舍) 영수정(永守亭)을 축조, 책을 장만하여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향약(鄉約)을 증손(增損)하여 예(禮)를 일으켰다. 아버지가 질병이 나자 방술(方術)을 연구하여 효과를 보았다. 1878년 어사(御使) 심동신(沈東臣)의 추천으로 사헌부 감찰에 증직(贈職)되고, 그 해에 고을 사람들이 영사비(永思碑)를 세웠는데 부근에 있다.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6.25때 빨치산들의 총탄 자국이라고 한다. 묘갈명은 곽중석이 지었는데, 그의 문집 『면우집』에 실린 내용과 비교해보면 거의 다른 곳이 없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은 파손된 부분에 대해 문집을 참조하여 채워넣은 것이다. 비문은 28행 38자이다.

【전면】

贈通訓大夫司憲府監察

德菴安公濟遠之墓

【좌면】

今 上辛巳繡衣使之察湖南者以谷城郡故士人安濟遠有篤學至孝 啓其實于 朝遂 命贈司憲府監察盖距安公物已八霜而自鄉里章甫以及閭巷凡庶行路販丐萬喙爲一口誦公蹟若卽事而使臣得之也已而前寢郎奇君宇萬爲之狀其行典雅瞻暢可讀也公會孫在熙携其狀走乞銘于余不佞將以表公之阡余與在熙舊款也辭不獲按狀而敘之曰公號德菴字乃楫系出順興文成公晦軒先生諱裕之後也至 國朝有吏曹參議 贈判書諱從約直提學 贈左贊成諱玠諱知歸世有聞望有進士諱璜諱琿昆弟遊李一齋柳眉巖先生之門以文學見推曾祖瑠祖孝老考師舜並隱不仕妣海州吳泰德之女無嗣公以族子後焉本生祖孝天以學行 贈教官且

【후면】

旌其孝父師孟母豐川盧氏以 純廟丙辰生公姿宇挺特動止安徐天性孝友愉惋容色不離親側自幼然也事所後一如所生生養喪祭愛敬哀慕一於誠鱸菜蔬菜之中于籩實者必蓄以待薦不漫喫書卷什物之傳舊而壞弊者必寶琬而器藏之曰手澤存焉事伯兄如嚴父兄沒撫遺孤無間己出教子姓先以小學按文責行躬率以範之家道雍而理築講舍于里中序書冊延生徒勸課有方修藍田規約興禮俗救患難坊隣八九里啻窳無以生公爲捐資樹本方便拮据補政役濟貧乏居民始樂生公嘗侍親疾積年羣醫技殫公以爲親疾而委之庸醫不孝也乃潛究方術通其妙對證下劑親以良己自是推以惠人所全活甚衆公則不自爲德生平衣不輕暖食不兼肉而急人之困不吝於指困性寬厚善恕接物無畦畛而義有不可便斬釘截鐵莫得以私干亦不能以威怖若公者可謂有學有行有施有守之君子人歟也以七十八歲之癸酉六月一日終葬于曳山面玉

女峰下辛乙之原夫人耽津崔氏生員台柱女生後公一年先公八年葬在梧枝村前圓峰乙坐之原育五男秉瓚秉衡秉祐秉璫秉翼孫大燮邦燮瓚男重燮進士益燮衡男洪燮泳燮祐男瓚燮璫男而早夭以泳燮替嗣東燮翼男孫女適鄭宗源柳埴者瓚出適金教學金正義者祐出曾孫而

【우면】

下未艾也在熙則進士子也嗚呼公之實既如彼而九臯之鳴已聞于天矣世有良史氏者固將汗之青矣奇君湖之望也已秉大筆而揄揚之可鼎呂于終古矣是所以不朽公者已至矣余不佞其敢更有浮辭且系以銘曰

溫然孝友之篤而有不順推于百行者乎盎然澤物之勤而有不錫福于其子姓者乎有執者契天之于仁也有刻者石聊以詔夫澆世之觀也

歲壬寅三月下浣苞山郭鍾錫撰

曾孫 在熙書

〈증 통훈대부 사헌부 감찰 덕암(德菴) 안제원(安濟遠)의 묘〉

금상 신사년(1881)에 암행어사가 호남을 순찰하다가 곡성군의 고(故) 사인(士人) 안제원의 학문이 독실하고 효도가 지극함이 있어서 그의 실정을 조정에 아뢰어 마침내 사헌부 감찰에 추증하라는 명이 내렸다. 대개 안공이 죽은 지 8년이 지났으나, 향리의 선비들로부터 민간의 백성이나 길가는 장사꾼 및 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한목소리로 공의 행적을 칭송하기를 마치 지금의 일처럼 말하기에 어사가 들을 수 있었다. 이미 전 참봉 기우만(奇宇萬)이 그 행장을 지었으니, 그 글이 전아하고 풍부하며 시원해서 읽을 만하다. 공의 증손 재희(在熙)가 그 행장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명(銘)을 청하여 공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려고 하였다. 나와 재희는 오래된 벗이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행장을 살펴 서술한다.

공의 호는 덕암(德菴), 자(字)는 내집(乃楫), 본관은 순흥(順興)으로, 문성공(文成公) 회헌선생(晦軒先生) 유(裕)의 후손이다. 조선에 이르러 이조참의로서 판서에 증직된 종약(從約)과 직제학으로서 좌찬성에 증직된 구(玖), 그리고 지귀(知歸)는 세상에 명망이 있었으며, 진사 황(璜)과 혼(琿) 형제는 일재(一齋) 이항(李恒)과 미암(眉巖) 유희춘(柳希春) 선생의 문하에서 종유했고, 문학으로 추증을 받았다. 증조는 상(瑒), 조부는 효백(孝百), 아버지는 사순(師舜)인데 모두 은사(隱士)로 벼슬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해주(海州) 오태덕(吳泰德)의 딸로, 후사가 없자 공이 족형제의 아들로서 후사가 되었다. 본생 조부 효천(孝天)은 학행으로 교관에 추증되었고, 또 효자로 정려를 받았다. 생부는 사맹(師孟)이며, 생모는 풍천노씨(豐川盧氏)로, 순묘(純廟) 병진년³²에 공을 낳았다.

공은 자질이 빼어나고 행동거지가 조용하였으며 타고난 성품이 효성스럽고 우애가 깊었다. 얼굴

32 순묘(純廟) 병진년 : 순조의 재위 기간에는 병진년(丙辰年)이 없다. 이는 '정묘(正廟)'의 잘못된 표기이다.

빛을 부드럽게 하며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는데 어려서부터 그러하였다. 양부모 섬기기를 한결 같이 친부모 섬기듯이 하여 생전의 봉양과 장사지내고 제사 지내는 일에 사랑하고 공경하며 슬퍼하고 사모하기를 한결같이 정성껏 하였다. 제수로 올리기 적당한 포와 과일, 채소는 반드시 준비해 두고 올리기를 기다리며 함부로 먹지 않았다. 전해오는 책이나 집기 중에 오래되어 망가진 것은 반드시 소중히 보물처럼 보관해 두며 “아버이의 손때가 여기에 남았다.”라고 하였다.

큰형님 모시기를 아버지 모시듯 하였으며, 형이 죽자 남은 고아를 자기가 낳은 자식과 차별없이 돌보았다. 아들을 가르칠 적에는 먼저 『소학』으로 글을 살피고 행동을 요구하며 몸소 솔선수범하니, 집안이 화목하게 다스려졌다. 마을에 강사(講舍)를 짓고, 서책을 준비하고 생도를 모아 일과를 정한 공부를 권면하였다. 여씨향약(呂氏鄉約)을 시행하여 예의있는 풍속을 일으키고 환난을 구제하였다. 이웃 마을 8~9리가 가난하여 살길이 없었는데, 공이 밑천을 내어 본전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힘써 돈을 모아서 정역(政役)에 보태고 가난을 구제하여 주민들이 비로소 즐겁게 살게 되었다.

공은 일찍이 병든 아버지를 모셨는데 오래되어 의사들이 손쓸 수 없게 되자 공은 아버지의 병을 용렬한 의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효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의술을 연구하고 그 묘책을 알아내어서 증상에 맞게 약을 쓰자 아버지가 깨끗이 나왔다. 이때부터 미루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린 사람이 매우 많았으나 공은 생색내지 않았다. 평생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았고, 두 가지 고기반찬을 먹지 않았다. 곤란한 사람을 도우며 재산을 나눠주기에 인색하지 않았으며, 성품이 너그럽고 남의 마음을 잘 헤아렸다.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도 간격을 두지 않았으나 의리 상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곧 단호히 거절하여 사적으로 요구할 수 없었으며 위세로도 두렵게 할 수 없었다. 공과 같은 사람은 과연 학문이 있고, 덕행이 있고, 시혜(施惠)가 있고, 지조가 있는 군자라고 말할만하다.

78세 되던 계유년(1873) 6월 초하루에 세상을 떠나 예산면(兪山面) 옥녀봉(玉女峰) 아래, 신좌(辛坐) 을향(乙向)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부인 탐진최씨(耽津崔氏)는 생원 태주(台柱)의 딸로, 공보다 1년 뒤에 태어났고, 공보다 8년 앞서 세상을 떠나서 오지촌(梧枝村) 앞 원봉(圓峰) 을좌(乙坐)의 언덕에 장사지냈다. 5남을 두었으니, 병찬(秉瓚), 병형(秉衡), 병호(秉祐), 병숙(秉壽), 병익(秉翼)이다. 손자 대섭(大燮), 방섭(邦燮)은 병찬의 아들이고, 진사 중섭(重燮)과 익섭(益燮)은 병형의 아들이다. 홍섭(洪燮)과 영섭(永燮)은 병호의 아들이고, 경섭(瓊燮)은 병숙의 아들인데 일찍 요절하여 영섭이 대를 이었다. 동섭(東燮)은 병익의 아들이다. 정종원(鄭宗源)과 류욱(柳堉)에게 시집간 손녀들은 병찬의 소생이고, 김교학(金敎學)과 김정의(金正義)에 시집간 손녀들은 병호에게서 태어났다. 증손 이하는 아직 장성하지 않았다. 재희(在熙)는 진사 중섭의 아들이다.

아! 공의 실상이 이미 저와 같아 구고(九臯)의 학 울음소리³³가 이미 하늘(궁궐)까지 들렸으니, 세

33 구고(九臯)의 학 울음소리: 『시경 학명(鶴鳴)』에 “학이 구고의 늪에서 우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린다.[鶴鳴于

상의 훌륭한 역사가가 있어 장차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기우만은 호남의 명망가인데, 이미 큰 붓을 잡아 그의 공적을 기렸으니 영원히 전해질 만하다. 때문에 이미 공을 불후(不朽)하게 만든 것이 이미 지극하니, 내가 감히 헛된 말을 다시 할 수 있겠는가? 이어서 명(銘)을 짓는다.

따스한 효도와 우애가 돈독하니 모든 행동에 순순히 미루지 않을 수 있겠는가?

넘치듯 은혜를 남에게 부지런히 베푸니 그 자손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겠는가?

하늘이 어진 사람에게는 계약서를 가진 듯이 보답한다.

돌에 새겨서 애오라지 말세의 본보기로 남기노라.

임인년(1902) 3월 하순, 포산(苞山) 곽종석(郭鍾錫)이 글을 짓고, 증손 재희(在熙)가 쓰다.

九臯, 聲聞于天.]”라고 하였다. 은거하는 군자의 덕이 멀리까지 알려지는 것을 비유한다.

23. 오산면 청단리 이몽득(李夢得)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청단리 산18-2 • 제작연대 1811년(嘉慶十六年辛未)
- 크 기 전체높이 143, 비신높이 96, 너비 45, 두께 12

곡성군 오산면 청단리 경주이씨 춘우당(春雨堂, 청단리 393번지)의 뒷산에 있는 승정대부 이몽득(李夢得)의 묘비이다. 좌우면에 글씨가 없으며, 후면에 건립연대와 후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묘비는 1811년에 건립했고 지대석이 묻혀 있으며 가침석이 없어져 있는 비 형태이다. 그러나 묘는 최근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비문은 9행 10자이다.

【전면】

配淑夫人密陽孫氏
 夢得之墓
 贈 崇政大夫李公

【후면】

嘉慶十六年辛未四月 日
 長子幼學順元
 次子 順文
 次子 順即
 次子 順云
 孫 春芳

24. 오산면 청단리 김재봉(金在瑋)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청단리 산15-10 • 제작연대 1897년(丁酉)
- 크 기 전체높이 166, 비신높이 133, 너비 40, 두께 16

김재봉(金在瑋, 1786~1863) 묘비는 연화리 340번지에서 청단리 쪽으로 난 산길을 따라 150미터 가량 올라간 광산김씨 양간공파 후손 합동제단 묘역에 있다. 묘비는 지대석이 묻혀 있으며 가침석을 얹은 비신이 있다. 김재봉은 본관이 광산으로, 생원시(1861년)와 문과에 급제하였다. 교리를 역임하였고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묘비문은 1878년에 정봉현(鄭鳳鉉, 1852~1918)이 찬술했는데, 정봉현의 문집 『운람집』에 실린 <증 예조참판 김사과 묘표>와 비교해보면, 비석에 새겨진 글자가 239자인 것에 비해 문집의 글은 438자나 된다. 설명하는 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비문은 10행 29자이다.

【전면】

成均生員文科及第
贈吏曹參判光山金公在瑋之墓

【후면】

哲廟辛酉二月日中小成一旬間蒙大間歷陞品爵其宣力場屋承訓察庭
理果昭然卒蒙吏曹參判實是罕古曠絕之恩也參判公諱在瑋光山人
而系自高麗八世平章事生于丙午九月二十日卒于癸亥二月三日玉果
火面招賢峯東麓廣文山其先兆下負庚之原卽幽宅也本面丹山村後良
坐原配貞夫人密陽朴氏之墓嗣子通德郎教鉉次準鉉宜鉉嗣孫永愚次
永豪曾嗣孫昌洙次仁洙而其從子良鉉之出后子永熙鳩財而謀立石者
也再來徵文者其孫永豪也余不辭而副之者以曾年同閉誼也

【우면】

崇禎五廻丁酉冬十月癸酉河東鄭鳳鉉述

〈성균생원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이조참판에 증직된 광산(光山) 김재봉(金在瑋)의 묘〉

철종(哲宗) 신유년(1861) 2월에 소과에 합격하고, 열흘 사이에 대과에 뽑힘을 입어서 품계와 작위가 오르게 되었으며, (아들이) 과거시험장에서 힘을 다하고 가정의 가르침을 잘 따른 것은 이치가 과연 분명하여 결국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니, 실로 예전에도 보기 힘든 국가의 은혜이다. 참판공의 휘는 재봉(在瑋)이며, 광산인으로, 계보는 고려 8대 평장사(平章事)에서 나왔다. 병오년(1786) 9월 20일에 태어나 계해년(1863) 2월 3일에 세상을 떠났다. 옥과 화면 초현봉 동쪽 기슭의 광문산 선영 아래 부경(負庚)의 언덕이 바로 묘소이다. 본면의 단산촌(丹山村) 뒤의 간좌(良坐) 언덕은 배위 정부인(貞夫人) 밀양박씨(密陽朴氏)의 묘소이다. 장남은 통덕랑 교현(教鉉)이고, 차자는 준현(準鉉)과 의현(宜鉉)이며, 장손은 영우(永愚)이고 차손은 영호(永豪)이다. 증손은 창수(昌洙)와 인수(仁洙)인데 인수는 그 조카 양현(良鉉)의 후사로 출계하였다. 그 아들 영희(永熙)는 재물을 모아 비석을 세울 것을 꾀한 사람이다. 다시 와서 글을 지어주길 청한 사람은 그 손자 영호이다. 내가 사양하지 못하고 부응하여 지은 것은 일찍이 한 동네에 산 정의가 있어서이다.

승정(崇禎) 다섯 번째 정유년(1897) 10월 계유일에, 하동(河東) 정봉현(鄭鳳鉉)³⁴이 짓다.

34 정봉현(鄭鳳鉉, 1852~1918): 자는 언국(彦國), 호는 운람(雲藍), 본관은 하동(河東)이다. 아버지는 호계(浩溪) 재중(在中)으로, 곡성 오산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영특하여 12살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과거시험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의 신이한 재주를 칭찬하지 않음이 없었다. 13살에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문하에 나아갔다. 문집으로 『운람집(雲藍集)』이 전한다. 1905년에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변절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친일인명사전에 경학원 강사를 지낸 것으로 올라있다.

25. 입면 삼오리 박상화(朴尙華)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삼오리 320-4(궁동) • 제작연대 1864년(崇禎紀元後四甲子)
- 크 기 전체높이 153, 비신높이 111, 너비 43.5, 두께 12.5

박상화(朴尙華, 1750~1826)의 묘표는 삼오리 궁동마을 들어서기 전의 야산에 있는 밀양박씨 묘역 가운데 있다. 사각 대석 위에 비신을 꽂고 그 위에 가침석을 얹었다. 대석은 거의 문혀 있다. 이 비석은 1864년 12월에 손자 박정원이 다시 세웠다. 박상화의 자는 여실(汝實), 본관은 밀양으로, 난계 박연(朴堧)의 후손이다. 호조참판에 추증되었고, 배는 성주현씨이다. 비문은 5행 20자이다.

【전면】

貞夫人星州玄氏之墓
贈嘉善大夫戶曹參判朴公之墓

【후면】

公諱尙華字汝實系密陽吏曹判書蘭溪先
世孫生庚午卒丙戌配生己巳卒己巳生一男一女
崇禎紀元後四甲子十二月 日孫 廷元改建

26. 입면 약천리 양녀안씨(良女安氏)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약천리 산147 • 제작연대 미상
- 크 기 비신높이 99, 너비 44.5, 두께 15

입면 약천리 마을 길가(약천리 515-8)에 서 있는 '진주강씨통계공세천지(晉州姜氏通溪公世阡地)' 비석으로부터 산으로 300m 정도 올라가면 진주강씨 묘역이 나오는데, 앞줄에 나란히 있는 3기의 묘 중 왼쪽에 있는 묘 앞에 세워진 비이다. 자연석 대석 위에 원수형 비신을 꽂은 형태이다. 즉 학생 강공좌(姜公佐)와 그의 부인 무송윤씨 묘가 있고, 제일 왼쪽에 양녀 안씨의 묘가 있다. 아마 강공좌의 작은 부인이지 않았나 싶다. 이 묘역에는 강공좌의 아들부부, 손자부부, 증손자부부, 고손자부부 묘가 더 있다. 오래된 묘비는 이 하나뿐이다. 아들은 강륜(姜倫), 손자는 강자형(姜自亨), 증손자는 현감 강혜(姜譏)이다. 비문은 1행 6자이다.

【전면】 良女安氏之墓

27. 입면 제월리 심광형(沈光亨)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산130(군촌) • 제작연대 1748년(崇禎紀元後再戊辰)
- 크 기 전체높이 119, 비신높이 109, 너비 40, 두께 13

제월리 군촌마을 뒤에 있는 구암사(龜巖寺) 바로 뒤에 3기의 묘가 종으로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 그중 가운데 있는 묘가 심광형 부부의 합장묘이다. 그 앞에 서 있는 구비가 심광형 묘비로, 원수형 비신이 사각형 대석에 세워져 있다. 옆에는 새로 세운 묘갈비가 세워져 있다.

심광형(沈光亨, 1510~1550)의 자는 문옹(文翁), 호는 제호정(霽湖亭), 본관은 청송(靑松)이다. 정안공(定安公) 덕부(德符)의 6세손이며, 광원(光元)의 아우이다. 섬진강 가에 세워져 있는 함허정(涵虛亭)과 군지촌정사를 세운 사람이다. 정조 기미년(1799)에 사림들이 추모하여 장구처(杖履處)인 제동(霽洞)에 구암사(龜岩祠)를 짓고 망세정과 함께 배향하였다. 비문은 4행 27자이다.

【전면】

宜人昌原丁氏之墓
宣敎郎沈公之墓

【후면】

靑城伯七世孫諱光亨配縣監燿之女

崇禎紀元後再戊辰四月二十日七世孫師憲追奉先考所修碑謹立

28. 입면 제월리 심기(沈錡) 묘표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산130(군촌) • 제작연대 1748년(崇禎紀元後再戊辰)
- 크 기 전체높이 116, 비신높이 100, 너비 38, 두께 12

심기(沈錡)의 묘비는 제월리 군촌마을 뒤에 있는 구암사(龜巖寺) 바로 뒤에 3기의 묘 중 제일 위에 있는 묘가 심기 부부의 합장묘이다. 그 앞에서 있는 구비가 심기와 부인 권기(權芑)의 딸 묘비로, 원수형 비이다. 심기는 심광형(沈光亨, 1510~1550)의 아들로,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이 직장(直長)에 이르렀다. 계공랑(啟功郎)은 종7품에 해당하고, 안인(安人)은 7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이다. 비문은 4행 27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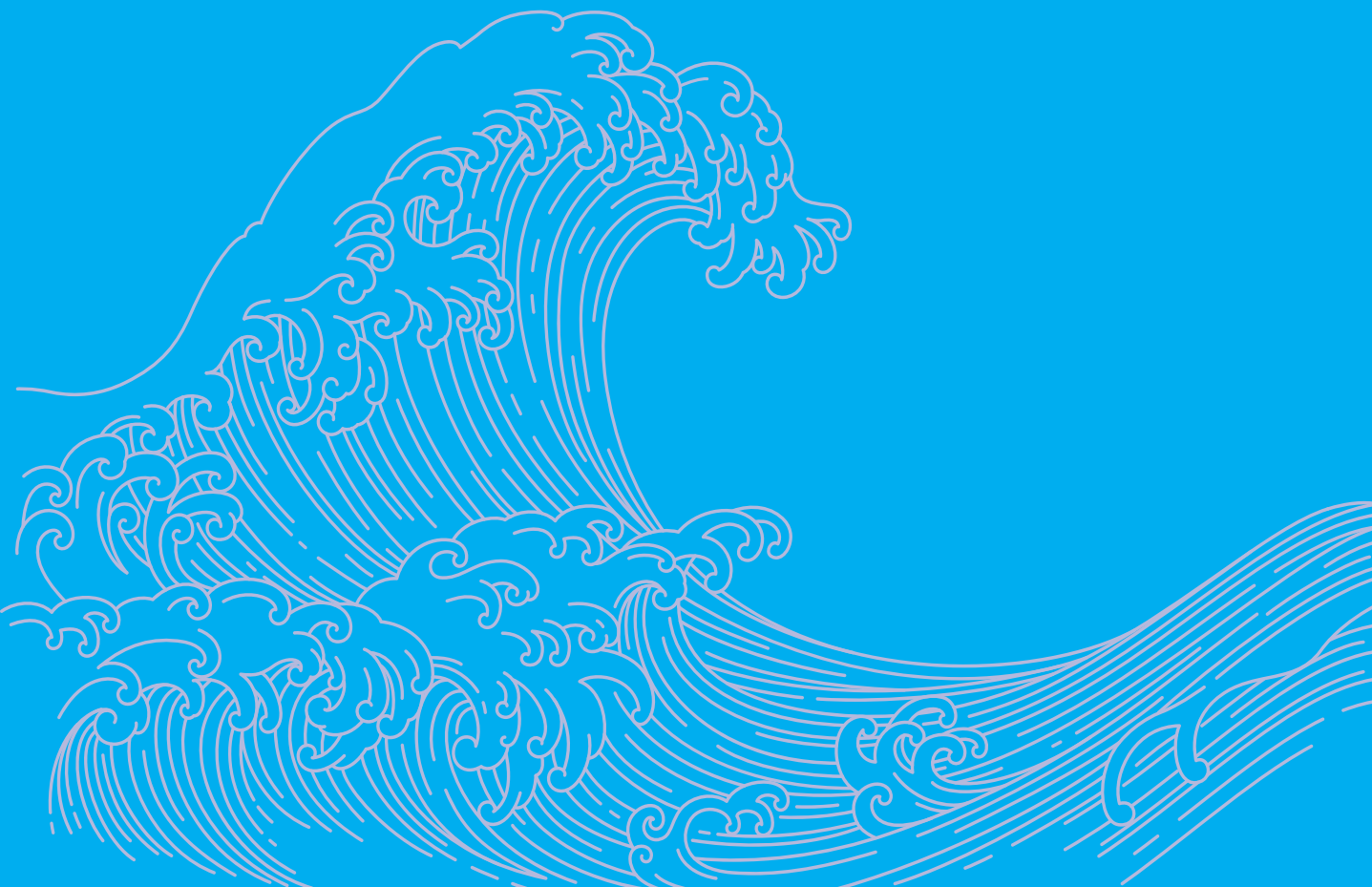
【전면】

安人安東權氏之墓
啟功郎直長沈公之墓

【후면】

靑城伯八世孫諱錡配參奉芑之女
崇禎紀元後再戊辰四月二十日六世孫師憲追奉先考所修碑謹立

III. 충효열비



1. 겸면 남양리 허정량(許廷亮) 정려비



- 소재지 곡성군 겸면 남양리 78-30 • 제작연대 1829년(崇禎四己丑)
- 크 기 전체높이 141, 비신높이 39, 너비 47, 두께 8

허정량(許廷亮)의 정려비는 겸면사무소에서 곡순로를 따라 삼기면 쪽으로 약 200미터 가량 떨어진 도로 건너편에 있는데, 붉은 벽돌로 담장을 둘렀고, 2개의 돌기둥을 세운 사이에 석판을 끼워 비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개석은 팔작지붕 형태이다. 곁에는 담장을 분리하여 3기의 비가 더 있다.

허정량(許廷亮)의 자는 자선(子善), 호는 모재(慕齋), 본관은 태인이다. 할아버지는 설암(雪巖) 허소(許紹)이고, 아버지는 인조 때 정사공신(靖社功臣)인 허지희(許之熙)이다. 7세에 정유재란을 만나서 아버지가 적들에게 포로가 되어 그들이 장차 해치려고 하자, 정량이 끌어안으면서 자신의 몸으로 대신해주길 원함에 적이 감동하여 해치지 않아서 부자가 모두 온전하였다. 일이 조정에 알려져서 정려가 내려졌다. 병자호란 때에는 운암(雲巖) 이흥발(李興淳)을 따라 고을 안의 동지들과 모의(募義)를 하고, 청주에 이르러서 강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창의사(倡義祠)에 배향되었다. 비문은 15행 12자이다.

【전면】

孝子「許公」廷亮「之」閭

【후면】

公字子善號慕齋泰山

君諱褒后持平公諱斯

文七世孫祖雪巖諱紹考

仁廟朝靖社功臣諱之熙

公七歲丁酉亂賊欲害公

之父冒刃願代賊遂之書

公背曰此兒天出之孝后

來者勿害是年 命

旌閭后值丙亂與四賢

赴雲巖李公募義

崇禎四己丑五世孫棕重建也

〈효자 허정량(許廷亮)의 정려〉

공의 자는 자선(子善)이요, 호는 모재(慕齋)로, 태산군(泰山君) 포(褒)의 후손인 지평공(持平公) 사문(斯文)의 7세손이다. 할아버지는 설암(雪巖) 소(紹)요, 아버지는 인조 때 정사공신(靖社功臣)인 지희(之熙)이다.

공이 일곱살 때 정유재란을 만나 왜적이 공의 아버지를 해치려고 하자, 칼날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대신하기를 원하였다. 적들이 마침내 공의 등 뒤에다가 ‘이 아이는 하늘이 낸 효자이니, 뒤에 오는 자는 해치지 말라.’고 써주었다. 이 해에 정려가 명해졌다. 훗날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사현(四賢)과 함께 운암(雲巖) 이흥발(李興淳)이 의병을 모집하는 데 달려갔다.

승정 4기축년(1829)에 5세손 종(棕)이 중건하다.

2. 겸면 상덕리 김창옥(金昌玉) 정려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상덕리 산81(회화) • 제작연대 1910년(庚戌)
- 크 기 전체높이 242, 비신높이 94, 너비 34.5, 두께 9

곡성군 겸면 상덕리 회화마을 내 좌측 언덕에 있는 김창옥의 정려비이다. 석조로 된 비각 속에 오석 비신이 서 있고 그 위에 팔각지붕형 가첨석이 얹어있는 형태이다. 4개의 석조 기둥의 상단에는 태극문양 석판이 사방으로 둘러있다.

김창옥(金昌玉)의 본관은 김해로, 모친의 병환 때 허벅지 살을 베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넣어 드림으로써 소생케 했다. 3년동안 시묘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 곳의 풀이 말랐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정려와 동몽교관의 증직이 내려졌다. 비문은 기우만(奇宇萬)이 짓고 썼다. 기우만의 문집 『송사집』에는 <金孝子旌閭記>라는 제목으로 실려있는데, 비교해보면 몇 글자 외에는 똑같다. 비문은 17행 31자이고, 석판은 8행 9자이다.

[문액] 孝子門

【전면】

上之卽位一年甲子十二月六日

贈童蒙教官朝奉大夫孝子

金海金公昌玉之閭

命旌

【좌면】

公 三賢之后生于 正廟丁酉二月十七日

卒于 憲廟癸卯九月二十一日

【후면】

孟子以不學而知不學而能謂良知良能故必稱於孩提人能勿失其孩提之良知良能則孝不可勝用矣雪山故孝子金公昌玉殆所謂不失其孩提者歟早孤失學誰以此教誨而奉慈定省溫清愉婉洞屬不失爲小學中人蓋其至性未嘗因物而有遷也第其見於行與事者則其母早寡而所從有子爲未亡人在世蓋塞成疾或至縲絕公刲股垂血竟至回甦及終天年哀毀幾滅性至葬築室終孝淚草成枯當膝成坎民到于今稱之如昨日事嘖嘖稱孝子而聽卑之天成命遄降所謂國人知孝而樹風百世豈曰少補之哉第求其世則父有明甲親老家貧漁樵行傭菽水盡歡血指延縲其母汲水得鮒以斷姑癢子有壽業自幼至性克趾先美親癢斫指公上有所受下有所授古所謂活孝者是耶 旌命蓋久力綿未遑始以今年庚戌經紀焉曾孫基台曳衰過余致其二兄之意求爲記事之文

【우면】

是歲夏四月生明幸州奇宇萬謹書

[석판 뒷면]

子 贈嘉善大夫行龍驤

衛副護軍壽業

孫 贈嘉善大夫義禁府

都事在鉉

章陵參奉正鉉

曾孫 惠陵參奉基善

基沃

基台

〈동몽교관 조봉대부에 증직된 효자 김해 김창옥의 정려〉

상 즉위 원년 갑자년(1864) 12월 6일에 정려(旌閭)를 명함.

공은 삼현(三賢)의 후손으로 정조 정유년(1777) 2월 17일에 태어나 헌종 계묘년(1848) 9월 21일에 세상을 떠났다.

맹자(孟子)는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고 배우지 않아도 능한 것을 양지(良知)와 양능(良能)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어린아이를 칭하여 말한 것이다. 사람이 어렸을 때의 양지와 양능을 잃지 않는다면, 효를 이루 다 쓸 수 없게 될 것이니, 설산(雪山, 옥과현)에 사는 고(故) 효자 김창옥은 이른바 어렸을 때의 양지와 양능을 잃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공은 일찍 부친을 여의어 공부할 시기를 놓쳤으니, 누가 효에 대해 가르쳤겠는가? 그러나 모친을 봉양함에 아침저녁으로 문안하며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해드렸고, 유순한 얼굴빛과 공손한 용모로 공경하고 삼가서 『소학』 속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는 일찍이 그의 지극한 성품이 사물로 인하여 옮겨간 적이 없어서일 것이다.

다만 행적과 사업에 드러난 것으로 말하자면, 공의 모친은 일찍 과부가 되어 따라야 할 대상이 자식인지라 미망인(未亡人)으로 살며 답답한 마음이 병이 되어 간혹 실낱같은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공이 넓적다리 살을 베고 입에 피를 흘려 넣어 마침내 소생시켰다. 천수를 누리고 죽게 되었을 때는 너무 슬퍼하여 몸을 상한 나머지 거의 죽을 정도였다. 장례를 치를 때 이르러서는 여막(廬幕)을 짓고 끝까지 효도하여 곡하며 흘린 눈물에 풀이 말라 죽고 무릎이 닿는 곳에 구덩이가 생겼다.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어제의 일처럼 입이 마르도록 효자라고 칭송하고, 낮추어 들으시는 성상께서 정려하도록 속히 명을 내렸으니, 이른바 온 나라 사람이 효성을 알고 백세(百世)에 풍성(風聲)을 세우는 데에 어찌 도움이 적다고 말하겠는가?

다만 그 집안을 살펴보면, 공의 부친 명갑(明甲)은 부모가 연로하고 집이 가난하여 물고기 잡고 땀나무 하거나 품팔이하여 변변치 못한 음식으로도 부모의 마음을 한껏 기쁘게 하였으며 손가락을 베어 피를 입에 넣어 연명시켰고, 공의 모친은 물을 길다가 붕어를 얻어 시어머니의 병환을 치료하였으며, 아들 수업(壽業)은 어릴 때부터 매우 착한 성품으로 선조의 아름다움을 이어받아 아버지의 병환에 손가락을 잘랐다. 공은 위로부터 받는 것이 있고 아래로 준 것이 있으니, 옛날에 이른바 ‘살아있는 효[活孝]’라는 것이 이것이겠지?

정려(旌閭)를 받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힘이 약하고 겨를이 없어서 비로소 금년 경술년(1910)에야 비석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다. 증손 김기태(金基台)가 상중의 몸을 이끌고 나를 찾아와 두 형의 뜻을 전하면서 공의 행적을 기록하는 글을 부탁하였다.

이해 여름 4월 초 2일에 행주(幸州) 기우만(奇宇萬)이 삼가 쓰다.

3. 겸면 운교리 배정식(裴正植)·배현(裴現) 정려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겸면 운교리 384-2 • 제작연대 1864년(甲子)
- 크 기 전체높이 190, 비신높이 35, 너비 50, 두께 8.5

곡성군 겸면 운교리 죽산 마을회관에서 들판을 건너 좌측 언덕 묘소 앞에 있다. 두 개의 넓은 돌기둥 사이에 석판을 위 아래로 끼워 비신을 만들고 글을 새겼으며, 팔작지붕형 가첨석을 얹었다. 위 석판은 조부 배정식의 정려, 아래 석판은 손자 배현의 정려 내용이다.

배정식의 호는 전사(田畝)이고 본관은 성주(星州)로, 정절공 극렴(克廉)의 후손이다. 부친이 종기가 나서 3년 동안 낫지 않고 위독해지자 하늘에 기도하여 자신으로 대신해 줄 것을 빌었으며, 눈 속에서 큰 뱀을 얻어서 공양하고 효험을 보았다. 교관에 증직되고 정려가 내려졌다.

【전면】上

孝子 贈童
蒙教官朝奉
大夫 裴正植
之閭
上之二年甲子十月日
銘旌

【후면】

公生八歲親患以痰
腫三年彌留終至
死境泣得雪上之
蟒以救難救之命
此豈非天感致物
之誠哉
次子慶玆奉建

【전면】下

孝子 贈童
蒙教官朝奉
大夫 裴睨
之閭
同年同月日
銘旌

【후면】

公年初九親
病瘧疾命在
殞絕連斷二指
血救十七日之
命且是天地
之孝矣夫
系子永吉奉命

〈배정식의 정려〉

효자(孝子) 동몽교관 조봉대부에 증직된 배정식(裴正植)의 려(閭)
금상 2년 갑자년 10월에 명정(銘旌)
공이 8살 때 아버지가 담종(痰腫)을 3년동안 앓다가 끝내 돌아가실 지경에 이르자 울면서 눈발에
서 큰뱀을 얻어서 구제하기 힘든 목숨을 구하였다. 이것이 어찌 하늘이 감동하여 시물에 이른 정성
이 아니겠는가?
작은아들 경현(慶玆)이 세우다.

〈배현의 정려〉

효자(孝子) 동몽교관 조봉대부에 증직된 배현(裴睨)의 려(閭)
같은 해 같은 달에 명정(銘旌)
공은 초년에 아버지가 학질을 앓아 목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연달아 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넣어드림으로써 17일간 목숨을 연장시켰으니, 이것은 천지의 효로다.
계자(系子) 영길(永吉)이 명을 받들다.

4. 곡성읍 동산리 효자조유검(趙有儉)·열녀문경송씨(閔慶宋氏) 정려각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97 • 제작연대 1723년(癸卯)/1893년(癸巳)
- 크 기 2×1칸, 맞배지붕

1723년에 세운 효자 조유검(趙有儉)과 열녀 문경송씨(閔慶宋氏) 정려각은 동산리 마을회관에서 서쪽으로 난 동산길을 따라 50m쯤 가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그 향우측에 ‘남양정(南陽亭)’이라는 정자 주변에 ‘효자조유검정려’와 ‘열녀조유검처송씨정려’가 한 건물에 모셔져 있다. 정려각 안에는 1999년에 세운 비석이 서 있다. 조유검과 조유검의 처 문경송씨의 정려를 명받은 해는 1723년이다. 문미에는 2개의 정려액 외에 1892년에 7세손 상섭(相燮)이 쓴 정려기와 1893년에 기우만(奇宇萬)이 쓴 정려기 현판이 걸려 있다. 기우만의 문집 『송사집』에는 <趙氏孝烈旌閭重修記>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서로 비교해보면 몇 구절의 출입이 있지만 내용이 달라지는 점은 없다.

조유검(趙有儉, 1633~1665)의 자는 자욱(子彙), 호는 동천(東川), 본관은 옥천(玉川)이다. 이(怡)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시휴(時休)이다. 부모를 효로써 섬기어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드리고 똥을 맛보니,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쌀을 하사하여 포상하였으며, 경종 계묘년(1723)에 정려(旌閭)를 명하였다. 그 부인 열녀 송씨도 정려가 명해졌다.

【현판 1】

孝子「學生」玉川「趙有」儉之「閭」
景宗三年癸卯「九月日」命旌

【현판 3】

七代祖考東川處士府君夫人宋氏孝烈旌閭記
粵在 肅廟盛際朝廷尚禮教郡縣舉孝烈上叙
彝倫下蒙褒典時維我先祖東川處士府君若夫
人閭慶宋氏以孝烈并旌閭府君天性純孝自能
食語便知愛敬羸疾不勝衣親側無倦色甘旨自
點視煥寒必躬問使父母未嘗知有惟疾之憂親
瘠不琴瑟不酒肉猶爲疏節藥餌粥飲不委家人
嘗糞血指靡誠不殫丁憂水漿不入口號泣不絕
聲叩叫擗踊似不能勝喪而不以疾少懈初終葬
祭情文兩摯墓日省廟晨謁以爲終身慕而痼崇
已深哀毀又過年才三十三而歿世傳謂殉孝夫
人禮養舅姑如事父母德配君子宜其家室夫病
殫誠不計夷險於夫人常事而臨終手製襲衣不
委他人自縊救甦齋毒見覺血書納殯誓共下從

【현판 4】

孝子趙公烈婦宋氏旌閭記

孝子爲夫烈婦爲妻同日 命旌者卽故東川處士趙公及夫
人閭慶宋氏是已第言其孝則清羸多疾而親側無倦色定
省灑掃寒暑無闕父母未嘗知有疾親瘠衣不解帶藥餌粥
飲不委家人嘗糞血指靡誠不殫遭憂水漿不入口號泣不絕
聲傍人皆慮其不勝喪而不以疾自懈初終葬祭情文兩摯
以至運柩築土役夫皆備新潔衣以盡其心值歲飢悉斥家什
朝夕祭奠無闕儀墓日省廟晨謁以終身而痼崇已潛滋於
過哀得年僅三十三而終鄉里傳謂殉孝以言其烈則德配君
子事舅姑誠敬公之沒縊於屏處林木家人慮其死已跟伺
俄忽頓絕針藥獲甦齋毒見覺亦數度血指作書納之殯所

【현판 2】

烈女「趙有」儉妻「孺人」閭慶「宋氏」之閭
景宗三年癸卯「九月日」命旌

家人慮其無生晝夜跟伺既葬乃自鬻然曰老姑
在堂亡夫無嗣與其溘然徒死不若忍痛苟活以
從亡夫心以存亡夫嗣養姑終天年得從姪侑子
之侑亦賢孝行義文學爲世宗仰姑終葬之以禮
曰無違夫子心所後遺疾不起夫人禱天願代露
立六夜危疾尋愈夫人果以疾終鄉里異之曰神
明所感宗祀以存 景宗癸卯南中章甫以府君
之夫婦孝烈聞于 上上特命禮曹褒旌縣官給
復世稱是夫是婦府君餘力學文文辭早詣將大
有成立而不幸短命但以一孝成名亦未蒙 賜
贈之典惜乎閭在谷城之曳山 純廟甲戌以水
患移建于東山 今上丙寅以雨漏重修焉事見
家狀若郡誌不敢加損以一辭壬辰春三月上巳
七世孫相燮謹識

家人信其無生晝夜以伺以及於葬之日乃翻然曰姑老誰養夫嗣誰繼寧違己志而伸亡夫之心養姑終天年得從姪侑爲夫嗣而猶不以滋味輕煖近身焉老姑或以乾肉強之姑嚼之以順其志出而哇之以安其心及姑終葬祭以誠信曰無忘亡夫心也後所後邁疾殆不起夫人祝天願代露立六晝夜危疾得愈而夫人果以疾終鄉里以謂至誠所感也嗚呼之孝之烈以公質之夫人以夫人質之公宜無異辭無愧於齊體信於幽也民到于今稱之無間言信於明也幽明之信如此聽卑之天成命之遄降也宜哉綽楔在 景宗癸卯今爲百七十年其徵信於後世宜不與今日繁夥者混也公諱有儉趙氏玉川著姓忠獻公諱元吉麗季有定策勳判尹諱瑜孝旌行誼建祠二樂堂諱大成有隱德矜式南士寔公高祖考諱時休有才德而不壽公才識通曉文辭驚人將大有成立而不幸早世但以一孝成名惜乎宋氏父諱暹也繼子侑亦克孝行義文章爲世宗仰不愧爲孝子烈婦之嗣云七世孫相燮將重修之以記事之文徵於友生奇宇萬宇萬嘗訪相燮於東山得過其閭而式之以有曠感也不敢辭

歲癸巳暮春幸州奇宇萬謹書

〈칠대조부 동천처사(東川處士)부군과 부인송씨의 효열정열기(孝烈旌閭記)〉

지난 숙종 성세에는 조정(朝廷)에서 예교(禮敎)를 드높이고 군현(郡縣)에서 효열(孝烈)을 천거(薦擧)함에 위에서는 이륜(彝倫)을 펼치게 되었고 아래에서는 포전(褒典)을 입게 되었다. 이때 나의 선조이신 동천처사(東川處士) 부군께서 부인이신 문경송씨(聞慶宋氏)와 함께 효열(孝烈)로 함께 정려를 받았다.

부군(府君)께서는 타고난 성품이 순일(純一)하고 효성스러워 젖을 땀 나이에 벌써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줄을 알아서 병에 걸려 옷을 이길 수 없어도 아버지 곁에서 시중들며 전연 게으름이나 싫증을 내지 않았다. 진지를 올릴 때는 직접 점검하고 차고 따뜻한지를 반드시 직접 물어서 부모로 하여금 일찍이 알지 못하게 하였다. 부모가 병환에 걸리기라도 하면 금슬도 연주하지 않고 술이나 육류도 입에 대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절(疏節, 하찮은 일)로 삼았다. 약을 달이거나 미음을 주는 일을 집안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풍맛을 보고, 손가락 피를 내어 먹이는 일 등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부친상(父親喪)을 당했을 때는 물 한 모금 넘기지 않고 울부짖으며 우는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땅을 치고 발을 구르며 슬픔을 이기지 못하였으나 병든 몸이라 해서 초상을 치르고 장사지내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정성과 예절을 다하였다. 묘소에는 날마다 성묘하고 묘당에는 새벽마다 참배하며 종신토록 사모함으로 삼고자 했으나 고질병이 이미 깊어진 데다 애훼(哀毀)함이 너무 지나쳐서 나이 겨우 33세로 돌아가시니, 세상에서는 순효(殉孝, 효도가 지극해서 그로 인하여 죽음)라고 말하였다.

부인(夫人)께서는 예로써 시부모를 봉양하길 꼭 친부모 섬기듯 하였으니, 덕은 군자의 배필이라 집안을 화목하게 하였다. 남편이 병이 들자 정성을 다하고 평탄하거나 험함을 헤아리지 않았으니 부인에게 일상적인 일이었다. 임종할 때는 남에게 맡기지 않고 손수 지은 수의로 염을 해드리고는 목을 매고 부군을 좇아 죽으려 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구해내어 소생하게 되었고, 독약을 가지고 있다가 들리게 되어서 혈서를 써서 부군을 좇아 함께 죽을 것을 맹세한 글을 빈소에 넣었는데, 집안사람들이 그가 살 의욕이 없음을 걱정하여 밤낮으로 뒤를 밟아 감시하곤 하였다. 이미 초상을 다 치르고 나서는 스스로 태도를 바꾸어 말하기를 “늙은 시어머니께서 아직 살아계시고 지아버는 뒤이를 자식도 없이 돌아가셨는데 나머지 갑자기 뒤따라 죽어버리는 것은 이 고통을 참고 망부(亡父)의 마음을 좇아 꼭 살아서 후사를 잇고 시어머니를 명(命)대로 사실 때까지 잘 봉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조카인 일(尙)을 양자로 삼았으니, 일(尙) 또한 어질고 효성이 지극했으며, 행의(行義)와 문학으로 세상에서 제일이라 우러르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예(禮)를 다해 잘 치르고, “지아버의 마음에 어긋나지 아니했도다.”라고 말했다. 양아들이 병을 얻어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부인이 하늘에 기도하여 대신 앓게 해달라고 꼬박 6주야를 한 데 서서 빌게 됨으로써 위급한 병이 곧 낫게 되었는데, 부인은 과연 병으로 죽게 되었으니,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말하기를 “신명(神明)이 감복해서인가, 종사(宗祀)가 끊이지 않게 되었도다.”라고 하였다.

경종 계묘년(1723)에 남쪽의 유림들이 부군(府君) 부부의 효행과 열행(烈行)을 임금께 알리었고, 임금은 이를 예조(禮曹)에 돌려 특별히 하명하기를 정려로 포창하고 지방관에게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였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칭송하여 이르기를 “그 지아버에 그 지어미로다.”라고 하였다.

부군(府君)께서는 여력으로 학문을 하여 문장(文章)이 자못 일찍부터 두드러져서 앞으로 크게 될 것이라 기대되었으나 불행하게도 단명(短命)하시어 다만 효(孝) 하나로 그 이름을 겨우 남기셨으니, 역시 아직 나라의 은전(恩典)을 받지 못했다면 애석한 일이 아니겠는가?

정려는 곡성 예산면(曳山面, 곡성읍 대평리)에 있었는데 순조(純祖) 갑술년(1814)에 있었던 수재(水災)로 인해 동산리(東山里)로 옮겨 세웠고, 금상 병인년(1866)에 지붕에 비가 새어서 중수(重修)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가장(家狀)과 군지(郡誌)에 보이므로 감히 한 마디라도 보태거나 뺀 것이 없다.

임진년(1892) 3월 상사일(上巳日)에, 칠세손 상섭(相燮)이 삼가 적는다.

〈효자 조공과 열부 송씨의 정려기〉

효자는 지아비요, 열녀는 지어미로, 같은 날 정려를 세울 것을 명 받은 이는 곧 옛 동천처사 조공과 그의 부인 문경송씨이다.

먼저 그 효에 대해서 말하자면 몸이 파리하여 병이 많았는데도 부모 곁에서 피곤한 기색이 없었고, 혼전신성과 물뿌리고 소제하는 일을 추우나 더우나 거르는 일이 없었으니, 부모는 그의 병색을 일찍이 알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병이 들자 허리띠를 풀지 않고 약을 달이고 죽을 썬어내는 일을 남에게 맡기지 아니했으며, 대변을 맛보고 손가락의 피를 내어 먹이는 일 등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상을 당해서는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고, 부르짖으며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가 초상을 이기지 못할까 걱정하였다. 그러나 병들었다고 해서 스스로 해이해지지 않고 초종(初終) 장례와 제사를 지내는 데 정성과 예절을 다하였다. 운구(運柩)하고 땅을 파는 일꾼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깨끗한 새 옷을 챙겨 입히는 등 그 정성스런 마음을 다했다. 흉년이 들었는데도 집안의 집물을 모두 내다 팔아서라도 조석으로 상식 올리는 일을 빠뜨리지 아니했다. 산소에 날마다 성묘하고, 새벽마다 사당에 나아가 참배하는 일을 종신토록 하고자 하였으나 고질병이 이미 깊어진 데다 슬퍼함이 지나쳐서 나이 겨우 33세에 생을 마치게 되었으니, 향리(鄉里) 사람들이 전해오기를 ‘순효(殉孝)’라고 말하고 있다.

그 열(烈)에 대해서 말하자면, 덕이 군자에 짝해 시부모를 섬김에 정성과 공경을 다하였고, 공(公)이 죽자, 수풀로 가려진 으스스한 곳에서 목을 매 순절하려 했다. 집안사람들이 이렇게 죽을까봐 이미 가만히 미행하여 엿보았는데 갑자기 기절해 죽어가는지라 침을 놓고 약을 먹여 소생시켰고, 독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된 것도 여러 차례이다. 손가락의 피를 내어 혈서를 써서 빈소(殯所)에 들였는데 집안사람들이 그녀가 살 뜻이 없다고 믿고 밤낮으로 엿보며 지켜보았다. 장사를 치르게 된 날에 이르러 곧 생각을 바꾸고 말하기를, “늙은 시어머니를 누가 봉양하며, 지아비의 후사는 누가 이어 갈 것인가? 차라리 나의 뜻을 굽히고 죽은 남편의 마음을 펴야 할 것이며, 시어머니를 봉양하여 천수를 마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종질(從姪)인 일(兪)로 지아비의 후사를 잇게 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맛난 음식이나 가볍고 따뜻한 옷은 몸에 가까이 하지 않았다. 늙으신 시어머니가 마른고기를 억지로 주면 우선 씹음으로써 그 뜻에 순종하고 몰래 나가서 토해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지자 장례와 제사를 정성을 다해 지내고 말하길, “죽은 지아비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라고 했다. 후사로 삼은 양자(養子)가 병에 걸려 거의 일어날 수 없게 되자, 부인은 하늘에 빌며 자신으로 대신하길 바라고 한 데에 서서 옛새동안을 밤낮으로 있어서 위급했던 질병은 나았으나 부인은 이로 인하여 병이 나서 그만 죽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이를 두고 ‘지극한 정성이 감동시킨 것이다’고 말하였다.

아! 이 효행과 열행은 공(公)으로써 부인에게 질정하고 부인(夫人)으로써 공(公)에게 질정하여도

마땅히 다른 말이 없을 것이다. 제체(齊體)³⁵에 부끄러움이 없으니, 저승에서도 믿을 것이요,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말할 적에 비방하는 말이 없으니, 이승에서도 믿는 것이다. 유명(幽明)에서의 믿음이 이와 같으니, 임금께서 들으시고 재빨리 명을 내리심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 아닌가?

정려가 경종(景宗) 계묘년(1723)에 있었으니, 지금은 170년이 되었다. 그 후세에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의당 오늘날 번다하고 무성한 것과는 섞이지 않으리라.

공(公)의 휘(諱)는 유검(有儉)이고 조씨(趙氏)는 옥천(玉川, 순창)의 이름난 성씨이다. 충헌공(忠獻公) 원길(元吉)은 고려말에 책훈(策勳)에 정해짐이 있었고, 판윤(判尹) 유(瑜)는 효(孝)로써 정려를 받고 행의(行誼)로써 사우(祠宇)에 배향되었다. 이락당(二樂堂) 대성(大成)은 은덕(隱德)이 있어서 남쪽 선비들의 모범이 되었으니, 이분이 바로 고조(高祖)가 된다. 아버지 휘(諱)는 시휴(時休)로 재주와 덕망이 있었으나 오래 사시지 못했다. 공은 재주와 식견이 통달해서 환하게 알았고 문사(文辭)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장차 크게 될 사람으로 기대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일찍 세상을 뜨고 말아 다만 효(孝) 한 가지로만 이름을 얻었을 뿐이니, 애석한 일이다. 송씨(宋氏)의 아버지 휘(諱)는 섬(暹)이다. 양아들 일(倫) 또한 효성이 지극했고, 행의와 문장으로 세상에 으뜸이라 추앙을 받게 되었으니, 효자(孝子)와 열부(烈婦)의 후사로서 부끄럽지 않다고 하겠다.

칠세손(七世孫) 상섭(相燮)이 정려를 중수(重修)하려고 하면서 일을 기록한 글을 친구인 나 기우만에게 부탁하였다. 나 우만은 일찍이 동산리(東山里)에서 상섭(相燮)을 방문하고 그 정려에 들러 동시대에 태어나지 못해 서로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감회를 드러낸 적이 있기에 감히 사양하지 못한다.

때는 계사년(1893) 모춘에 행주인(幸州人) 기우만(奇宇萬)이 삼가 쓰다.

35 제체(齊體): 아내를 가리키는데, 반고(班固)의 『백호통(白虎通) 가취(嫁娶)』에 “아내는 똑같다는 뜻이니 남편과 아내는 체가 같은 것이다.[妻者齊也, 與夫齊體]”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5. 곡성읍 죽동리 안동김씨이세사효(安東金氏二世四孝) 정려문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죽동리 242-2 • 제작연대 1905년(光武九年)
- 크 기 1×1칸, 대문

1905년에 세운 안동김씨이세사효(安東金氏二世四孝) 정려문은 죽동리 마을회관 북쪽에 위치한 곡성 죽동농악전수교육관 야외연습장 길 건너편에 위치한다. 정려각이라는 현판은 없으나 정면과 측면 1칸 맞배지붕 목조와가 건물을 개인 가옥의 출입문으로 삼고 그 좌우에 토석 혼축의 돌담장을 둘렀다. 그 앞에 1912년에 세운 ‘안동김씨이세사효(二世四孝) 정려비’가 자리한다. 현판은 대들보 아래에 좌우 상하로 각각 배치하였다. 향좌 상하로 김성추(金成秋)와 아들 김규찬(金奎贊)의 정려편액을 걸고, 향우 상하로 김성추의 처 김해김씨와 김규찬의 처 전주최씨의 정려 편액을 걸어 놓았다.

【현판 1】

孝子

贈從仕「郎中學」校教官「金成秋」之閭

光武九年九月日「命旌」十一月五日「贈職

【현판 2】

孝子

贈從仕「郎中學」校教官「金奎贊」之閭

光武九年九月日「命旌」十一月五日「贈職

【현판 3】

孝婦

贈從仕「郎中學」校教官「金成秋」之妻「贈孺人」金海金「氏」之閭

光武九年九月日「命旌

【현판 4】

孝婦

贈從仕「郎中學」校教官「金奎贊」之妻「贈孺人」全州崔「氏」之閭

光武九年九月日「命旌

6. 목사동면 평리 류연(柳演) 정려각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266(평호) • 제작연대 1888년(上之二十五年)
- 크 기 1×1칸, 팔작지붕/ 전체높이 155, 비신높이 149, 너비 52-46.5, 두께 21

1888년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효자 류연(柳演)의 정려각과 정려비이다. 정려는 평리 평호마을 옛 평호초등학교 부지 남쪽에 있다. 앞면과 옆면이 1칸인 정려각 내부 문미에는 정려액과 정려기 현판이 걸려있고, 바닥에는 사각 비좌에 원수형 비신을 세운 정려비가 서 있다. 정려액의 글씨는 1888년에 정인석(鄭寅奭)이 썼고, 정려기는 같은 해 정석(鄭奭)이 지었다. 비문은 11행 34자로 최익현(崔益鉉, 1833~1907)이 지었는데, 비석을 세운 시기는 '기성동래후삼천사십사년(箕聖東來後三千四十四年, 1922)'이라 하였다.

류연(柳演)의 자는 성화(聖化), 호는 모현(慕軒), 본관은 선산(善山)이다. 미암 희춘(希春)의 9세 손으로, 1886년에 감찰에 증직되고, 정려가 명해졌다. 비문은 13행 34자이다.

【현판1】

孝子「贈通訓大夫司憲府監察柳演」之閭
上之二十五年三月上旬「鄭寅爽書

【현판2】

旌閭記

浴川縣南五十里峯山之下俯江臯
而閭焉者曰近故孝子 贈通訓大
夫司憲府監察善山柳公之旌是已
我

聖上二十三年丙戌棹楔成 命粵
三年戊子春匠事將告訖公之孫炳
秀在憂服中錄公事實一通俾其
從姪升基德基遞來徵記於灑曰
是役也固吾父志事而未卒者不肖
孤所以忍死圖終尚蘄有辭於泉下
敢乞微惠一言不佞灑未卒業而
嘆曰孝哉斯人也世之爲善而能不
朽者幾人必待後繼者之賢然後
得益章焉監察雖卓爾行微斯
人顧安能驟顯若是乎吁可敬夫

按狀其曰視匕箸而如欣戚者體養
至也躬竈烟而不以代人者溫清審
也於父之執酒鮮必辦而不有寢焉
者志養也廣矣操耕漁而親甘旨
董生似之釣冰蠶而回親濟王別駕
似之嘔升血臨喪阮嗣宗似之至若
耆耄不毀之日而不肉竟其喪墳行
不廢沍燠篤於禮而不有身者尤難
也此皆足以起懦厲俗矧爾後人哉
柳氏諸公勉旃焉公諱演字聖和
慕軒號也儒賢文節公眉巖先
生其九世祖也配崔氏媚于舅姑
其逮養也與君子無違從 贈淑
人有四男皆有後

是年三月朔朝烏川鄭灑 謹述

【비 전면】

孝子

贈通訓大夫司憲府監察柳演之閭

【비 후면】

旌閭碑陰記

三綱五倫父子居先衆善百行孝爲之首自生民以來世無汚隆人無馴暴而卒改易他
不得殄滅它不得所謂天之經地之義而民之秉彝也慕軒柳公演字聖化善山世家
穆陵朝有眉巖先生以道德節行爲士林領袖寔九世顯祖芝根醴源有自来矣公平日
以善事父母聞鄉薦于道道啓于 朝廷侈霜臺之爵申棹楔之典詞翰家叙述揄揚又
無餘憾噫以董召南之孝且慈刺史未及薦天子不聞聲而猶自見知於世者賴有韓文
公大筆公之始終視諸董生未知其孰爲優劣而受報闡名蓋亦過之是則士之遇不遇
有命存焉亦非好子孫斡旋之力又焉能容易周全若運掌然哉吁其盛矣公之事實備

載墓銘及旌閭記茲不復贅姑論其天顯民彝之不隨時變易者有如是
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月城崔益鉉撰
箕聖東來後三千四十四年 月 日

효자 증 통훈대부 사헌부감찰 유연(柳演)의 려(閭)
금상의 25년(1888) 3월 상순에 정인석(鄭寅奭)이 쓰다

〈정려기(旌閭記)〉

육천현(浴川縣) 남쪽 50리 미산(岬山) 아래에 강 언덕을 굽어보고 누각이 서 있으니, 근고 효자로 통훈대부 사헌부감찰에 증직된 선산인 류공의 정려가 이것이다. 우리 성상 23년 병술년(1886)에 정려의 명이 이루어졌고, 다음 해 3년 무자년(1888) 봄에 정려 세우는 일이 완성되려 할 때 공의 손자 병수(炳秀)가 상중에 공의 사실을 기록한 것 한 통을 가지고 그 종질 승기(升基)와 덕기(德基)로 하여금 번갈아 찾아서 나 정석(鄭潑)에게 기록해 주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이 일은 실로 우리 부친이 뜻을 두었지만 마치지 못한 일입니다. 불초자가 죽기 전에 일을 마친다면 오히려 지하에서 할 말이 있을 것이니, 감히 바라건대 한마디 말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못난 나 석은 다 끝마치지 못하고 탄식하길 “효성스럽구나. 이 사람이여! 세상이 선을 행하고 영원토록 전해지는 자가 몇 사람이겠는가? 반드시 어진 후계자를 기다린 연후에 더욱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감찰이 비록 행실이 탁월하더라도 이 사람이 아니면 어디에서 이처럼 갑자기 드러내겠는가? 아! 공경할 만하도다.”라고 하였다.

가장을 살펴보니, “수저를 보고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몸을 봉양함의 지극함이다. 직접 부엌에서 불을 때며 남에게 대신하게 하지 않는 것은 따뜻하고 서늘함을 살피는 것이다. 아버지가 드실 술과 생선을 반드시 준비하여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은 뜻을 봉양하는 것을 넓힌 것이다. 발 같고 고기 잡아 어버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올리는 것은 동생(董生)과 비슷하였고, 얼음 속의 자라를 잡아 와서 어버이의 병을 낫게 한 것은 왕별가(王別駕)와 비슷하였다. 몇 되의 피를 토하고 상례를 거행한 것은 완사종(阮嗣宗)과 비슷하였다. 늙어서 지나치게 애휼하지 않는 나이에 고기를 먹지 않고 상을 마칠 때까지 성묘하길 출거나 덤터라도 폐하지 않고 예에 돈독하여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이는 모두 나약한 사람을 일으키고 풍속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후인은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류씨(柳氏) 후손들은 힘쓸 것이다.

공의 휘는 연(演)이고, 자는 성화(聖和)이며, 모현(慕軒)은 호이다. 유현(儒賢) 문절공(文節公) 미암선생(眉巖先生)이 그의 9대조이다. 배위 최씨(崔氏)는 시부모에게 잘하였고, 봉양할 적에는 남편을 어김이 없었다. 숙인(淑人)에 추증되었고 4남을 두었는데, 모두 자식이 있다.

이해 3월 1일 아침에, 오천(烏川) 정석(鄭潑)이 삼가 기술하다.

〈정려비음기(旌閭碑陰記)〉

삼강오륜(三綱五倫) 가운데 부자 관계가 우선이고, 여러 선과 온갖 행실 가운데 효가 으뜸이다. 백성이 있는 이후로 쇠퇴한 세상이나 융성한 세상이거나 순한 사람이거나 포악한 사람이거나 상관 없이 끝내 바꿀 수 없고 없앨 수 없으니, 이른바 하늘의 떳떳한 도이고 땅의 후한 덕이며 백성의 떳떳한 의리라는 것이다.³⁶

모헌(慕軒) 류연(柳演) 공은 자가 성화(聖化)이며, 선산(善山)의 세가(世家)이다. 목릉(穆陵, 선조) 때 미암선생(眉巖先生)은 도덕과 절행으로 사림(士林)의 영수(領袖)가 되었는데, 실로 9대의 현조(顯祖)이다. 영지의 부리와 예천의 근원은 본래 유래가 있는 것이다. 공은 평소 부모를 잘 섬기는 것으로 소문나 고을에서 도에 천거하고 도에서 조정에 알리니, 사헌부의 관직을 내리고 정려하는 은전을 내렸다. 문장가들은 기술하고 찬양하여 또 유감이 없게 하였다.

아! 동소남(董召南)의 효성과 인애를 자사(刺史)가 천거하지 못하여 천자가 듣지 못했는데, 오히려 세상에 알려진 것은 한문공(韓文公)의 훌륭한 문장력 덕분이었다. 공의 처음과 끝은 동소남에게 견주면 누가 나은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이지만 보답을 받아 이름을 떨친 것은 대개 또한 동소남보다 나았으니, 이는 선비가 때를 만나거나 만나지 못한 것은 명이 있는 것이다. 또한 훌륭한 자손과 친족의 힘이 아니면 또한 어떻게 쉽고 일을 온전히 하기를 손바닥을 움직이는 것처럼 하였겠는가?

공의 사적은 묘지명과 정려기에 자세히 실려 있으니, 이에 다시 굳더더기 말을 덧붙이지 않는다. 우선 그 천현(天顯)과 민이(民彝)가 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한다.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월성(月城) 최익현(崔益鉉)이 찬하다.

성인 기사(箕子)께서 동방으로 온 뒤 3044년 월 일.

36 이른바……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25년 조에 “대저 예라는 것은 하늘의 떳떳한 도이고, 땅의 후한 덕이며, 사람이 행하는 길이다.[夫禮, 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라는 말이 나온다.

7. 삼기면 의암리 김태광(金兌光) 정려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의암리 102(의암) • 제작연대 1889년(崇禎紀元後五己丑)
- 크 기 전체높이 176, 비신높이 42, 너비 50, 두께 10

김태광(金兌光)의 정려비는 의암마을 입구 마을 정자 근처에 세워져 있다. 정려비는 돌기둥 두 개를 세우고 그 사이에 오석(烏石)의 판석(板石)을 끼워 정기(旌記)를 새겼고, 팔작지붕형 개석(蓋石)을 얹은 형태이다. 붉은 벽돌담장이 둘러진 속에 2기의 정려비가 있는데, 다른 1기는 김태광의 동생 김태명의 정려비이다.

김태광의 본관은 광산(光山)으로, 문정공 김태현(金台鉉)의 후손이다. 효성이 출천하였으며, 봉양하고 송종(送終)하는 예를 서운함이 없게 했다. 아우와 더불어 지극한 효로써 부모를 섬기니, 이 사실이 조정에 알려져 고종 정해년(1887)에 감찰에 증직되고, 무자년(1888)에 정려가 내려졌다. 정려비는 1889년 4월에 김태광의 종6세손으로 영회원(永懷園)의 수봉관(守奉官)인 김홍석(金洪錫)

이 세웠다. 비문은 11행 5자이다.

【전면】

孝子

贈通訓大夫「司憲府監察」光山金兌光「之閭

【후면】

崇禎紀元後「五己丑四月」二十三日從「六世孫永懷」園守奉官洪「錫立

〈효자 통헌대부 사헌부감찰에 증직된 광산인 김태광(金兌光)의 려〉

승정기원후 5 기축년 4월 23일에 종 6세손 영회원(永懷園) 수봉관(守奉官) 홍석(洪錫)이 세움.

8. 삼기면 의암리 김태명(金兌明) 정려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의암리 102(의암) • 제작연대 1889년(己丑)
- 크 기 전체높이 176, 비신높이 42, 너비 50, 두께 10

김태명(金兌明) 정려비는 의암마을 입구 마을 정자 근처에 세워져 있다. 붉은 벽돌담장이 둘러진 속에 2기의 정려비가 있는데, 다른 1기는 김태명의 형 김태광의 정려비이다. 정려비는 돌기둥 두 개를 세우고 그 사이에 오석(烏石)의 판석(板石)을 끼워 정기(旌記)를 새겼고, 팔작지붕형 개석(蓋石)을 얹은 형태이다. 김태명(金兌明)의 본관은 광산(光山)으로, 문정공 태현(台鉉)의 후손이다. 태광(兌光)의 아우로, 부모가 병들었을 때 형과 함께 하늘에 자신을 대신해주길 빌었으며, 형은 손가락을 자르고 아우는 허벅지 살을 베었다. 고종 정해년(1887)에 감찰에 증직되고, 무자년(1888)에 정려가 내려졌다. 1889년에 6세손 김홍석(金洪錫)이 정려비를 삼기면 의암리에 세웠다.

【전면】

孝子
贈通訓大夫「司憲府監察」光山金兌明「之間

【후면】

崇禎紀元後「五己丑四月」二十三日六「世孫
永懷園」守奉官洪錫「立

9. 석곡면 염곡리 안사백(安師伯) 정려각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염곡리 1019(을곡) • 제작연대 1898년(戊戌)
- 크 기 1×1칸, 팔작지붕

1897년에 명정된 효자 안사백(安師伯)의 정려각이다. 염곡리 을곡마을 앞 염곡교에서 하천을 따라 약 200m 내려가다 왼쪽 언덕 위(경주김씨 정려와 가까움)에 있다. 정면에 정려판이 있고 좌측에 조종필(趙鍾弼, 1840~?)이 1898년에 지은 정려기 현판이 걸려 있다.

안사백(安師伯)의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효성이 타고나서 아버지의 병에 허벅지 살을 베어 드려 소생케 했으며, 맛있는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했다. 매양 시장에서 물고기를 사되 값을 비교하지 않으니 상인이 감동하고 본값만 받았다. 상을 당해서는 죽만 먹으며 3년동안 성묘하였으며, 길가에 감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아래 쉬면서 열매도 먹게 하니 모두가 ‘안정자(安亭子)’ ‘안효시(安孝柿)’라고 불렀다. 향천(鄉薦)과 관보(官報)와 영계(營啓)가 있어서 조정에 알려져 1897년에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에 증직되고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현판1】

孝子「贈嘉善」大夫戶「曹叅判」兼五衛「都摠府」副摠官「安師伯」之閭
上之丁酉十二月日「命旌

【현판2】

安孝子旌閭記

人之事親能竭其力者有生質之美焉有務學而至焉以余所聞如安公之孝可謂生質之美矣公廣州人諱師伯左贊成 贈諡思簡公諱省之後也家貧好學躬稼以養親愛敬出於至誠未嘗一日離違於親側或有不得已而出門必具告其所往及返面之期而不少遲滯焉其父都事公嘗患惡瘡諸藥不救公月夜號泣有一老僧過之具道其經驗曰惟有人肉燒傅一方而已公卽割股燒而傅之不數次而得痊歲適大旱畚皆涸公坐于田畔號泣曰田乾苗枯將何以供吾親乎俄頃片雲作雨獨雨其田而隣田亦被餘澤誠意之感動天心豈不曰捷於影響者乎每入市買魚不復論價之高下隨喚輸給販魚者感其孝與其同販人相議公買魚則只受其本價於此尤可見其人心之天矣公之子幼時見公之爲親營辦勞苦適出遊持人置雉而來助公養老之具公嘆息而戒之曰置雉匪吾所設而得也辱及於吾親其可仁乎爾須持去得雉之所待其張機之人而還焉其子遵奉教戒自後不敢爲一毫自欺之行而終亦

以孝顯名焉其服喪也哀毀踰禮啜粥侍墓以過三年亦不至成疾服闋晨昏拜墓雖祈寒暑而不一廢焉種樹於所居路側左柿而右槐行路見而愛之名其柿曰孝子柿指其槐曰安亭子至于今數百年樹已朽腹人猶愛惜爲之築土石而培之嗚呼公之心惟知有親而不知有己故誠足以感動于天孝足以無間於人生焉而篤行見於世沒焉而令名揚於後耳目婦孺莫不稱以安孝子雖當時積學鴻儒質行皆自以爲不及也夫人咸氏亦以孝養舅姑不失婦職其子聖眞武眞并以孝悌之行見稱爲孝子之錫類此可見矣子孫世居湖南谷城之念村恪守先業務敦睦而尚名實云 今上丁酉九月 日特蒙 命旌乃公後孫鍾述泳遠之力也因以求言於余余亦感公之孝不敢以無文辭故言

戊戌三月既望資憲大夫前禮
曹判書 世子左賓客漢陽趙
鍾弼謹序

〈안효자(安孝子) 정려기(旌閭記)〉

사람으로서 부모를 섬기면서 그 힘을 다할 수 있는 자는 타고난 자질이 아름다운 경우가 있고 학문에 지극히 힘쓴 경우가 있다. 내가 들은 바로 안공(安公)의 효도는 과연 타고난 자질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

공은 광주(廣州) 사람으로, 휘(諱)는 사백(師伯)이다. 좌찬성을 지내고 사간공(思簡公)이라는 시호를 받은 휘 성(省)의 후손이다. 집안이 가난하였으나 학문을 좋아했고, 몸소 농사지어 아버이를

모셨다. 사랑과 공경이 지극한 정성에서 나와 하루라도 아버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간혹 부득이 밖
에 나갈 때면 반드시 가는 곳과 귀가할 시간을 고하고 조금도 늦지 않았다.

그의 부친 도사공(都事公)이 일찍이 악창(惡瘡)을 앓았는데 모든 약이 듣지 않았다. 공이 달밤에
목놓아 울고 있을 때 한 노승이 지나가다가 그의 경험을 자세히 말해주길, “인육을 태워서 붙이는
것만이 유일한 처방이다.”라고 하였다. 공은 바로 허벅지를 베어 태우고 환부에 붙였는데 몇 차례
지나지 않아 병이 나았다. 그 해 마침 큰 가뭄으로 논의 전부 말랐다. 공은 밭두둑에 앉아서 목놓아
울며 말하길, “논이 마르고 모가 시들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우리 아버이를 모시겠는가?”라고 하였
다. 잠시 뒤 조각구름이 비를 내렸는데 유독 공의 밭에만 비가 내렸고 이웃의 밭도 남은 혜택을 입었
다. 성의가 하늘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니, 어찌 그림자와 메아리보다도 빠르다고 하지 않겠는가?

매양 시장에 가서 물고기를 살 때마다 다시 가격을 흥정하지 않고 부르는 대로 주었다. 물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모두 효성에 감동하고는 함께 장사하는 사람들과 상의하여 공이 물고기를 사면 원가
만 받았으니, 여기에서 더욱 사람의 마음이 하늘에서 타고났음을 볼 수 있다.

공의 아들이 어렸을 때 공이 아버이를 위해 장만하는 노고를 보고, 마침 놀러 나갔다가 남이 놓은
뒷에 걸린 꿩을 가지고 돌아와 공이 노부모를 봉양하는 도구에 보태려 했다. 공이 탄식하며 훈계하
길, “뒷에 걸린 꿩은 우리가 설치해서 잡은 것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에게 욕이 미칠 테니 어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는 꿩을 얻은 곳으로 가지고 가서 뒷을 놓은 사람을 기다렸다가 돌려주어라.”라
고 말하였다. 그 아들이 훈계를 잘 따라 이후로는 감히 조금도 자신을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마침내 또한 효도로 이름을 드러내었다.

상을 입었을 때는 예법을 넘을 정도로 슬퍼하여 몸이 상하였고, 죽만 마시며 무덤 곁을 지키며
3년을 보냈는데, 또한 병들지 않고 상복을 벗었다. 아침저녁으로 묘소에 절하며, 몹시 춥거나 더워
도 한 번도 그만두지 않았다. 사는 곳 길가에 나무를 심었는데 왼쪽은 감나무, 오른쪽은 해나무였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사랑하여 감나무를 효자시(孝子柿)라고 이름 붙이고, 해나무를 가리
켜 안정자(安亭子)라고 불렀다. 지금까지 수백 년이 흘러 나무가 속이 이미 썩었는데, 사람들이 여
전히 애석해하여 흙과 돌을 쌓고 복돋았다.

아! 공의 마음은 오직 아버이가 계신 것만 알고 자신이 있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고 효도가 남에게 다른 말이 없기에 충분하였다. 살아서는 독실한 행실
이 세상에 드러나고, 죽어서는 아름다운 이름이 후세 사람들의 귀와 눈에 퍼져 부녀자까지도 안효
자(安孝子)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비록 당시에 학문을 쌓은 큰 선비일지라도 질박한 행실은
모두 스스로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다.

부인 함씨(咸氏)도 시부모를 효성스럽게 봉양하여 부인의 직분을 잃지 않았다. 그 아들 성진(聖
眞)과 무진(武眞)은 모두 효제(孝悌)의 행실로 일컬어졌으니, 효자가 대대로 나온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자손들이 대대로 호남(湖南) 곡성(谷城)의 염촌(念村)에 사는데, 선조의 유업을 잘 지

키고 돈목(敦睦)에 힘쓰며 명실(名實)을 숭상한다고 한다.

금상이 정유년(1897) 9월에 특별히 정려(旌閭)를 명하였으니, 곧 공의 후손 종술(鍾述)과 영원(泳遠)의 힘이다. 이어서 나에게 글을 구하였는데, 나 역시 공의 효성에 감동하여 글재주가 없다고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글을 쓴다.

무술년(1898) 3월 16일에 자헌대부 전 예조판서 세자좌빈객 한양(漢陽) 조종필(趙鍾弼)이 삼가 서문을 쓰다.

10. 오곡면 오지리 효자 안효천(安孝天) 정려각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246-86 • 제작연대 1851년(辛亥)
- 크 기 전체높이 160, 비신높이 145, 너비 52, 두께 23

안효천(安孝天)의 정려각은 덕양서원 가기 전 길가에 있다. 정려각 안에는 안효천의 정려비와 동생 안효인(安孝仁) 정려비도 함께 서 있다. 1851년 11월 6일에 손자 안제원(安濟遠) 등이 세웠는데, 비석의 뒷면에는 새겨진 정려기는 1836년 3월에 심영석(沈英錫)이 쓴 것이다.

안효천(安孝天, 1739~1811)의 자는 자건(子健), 호는 회와(晦窩), 본관은 순흥(順興)이다. 모와(慕窩) 건(健)의 5세손으로, 아버지는 환(煥)이다.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으며, 4대가 함께 살았다. 죽음에 임하여 유연하길, '내가 어릴 때 입었던 두루마기는 우리 어머니께서 손수 지어주신 것이니 비록 헤지고 더러워졌더라도 나에게 입혀 달라. 나는 이 옷을 입고 저승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모실 것이니 모자가 서로 보는 것이 이승과 어찌 다르겠는가.'라고 말했다. 전라감사 이서구(李書九)가 독학지효(篤學至孝)로 특천(特薦)하였고, 어사 심영석(沈英錫)이 계문하여 1824년에 동몽교관에 추증되고, 1832년에 정려가 명해졌다. 비문은 18행 41자이다.

【전면】

[두전] 有明朝鮮

孝子

贈童蒙教官朝奉大夫

安孝天之閭

【좌면】

辛亥十一月初六日 孫 濟遠 豎碑

曾孫 秉祐

玄孫 箕炫 謹書

【후면】

先王在宥之二十二年壬午夏分遣近侍臣於諸路黜陟守令臧否彰瘝閭里善惡臣英錫亦在遣中衣繡持斧承命湖左恐恐然惟懼不克對揚周爰咨諏於谷城得一近故安孝天天性孝自幼婉柔深愛未嘗離父母側出外有可口物雖微必懷而遺之幸其一嘗焉凡所以滌滌溫清之節無所不用其極早孤能執喪慰譬孀母或啼或笑感回其懼心母夫人邁難名疾三歲殿屎醫治無效乃曰事親者不可以不知醫遍閱醫鑑透得真詮而對證以至於乃廖食少間則問飢進饌風稍厲則軫寒加衣一家化之承順無違以助夫子金氏之刑于妻也志物交養一視乃兄孝仁之難爲弟也傳所謂以身教則從者非耶及夫年踰七耄臨筭蒼皇之際一言不及家事作氣以詔家人曰吾母手線留在篋中藏服此歸拜則弊袍華於錦繡幸勿違忤此一事可見至死孺慕之義也尤篤於友愛絕甘分少湛樂怡怡棊局不相離子侄有過召與相對正色不言使之恐懼而遄改推以至於睦族和隣雍若春風若公者能盡性分內事也余

【우면】

於是欽艷採摭而申聞焉前此道臣李書九狀薦于朝是實先獲也越三年甲申贈童蒙教官後先相望大聖人樹風勵俗之典吁其至矣夫

崇禎四丙申二月日嘉善大夫兵曹參判同知義禁府事沈英錫謹書 壬辰四月日孫濟民建閭

〈유명(有明) 조선국(朝鮮國) 효자(孝子) 증(贈) 동몽교관(童蒙教官) 조봉대부(朝奉大夫) 안효천(安孝天)의 정려〉

선왕(先王, 순조)이 재위한 지 22년 임오년(1822) 여름, 가까이 모시던 신하를 여러 곳에 나누어 파견하여 수령의 자잘못을 평가하여 출척(黜陟)하고, 백성의 선악을 판단하여 권면하고 징계하게 하였다. 나 심영석(沈英錫)도 어사로 파견되어 부월(斧鉞)을 지니고 전라도에서 왕명을 받들었다. 조심스럽게 오직 성상의 명령에 부응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두루 묻고 살피다가 곡성에서 머지않은 옛날 사람 안효천(安孝天)을 찾았다.



그는 타고난 효자로 어려서부터 온유하고 부드러우며 사랑이 깊어 부모의 곁을 떠난 적이 없고, 밖에 나가서 먹을만한 음식이 있으면 비록 자질구레한 것이라도 반드시 품에 넣어와서 드렸으니, 부모가 한번 맛보시면 즐거워하였다.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여 드리고 계절에 따라 따뜻하고 거처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상례를 능숙하게 치렀고, 홀어미를 위로하여 울거나 웃어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감동하여 돌리게 해드렸다. 모친이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려 3년 동안 신음하며 의원의 치료에도 효과가 없자, “아버이를 섬기는 사람은 의술을 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의서를 두루 열람하고 비결을 체득하여 증세에 맞게 처방함으로써 마침내 낫게 하였다.

식사를 조금이라도 거르면 배고픈지 여쭙보아 반찬을 올리고, 바람이 조금이라도 매서우면 옷을 더 입혀드렸다. 온 집안사람이 교화되어 거스르지 않았고, 남편을 도운 아내 김씨도 남편을 본받았다. 뜻을 잘 받들고 물질로도 봉양을 잘하길 한결같이 형과 같이 한 효인(孝仁)도 형 못지않은 아우였다. 옛글에 말하기를 ‘몸소 가르치면 잘 따른다.’라고 하였으니, 옳지 않은가?

나이 일흔이 넘어 임종을 앞두고 경황이 없을 때도 한 마디도 집안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기운을 내어 집사람에게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한 옷이 상자에 남아 있으니, 이 옷을 입고 돌아가 뵈면 낡은 도포가 수놓은 비단옷보다 고울 것이다. 부디 여기서 말아라.”라고 하였다. 이 한 가지 일만 보아도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모하는 듯한 의리를 볼 수 있다.

우애가 더욱 돈독하여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후하게 대접하였고, 화목하고 즐거워하며 바둑을 두면서 떠나지 않았다. 자제들에게 허물이 있으면 불러서 함께 마주 대하고 정색하며 말하지 않아서 그들이 두려워하여 서둘러 고치게 하였다. 이를 확충하여 친족간에 화목하고 이웃과 화합하는 데 이르기까지 봄바람처럼 온화했다. 공과 같은 사람은 능히 성품 안의 일을 다했다고 할 것이다.

내가 이에 흠모하는 마음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조정에 알렸다. 그런데 이보다 먼저 관찰사 이서구(李書九)가 조정에 장계를 올려 추천하였으니, 이는 실로 먼저 얻은 것이다. 그리하여 3년이 지난 갑신년(1824)에 동몽교관에 추증되고 벼슬이 앞뒤로 줄을 이었다. 위대한 성인이 풍속을 세우고 장려함이 아! 지극하도다.

승정 4 병신년(1836) 2월, 가선대부 병조참판 동지의금부사 심영석(沈英錫)이 삼가 쓰다.

임진년(1832) 4월에 손자 안제원이 정려각을 세웠다.

신해년(1851) 11월 6일에 손자 제원(濟遠)이 비석을 세우고, 증손 병우(秉佑)와 현손 기현(箕炫)이 삼가 글씨를 쓰다.

11. 오산면 가곡리 김노숙(金魯淑) 정려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가곡리 574(가곡) • 제작연대 1894년(甲午)
- 크 기 전체높이 155, 비신높이 30, 너비 54, 두께 7.5

오산면 가곡리 가곡마을 입구 도로변에 있는 김노숙의 정려비이다. 비는 붉은 벽돌담으로 둘러있으며, 사각형 돌기둥 2개 사이에 석판이 끼여져 있고, 여기에 붉은 글씨의 정려문이 새겨져 있다.

김노숙(金魯淑)의 자는 영화(永和), 본관은 경주(慶州)로, 수은공(樹隱公)의 후손이다. 부친의 병환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넣어드려 목숨을 연장하였고, 돌아가셔서 장사지낼 때는 호랑이가 나와 그를 호위해주었다. 1894년에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증직되고 정려가 내려졌다. 비문은 15행 7자이다.

【전면】

贈童蒙教官朝奉大夫金魯淑之閭
命旌

【후면】

公字永和丁巳生

樹隱公之后也性

孝狀聞蒙

允贈旌事見邑誌

及三綱錄墓谷城

栗亭配淑人羅氏

同原

上之三十一年甲午三

月日

〈동몽교관 조봉대부에 증직된 김노숙(金魯淑)의 정려〉

공의 자(字)는 영화(永和)로 정사년에 태어났다. 수은공(樹隱公)의 후예(后裔)이다. 타고난 효자로 조정에 알려져서 임금의 윤허를 받아 증직되고 정려가 세워졌다. 일이 읍지와 삼강록에 보인다. 묘는 곡성의 울정(栗亭)에 있다. 배인 숙인(淑人) 나씨(羅氏)의 묘도 같은 언덕에 있다.

금상 31년 갑오(1894) 3월 일.

12. 오산면 연화리 허서(許瑞) 정려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549-2(연화) • 제작연대 1860년(上之十二年庚申)
- 크 기 전체높이 174, 비신높이 38, 너비 60, 두께 7

오산면 연화리 연화마을 정자각 옆에 있는 허서(許瑞, 1574~1645)의 정려비는 사각형 돌기둥 2개를 세우고 그 사이에 석판을 끼워서 글을 새긴 형태이다. 경신년(1860)에 정려가 내려졌다.

허서의 자는 성휴(聖休), 본관은 태인(泰仁)이다. 사문(斯文)의 9세손으로, 도봉(道峯) 계(繼)의 증손이며, 지길(之吉)의 손자이다. 성효(誠孝)가 출천하여 7~8세의 어린 나이에 문득 혼정신성의 예를 행할 수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동안 여묘살이를 하였다. 승중(承重)하여 조부모 섬기길 부모와 한가지로 하였으며, 상을 당해서는 또 여묘살이 6년을 하였고, 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는 나이가 60살을 넘었는데도 또 여묘살이 3년을 하여 전후로 여묘살이 한 것이 무릇 12년이나 된다. 청파(靑坡) 신이강(辛二剛)과 날마다 더불어 절차탁마하였고, 운암(雲巖) 이흥발(李興浚)이 현감이었을 때는 매우 공경하고 존중하여 도의로써 사귀었다. 사는 곳에 정자를 짓고 ‘후송정(後松亭)’이라고 편액하였다. 나이 72세에 죽었다. 비문은 16행 10자이다.

【전면】

贈童蒙「教官朝」奉大夫「許瑞之」閣

【후면】

公字聖休甲戌生

號後松泰山君后

承重 服喪廬

墓十有二年仍

廢科業講明經

學著邑誌及三

綱錄士林章甫

積軸孝學卓異

之行道臣狀 啓

議政府別覆啓蒙

允配令人吳氏僕氏

上之十二年庚申八月日

〈동몽교관 조봉대부에 증직된 허서(許瑞)의 정려〉

공의 자는 성휴(聖休)로 갑술년(1574)에 태어났고, 호를 후송(後松)이라 하며, 태산군(泰山君)의 후손이다. 승중(承重)하여 대신 복(服)을 입고 여묘살이를 12년간이나 살았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포기하였으나 경학(經學)을 연구하여 밝히니 이름이 나서 읍지와 삼강록(三綱錄)에 올라 있다. 효도와 학문이 탁이한 행실로 사림에서 선비들이 천거한 문서가 쌓였으며, 도신(道臣, 관찰사)이 장계(狀啓)를 의정부에 올리고 의정부에서 특별히 임금에게 복계(覆啓)함으로써 정려의 명을 받게 되었다. 배는 영인(令人) 오씨(吳氏)와 설씨(僕氏)이다.

금상 12년 경신(1860) 8월 일.

13. 옥과면 죽림리 김몽애(金夢愛) 처 김해김씨(金海金氏) 정려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죽림리 168-2 • 제작연대 1824년(上之二十五年甲申)
- 크 기 전체높이 180, 비신높이 42, 너비 45, 두께 11

김몽애(金夢愛)의 처 김해김씨(金海金氏)의 열행(烈行)을 기리는 정려비는 현의 북쪽 2리 영귀 등 아래, 즉 현재 죽림리 마을 끝인 고운파크맨션을 지나 산밑 소로가에 세워져 있다. 2개의 사각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에 석판을 끼워서 글을 새긴 형태이다. 비문은 14행 12자이다.

【전면】

閑良金「夢愛之」妻烈女「金海金」氏之間
上之二十五年甲申建

【후면】

烈女縣人金德南女年十八嫁

邑居金夢愛才數月寡送終葬
祭節孝舅姑彌篤夫喪闋日晨
入親徹豆從容就寢房自藥殉
卽戊午二月十九日也粵三日
有氣虹如也經時于殯詳載邑
褒文而其子廷武亦以孝友著
恐其烈未壽誌于石焉

열녀는 고을 사람인 김덕남(金德南)의 딸로, 나이 18세에 읍에 사는 김몽애(金夢愛)에게 시집갔는데, 겨우 몇 달 만에 과부가 되어서는 송종(送終)의 예와 장례 및 제례를 치렀으며, 시부모에게 효도함이 더욱 독실했다. 남편상을 마치는 날 새벽에 들어가서 친히 제기를 거두고 조용히 잠자는 방에 가서 스스로 약을 먹고 생을 마감하니 무오년 2월 19일이었다. 이에 3일동안 어떤 무지개와 같은 기운이 시간이 지나도록 빈소에 머물러 있었다. 읍지에 포창하는 글이 자세히 실려 있다. 그 아들 정무(廷武) 또한 효우(孝友)로 이름이 알려졌다. 그 열행이 오래가지 않을까봐 돌에 기록한다.

14. 옥과면 합강리 류팽로(柳彭老) 정렬각



- 소 재 지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산16-4 • 문화유산지정 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 제25호(1984.2.29.)
- 제작연대 1623(天啓三年)/최근 중수 • 크 기 2×1칸, 맞배지붕

월파 유평로(柳彭老, 1554~1592)의 정렬각은 옥과 합강리의 마을 끝 산자락의 사당 왼편에 자리한다. 큰 규모의 건물은 정면에 정렬각(旌烈閣)이라는 문액이 걸려 있고, 안에는 7개의 현판이 걸려 있다. 즉 1623년에 세운 충신현판과 열부현판, 1832년에 홍진연이 쓴 정려중수기, 1892년 정봉현이 쓴 정려중수기, 1937년 이윤규가 쓴 삼강문 중수기, 1960년 이병은이 쓴 정려중수기, 1892년 3명의 지은 시를 새긴 시판 등이다. 이 건물은 1984년 2월 29일 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 제25호로 지정되었다.

류팽로의 자는 형숙(亨叔), 호는 월파(月坡),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아버지는 경안(景顔)으로, 옥과의 합강정(合江亭)에서 태어났다. 기묘년(己卯年, 1579)에 사마(司馬) 양시에 합격하고, 무자년(戊子年, 1588)에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정자(弘文正字)에 올랐다. 곧 성균관 학유(成均館學諭)에 제수되었는데, 부름을 받은 지 5일 만에 무릇 3번 나아가 치란(治亂)의 대책에 대해 극진하게 상소했으나 소인배들에게 노여움을 받았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성균관 학유로써 양대박(梁大樸)·안

영(安瑛)과 담양부에서 군대를 합하고, 제봉 고경명(高敬命)을 맹주로 추대하여 금산전투에 나아가 적을 토벌하였으며, 병력이 다해지자 경명(敬命)과 머리를 나란히 하고 전사하였다. 이 일이 알려지자, 사간(司諫)에 증직하고 또한 정려를 명하였다. 인조 때 왕명에 의해 좌승지(左承旨)에 추증(追贈)되었다. 아내 김씨는 사인(士人) 침(琛)의 딸로, 남편의 죽음을 듣고는 직접 목을 칼로 끊고 기절하였다가 다시 소생하였으나, 대상에 미치지 못하고서 죽었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특명으로 삼강문(三綱門)이 내려지고, 신하를 보내 치제(致祭)케 하였으며, 대사간 좌승지(大司諫左承旨)에 추증하였다. 광주 포충사(褒忠祠)와 금산의 종용당(從容堂)에 설향(設享)하였고, 옥과의 영귀서원(詠歸書院)에 배향하였다. 격문(檄文)은 『정기록(正氣錄)』에 실려 있고, 실적(實蹟)은 선묘보감(宣廟寶鑑)과 삼강행실(三綱行實)에 실려 있다.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와 청사(晴沙) 고용후(高用厚)가 그의 행장을 찬술하였다.

[문액] 旌烈閣

【현판1】

忠臣

贈 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行承「仕郎成均館」學諭柳彭老「之閭」
天啓三年立

【현판2】

烈婦

贈 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行承「仕郎成均館」學諭柳彭老「妻叔父人金」氏之閭
天啓三年立

【현판3】

月坡旌閭重修記

經曰表厥宅里以樹風聲此自古忠臣烈士之所以跡不泯而名不沫者以其有一閭塗丹而使其於萬年流芳也故旌閭之義非特褒揚於其人將欲示之以久遠然則忠臣焉題其閭曰忠臣孝烈焉題其閭曰孝烈雖過千百年所至于愚夫愚婦而俾知某之忠某之烈也嗚乎昔在壬辰月波柳公奮忠殉節炳若日星凜如霜雪而且況一門三忠實是千古罕有之事其實跡

書之國史載之鄉籍非敢後學之一辭贊贅而只有欽慕景仰之愈久愈深者也今夫門閭之命旌殆過三十紀矣未知其間幾次重修而到今楣桷墮圯丹青剝落頽臥於荒蒿蕪原之中等耳於尋常百姓之家此實志士之所以感慨流涕抑亦行路之晞噓發嘆者也不佞來守茲土鄉議再發鳩財僱工合謀重修月有餘而工告訖焉旌額斯揭爰但生光於閭里尤可聳動士

林今而後觀於鄉而望其門則不問可知
爲柳公之廬矣異哉今歲何歲其閭重修
適丁斯時若將有待於是年誠非偶歟宜
鄉中諸君子之興感尤有倍也有司來請
記文顧此愚陋忝在地主不敢以無文爲

【현판4】

月波柳公旌閭重修記
嗚呼歲壬辰而先生之綽楔是修其亦異
哉唐張許之靈猶助兵於有宋之世竟有
角林之捷況公以我國之張許東有未殲
之倭年又壬辰乎則其精忠毅魄尤當風
怒而雲屯蹴山而噴海曷不欲爲國家一
洒也于斯時也士林之聳慕裔孫之冥感
亦什佰於異日則綽楔之新實不期然而
然者矣蓋錦山義蹟可與東方流峙相終
始矣而後之學士大夫知公之忠義其有所
本者或寡矣始公中司馬擢巍科膺正字
選方將大用而以親老辭歸田里生事而
養志死藏而廬側至有道臣啓傳所爲孝
者所以事君者非耶憂吉而爲成均學諭
也五日凡三進疏極論治亂之策言甚剴
切宋人所謂平時犯顏苦諫之臣臨亂而
能立節死義者非耶我宣廟以則哲之聖
嘗有教曰孝子之門必有忠臣予知柳彭
老之清直其爲國家長遠慮公之愠于群
小也惟成牛溪尹月汀鄭松江具文懿知
其爲君子傳所謂信乎友獲乎上者非耶

【현판5】

月波柳先生三綱門重修記
雪山之東合江之上有先王朝樹風
表宅卽月波柳先生之忠閭也蓋雪
山玉果縣鎮也扶輿磅礴壁立千仞

辭其諸凡事實十不其九而遂爲之記
壬辰年五月上幹唐城洪晉淵 謹記
有司 尹昌鉉 申弼求
本孫 柳光模

果死義於錦山也奴忠勇懼公之或死擁
馬不前則斬其左臂而奴猶執鞵至斬右
臂其恩孚於僕御也有如此者矣夫人金
氏以婦德聞聞公沒則引刀自決其刑于
寡妻也有如此者矣公其真有本哉從容
堂褒忠祠百世并侑可謂崇報至矣而聖
祖特命立三綱門者欲使東邦後世知公
之忠義其有所本矣於乎休哉蓋公年二
十九而死義終始建立成就何若是其早也
當時諸道義兵皆書公姓名於旗曰舉義
當如此人忠義之感服于人震耀于國何
若是其壯也此余得具文懿語特表而出
之欲並聞于世也來徵文公九世孫弘均
其名

崇禎五回壬辰冬十月望日

河東 鄭鳳鉉 謹記

八世孫 鼎烈

九世孫 陽均

十世孫 興條

監役 學均

南州清淑之氣於是焉窮而公得之
而生也公諱澎老號月波文化著族
英氣超邁早登蓮榜仕至學諭昔

我 宣廟壬丁社稷之憂迫在朝夕公
舉義召募從霽峰先生於錦山之
役同時殉節其忠義貫天昭如日
星蓋國家之不亡其誰之工獨青邱
一片復爲乾淨者自公發軔也天定
之日彤毫揭額表厥宅里閱數百
禩而一自滄桑後世道晦盲雲仍漸
替以若 先生 天褒之閭棟宇傾頽
丹青漫漶幾至顛覆行路之齋嗟久
矣于時余寓居雪山之陽過合江之上

【현판6】

旌閭重修記

物有盛衰世有興亡而惟人之忠義不可以
時而有所變易也況旌其閭以樹風聲筆之
史以傳萬世故其人雖死而與草同腐漸其名
與天地悠久也故月坡柳公諱彭老以傑豪之資
有濟人及物之量當 宣祖壬丁亂發憤辭家人聚
穀舉義盡智竭誠終與高霽峰同死生蓋我國
之得免奴隸臣妾於當日者幸以諸公推忠秉節而
傾國之仰慕其可已乎 聖朝命旌其閭閭在玉果
縣合江之濱者幾百禩而子姓窮莫能守日虜又入國
壬丁之忠節遂爲一時暴諱閭安能久乎哉獨
不至墟至于今乃天之報施而抑公精靈猶有
所默佑也往在丁丑之年虜方猖獗之秋縣人
李鳳奎及多士奮義合力以重修之何其壯
又快哉既又不能三紀而風雨不可掩庇則獨
梁君進鴻者捐厥重資新之如故蓋有以
深慕乎古之節義者直今之節義之士則
修其忠臣之閭者非懷忠之人耶吾友申
彥龍累道之因請記書之如右云

歲庚子初秋全義李炳殷記

道山祠維持契員一同

見公之閭瀕於傾倒不忍之心自發于
中不謀於衆卽爲修繕重新其舊而
既竣功褒忠祠儒林應聲出義本
鄉士友同時修契以奉祠事屬余記
其顛末以不文辭之不獲敢竭鄙誠
遂爲之記又從以歌曰
雪山蒼蒼合江泱泱三綱表宅百世
樹風山與之高水與之長

歲丁丑八月日

完山后人李潤圭謹記

契長 申彦龍
副契長 吳昌根
總務 梁得春
財務 曹圭煥
書記 曹圭煥

【현판7】

死於當死死猶新畫閣巍
然褒節臣回憶前時堪發
奮惟 公大義在壬辰
延日 鄭達謹稿
合江亭上舊閣新三百年
前死節臣今日 精靈應
陟降令人不忍說壬辰

青松沈晶澤謹稿
三綱一室倍生新自古王家
不易臣添在裔孫多感
慨歲回三百況壬辰
不肖後孫泓均伏稿
上之二十九年壬辰孟冬上浣

현판 3 <월파정려중수기(月坡旌閣重修記)>

『서경(書經)』 「주서(周書) 필명(畢命)」에 “거주하는 마을을 정표(旌表)하여 풍성(風聲)을 세워 준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예로부터 충신과 열사가 행적이 민멸되지 않고 이름이 영원히 전해지는 것은 단청한 전각을 지어 만년토록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려(旌閣) 하는 뜻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장려할 뿐만 아니라 장차 먼 후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 충신(忠臣)에 대해서는 그 정려문에 써서 충신이라고 하고, 효열(孝烈)에 대해서는 그 정려문에 써서 효열이라 하여, 비록 몇천 년이 지나더라도 어리석은 지아비와 아낙조차도 아무개는 충신이고 아무개는 효열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아! 옛날 임진년(1592)에 월파(月波) 류공(柳公)이 충성을 떨쳐 순절한 것이 해와 별처럼 빛나고 서릿발처럼 늠름하다. 더구나 한 가문에 세 분의 충절을 바친 분이 있는 것은 실로 천고에 드문 일이고, 그 실제 행적은 나라의 역사책에 기록되고 향적(鄉籍)에 실려 있으니, 감히 후학이 한 마디 말인들 부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흠모하고 우러르는 마음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점이 있다.

지금 문려(門閭)에 정려(旌閣)를 명한 지 거의 30기(紀)가 넘었으니, 그 사이에 몇 차례나 중수를 해서 지금에 이르렀는지 모른다. 서까래는 허물어지고 단청은 떨어져 나간 채 축대가 덮인 황량한 동산 속에 쓰러져 있어 예사로운 백성의 집과 같았다. 이는 실로 뜻있는 선비들이 감개하여 눈물을 흘리는 까닭이며, 또한 길 가는 사람조차 한숨 쉬며 탄식을 자아내는 것이다. 내가 와서 이 지역을 다스림에 고을의 의론이 다시 일어나서 재물을 모으고 일꾼을 모아 함께 중수하기를 도모하여 한달 남짓 만에 공사를 마쳤다. 정려문의 편액을 걸자 이에 마을에 빛이 날 뿐만 아니라 더욱 사림(士林)

을 고무할 수 있었다. 지금 이후로는 고을에서 보고 그 문을 바라보면 유공의 집이라는 것을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이하도다! 올해는 어떤 해인가? 정려를 중수하는 것도 마침 이 임진년을 만났다. 마치 장차 이 해를 기다림이 있는 듯하니,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마땅히 고을 군자들의 감흥이 더욱 배가 될 것이다. 유사(有司)가 와서 기문(記文)을 지어달라고 청했는데, 어리석고 비루한 내가 외람되어 수령의 자리에 있어 감히 문장 솜씨가 없다는 말로 사양하지 못하였다. 그 사실을 기록한 것은 열에 아홉도 드러내지 못하였지만, 마침내 기록한다.

임진년(1832) 5월 상한(上幹)에 당성(唐城) 홍진연(洪晉淵)³⁷이 삼가 기록하다
유사(有司)는 윤창현(尹昌鉉)·신필구(申弼求)와 본손(本孫) 유광모(柳光模)이다.

현판 4 <월파 류공 정려 중수기>

야! 해는 임진년(1892)으로, 선생의 정려를 중수하니, 이 또한 기이한 일이다. 당(唐)나라 장순(張巡)과 허원(許遠)³⁸의 영령이 오히려 송(宋)나라 때 병난을 도와 끝내 각림(角林)의 승전보가 있었다. 하물며 공은 우리나라에서 장순과 허원과 같은 사람으로서 동쪽에 섬멸하지 못한 왜가 있었다. 해는 또 이전과 같은 임진년이라, 그 순결한 충정과 장한 낮은 바람이 성내듯 거세고 구름이 모이듯 웅장하며 산을 박차고 바다를 내뿜기에 더욱 마땅하니, 어찌 나라를 위하여 한번 쇠신하고자 하지 않으리오? 이때 사림이 공경하고 양모하며 후손이 감응함이 또한 이전보다 열배 백배나 되니, 정려 문을 새롭게 단장한 것은 실로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 것이다.

대개 금산(錦山)에서 의병을 일으켜 세운 공적은 우리 동방의 산천과 더불어 서로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후대에 학자와 사대부는 공의 충의가 그 근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혹 적을 것이다. 처음 공이 사마시에 합격하고 대과(大科)에 급제하여 정자(正字)에 선발됨에 바야흐로 장차 크게 쓰이려 하였는데, 아버지가 연로하다는 이유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섬겼고, 세상을 떠나시자 장사지내고 시묘살이를 하였다. 그리하여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여 효자라고 하기까지 하였으니, 군주를 섬기는 바가 아니겠는가? 상례를 마치고 성균관 학유(成均館學諭)가 됨에 5일 동안 모두 세 번 상소하여 치란(治亂)에 대한 대책을 극론하였는데 말이 사리에 맞았다. 송(宋)나라 사람이 말한 ‘평소에 군주의 노여움을 무릅쓰고 굳게 간하는 신하가 전란에 임하여 절개를 세우고 의리를 위해 죽는다.’라는 것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우리 선조는 명철한 성군으로 일찍이 하교를 내려 “효자의 가문에 반드시 충신(忠臣)이 있으니, 나는 유팽로(柳彭老)의 청렴하고 곧은 성품을 안다. 그는 나라를 위해 원대한 생각을 깊게 하였다.”

³⁷홍진연(洪晉淵) : 진사로서 경인년(1830) 7월에 옥과현감에 도임하여 임진년(1832) 12월에 옮겨갔다.

³⁸장순(張巡)과 허원(許遠) : 당(唐)나라 안녹산(安祿山)의 난에 수양(睢陽)을 고수하며 끝까지 항거하다가 순절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였다. 공이 못 소인배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오직 성우계(成牛溪, 성혼(成渾)), 윤월정(尹月汀, 윤근수(尹根壽)), 정송강(鄭松江, 정철(鄭澈)), 구문의(具文懿, 구사맹(具思孟))만이 그가 군자가 됨을 알았다. 전(傳)에 이른바 “벗에게 믿음을 받으면 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다.”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금산(錦山)의 전투에서 의롭게 죽었다. 이에 앞서 노복 충용(忠勇)이 공이 혹 죽을까 두려워하여 말 앞을 가로막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자 그의 왼쪽 팔을 자르고, 노복이 그래도 말의 재갈을 잡자 오른쪽 팔을 베기까지 하였으니, 그 은덕이 노복에게 미덥게 함이 이와 같았다. 부인 김씨(金氏)는 부덕(婦德)으로 소문이 났는데, 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칼을 뽑아 자결하였으니, 아내에게 모범이 됨³⁹이 이와 같았다.

공은 참으로 근본이 있도다. 종용당(從容堂)과 포충사(褒忠祠)에서 백세토록 제향하니, 융성한 보답이 지극하다고 할 수 있다. 성조(聖祖)가 특별히 명하여 삼강문(三綱門)을 세우게 한 것은 우리 동방의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공의 충의를 알게 하고자 한 것이니, 근본한 바가 있다.

아! 훌륭하구나. 대개 공이 29세에 의를 위해 죽었으니, 끝까지 수립(樹立)하고 성취(成就)한 것이 어찌 이처럼 젊은 나이에 하였는가? 당시 여러 도에서 일어난 의병은 모두 깃발에 공의 성명을 쓰고 ‘거의(擧義)’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충의가 사람을 감복시켜 나라에 크게 밝힌 것이다. 어찌 이처럼 장대한가? 이는 내가 구문의의 말을 얻어서 특별히 드러내고 모두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나를 찾아와 글을 부탁한 이는 공의 9세손으로 이름은 홍균(弘均)이다.

승정(崇禎) 기원후 다섯 번째 임진년(1892) 10월 15일에, 하동(河東) 정봉현(鄭鳳鉉)이 삼가 기록하다.

8세손 정열(鼎烈), 9세손 양균(陽均), 10세손 흥조(興條), 감역(監役) 학균(學均)이다.

현판 5 <월파 류선생 삼강문(三綱門) 중수기>

설산(雪山)의 동쪽, 합강(合江)의 위에는 선왕 때 풍성(風聲)을 세워 정표한 집이 있으니, 바로 월파(月波) 류선생(柳先生)의 충려(忠閭)이다. 대저 설산은 옥과현(玉果縣)의 진산(鎭山)이다. 기운이 서리고 충만하며 산세가 높고 험준하니, 남쪽 지방의 맑고 깨끗한 기운이 이곳에서 다한 곳으로, 공은 이곳에서 태어나셨다.

공의 휘는 팽로(澎老)이고, 호는 월파(月波)이니, 문화(文化)의 저명한 가문 출신이다. 영특한 기운이 남달랐으니, 일찍이 연방(蓮榜, 소과 합격자 명단)에 올랐고 벼슬은 학유(學諭)에 이르렀다. 옛날 우리 선조 임진년(1592)과 정유년(1597)에 사직의 근심이 눈앞에 닥쳤을 때 공은 의병을 일으키고 제봉선생(霽峰先生)을 따라 금산(錦山)의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동시에 순절하였으니, 그 충의가 하늘을 꿰뚫어 해와 별처럼 밝았다. 대저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누구의 공인가? 오로지 우

³⁹아내에게 모범이 됨: 『시경』 「대아(大雅) 사제(思齊)」에 “아내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게 미치고 그 덕화로 집과 나라를 다스린다.[刑于寡妻, 至于兄弟, 以御于家邦.]”라고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리가 사는 청구(靑邱)의 땅이 다시 깨끗해진 것은 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늘의 뜻이 정해진 날 붉은색으로 휘호하여 편액을 걸고 그 집을 정표하였는데, 수백 년이 지나도 한결같았다. 하지만 세상이 변한 후로 세도가 어두워지고 후손들이 점차 쇠락하여 나라에서 표창한 선생의 정려가 기둥과 지붕이 기울고 단청이 퇴색하여 거의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으니, 길 가는 사람들이 탄식한 지 오래 되었다. 이때 나는 설산의 남쪽에 우거하였는데, 합강의 위를 지나다가 공의 정려가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고 차마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 여러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즉시 수리하여 그 옛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였다. 공사를 마친 후 포충사(褒忠祠)의 유림이 반응하여 의리를 내세우고, 본향의 사우들이 동시에 계를 만들어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내면서 나에게 그 전말을 기록해 주기를 부탁하기에 문장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양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감히 비루한 정성을 다하여 쓴다. 또 이어서 다음과 같이 가사를 짓는다.

雪山蒼蒼	설산은 푸르고,
合江泱泱	합강은 도도히 흐르네.
三綱表宅	삼강문으로 정표한 집은,
百世樹風	백세토록 풍성을 세우네.
山與之高	산과 더불어 우뚝하고,
水與之長	물과 더불어 유장하네.

정축년(1937) 8월 일 완산(完山) 후인 이윤규(李潤圭)가 삼가 기록한다

현판6 <정려 중수기(旌閣重修記)>

사물은 성쇠가 있고 세대는 흥망이 있지만, 오직 사람의 충성과 절의는 시간이 흐른다고 하여 바뀌지 않는다. 하물며 그 마을을 정표하여 풍성을 세우고, 역사책에 기록하여 만세에 전함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록 죽어 초목과 더불어 썩어 없어지더라도 그 이름은 천지와 더불어 장구할 것이다. 고 월파(月坡) 류공(柳公)의 휘는 팽로(彭老)이니, 호방한 자질로 사람과 사물을 구제하는 도량이 있었다. 선조(宣祖) 임진년(1592)의 난에 분발하여 집안사람과 작별하고 곡식을 모으고 의병을 일으켜 지혜와 정성을 다하였고, 끝내 고제봉(高霽峰)과 생사를 함께하였다.

대개 우리나라가 당일에 노예와 신첩을 면한 것은 다행히 제공이 충성을 미루고 넓혀 절개를 지킨 것 때문이니, 온 나라 사람이 우러러 사모하는 마음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성스러운 조정에서 그 마을을 정표하라고 명하였다. 정려는 옥과현(玉果縣) 합강(合江)의 물가에 있는 지가 몇 백 년이 되었는데 자손이 가난하여 보존하지 못하였다. 일본 오랑캐가 또다시 침입하여 임진년과 정유년의 충절이 마침내 일시에 묻혀 버렸으니, 정려가 어찌 오래 유지될 수 있었겠는가? 오로지 폐허가 되지 않고 지금에 이른 것은 바로 하늘이 베푼 은덕일 것이며, 아니면 공의 정령이 여전히 묵묵히 도운 것이다. 지난 정축년(1937)에 오랑캐가 바야흐로 창궐하던 때 고을사람 이봉규(李鳳奎)와 선비

들이 의기투합하여 증수하였으니, 그 얼마나 장하고 통쾌한가? 이미 또 3기(紀) 되지 않았는데 비바람을 가릴 수 없게 되자, 홀로 양진홍(梁進鴻) 군이 많은 자금을 내어 새로 고쳐 옛날처럼 만들었다. 대개 옛날의 절의 있는 사람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 절의 있는 선비이니, 충신의 정려를 수리하는 자도 충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나의 벗 신언룡(申彦龍)이 자주 말해주고, 인하여 기문을 지어줄 것을 청하기에 이상과 같이 쓴다.

경자년(1960) 초가을에 전의(全義) 이병은(李炳殷)이 기록하다

도산사(道山祠) 유지계원(維持契員) 일동

계장(契長)	신언룡(申彦龍)
부계장(副契長)	오창근(吳昌根)
총무(總務)	양득춘(梁得春)
재무(財務)	조규환(曹圭煥)
서기(書記)	조규환(曹圭煥)

〈현판 7〉

死於當死死猶新
畫閣巍然褒節臣
回憶前時堪發奮
惟公大義在壬辰

合江亭上舊閣新
三百年前死節臣
今日精靈應陟降
令人不忍說壬辰

三綱一室倍生新
自古王家不易臣
添在裔孫多感慨
歲回三百況壬辰

죽어야 할 때 죽는 것은 죽어도 오히려 새롭나니,
단청 누각 우뚝하여 절의의 신하를 기리네.
지난날을 회상함에 발분할 만하니,
공의 대의는 임진년(1592)에 있도다.
연일(延日) 정달근(鄭達謹)이 짓다
합강의 정자 위 옛 정려가 새로우니,
삼백 년 전 절의로 죽은 신하로다.
오늘날 정령이 응당 오르내릴 것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임진년 일을 차마 말하지 못하게 하네.
청송(靑松) 심정택(沈晶澤)이 삼가 짓다
충효열 삼강이 한 방에 있어 배나 더 새로우니,
예로부터 왕가에는 바꾸지 못하는 신하 있었네.
후손이 된 사람은 감개가 무량하니,
삼백년 지난 또 임진년(1892)임에랴
불초 후손 홍균(泓均)이 삼가 짓다

고종(高宗) 29년 임진년(1892) 1월 상완(上浣).

15. 입면 삼오리 박언배(朴堰培)·완산이씨(完山李氏) 충렬문



- 소 재 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삼오리 90-2 • 문화유산지정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1974. 9. 24)
- 제작연대 1805년(乙丑) • 크 기 3×2칸, 팔작지붕 / 전체높이 230, 비신높이 145, 너비 57, 두께 25

정묘호란(丁卯胡亂, 1627년) 때 의병(義兵)으로 활약하였던 박언배(朴堰培, 1604~1632)와 부인이씨의 충렬을 기린 정려각이다. ‘충렬문’이라고 한다. 정려각 내부에는 현판이 6개 걸려 있고 현대에 세운 비석이 1기 서 있다. 박언배의 본관은 밀양, 호는 일심헌(一心軒)으로 난계 박연(朴堧)의 5대손이다. 1632년 안주성(安州城) 전투에서 적장(敵將) 유흥치(劉興治)를 토벌하던 중 순절하였는데, 그 소식을 듣고 부인 완산이씨(完山李氏) 또한 남편을 따라 자결하였다. 1805년(을축)에 고을 유림들이 박언배의 충절에 대해 포상을 천거하자, 조정에서 박언배를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증직(贈職)하고 선무(宣武) 3등공신에 추서(追敍)하였으며, 부인은 영인(令人)에 추봉(追封)했다. 아울러 정려(旌閭)를 내려 충렬문(忠烈門)이라 하였는데, 현재 박연의 사당인 오봉사(梧峰祠)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현판1】

忠信

贈童蒙教「官朝奉」大夫朴「堰培妻」烈婦完「山李氏」之間
上之卽位五年乙丑夏「命下贈職旌閭

【현판2】

上之卽位五年乙丑夏以朴公堰培之忠節其夫人李氏
之烈行 特下春曹施以贈職旌閭之典我
聖上闡揚忠烈嘻猗盛哉朴公卽文獻公蘭溪先生之五
世孫也當 天啓丁卯姜弘立之變尺劔奮起於沙溪
金先生之召募以數百殘兵赴黃州之戰屢有勝捷之功
又赴安州之戰自當一面乃請助防曰爲人臣子不忠不孝
何以人爲今我父母早沒既不盡孝
主上蒙塵敢不竭忠裁力裁力殲討勢孤援絕終至殺身
苟非素畜忠慨之志則豈可以冒刃赴賊奮不顧
身至有此成仁也哉疾風知勁草板蕩識聖臣正
爲朴公之謂也夫人李氏聞其戰亡之報招魂返葬
托二歲幼兒於其叔曰夫旣爲國而死矣妻安得不
爲夫死乎仍以自剄嗚呼一室之內夫爲國而殉身
婦爲夫而死節凜凜孤節與山岳而並立卓
貞烈與日月而齊光昔齊杞梁植之妻夫死於戰
旣葬而曰吾何歸乎可以見吾節卽赴淄水而
死聖人許之以貞烈表之以簡策今於朴公之門復
見忠烈之而若卓越也夫以殉國之忠殉夫之
烈至今泯沒公議稱屈士林齋鬱者其有年矣
今幸特蒙
贈職旌閭之恩典我
朝樹風獎節豈復過於是哉余亦斥和尹文
正公之孫適莅此邑當奉行採實修報之舉
事自不偶而朴君廷元又袖其事蹟來以請記
顧此文拙言微屢辭不得畧舉其概云爾
丙寅仲春行縣監尹定鎮記

【현판3】

忠烈閻重修記

事有久而後伸者其伸長盖公議之在人心久而不伸則鬱必待其鬱也而發焉其其事著事著而伸必長其未伸也若將終於屈而止於掩翳而不章反伸而存者長且遠然後始知所屈者非屈而其為伸也將無窮矣余於月門忠烈之久而後伸益知顯晦有時而其不可磨滅者固自在也今朴氏之門夫為忠臣婦為烈女忠烈人道之至也何為久而後始伸也奮義投袂視一死如甘樂此其志固甚忠矣夫以其志之忠如此而其事不大著於世可謂屈矣是以謂其忠而稱其烈者自一縣而至一路既申于宗伯而上徹於 黻纁之下其為年之久且至一百七十有餘而始太伸盖人之於忠其所慕同而天之於人無久不報之忠也吾嘗觀於古昔矣方事之殷也身冒矢石血漬砂磧者有之矣但

【현판4】

孝子 文獻公蘭溪 朴先生行蹟

先生諱堧字坦夫生於

皇明太祖洪武十一年戊午卒於

英宗天順二年戊寅享年八十一 父諱天錫

行三司左尹 贈吏曹判書母月城金氏

貞夫人 先生幼失所怙而事母至孝及

遭母喪致喪葬祭痛斥流俗醜佛之事而

一遵朱子家禮之文從窆于考墓之下而

啜粥而廬墓三年既闋之後又廬三年以

效先喪追孝之道前後六年之間盡心居

憂之節而目不失父母之容顏耳不忘父

令過者傷心隕淚哀而弔之及其物換星移事隨時遷則不知為何人又況有久而不能忘者哉其久不能忘不歎其屈於前而喜其伸於後則必其有終不可屈者存而又其有卓然不隨衆而泯滅者此所以必伸而其伸也將不可以年數計也可謂盛矣今其後人以煌煌棹楔歲久而將彩之眉為文以記其事君其忠義節烈人可以永樹風聲者前有記甚詳但書其所感於中者以歸之今謁余為文者其九世孫世欽也上之十年癸酉季冬資憲大夫前任吏曹判書兼知 經筵義禁府事同知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申應朝記

掌財有司七世孫 址豊

監役九世孫 禎欽允欽

母之聲音晨夕攀號之地巖木動悲晝夜哀慕之處雉虎馴衛盖其誠孝之所感然也

建文四年壬午事聞于 上命旌其門而立碑

以表之既免喪而登泮學經義科擢 殿

策治道試而事我

太宗王

世宗王

文宗王制禮作樂而翊贊晟明之治及

端廟朝 先生第三男集賢殿翰林公諱季

愚殉義而 端宗末命之翌年 先生抱
忠而終焉

萬曆甲寅間士林追慕之餼享于永同草江書
院文元公沙溪金先生定其議而制其祝
焉我

英宗王四十七年庚寅 賜諡文獻公道德
博聞曰文質實有理曰獻吁 先生可謂
盡人道者也孝是人倫之本百行之源而
先生事親止孝而感物之異有聞當時
旌表之蹟起欽百世則爲人子而有辭於
大連之孝也移孝事君而明良際遇盡心
贊襄而禮樂晟明則爲人臣而無愧於夔
伯之功也學術純正而道尊斯門後賢定

【현판5】

教官公世系錄

密城大君諱元生初諱彥忱新羅

景明王戊寅八公子分封時以長子封於密城府
故我東朴氏之貫密陽者自此始焉至麗

中朝諱彥仁官尙書左僕射密直君是爲中祖也
二世 璋神虎衛保勝郎將三世 允淳左右
衛長史四世 赫公監察御史兵部郎中五世
而溫殿中內給事六世 純中通禮門祇候版
圖判書七世 時庸 諡文簡生員文科校理
知製教 贈左贊成大提學自密陽始居永同
八世 天錫三司左尹 贈吏曹判書九世
塹號蘭溪 諡文獻公我

世宗朝制禮作樂官至玉堂經筵春秋館成均館
事吏曹判書議政府左贊成兼兩館大提學孝
旌閭享書院十世 孟愚江西縣令十一世

議而餼祀尊慕則爲學而有得乎洛閩之
道也其學術功德既如是其純美則宜乎
曠世之下得蒙 聖明表章之美諡而有
光於千古也卽後孫心學以其實蹟屬余
爲記而其道德學問之工經綸事業之功
載在家狀不茲細錄而只記其立孝成忠
大槩要得其實行之蹟於永世遂敢繫之
以贊曰

天地之性最貴者人人何爲貴父子之仁忠孝之
天人倫之至嗚呼先生可謂兼之在家修行立
孝於親仕朝贊治禮樂得眞宜乎其道師
尊後學茲述行蹟起欽無斃

崇禎三癸丑仲夏後學完山李書九盥手而敬識之

坤豐基郡守十二世 卿興號退樂齋 燕山
朝乙卯累薦教授官不就因以退斥於雪山故
自永同始居玉果十三世 元守十四世 塹
培號一心軒平生有裹革之志當

天啟丁卯姜弘立之變募聚邑兵赴於沙溪金先
生之幕清黃二州之戰多有勝捷逮至壬申又
赴安州之戰 天將牟承祿甚奇愛之使當一
面故遂與北虜冒刃合戰竟至殉節夫人完山
李氏 守光之女也聞公戰亡招魂返葬之日
托幼兒於家叔曰孝於父母忠於國家丈夫之
當然也生居一室死歸同穴婦人之所願也卽
時自決于墓下事聞

純廟五年乙丑 贈教官旌閭

【비석전면】

贈童蒙教官密陽朴公堰培
贈令人配完山李氏之閭

【비석후면】

朝鮮仁祖朝立謹臣密陽朴公諱堰培當丁卯金虜之亂應號召使沙溪金長生翁之募兵爲其前驅擊賊清州轉戰黃州而所之立功斬馘甚多其後壬申又與明將牟承祿討胡劉興治於安州遂殉於節卽同年三月十七日也夫人完山李氏在家聞報招魂爲衣履之葬既畢以二兒授夫弟託之曰夫死忠婦獨未可死於烈乎卽日自決同月二十八日也後純祖五年由鄉儒薦聞上嘉賞公夫婦忠烈之節足爲百世之鑑公贈童蒙教官錄宣武三等勳夫人從封令人賜旌閭名其閭曰忠烈門

純祖五年 乙丑 命 旌閭

〈현판1〉

충신(忠信) 증 동몽교관 조봉대부 박언배(朴堰培) 처(妻) 열부(烈婦) 완산이씨(完山李氏)의 려(閭), 성상 즉위 5년 을축년(1805) 여름에 명령이 내려 증직되고 정려됨

〈현판2〉

성상의 즉위 5년인 을축년(1805) 여름, 박언배(朴堰培) 공의 충절과 그의 부인 이씨(李氏)의 열행(烈行)을 특별히 예조에 내려 증직과 정려의 은전을 시행하였다. 우리 성상께서 충성과 절개를 천양함이 매우 성대하도다. 박공은 문헌공(文獻公) 난계(蘭溪) 선생의 5세손이다. 천계(天啓) 정묘년(1627) 강홍립(姜弘立)의 변란을 만나자 한 자루 검으로 사계(沙溪) 김선생(金先生, 김장생(金長生))의 모집에 응하여 일어나 수백 명의 피폐한 병사로도 황주(黃州) 전투에 나아가 누차 승리하는 공로가 있었다. 또 안주(安州) 전투에 나아가 한 방면을 맡고 조방장(助防將)을 청하며 “신하가 되어 불충하고 불효하면 어찌 사람이라고 하겠는가. 지금 우리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으니 이미 효도를 다하지 못하였다. 주상께서 몽진(蒙塵)하셨으니 감히 충성과 힘을 다해 섬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형세가 외롭고 구원이 끊겨 끝내 죽었으니, 평소 충성하고 분개하는 뜻을 품지 않았다면 어찌 칼날을 무릅쓰고 적에게 나아가 제물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인(仁)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 거센 바람이 불어야 군센 풀을 알고, 난리를 만나야 훌륭한 신하를 알 수 있다고 하였으니, 바로 박공을 두고 말한 것이다.

부인 이씨는 그가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초혼(招魂)하여 반장(返葬)하고는 두 살 어린아이를 시동생에게 맡기며 “남편이 이미 나라를 위해 죽었으니 아내가 어찌 남편을 위해 죽지 않을 수

있으리오?”라고 하고 스스로 목을 찢었다. 아! 한 집에서 남편은 나라를 위해 순절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절개를 지켜 죽었으니, 능름한 절개가 산악과 나란히 높고 굳센 절개가 해와 달처럼 빛난다.

옛날 제(齊)나라 기량식(杞梁植)의 아내는 남편이 전쟁에서 죽자 장사지내고 말하기를 “내가 어디로 가서 나의 절개를 보이겠는가?”라고 하고 즉시 치수(淄水)에 뛰어들어 죽었는데, 성인이 곧은 절개로 인정하고 역사책에 기록하였다. 지금 박공의 집안에 이처럼 탁월한 충성과 절개를 다시 보게 되었다. 나라를 위해 순절한 충성과 남편을 위해 순절한 절개가 지금까지 파묻혀 있으니 공론이 원통하다고 하고 사림이 답답해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지금 다행히 특별히 증직과 정려의 은전을 입었으니, 우리나라가 풍도를 세우고 절개를 장려함이 어찌 이보다 더하겠는가? 나 또한 척화신(斥和臣) 윤문정공(尹文正公, 윤황(尹煌))의 후손으로서 마침 이 고을에 부임하여 실상을 수집하여 보고하는 일을 받들어 시행하게 되었으니, 우연한 일이 아니다. 박정원(朴廷元) 군이 또 그 사적을 소매에 넣어 와서 기문을 청하였다. 내가 글이 서툰고 말이 미약하여 누차 사양하였으나 그러지 못해 그 대략을 간략히 거론한다.

병인년(1806) 2월, 행 현감 윤정진(尹定鎭)이 기록하다.

현판 3 <충신 열녀 정려 중수기>

일은 오랜 뒤에야 알려지는 경우가 있으니, 그 알려짐이 오래간다. 대개 사람들의 마음에 공론이 있어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반드시 답답해지기를 기다린 뒤에야 발현되어 그 일이 드러나게 되며, 그 일이 드러나면 반드시 오랫동안 알려진다.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을 적에는 장차 굽혀진 채로 끝나고 가려져 드러나지 못하고 말 것 같지만, 도리어 길고 멀리 알려지고 남은 뒤에야 비로소 그동안 굽혀진 것이 굽혀진 것이 아니고, 알려진 것이 장차 무궁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월문(月門)의 충성과 절개가 오랜 뒤에야 알려지는 것을 보니, 모든 일은 드러나고 감추어지는 때가 있으며, 사라지지 않는 것이 본디 있다는 것을 더욱 잘 알겠다.

지금 박씨 가문에서 남편은 충신이 되고 부인은 열녀가 되었다. 충성과 절개는 사람의 지극한 도리인데 어찌하여 오랜 뒤에야 비로소 알려지는가? 의리에 격분하여 소매를 떨치고 한 번 죽기를 즐겨 달게 여겼으니, 이는 그 뜻이 참으로 몹시 충성스럽다. 그 뜻이 충성스럽기가 이와 같은데도 그 일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니 굽혀졌다고 할 만하다. 이 때문에 그 충성을 말하고 그 절개를 말하는 사람이 한 고을에서 한 도에 이르고, 예조판서에게 알리고 위로 성상께 알렸다. 오래되기가 170여 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널리 알려졌다.

대개 사람이 충에 대해서 사모하기는 같고, 하늘이 사람에게 오랫동안 보답하지 않는 충성은 없다. 내가 옛날의 일을 보니 일이 한창일 때는 몸소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모래밭에 피를 적시는 자가 있었다. 다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조문하게 만들 뿐이었다. 세월이 지나 시사가 바뀌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를 것이니, 하물며 오랫동안 잊지 않을 수 있겠

는가? 오래되어도 잊지 않는다면 앞서 굽혀진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뒤에 알려진 것을 기뻐해야 하니, 필시 끝내 굽혀지지 않는 점이 있을 것이고, 또 탁월하여 남들을 따라 사라지지 않는 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알려지되 알려지는 것이 장차 헛수로 계산할 수 없는 이유이니, 성대하다고 하겠다.

지금 그 후손이 찬란한 정려문이 해가 오래됨에 문미를 채색하고 글을 지어서 임금을 섬기며 충성스럽고 절개를 세운 사람을 기록하여 영원히 명성을 세우고자 한다. 이전에 몹시 자세한 기문이 있으니, 다만 마음 속에 느낀 바를 써서 돌려준다. 지금 나에게 글을 청한 사람은 9세손 세흠(世愼)이다.

성상 10년 계유(1873) 12월에 자헌대부 전임 이조판서 겸 지경연의금부사 동지춘추관성균관사 홍문관제학 오위도총부도총관 신응조(申應朝)가 기록하다.

장재유사(掌財有司)는 7세손 지풍(址豐)이, 감역(監役)은 9세손 정흠(禎欽), 율흠(允欽)이 맡았다.

현판 4 <효자(孝子) 문헌공(文獻公) 난계(蘭溪) 박선생(朴先生) 행적>

선생의 휘(諱)는 연(堧)이고, 자는 탄부(坦夫)이다. 명나라 태조 홍무(洪武) 11년 무오(1378)에 태어나 영종(英宗) 천순(天順) 2년 무인(1458)에 돌아가셨으니 향년 81세이다. 부친의 휘는 천석(天錫)으로, 행 삼사좌윤을 지내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모친 월성김씨(月城金氏)는 정부인(貞夫人)이다.

선생은 어려서 부친을 잃고 지극한 효성으로 모친을 섬겼다. 모친상을 당하자 상례, 장례, 제례에 있어 풍속이 부처에게 기도하는 일을 통렬히 배척하고 한결같이 『주자가례(朱子家禮)』의 글을 따랐으며, 부친의 묘소 아래에 장사지내고 죽만 먹으며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상을 마친 뒤 또 3년 동안 시묘살이하였으니, 앞서 당한 부친상에 뒤늦게 효도를 다하는 방도를 본받은 것이다. 전후 6년 동안 상을 치르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 눈으로는 부모의 얼굴을 잊지 않고 귀로는 부모의 목소리를 잊지 않았다. 아침저녁으로 통곡하는 곳에서 바위와 나무도 슬퍼하였고, 밤낮으로 슬피 사모하는 곳에서 꿩과 범도 길들여져 호위하였으니, 대개 그 효성이 감동시켜 그러한 것이다.

건문(建文) 4년 임오년(1402), 일이 성상에게 알려지자 정려문을 내리고 비석을 세워 표시하라고 명하였다. 이미 상을 마친 뒤에는 성균관에 들어가 경의과(經義科)를 공부하여 다스리는 도를 묻는 책문을 써서 전시(殿試)에 합격하고 우리 태종, 세종, 문종을 섬기며 예악을 제정하여 밝은 다스림을 도왔다. 단종조에 와서 선생의 셋째 아들 집현전 한림공 휘 계우(季愚)가 순절하고, 단종이 돌아가신 이듬해 선생도 충성을 품고 돌아가셨다.

만력(萬曆) 갑인년(1614), 사림이 추모하여 영동(永同) 초강서원(草江書院)에 제향하였으니, 문원공(文元公) 사계(沙溪) 김선생(金先生)이 그 논의를 정하고 축문(祝文)을 지었다. 우리 영종(英

宗) 47년 경인(1770), 문헌공(文獻公)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았으니, 도덕이 있고 견문이 넓은 것을 문(文)이라 하고, 지혜롭고 질박하며 이치가 있는 것을 헌(獻)이라 한다.

아! 선생은 사람의 도를 다했다고 할 수 있다. 효는 인륜의 근본이며 모든 행실의 근원인데, 선생은 아버지를 섬길 적에 효를 다하여 사물을 감동시킨 기이한 일이 알려져 당시에 정려문이 세워진 자취가 먼 후세 사람들에게 공경을 일으키니, 자식이 되어서는 대련(大連)의 효성⁴⁰에 할 말이 있다. 효도를 옮겨 임금을 섬기자 명철한 임금과 현명한 신하가 만나 마음을 다해 도와 예악이 찬란하였으니, 신하가 되어서는 기(夔)와 백이(伯夷)의 공로⁴¹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학술이 순정하여 유학의 도를 높였기에 후대의 현인이 논의를 정하고 제향하며 존경하였으니, 학문을 함에 있어서는 낙민(洛閩)의 도를 터득한 것이다. 그 학술과 공덕이 이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우니, 먼 훗날에 성상이 표창하는 아름다운 시호를 받아 영원히 빛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후손 심학(心學)이 그 실제의 자취를 가지고 나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 그 도덕과 학문의 공부, 경륜과 사업의 공로는 가장(家狀)에 실려 있으니 여기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단지 효도하고 충성한 대략만 기록하여 그 실제의 자취를 영원히 전하고자 한다. 마침내 감히 찬(贊)을 덧붙인다.

天地之性	하늘과 땅의 본성 가운데,
最貴者人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네.
人何爲貴	사람이 어째서 귀한가,
父子之仁	부자간의 인(仁) 때문이네.
忠孝之天	충성하고 효도하는 천성은,
人倫之至	지극한 인륜이라네.
嗚呼先生	아, 선생께서는,
可謂兼之	겸비하였다고 하겠네.
在家修行	집에서 수행할 적에는,
立孝於親	아버이에게 효도하였고,
仕朝贊治	조정에서 벼슬하여 다스림 도울 때는,
禮樂得眞	예악이 참되게 되었네.
宜乎其道	그 도가 마땅하니,
師尊後學	후학이 스승으로 존경하네.
茲述行蹟	이에 행적을 서술하니,
起欽無斁	끝없는 공경을 일으키네.

40 대련(大連)의 효성: 대련은 『예기(禮記)』에 나오는 사람으로, 부모상을 잘 치렀다.

41 기(夔)와 백이(伯夷)의 공로: 기와 백이는 모두 순(舜)임금 때의 명신이다.

승정(崇禎) 세 번째 계축년(1793) 5월, 후학(後學) 완산(完山) 이서구(李書九)가 손을 씻고 삼가 기록한다.

현판 5 <교관공(敎官公) 세계록(世系錄)>

밀성대군(密城大君) 휘(諱) 원생(元生)의 초명은 언침(彦忱)이다. 신라(新羅) 경명왕(景明王) 무인년(918), 여덟 공자(公子)가 나누어 봉해질 때 장남으로 밀성부(密城府)에 봉해졌다. 그러므로 밀양(密陽)을 본관으로 삼는 우리나라 박씨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고려 때 와서 휘 언인(彦仁)은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를 지내고 밀직군(密直君)에 봉해졌으니, 이분이 중조(中祖)이다.

2세 장(璋)은 신호위보승낭장(神虎衛保勝郎將)을 지냈고, 3세 윤순(允淳)은 좌우위장사(左右衛長史)를 지냈으며, 4세 혁공(赫公)은 감찰어사(監察御史) 병부낭중(兵部郎中)을 지냈고, 5세 이온(而溫)은 전중내급사(殿中內給事)를 지냈으며, 6세 순중(純中)은 통례문지후(通禮門祗候)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냈고, 7세 시용(時庸)은 시호가 문간(文簡)이며 생원시와 문과에 합격하여 교리, 지제교를 지내고 좌찬성, 대제학에 추증되었다. 밀양에서 비로소 영동(永同)으로 이사하였다.

8세 천석(天錫)은 삼사 좌윤을 지내고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9세 연(堧)은 호가 난계(蘭溪)이며 시호는 문헌공(文獻公)으로, 우리 세종조에 예악(禮樂)을 제정하였다. 관직은 옥당경연, 춘추관성균관사 이조판서, 의정부좌찬성 겸 양관대제학을 지내고, 효도로 정려(旌閭)를 받았으며 서원(書院)에 제향되었다. 10세 맹우(孟愚)는 강서현령(江西縣令)을 지냈고, 11세 곤(坤)은 풍기군수(豊基郡守)를 지냈으며, 12세 경흥(卿興)은 호가 퇴락재(退樂齋)이며 연산군 을묘년(1495)에 누차 교수관에 천거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아 그것으로 인해 설산(雪山)으로 쫓겨났다. 때문에 영동에서 비로소 옥과(玉果)에 거주하게 되었다.

13세는 원수(元守)이고, 14세는 언배(堰培)로, 호는 일심헌(一心軒)이다. 평생 전장에서 죽으려는 뜻을 품고 천계(天啓) 정묘년(1627) 강홍립(姜弘立)이 변란을 일으키자 고을 병사를 모아 사계(沙溪) 김선생의 막하에 나아갔고, 청주(淸州)와 황주(黃州)의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임신년(1632)에 와서 또 안주(安州) 전투에 나아가니, 명나라 장수 모승록(牟承祿)이 몹시 기특하게 여기고 아껴 한 방면을 맡게 하였다. 그러므로 마침내 북쪽 오랑캐와 칼날을 무릅쓰고 싸우다가 마침내 순절하였다.

부인 완산이씨(完山李氏)는 수광(守光)의 딸이다. 공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초혼(招魂)하여 반장(返葬)하는 날, 어린아이를 시동생에게 맡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장부의 당연한 일입니다. 살아서는 한 방에서 지내고 죽어서는 같은 무덤에 묻히는 것이 부인의 소원입니다.”라고 하고, 즉시 묘소 아래에서 자결하였다. 일이 알려지자 순조 5년 을축(1805)에 교관으로 추증하고 정려문을 내렸다.

비석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증직된 밀양(密陽) 박언배(朴堰培)와 영인(令人)에 증직된 배(配) 완산이씨(完山李氏)의 정려(旌閭)>

조선 인조(仁祖) 때 절개를 위해 죽은 신하 밀양(密陽) 박언배(朴堰培) 공은 정묘호란(1627)을 당하자 호소사(號召使)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선생의 군사 모집에 호응하여 그 선봉이 되었다. 청주(淸州)에서 적을 물리치고 이어서 황주(黃州)에서 싸워 가는 곳마다 공을 세우고 참수한 적이 매우 많았다. 그 후 임신년(1632)에 또 명(明)나라 장군 모승록(毛承祿)과 함께 오랑캐군 유흥치(劉興治)를 안주(安州)에서 토벌하고 이어서 절개를 지켜 순국하니, 바로 같은 해 3월 17일이었다.

부인 완산이씨(完山李氏)는 집에서 이 소식을 듣고, 공의 혼백을 불러 옷과 신발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두 아이를 시동생에게 부탁하면서, “남편이 충성으로 죽었는데, 부인이 어찌 홀로 열녀로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고 그날로 자결하니, 같은 달 28일이었다.

그 후 순조(純祖) 5년(1805), 고을 선비들이 이 사실을 천거하여 아뢰니, 임금께서 공 부부의 충열의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백세토록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하여 공에게는 동몽교관을 추증하고, 선무공신(宣武功臣) 3등에 녹훈하였다. 부인에게는 종부직에 따라서 영인(令人)을 봉작하였다. 정려문을 하사하고 그 문의 이름을 ‘충렬문(忠烈門)’이라 하였다.

순조(純祖) 5년 을축년에 정려문을 세우도록 명하였다.

16. 입면 약천리 함풍이씨(咸豐李氏) 효열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약천리 515-8 • 제작연대 1882년(壬午)
- 크 기 전체높이 160, 비신높이 39, 너비 62, 두께 21

임오년(1882)에 세운 명릉참봉 김종순(金種順)의 처 숙인(淑人) 함풍이씨(咸豐李氏)의 효열을 기린 정려비는 입면 약천리 도로변 진주강씨통계공파세천지입구(晉州姜氏通溪公派世阡地入口) 비 왼쪽에 위치한다. 두 개의 석주를 세우고 석주 사이에 판석을 끼워 글을 새긴 형식이다. 비문은 14행 11자이다.

【전면】

明陵參奉慶」州金公種順」妻淑人咸豐」李氏孝烈閭

【후면】

淑人咸豐李氏士人和翊女

明陵參奉慶州金種順妻貞
淑端莊幼而事親知孝及歸
善養舅姑能執婦道年二十
三遭夫喪卽欲下從姑急救
之未遂其志姑氏病亟斫指
注口延數日命及喪廬墓三
年鄉里文章咸稱孝烈事載
邑誌與明倫錄云

壬午十月日立

〈명릉참봉 경주(慶州) 김종순(金種順)의 처 숙인(淑人) 함풍이씨(咸豐李氏)의 효열려(孝烈閭)〉

숙인(淑人) 함풍이씨(咸豐李氏)는 사인(士人) 화익(和翊)의 딸로, 명릉참봉(明陵參奉)에 제수된 경주(慶州) 김종순(金種順)의 아내이다. 타고난 자질이 정숙하고 단정하여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섬김에 있어서 효도할 줄 알았으며, 시집가서는 시부모를 잘 봉양하며 부인의 도리를 잘 행하였다. 나이 23세에 남편의 상을 당하여 즉시 남편을 따라 죽고자 하였는데, 시어머니가 급히 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시어머니의 병환이 위독하였을 때 손가락을 베어 입에 피를 흘려 넣어 며칠 동안 연명시켰고, 상을 당하여서는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였다. 향리에서 교대로 천장(薦狀)을 올리고 모두 효열(孝烈)이라고 칭송하였다. 일이 읍지(邑誌)와 명륜록(明倫錄)에 실려 있다고 한다.

임오년(1882) 10월에 세우다.

17. 죽곡면 동계리 진주강씨(晉州姜氏) 효열복호문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동계리 599 • 제작연대 1859년(己未)
- 크 기 1×1칸, 맞배지붕

1859년에 세운 진주강씨(晉州姜氏) 효열복호문(孝烈復戶門)은 동계마을회관에서 우측으로 200여미터 거리에 위치한다. 돌담장을 두르고 입구는 철문을 달아놓았다. 건물 앞면 평방에 ‘孝烈復戶門’이라는 정려 이름을 음각으로 새긴 편액을 걸어놓았고, 건물 안의 평방에도 ‘孝烈復戶門’이라는 정려 이름을 음각으로 새긴 편액을 걸어놓았다. ‘孝烈復戶門’이라는 정려 이름 아래에 아들과 복호를 명받은 과정과 명을 소청한 연대, 명받은 연대, 글씨를 쓴 연대까지도 기록해 놓았다. ‘復戶’는 조선 시대, 충신, 효자, 열녀 등에게 부역과 조세 따위를 일부 면제해 주던 일을 말한다. 내용은 이기의(李基義)와 그의 처 진주강씨(晉州姜氏)가 함께 효열(孝烈)의 행실이 있어서 1858년에 상언을 올리고 1859년에 복호의 명을 받아 1863년에 손자 이종곤이 글을 썼다는 것이다. 글씨는 22행 10자이다.

【편액】 孝烈復戶門

【현판】

孝烈復戶門

長子斗馨」錫馨」時馨」益馨

璿派臨瀛」大君後孫

李」基義與其妻」晉州」姜氏俱有孝」烈之行以並」著褒揚之意」戊午八月日

惟我」聖上仁陵行幸時上言都」承旨李裕元入」啓下禮曹

己未七月日」禮曹判書鄭基世回」啓蒙 允 命復戶

癸亥同治二年十二月日孫」鍾崑謹書

〈효열복호문〉

선파(璿派) 임영대군(臨瀛大君, 세종 4자 李璆)의 후손 이기의(李基義)와 그의 처 진주강씨(晉州姜氏)는 모두 효열(孝烈)의 행실이 있어서 함께 드러내어 포양(褒揚)하려는 뜻으로 무오년(1858) 8월에 우리 성상(철종)께서 인릉(仁陵, 순조와 그의 비 순원왕후 김씨의 능)에 행차하실 때 상언(上言)하였고, 도승지 이유원(李裕元)이 입계하여 임금이 예조에 내려서 기미년(1859) 7월에 예조판서 정기세(鄭基世)가 회계(回啓)함으로써 임금의 윤허를 입고 복호(復戶)를 명하게 되었다.

동치 2년 계해년(1863) 12월에, 손자 종곤(鍾崑)이 삼가 쓰다.

장자(長子) 두형(斗馨), 석형(錫馨), 시형(時馨), 익형(益馨)

18. 죽곡면 태평리 신흥구(申泓求) 정려각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태평리 128-9(하죽) • 제작연대 1883년(癸未)
- 크 기 2×1칸, 맞배지붕

신흥구(申泓求) 정려각은 죽곡면에서 하죽마을 앞을 지나 봉정리 쪽으로 조금만 가다보면 도로가의 언덕 위에 위태롭게 서 있다. 내부에는 문미에 2개의 붉은색 현판이 걸려 있는데, 경진년(1880)에 통훈대부 사헌부감찰에 증직되고 계미년(1883)에 정려가 명해졌다는 정려기와 계미년 7월 8일에 현감 정진묵(鄭晉默)⁴²이 쓴 정려기 현판이 그것이다.

신흥구(申泓求)의 자는 군서(君瑞),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천성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였다. 고기를 잡고 나무를 하면서도 어미를 봉양하는 데 맛있는 음식이 모자라지 않게 하였다.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 약과 음식을 드리는 일을 다른 식솔들에게 맡기지 않았고, 상을 당하였을 때도 지극히 슬퍼하였으며, 3년 동안 비린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나이가 든 후에 재산은 증식되었으나 부모를 생각하여 평생 동안 비싼 음식을 맛보지 않았고, 비단옷을 걸치지 않았다. 자식을 가르치는 데는 소학과 예경으로 하여 공양의 도를 알게 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칭하기를 더할 나위 없는

⁴² 정진묵(鄭晉默): 신사년(1881)에 곡성현감에 부임하여 계미년(1883)에 임기가 만료되어 돌아갔다.

성효(誠孝)라고 하였다. 경진년(1880)에 통훈대부 사헌부감찰에 증직되고 계미년(1883)에 정려가 명해졌다.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이 행장을 썼다.

【현판1】

孝子

贈通訓大夫司憲府監察申泓求之閭
上之十八年庚辰贈職二十一年癸未命旌

【현판2】

申公旌閭記

縣之南一舍之地桐山之北竹溪之上有一閭焉故孝子贈監察申公泓求之閭也余因雩祀行嘗式而過之覽形勝察謠俗山則扶輿而磅礴水則滌回而甘冽孝子於是居焉事父母孝自在齠年如得一味則必懷而進之家素貧寒使體之衣悅口之味未嘗不繼惋愉之容色承順其志意常切孺子之慕時作嬰兒之戲早失所怙執喪之節能遵禮節年五十有五丁母夫人憂攀號擗踊如不欲生襄奉之節務盡誠敬結廬墓側雖析寒盛暑衰絰之服不脫於身哭泣之聲不絕於口三載星霜不爲不久一味腥羶不食不服誠孝之極物類感焉而有猛虎之來衛神祇格焉而有清泉之湧出見者莫不感悅聞者莫不嗟異求之於今無與爲儔則必古之淮南之董生耶且所居之里隣近桐山而與董生之居相符焉何地名之相同而行義之相似耶方今 聖明在上苟有一藝一行無

不畢用而至於 賜贈之典無遠而不屆無微而或遺庚辰五月日贈公監察癸未正月日又命棹楔焉樹風聲表宅里之典吁其盛矣嗚呼夫孝者百行之原也人苟有秉彝則皆知事親而事親之道必以誠身爲主誠身之道必待乎明善講磨之工傳曰魯無君子者斯焉取斯斯人也不取於魯君子則魯君子必取於斯人矣然則明善之功豈偶然乎哉孝子系出高靈 世襲簪纓寶文閣大提學醇隱公諱 德隣其遠祖也府使諱碩其十四世祖也判書諱 汝楨其九世祖也靈芝醴泉有源有根信不誣也孝子之子桂休服膺庭訓事親至孝桂休之子聖雨容止端正文辭日就克趾其美孝子不食之報現於今者如是故并書之以爲鄉人之勸焉

癸未七月初八日知縣東萊人鄭晉默記

〈신공(申公) 정려기(旌閭記)〉

현(縣)의 남쪽 30리 떨어진 곳, 동산(桐山)의 북쪽 죽계(竹溪) 가에 정려 하나가 있으니, 고(故) 효자로 감찰에 증직된 신흥구(申泓求)의 정려이다. 내가 기우제를 지내러 가는 길에 이곳을 지나며 공경한 적이 있다. 형세를 보고 풍속을 살피니 산의 기세가 크고 넓으며 물줄기는 구불구불하며 달고 시원하다. 효자는 그곳에 거주하면서 부모를 효성스럽게 섬겼다. 어린 시절부터 맛있는 음식을 하나라도 얻으면 반드시 품어와서 부모에게 바쳤다. 집안이 평소 가난하였으나 몸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옷과 입을 즐겁게 하는 음식이 끊인 적이 없었다. 온화한 용모로 부모의 뜻을 따랐으며, 항상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사모하여 이따금 아이처럼 재롱을 피우기도 했다.

일찍 부친을 잃었는데 상을 치르는 일이 예절을 잘 따를 수 있었다. 55세에 모친상을 당하자 통곡하며 발을 구르며 더이상 살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장사지낼 적에 정성과 공경을 다하고, 묘소 옆에 여막을 짓고 아무리 춥거나 더워도 상복을 벗지 않았고, 통곡하는 소리가 입에서 끊이지 않았다. 3년의 세월이 길지 않은 것이 아닌데 고기를 먹지도 털옷을 입지도 않았다. 효성이 지극함에 사물이 감동하여 사나운 범이 와서 지키고, 천지신명이 감동하여 깨끗한 샘물이 솟아났다. 보는 사람마다 감동하지 않는 자가 없고, 듣는 사람마다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하여도 이와 같은 이가 없으니, 필시 회남(淮南)의 동생(董生)⁴³일 것이다. 게다가 거주하는 곳이 동산(桐山) 인근이니, 동생이 살았던 곳과 부합한다. 어찌하여 지명도 같고 행동도 비슷하단 말인가? 지금 밝은 성상이 위에 있으니 한 가지 재주와 덕행이라도 있으면 쓰지 않은 이가 없다. 추증하는 은전으로 말하자면 아무리 멀더라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아무리 작더라도 빠뜨리지 않는다. 경진년(1880) 5월, 공을 감찰에 추증하고, 계미년(1883) 1월, 또 정려문을 내리라고 명하여 풍교를 세우고 집을 표시하는 은전이 성대하였다.

아! 효도라는 것은 모든 행실의 근본이다. 사람이 진실로 타고난 본성이 있다면 모두 부모를 섬길 줄 안다. 하지만 부모를 섬기는 도리는 반드시 자신의 몸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자신의 몸을 성실하게 하는 도리는 반드시 선을 밝히고 강마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논어』에서 말하기를 “노(魯)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달리 어디에서 이러한 덕을 본받았겠는가.”⁴⁴라고 하였으니, 이 사람이 노나라 군자를 본받지 않았다면 노나라 군자가 반드시 이 사람을 본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선을 밝힌 공로가 어찌 우연이겠는가?

효자의 계보는 고령(高靈)에서 나왔으니, 대대로 관직을 세습하여 보문각 대제학 순은공(醇隱公) 덕린(德隣)이 그의 먼 조상이다. 부사(府使) 석(碩)은 14대조이고, 판서(判書) 여정(汝楨)은 9대조이다. 영지(靈芝)는 뿌리가 있고 예천(醴泉)은 근원이 있다는 말⁴⁵이 참으로 거짓이 아니다. 효자의 아들 계휴(桂休)는 가정 교육을 잘 받아 부모를 지극히 효성스럽게 섬겼고, 계휴의 아들 성우(聖雨)는 용모가 단정하고 글재주가 날로 좋아져 그 미덕을 계승하였다. 효자의 불식지보(不食之報, 부조의 음덕으로 자손이 잘 되는 보응)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으므로 함께 기록하여 고을 사람들을 권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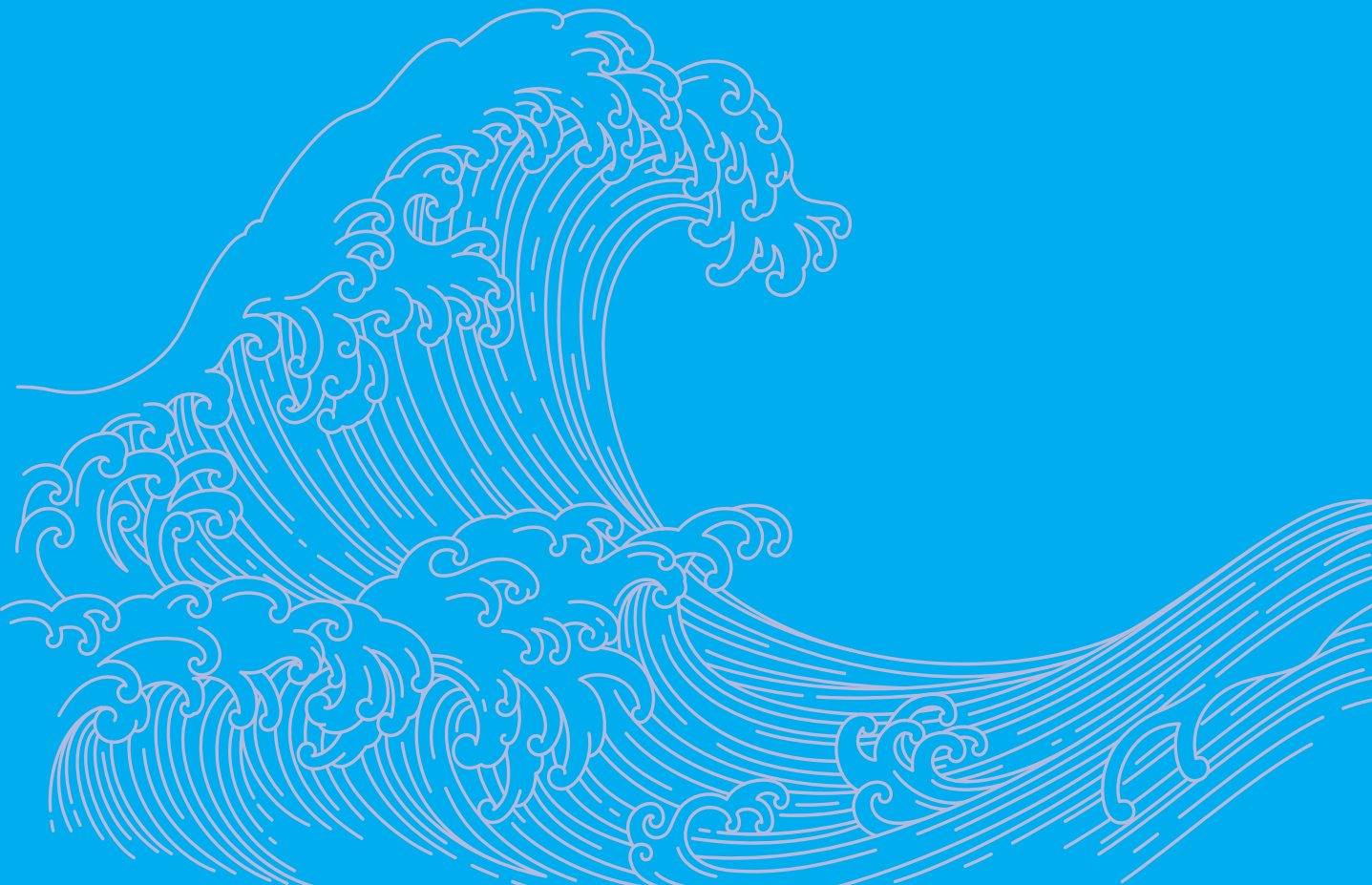
계미년(1883) 7월 8일, 지현(知縣, 현감) 동래인(東萊人) 정진묵(鄭晉默)이 쓰다.

43 회남(淮南)의 동생(董生) : 당(唐)나라 사람 동소남(董召南)을 말한다. 동백산(桐柏山)에 은거하여 부모를 잘 봉양하였다.

44 노(魯)나라에……본받았겠는가 : 공자가 제자 복자천(宓子賤)을 칭찬하며 한 말로, 노나라에 훌륭한 사람이 많았기에 복자천과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신흥구가 거주하는 곳에 훌륭한 인물이 있었을 것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45 영지(靈芝)는……말 : 영지는 불로장생하는 약초이고 예천은 단물이 솟는 샘이다. 훌륭한 자손에게는 훌륭한 조상이 있다는 뜻이다.

IV.기타 금석문



1. 고달면 고달리 심희(沈澮) 유허비



- 소재지 곡성군 고달면 고달리 785-8(고달) • 제작연대 1909년(大韓隆熙三年己酉)
- 크 기 전체높이 199, 비신높이 146, 너비 65.5, 두께 20

1909년에 세운 심희(沈澮, 1418~1493)의 유허비는 고달리 고달마을 정자에서 고달천을 건너 왼편 비각 속에 있다. 비각은 사방 1칸,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고, 비각 주위로 사주문과 토석담장이 있다. 비석은 사각 비좌 위에 비신과 개석을 올렸고 글씨에 주칠한 흔적이 남아있다. 정면에 표제를, 후면에 비문과 찬서자, 건립시기, 건립에 관여한 사람들을 순서대로 썼는데, 명단은 우측면으로 이어진다. 비문은 후손 심건택(沈健澤)이 짓고, 심의한(沈宜澮)이 글씨를 썼다. 비각 안에 걸린 상량문 현판에 의하면 비각은 1959년(己亥)에 건립한 것이다.

심희는 세종의 장인 영의정 심온(沈溫)과 영돈녕부사 안천보(安天保)의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며, 세종의 비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동생이다. 1418년 아버지가 태종에게 사사되어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다 세종 말년에 아버지가 신원됨에 따라 문종 때 벼슬길에 올라 경기도 관찰사, 좌의정, 영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비문은 15행 30자이다.

【전면】

故朝鮮領議政恭肅」沈公澮之遺墟

【후면】

此我先祖領議政恭肅公遺墟也湖南之帶方治南四十里屯山下有虎樂山山內畊山釣水嘯風咏月之趣不讓於古之輞川盤谷而進則廊廟之望退則山水之樂仍寓于此名洞曰農隱其深趣存焉而不久年承 召上京事載龍城誌而其後七世孫司僕寺正公諱纘又隨先庄下來子孫仍世居者居然屢百禩于茲京鄉雲仍以杖屨之所寓羹墻之慕因其墟表其實迄未之違也向年同裔僉宗發簡議事亦未有克誠極慨恨而又闡議斯速竣役其於追先啓後之道尤有光焉

大韓隆熙三年己酉四月 日 後孫資憲大夫知敦寧院事健澤謹識

宜澮謹書

監助嘉善大夫能魯 勅建通訓大夫馨澤 監役有司宜瑞

嘉善大夫宜坤

宜黈

宜憲

【우면】

宜行 宜河 宜辰 周澤

宜鉉 宜南 宜鳳 世澤 相淇

〈고 조선 영의정 공숙공 심희(沈澮)의 유허〉

이는 우리 선조 영의정 공숙공(恭肅公)의 유허이다. 호남(湖南) 대방(帶方, 남원)의 치소 남쪽 40리 둔산(屯山) 아래에 호락산(虎樂山)이 있으니, 산 안에서는 산을 개간하여 농사짓고 물에서 낚시하며 풍월을 읊조리는 아취가 옛날 망천(輞川)⁴⁶과 반곡(盤谷)⁴⁷에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아가면 낭묘(廊廟)의 명망이 있고, 물러나면 산수의 즐거움이 있음에 그대로 여기에 살며 골짜기를 농은(農隱)이라 명명하였다. 그 깊은 아취가 남아 있지만 오래지 않아 소명을 받고 상경하였는데, 일이 『용성지(龍城誌)』⁴⁸에 실려 있다. 그런데 그 뒤 7세손인 사복시정(司僕寺正) 찬(纘) 공이 또 선장

46 망천(輞川):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의 별장이 있던 곳이다. 왕유가 망천에 별장을 짓고 주위의 아름다운 경관 20곳을 골라 각기 이름을 붙인 다음 시를 읊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망천이십경(輞川二十景)이라고 불렀다. 『王右丞集 卷14』

47 반곡(盤谷): 태항산(太行山) 남쪽 제원현(濟源縣)에 있는 지명인데, 이곳은 골짜기가 깊고 산세(山勢)가 험준해서 은자(隱者)가 살기에 알맞은 곳이라고 한다. 당(唐)나라 때 문신 이원(李愿)이 일찍이 벼슬을 사직하고 물러가 이곳에 은거할 적에 한유(韓愈)가 그를 송별하는 뜻으로 <반곡으로 돌아가는 이원을 보내는 서문[送李愿歸盤谷序]>을 지어 그곳의 경관과 부귀공명의 무상함 등을 말하였다. 『昌黎先生集 卷19 送李愿歸盤谷序』

48 용성지(龍城誌): 조선 후기 이도(李燾)와 최여천(崔與天)이 편찬한 전라도 남원읍지의 증보판이다. 용성은 남



(先庄)을 따라 내려왔고, 자손들이 그대로 세거한 것이 어느덧 지금까지 수백 년이 되었다.

경향(京鄕)의 후손들이 선조께서 거니시던 곳이라 하여 갱장(羹牆)⁴⁹의 사모하는 마음을 붙이며 그 유허지로 인하여 그 실재를 표하는 것을 아직까지 겨를을 내지 못하였다. 지난번에 같은 후손 중 인들이 간통(簡通)을 보내 일을 의논하였으나 또한 정성을 이루지 못하여 지극히 개탄스럽고 한스러웠는데, 또 논의를 열어 이렇게 신속하게 공사를 끝냈으니, 선조를 추모하고 후세를 열어주는 도리에 더욱 빛남이 있다.

대한(大韓) 융희(隆熙) 3년 기유년(1909) 4월 일, 후손 자헌대부(資憲大夫) 지돈령원사(知敦寧院事) 건택(健澤)이 삼가 짓고, 의한(宜澣)이 삼가 쓰다.

감조(監助): 가선대부(嘉善大夫) 능로(能魯), 가선대부(嘉善大夫) 의곤(宜坤).

창건(勗建): 통훈대부(通訓大夫) 형택(馨澤), 의묵(宜默).

감역유사(監役有司): 의서(宜瑞), 의헌(宜憲), 의행(宜行), 의현(宜鉉), 의하(宜河), 의남(宜南), 의진(宜辰), 의봉(宜鳳), 주택(周澤), 세택(世澤), 상기(相淇).

원의 옛 이름이다. 1699년에 이도와 최여천이 편찬한 『용성지』에 보유(補遺)편을 추가하여 1725년 이후에 다시 편찬한 것이다. 고달면은 남원부에 속해 있었다.

49 갱장(羹牆): 국그릇과 담장이라는 뜻으로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요(堯) 임금이 생전에 허름한 궁실에서 거처하고 음식도 조출하였으므로, 요임금이 죽은 뒤에 순(舜)이 3년 동안이나 사모하면서 “앞으면 담장에 요임금이 나타나고, 밥상을 대하면 국그릇에 요임금이 보였다.”라고 하였다. 『後漢書 李固列傳』

2. 목사동면 구룡리 신승겸(申崇謙) 유허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구룡리 180 • 제작연대 1897년(丁酉)
- 크 기 전체높이 190, 비신높이 132, 너비 51.5, 두께 15.5

1897년에 세운 신승겸(申崇謙, ?~927)의 유허비는 구룡리 용산재(龍山齋) 뒤 비각 내에 있는 2개의 비중 오른쪽의 것이다. 비석은 사각 비좌에 비신을 세우고 가침석을 얹었다. 비문은 1897년에 후손 신기선(申箕善, 1851~1909)이 짓고, 후손 신석희(申奭熙)가 글씨를 썼다.

신승겸은 초명이 능산(能山), 시호는 장절(壯節)로, 평산신씨(平山申氏)의 시조이다. 선대(先代)는 곡성사람이다. 후에 태조가 평산(平山)이란 본관을 하사했다. 927년 9월 고려 태조가 견훤과 더불어 대구 공산(公山) 동수전투(桐藪戰鬪)에서 후백제군에 포위되었을 때 위급한 태조를 구하고 김낙(金樂)과 함께 전사하였다. 1589년에 천덕산(天德山) 아래에 사우를 건립하여 향사(享祀)하였는데, 숙종(肅宗) 1695년에 덕양사(德陽祠)라는 사액(賜額)이 내려졌다. 또 향인들이 성황사(城隍祠)를 세워 주신(主神)으로 삼았다. 비문은 22행 43자이다.

【전면】

高麗太師壯節申公遺墟碑

【좌면】

湖南谷城治之南四十里華藏山之東兩江之汭有山聳起而盤舞宛如飛來者曰飛來之山山之下有九龍之里寔我 始祖麗太師壯節公生長之墟也有申公之井將軍之磴讀書之堂馳馬之臺故跡歷然可指而謠俗多述其靈異焉噫 公之精忠大勳震耀日星開勝朝一統之業爲東方節烈之倡所以

【후면】

朝家之崇報士林之景慕愈久而愈勤凡遺蹟之所在輒俎豆以享之碑刻以識之而至於嶽降之地則乃山川

精靈之所鍾以生文武藝業之所寓以成奚但擬於東陽落雁之區桐敷立懂之處而已且 公之靈雖如

水在地無不之而其眷戀彷徨必於此而不於彼決矣而迄未有以標之其於神理人情何如也德

孫輔國樞判書錫禧就故里遺墟買田畝林麓禁其樵牧而經紀宗財且議伐石立表忽

一夜有大石突起於墟傍田間長丈餘人異之咸以爲天相神助適因德院撤後壇碣

之役力遂絀而未果焉越三十年而至丁酉秋宗議協同始克成碑而立之一碑之立其

亦有時耶何未遑於千載而奄成於一朝也是碑也豈直爲吾宗之所瞻依凡官紳士民之

過此者有不肅然而起敬優然而興感不自知其頑廉而懦立者哉銘曰

於奕我 祖天挺入豪功蓋三韓節干九霄餘慶綿綿子孫千億神威赫赫伯仲關岳

睠茲龍里湯陰解良馳馬有臺讀書有堂渾渾長江資 公韜畧崔崔華山像

公氣魄靈跡惚恍愀然如見二院既撤白祠云遠于何寓慕惟茲桑梓有蹶者石神其詔

【우면】

止龜頭穹崇爰示不朽千載在前百世在後永言瞻想朝夕墻羹禮反其本樂樂其所
自生

光武元年丁酉十月 立

後孫崇政大夫學部大臣箕善敬撰

後孫資憲大夫內部協辦奭熙謹書

〈고려 태사(太師) 장절(壯節) 신공(申公) 유허비〉

호남(湖南) 곡성(谷城)의 남쪽 40리, 화장산(華藏山)의 동쪽 두 강이 합류하는 곳에 우뚝 솟아 춤추듯 굽이치는 산이 있는데, 완연히 날아오는 것 같아 비래산(飛來山)이라고 불린다. 산 아래에 구룡리(九龍里)가 있으니, 이곳이 바로 우리 시조 고려 태사(太師) 장절공(壯節公)이 나고 자라신 터



이다. 신공정(申公井), 장군등(將軍嶝), 독서당(讀書堂), 치마대(馳馬臺)의 고적이 역력하게 남아 있어서 가리킬 수 있고, 민간에 전하는 노랫가락에도 그 신령한 행적이 많이 전한다.

아! 공의 순수한 충절과 위대한 공훈은 해와 별처럼 빛나니, 고려가 통일하는 업적을 열어 우리나라 충절의 선도자가 되었다. 그래서 조정에서 높이 기리고 선비들이 우러러 사모하는 일이 오래될 수록 부지런하다. 유적이 있는 곳마다 문득 제기를 갖추어 제사 지내고 비석을 새겨 기록하였다. 태어난 곳으로 말하자면 산천의 정기와 영령이 모여서 태어난 곳이고, 문무의 기예가 깃들어 이루어진 곳이다. 어찌 단지 기러기를 떨어뜨린 동양(東陽)⁵⁰이나 충절을 세운 동수(桐藪)⁵¹에만 비길 뿐이겠는가?

또 공의 영혼은 땅속에 있는 물이 어디든 있는 것과 같지만, 그리워하고 방황하는 곳은 반드시 이곳이지 다른 곳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표지가 없으니, 그 귀신의 이치와 사람의 마음에 어떻겠는가? 덕양서원(德陽書院)을 구룡리에 세우지 않고 굳이 관청 옆에 지은 것도 예전에 일을 소홀하게 처리한 결과이다.

후손 명희(命熙)가 몹시 한스럽게 여겨 후손인 보국(輔國) 현(櫛) 및 판서 석희(錫禧)와 상의하고 고향 옛터로 나아가 토지와 산림을 사들여 별목과 방목을 금하고 종중의 재산을 경영하였다. 또 바위를 캐어 비석 세우는 일을 의논하였는데 돌연 어느 밤에 큰 바위가 터 옆 밭 사이에서 불쑥 솟아올랐으니, 길이가 한 길 남짓이었다.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겨 모두 하늘과 신령의 도움이라 생각하였다. 마침 덕양서원이 훼손된 뒤였으므로 제단과 비석을 세우는 일은 결국 힘이 부족하여 무산되었다.

30년 뒤 정유년(1897) 가을에 이르러서야 종중이 논의하고 협력하여 비로소 비석을 만들어 세웠으니, 비석 하나를 세우는 데도 때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천 년 동안 겨를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완성된 것이다. 이 비석이 어찌 우리 종친들만 존경하고 의지할 대상이겠는가?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관리와 백성들이 누군들 숙연해져서 공경을 일으키고 아련히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으며, 저절로 완악한 사람이 청렴해지고 나약한 사람이 뜻을 세우지 않겠는가? 다음과 같이 명을 짓는다.

於奕我祖	아, 위대한 우리 조상은,
天挺入豪	하늘이 낸 호걸이니,
功蓋三韓	공적은 삼한을 덮고,
節干九霄	절개는 하늘에 닿았도다.
餘慶綿綿	남은 경사는 길이 이어져,

50 기러기를 떨어뜨린 동양(東陽): 동양은 평산(平山)의 옛 이름이다. 신승겸이 태조 왕건과 평산에 사냥을 나갔는데, 왕건이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가리키며 “세 번째 기러기의 왼쪽 날개를 쏘아라.”라고 명하였다. 신승겸이 기러기를 맞추자 왕건이 감탄하여 평산을 본관으로 삼게 하였다.

51 충절을 세운 동수(桐藪): 927년 견훤이 신라를 침공하자 왕건이 직접 대구로 가서 동수에서 견훤과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 견훤의 군대에 포위되어 궁지에 몰리자 신승겸이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子孫千億	자손이 매우 많고,
神威赫赫	신령스러운 위엄은 찬란하여,
伯仲關岳	관우(關羽), 악비(岳飛)와 견준다.
睠茲龍里	이 구룡리를 돌아보니,
湯陰解良	탕음(湯陰), 해량(解良)과 같고, ⁵²
馳馬有臺	말 타던 대가 있고,
讀書有堂	독서하던 당이 있다.
渾渾長江	아득한 장강은,
資公韜畧	공의 병법을 돕고,
崔崔華山	우뚝 솟은 화장산은,
像公氣魄	공의 기백을 닮았네.
靈跡惚恍	신령한 행적 황홀하여,
愀然如見	슬피 뵈는 듯한데,
二院既撤	두 사원이 이미 없어지고,
白祠云遠	백사 ⁵³ 는 멀어졌다.
于何寓慕	그리움을 어디에 담을까,
維茲桑梓	이 고향에 있도다.
有蹶者石	갑자기 솟은 돌이 있으니,
神其詔止	신령이 멈추게 하였네.
龜頭穹崇	귀부(龜趺)가 우뚝 솟아,
爰示不朽	불후함을 보여주니,
千載在前	천 년이 앞에 있고,
百世在後	백세가 뒤에 있다.
永言瞻想	길이 우러러보고 생각하며,
朝夕墻羹	아침저녁으로 사모하리니,
禮反其本	예(禮)는 근본으로 돌아가고,
樂樂其所自生	악(樂)은 근본을 즐거워하는구나.

광무 1년 정유년(1897) 10월에 세우다.

후손 승정대부(崇政大夫) 학부대신(學部大臣) 신기선(申箕善)이 공경히 짓고, 후손 자헌대부(資憲大夫) 내부협판(內部協辦) 신석희(申奭熙)가 삼가 쓰다.

52 탕음(湯陰)……같고 : 탕음은 악비, 해량은 관우의 고향이다.

53 백사(白祠) : 황해남도 해주시에 있었던 신승점을 배향한 태사사(太師祠)이다.

3. 입면 제월리 심씨4선생(沈氏四先生) 조두유허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제월리 1142(군촌) • 제작연대 1906년(丙午)
- 크 기 전체높이 218, 비신높이 138, 너비 50, 두께 21

제월리 심씨4선생(沈氏四先生)의 조두(俎豆) 유허비는 제월리 군촌마을 뒤 구암사(龜巖祠) 옆에 세워져 있는 3기의 비석 중 하나이다. 즉 구암사(龜巖祠) 유허비를 말한다. 사각 대석 위에 비신을 꽂고 그 위에 팔각지붕형 가침석을 얹은 형태로, 1906년에 세운 것이다. 구암사는 청송심씨의 망세정(忘世亭) 심선(沈璿, ?~1467)을 주벽으로 하고, 증손인 제호정(齊湖亭) 심광형(沈光亨), 심광현의 손자인 두암(杜菴) 심민겸(沈敏謙), 심민경의 종질인 구암(龜巖) 심민각(沈民覺) 등 심씨 4현을 배향한 사우(祠宇)이다. 1784년에 옥과현(玉果縣) 유생 허권(許權) 등 53인이 이들을 제향하는 사우의 영건(營建)을 도모하는 통문을 내었고, 이듬해 순창유학(淳昌儒學) 양종세(楊宗世) 등 33인이 통문을 내고 담양·나주·남원·전주·광주 등 유림 등이 힘을 보태어 마침내 1799년에 사우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1868년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1906년에 옥과도유사(玉果都有司)인 정택(晶澤)과 장재(掌財) 윤택(胤澤), 감동(監董) 현택(炫澤) 등이 4선생 조두 유허비를 세우고 봉사(奉祀)하게 되었는데, 당시 유허비문은 통사랑 전 의금부도사 덕은(德恩) 송병순(宋秉珣, 1839~1912)이 찬술하고 글씨까지 쓴 것이다. 21행 41자이다.

【전면】

沈氏四賢俎豆遺墟碑

【좌면】

京有司牧使玄平 郡守鍾舜
 承旨遠翼 正尉相禧
 承旨厚澤 郡守吉求
 龜巖祠

【후면】

嗚呼此雪山之霽洞即青松沈氏四賢俎豆之所也四賢之一曰監司 贈領敦寧諱璿也當 端廟遜位之際棄官遯荒高風靖義見推詡於當時皆人稱忘世亭先生其二曰中學訓導諱光亨號霽湖孝禮文學蔚然爲南紀師表金思齋以道伯獎薦于 朝是忘世亭之曾孫也其三曰主簿諱敏謙號杜庵文藝武略兼有超倫弱冠遇壬亂倡義從權元帥立奇功丙子聞南漢下城之恥痛哭抗章以明大義是霽湖之孫也其四曰縣令諱民覺號龜巖甲子適亂仗義敵愾募旅扈 駕丙子又舉義爲江淮保障及其媾成上疏斥和自後不復仕是杜庵之從姪也猗歟盛哉一門之清節炳義爲士林之所尊慕建祠醜侑已閱幾百禩洋洋英靈秩昭穆而陟降焉不幸聖像腰折之禍流及於忠節後賢毀其屋撤其享襟紳瞻依之地鞠爲犢禩樵牧之場曷勝痛哉四賢後裔不忍廢荒其墟將豎碑以表之寢郎胤澤髦士相元來要余記其蹟噫世之貪利祿而不貪節行者雖丁國家危難之際舉忘彝倫扶植之道顧惜畏縮甘受後人嗤笑而已惟沈氏之祖祖孫孫襲然以忠義名節相繼者若非家法之正嗣守之善豈有是哉其厚德流光宜垂裕無疆矣嗚呼古云爲凡人之子孫易爲賢人之子孫難今沈氏之爲四賢後承者苟能交修共勸

紹厥先德不徒以不廢遺墟爲美而止則又安知其世世有四賢乎哉然則一片貞珉永與四賢風烈千百世而同其傳矣請以是鐫于碑陰主管其事寢郎晶澤與景澤相權云時柔兆敦牂觀之下澣通仕郎前義禁府都事德恩宋秉珣撰并書

【우면】

玉果都有司 齊陵參奉晶澤 監董 炫澤 丙午十月日

兼掌財 靖陵參奉胤澤

아! 이 설산(雪山)의 제동(霽洞)은 바로 청송심씨(靑松沈氏)의 네 현인을 제사 지내는 곳이다. 4분의 현인 중에 첫 번째 분은 감사(監司)를 지내고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에 추증된 선(璿)이다. 단종(端宗)이 손위할 때 관직을 버리고 황원에 은둔하였으니, 고풍(高風)과 정의(靖義)가 당시에 추겨세움을 받았으며, 그때 사람들이 망세정(忘世亭) 선생이라고 칭하였다. 두 번째 분은 중학훈도(中學訓導)를 지낸 광형(光亨)으로 호는 제호(霽湖)이다. 효례(孝禮)와 문학(文學)이 성대하게 남쪽 지방의 사표(師表)가 되었는데, 김사재(金思齋, 김정국(金正國))가 관찰사로서 조정에 천거하였으니, 망세정(忘世亭)의 증손이다. 세 번째 분은 주부(主簿)를 지낸 민겸(敏謙)으로, 호는 두암(杜菴)이다. 문예(文藝)와 무략(武略)이 모두 출중하였는데, 약관의 나이에 임진왜란을 만나자 창의(倡義)하여 권원수(權元帥)를 따라 뛰어난 공적을 세웠다. 병자년(1636)에는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인조가 치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소장을 올려 대의(大義)를 밝혔으니, 바로 제호(霽湖)의 손자이다. 네 번째 분은 현령을 지낸 민각(民覺)으로 호는 귀암(龜巖)이다. 갑자년(1624) 이괄(李适)의 난 때 의병을 일으켜 적개심을 품고 군대를 모집하여 어가를 호종하였고, 병자년에 또 의병을 일으켜 강회(江淮)의 보장(保障)이 되었는데, 화친이 이루어지게 되자 상소를 올려 척화(斥和)를 주장하고, 이후부터는 다시 벼슬하지 않았으니, 두암(杜菴)의 종질(從姪)이다.

아! 아름답고 성대하도다. 한 가문의 맑고 빛나는 절의를 사림(士林)들이 존경하고 사모하여 사당을 세워 제향을 지낸 지가 이미 거의 백 년이 지났으니, 양양한 영령(英靈)이 질서가 정연하게 오르내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상(聖像)이 부러지는 화(禍)가 충절을 한 후현들에게 미쳐서 사당을 훼손하고 제향을 철폐하여 선비들이 우러러 의지하는 곳이 궁색하게도 쇠코잠방이를 입고서 나무하고 소치는 장소가 되었으니, 어찌 통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있겠는가? 4현의 후손들이 그 유허가 차마 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비석을 세워 표지하려고 하였다. 참봉 윤택(胤澤)과 준절한 선비 상원(相元)이 나에게 와서 그의 행적을 기록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 세상에서 이록(利祿)을 탐하고 절개 있는 행실을 바라지 않는 자는 나라가 위급할 때에도 이륜(彝倫)을 부식(扶植)하는 도리를 모두 잊고 후인들이 비웃는 것을 달게 받아들일 뿐이다. 오직 심씨(沈氏)의 할아버지와 손자들만이 우뚝하게 충의(忠義)와 명절(名節)을 서로 이어왔으니, 가법

(家法)이 바르고 계승해 온 것이 선하지 않다면 어찌 그와 같을 수 있겠는가? 그 두터운 덕업(德業)으로 후인들이 받을 복록 또한 넉넉하고 무궁할 것이다. 아! 옛말에 이르기를, “평범한 사람의 자손이 되기 쉬워도 현인의 자손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심씨 가운데 네 현인의 후손이 된 이가 진실로 서로 덕을 닦고 함께 노력하여 선조의 덕을 계승하고 유허(遺墟)를 폐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만이 아니라면, 또한 대대로 네 현인과 같은 이들이 나타날 줄 어찌 알겠는가? 그렇게 되면 한 조각 비석이 길이 네 현인의 풍렬(風烈)과 함께하여 천백 대가 지나도 함께 세상에 전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비석의 뒷면에 새기기를 청한다.

그 일을 주관한 사람은 침랑(寢郎) 정택(晶澤)과 경택(景澤), 상권(相權)이다. 병오년(1906) 8월 하순에 통사랑(通仕郎) 전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덕은(德恩) 송병순(宋秉珣)이 짓고 쓰다.

4. 곡성읍 교촌리 향약비문(鄉約碑文)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94(곡성향교) • 제작연대 1862년(崇禎紀元後四壬戌)

디지털 탁본

• 크 기 비신높이 112, 너비 45, 두께 14.5

1862년에 세운 향약비문은 곡성향교 명륜당(明倫堂) 향우측 빈터에 세운 13기의 비석 가운데 향좌측에서 네 번째에 자리한다. 주변 비석 7개를 시멘트 대좌로 연결해 놓아서 원래의 비좌가 땅속에 묻혀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 그 위에 방형의 비수를 가진 비신을 꽂아 연결했다. 비명은 비석 머리부분에 횡서를 쓰고, 비문은 종서로 썼다. 향약비문(鄉約碑文)은 1862년 가을에 현감 서기보(徐箕輔)가 지었다. 뒷면에는 향약의 소유전답을 적었는데, 모두 19두락이 된다. 비문은 14행 24자이다.

【전면】

[두액] 鄉約碑文

鄉而校校而士士趨正而俗尙美焉谷之俗有多近古士則通經務實民則尊吏畏法農則合耦相助以湖南明麗之邦有稷下講習之雅余爲茲邑葦年樂此士風思所以勉而及於古者曰士旣與善於校校爲矜式於鄉鄉約之設於古有是迄今可行禮而飲酒見揖讓進退之節文以會友寓時颺承庸之意者式讌之需不可無措乃推邑用餘置若干頃爲鄉約田量入應費課歲爲常于以得俗尙之美而可傳於久遠故士之所樂成斯約也咸願記其事于石屬余爲文有不必辭而余亦將去不忘于谷者其在斯歟

崇禎紀元後四壬戌秋縣監徐箕輔撰

【후면】

道西亭後坪 梧枝

畚斗洞垂字十斗落卜 數貳十參負陸束

四斗落卜 數柒負

玄鳥洞垂字五斗落卜 數十參負五束

〈향약 비문〉

고을에 학교가 있고 학교에 선비가 있으면 선비는 바른길로 가고 풍속이 아름다움을 숭상하게 된다. 곡성(谷城)의 풍속은 옛것에 가까운 것이 많아 선비는 경전에 통달하여 실제에 힘쓰고, 백성은 관리를 존경하고 법을 두려워하며, 농부는 짝지어 서로 돕는다. 이 때문에 호남의 밝고 아름다운 지역에 직하(稷下)에서 강학하는 고상함⁵⁴이 있다.

내가 이 고을에 부임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이곳 선비들의 풍속을 즐거워하여 힘써서 옛날과 같은 경지에 도달할 방법을 생각하고 말하길, “선비는 학교에서 함께 선을 행하고 학교는 고을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향약의 설치가 옛날부터 있어서 지금까지도 시행할 만하다. 예로써 술을 마시며 읊하고 사양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예절을 보고, 글로써 벼를 모아 때때로 드날려 천거하고 등용하는 뜻을 담으려면 연회의 밑천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고, 고을에서 쓰고 남은 것을 헤아려 약간의 밭을 두고 향약의 밭으로 삼아 수입을 헤아려 비용을 충당하니, 해마다 부과하는 금액이 일정해졌다.

이로써 풍속이 아름다움을 숭상하여 오래 전할 만하였다. 그러므로 향약이 이루어진 것을 즐거워

54 직하(稷下)에서……고상함: 직하는 전국시대 제(齊)나라 도성 임치(臨淄)의 직문(稷門) 부근이다. 제 선왕(齊宣王)이 이곳에 학궁(學宮)을 세우고 선비들을 초빙하여 강학하고 토론하게 하여 직하학을 형성하였다.

한 선비들이 모두 이 일을 돌에 기록하기를 원하고 나에게 글을 써달라 부탁하기에 굳이 사양하지 않는다. 나 또한 장차 떠나지만 곡성에서 잊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송정 기원후 네 번째 임술년(1862) 가을, 현감 서기보(徐箕輔)가 짓다.

향약 전답은 오지면에 있는 도서정(道西亭) 후평(後坪)에 있는 논으로, 두동(斗洞)의 수자(垂字)답 10두락(복수는 23부 6속)과 4두락(복수는 7부), 그리고 현조동(玄鳥洞)의 수자(垂字)답 5두락(복수는 13부 5속)이다.

5. 오곡면 덕산리 덕양서원(德陽書院) 기적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덕산리 42 • 제작연대 1881년(崇禎紀元後四辛巳)
- 크 기 전체높이 250, 비신높이 195, 너비 71, 두께 33

1881년에 세워진 덕양서원(德陽書院) 기적비는 덕양서원 내 덕양사 사당에 오르기 전에 있는 비각 안에 있다. 기단석과 비신과 개석으로 이루어졌는데, 비신은 거의 오석에 가깝다. 비문은 신헌(申櫨)이 짓고, 글씨는 신정희(申正熙)가 썼다. 이 비석에서 좌면은 글씨를 띄엄띄엄 새기다 만 것으로 보아 시험삼아 새긴 것으로 보인다.

곡성은 평산신씨(平山申氏)의 시조 장절공(壯節公) 신숭겸(申崇謙) 장군이 탄생하신 곳이라서 1589년에 천덕산(天德山) 아래 금계천(金溪川) 상류의 오지리(梧枝里)에 덕양사(德陽祠)를 건립하여 장군께 제향(祭享)을 올리기 시작하였으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재사(齋舍)가 불타버리게 되자 숙종 을해년(1695)에 다시 유림들의 상소로 사액서원이 되고, 제향을 올리게 되었다. 장절공의 비가 없던 것을 호남병마절도사로 오게 된 후손 신정희(申正熙)가 종친들과 의논하여 비문을 짓고 비를 세우게 된 것이다. 서원 훼철령 때 훼철되었다가 1929년에 복건되었고, 1984년에 전남 기념물 제56호로 지정되었다. 비문은 21행 34자이다.



【전면】

德陽書院紀蹟碑

湖南之谷城縣卽百濟時欲乃郡是我申氏 鼻祖壯節公諱崇謙嶽降之地而距郡治東南五里天德山下錦溪之上梧枝之坊一鄉士勗建醮享所于其地曰德陽祠萬曆己丑也粵壬辰兵燹齋舍被燒而神宇祠板獨全人咸驚英靈不昧也其後繼而葺修歷世不懈至 肅廟乙亥因儒疏 賜額致祭又士林曰書院爲其所藏脩而申公井讀書堂遺蹟宛然相傳麗史稱公爲光海州人而光海今之春川也意或自谷徙春歟然公之生於欲乃家乘所載則是宜傳信云惟公勇畧軼倫草昧識眞佐命開國捐身衛主巍勳卓節日月爭光所以於垂蹟立殫之處生長之里衣履之藏靡不俎豆以奉凡五所若太白之太師祠公山之表忠平山之東陽春州之道浦與此德陽書院是已 當寧辛未軫祠院有弊罷其疊設者由是太白四太師一祠以外盡見撤焉然公山則壇有象村文貞公欽所撰忠烈碑暨我先大夫豎碑以識之者平山則有弓位之田世守射鴈之墟春州則體魄攸安香火永綿是皆可寓夫追慕而惟是欲乃以公嶽降之地遺蹟昭著尙想其英靈而將至湮沒豈非可傷

【좌면】

哉歲辛巳櫛仲子 ----- 南兵 ---- 居宗 --- 喆--
 豎表以示後如先 ----- 伐石告 --記 -----
 知順天府時櫛與 ----- 葺--之 -- 今取其-----
 碑者肅敬詹依 ----- 祠宇云
 崇禎紀元 十一月 日 立

【후면】

哉歲辛巳櫛仲子奭熙適節度湖南兵馬與湖居宗人命熙喆秀甫議就祠之遺址豎表以示後如先大夫之爲者旣伐石告櫛請記之櫛烏敢辭之哉往年尙書錫禧知順天府時櫛與之謀設宗契爲葺院之費今取其貲而補是役亦幸矣來後讀是碑者肅敬詹依當不異於謁祠宇云

後孫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兼兵曹判書判三軍府義禁府事 櫛謹撰
 男資憲大夫刑曹判書兼知三軍府訓練院事經理統理機務衛門事 正熙謹書

崇禎紀元後四辛巳十一月 日立

〈덕양서원(德陽書院)의 사적을 기록한 비〉

호남의 곡성현(谷城縣)은 바로 백제 때의 욱내군(欲乃郡)이니, 우리 신씨의 시조 장절공(壯節公) 승겸(崇謙)이 태어난 곳이다. 군의 치소에서 동남쪽으로 5리 떨어진 천덕산(天德山)의 아래이자 금

계(錦溪)의 위인 오지면(梧枝面) 지역에 온 고을의 선비가 그 땅에 제향할 곳을 만들어서 ‘덕양사(德陽祠)’라 하였으니, 만력(萬曆) 기축년(1589)의 일이다. 임진년(1592)의 병화를 겪으며 재사(齋舍)는 타버렸지만 사당과 신주만 온전하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영령이 어둡지 않음에 놀라워했다. 뒤이어 수리하기를 여러 대에 걸쳐 게을리하지 않았다. 숙종 을해년(1695)에 이르러 유생의 상소로 인하여 사액(賜額)하고 치제(致祭)하였다.

또 사람이 말하기를, “서원은 학문을 하는 장소가 되는데, 신공의 우물과 독서당(讀書堂) 유적이 완연히 전하고 있다. 『고려사(高麗史)』에 공은 광해주(光海州) 사람이라 하였는데 광해주는 지금의 춘천이다. 혹 곡성에서 춘천으로 옮긴 것인가? 그러나 공이 옥내에서 태어나신 것은 가승보에 실린 바이니, 전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공은 탁월한 용락으로 혼란할 때에 참된 군주를 알아서 천명을 도와 나라를 열고 몸을 바쳐 주군을 지켰으니, 뛰어난 공훈과 높은 충절이 일월과 빛을 다룬다. 유적을 남기고 순절한 곳과 나고 자란 마을, 그리고 묻힌 곳에 제사를 지내지 않은 곳이 없으니, 모두 다섯 곳으로, 태백(太白)의 태사사(太師祠), 공산(公山)의 표충사(表忠祠), 평산(平山)의 동양서원(東陽書院), 춘주의 도포서원(道浦書院), 그리고 이 덕양서원이다.

금상 신미년(1871)에 서원의 폐단을 진념하여 중복 설치된 곳을 혁파하였다. 이로 인해 태백산에 4위를 모신 태사사 한 곳 이외에는 모두 철폐되었다. 그러나 공산은 제단에 상촌(象村) 문정공(文貞公) 신희(申欽)이 찬술한 충렬비와 우리 선대부가 비석을 세워 표시한 것이 있고, 평산은 궁위전(弓位田)⁵⁵이 있어 기러기를 쫓았던 곳을 대대로 지키고 있다. 춘천은 공의 체백을 모신 곳으로 향화가 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 모두가 공을 추모하는 마음을 부칠 수 있는데, 오직 옥내만은 공이 태어난 곳으로 유적이 분명하여 여전히 영령이 떠오르는데도 장차 없어지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슬픈 일이 아니겠는가?

신사년(1881)에 나의 둘째 아들 신석희(申奭熙)가 호남 병마절도사로 있으면서 호남에 거주하는 종인(宗人) 신명희(申命熙), 신철수(申喆秀)와 함께 의논하여 선친이 한 일처럼 서원의 터에 비석을 세워 후세에 드러내고자 하였다. 돌을 떠낸 후 나에게 고하고 글을 청하니, 내가 어찌 감히 사양하겠는가?

예전에 상서(尙書) 신석희(申錫禧)가 순천부사(順天府使)로 있을 때, 나와 함께 종계(宗契)를 만들어 서원을 수리할 자금을 모았었다. 지금 그 자금을 가지고 공사에 보태니, 이 또한 다행한 일이다. 추후 이 비석을 읽는 자는 삼가 존경하며 우러러보기를 사당과 달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후손 보국송록대부 행 판중추부사 겸 병조판서 판삼군부 의금부사 신헌(申櫛)이 삼가 짓고, 아들 자헌대부 형조판서 겸 지삼군부 훈련원사 경리통리기무아문사 신정희(申正熙)가 삼가 쓰다.

승정 기원후 4 신사년(1881) 11월에 세우다.

55 궁위전(弓位田): 고려 태조가 신승겸(申崇謙)에게 식읍(食邑)으로 하사한 전지(田地)를 이르는 말. 신승겸이 태조를 따라 평주(平州)로 사냥을 나갔다가 기러기를 활로 쏘아 맞힌 데 대한 상으로, 태조가 근처의 밭 3백결(結)을 하사하여 조세(租稅)를 받아먹게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6. 오곡면 오지리 남주(南耆) 원지봉단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464(덕계사) • 제작연대 1883년(光緒九年癸未)
- 크 기 전체높이 167, 비신높이 124, 너비 46, 두께 15

오지리 덕계사(德溪祠) 내에 세워져 있는 서계(西溪) 남주(南耆)의 원지봉단(院址封壇) 비는 서계(西溪) 남주(南耆) 선생의 유적을 기리는 곳이다. 정사각에 가까운 기단석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팔각지붕형 가침석을 얹은 형태이다. 이 비석은 1883년 2월에 안제학(安濟學)이 세웠다. 곁에는 같은 형태의 덕암이선생(德巖李先生) 원지봉단비가 서 있다.

남주(南耆)의 자는 계응(季應), 호는 서계(西溪). 선은(仙隱), 본관은 고성(固城)이다. 아버지는 계신(繼身)이다. 1514년에 진사로써 문과(文科)에 장원 급제하였으며, 성균관전적을 거쳐 사가독서(賜暇讀書) 하였다. 1519년 기묘사화 때 조광조(趙光祖) 일파로 몰려 남곤(南袞)에 의해 추방되었고, 1522년 전라도 동북현감 재직 중 아랫사람들과의 불화로 해임되었다.

덕계사는 1814년에 곡성현감 심문영(沈文永)이 서계 남주를 제향하는 사우로, 곡성 신월리 서계동에 남주 선생의 구지에 사우를 세워 서계사(西溪祠)라 하였고, 1818년 봄에 이경(李璣)을 추배하였다. 덕계사는 두 선생의 호인 덕암(德巖)과 서계(西溪)의 글자를 딴 것이다. 고종 무진년(1868)의 서원철폐로 덕암의 위패는 본손이 봉안하고 서계의 위패는 땅에 묻은 후 유지(遺址)에 설단(設壇)하여 제향하여 왔다. 1950년 덕암의 후손인 이재근이 토지 10두락을 기증함으로써 사우 복설의 기금을 마련케 되어 마침내 1959년 현 위치인 오지리로 옮겨 복설하면서 덕계사로 칭하게 되었다.

【전면】

西溪南先生院址封壇

【후면】

光緒九年癸未二月日後生安濟學立

7. 오곡면 오지리 이경(李璈) 원지봉단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464 • 제작연대 미상(1883년 추정)
- 크 기 전체높이 180, 비신높이 129, 너비 45, 두께 17

오지리 덕계사(德溪祠) 내에 세워져 있는 덕암(德巖) 이경(李璈) 원지봉단(院址封壇) 비이다. 정사각에 가까운 기단석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팔작지붕형 가첨석을 얹은 형태이다. 곁에는 1883년 2월에 안제학(安濟學)이 세운 서계(西溪) 남주(南耆)의 원지봉단비가 서 있다.

이경(李璈, ?~1550)의 자는 자진(子振), 호는 덕암(德巖),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금릉군의 장남(長男)으로 정의대부에 올랐다. 조광조(趙光祖)·김정(金淨) 등과 친교가 있었으며, 기묘사화(己卯

士禍)에 연루되어 19년간 해남(海南)에 유배(流配)되었다가 풀려난 후 오지촌(梧支村)에서 살았으며, 1550년 10월에 별세하였다. 묘소는 오곡면 구성리에 있으며, 공조판서 조종필이 찬한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1818년에 곡성읍 신월리의 서계사(西溪祠)에 남주(南耆)와 함께 배향되었다가 서원훼철령으로 인해 훼철된 후 1959년 오곡면 오지리로 옮겨 복설하면서 덕계사(德溪祠)로 칭하게 되었다.

【전면】

德巖李先生院址封壇

8. 곡성읍 교촌리 서산사(西山寺) 동종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교촌리 184-1 • 문화유산지정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 제320호(2015.8.6.)
- 제작연대 1730년(雍正八年庚戌)
- 크기 전체높이 69.0, 종신높이 48.0, 입지름 43.7

곡성 서산사 내에 있는 동종은 1730년에 제작된 것으로, 원래 옥과 성덕산 관음사 대은암에서 조성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관음사 원통전 소실의 혼란 와중에 목조관음보살좌상(1706년 제작)과 함께 화마를 피해 서산사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시주는 색란(色蘭) 등이 하였는데, 색란은 1698년 고흥 능가사 범종 주조 때에 시주자 명단에 보이며 1711년 능가사 기와 조성 때에도 시주를 하였다.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조각승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의 사찰에 목조삼존불좌상과 나한상,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

상 등을 주로 제작하였다.

서산사는 원래 석우당이라는 사당과 함께 지방 유림들이 설립하여 이를 서산사(西山社)라 하였는데, 후에 오산면 관음사의 불상과 동종을 옮겨오면서 서산사(西山寺)라는 절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명문은 30행 6자이다.

【명문】

雍正八年庚戌「四月日玉果觀」音寺大隱庵「中鐘造成

施主秩

前將官安武

嘉善朴大鶴

通政大夫雪澄

通政大夫一行

許命生「許才云」色蘭

本庵秩

太虛堂 極初

堂頭 敬信「一行

掌務 好性

別坐 覺心

書記 明哲「通善

化士 德訓「天印」太照「天俊

本寺「住持通政 桂根 萬淨

三綱 說草 及玄

9. 곡성읍 월봉리 도림사(道林寺) 동종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327(도림사) • 제작연대 1706년(康熙四十五年丙戌)
- 크 기 전체높이 79, 종신 높이 60.8, 입지름 61.5

1706년에 조성한 도림사 보광전(普光殿) 내에 있는 동종이다. 원래는 나주 운흥사(雲興寺)에서 제작된 것이다. 도림사 동종에서는 상대와 하대도 볼 수 없고, 음통(용통)도 없으며 당좌도 보이지 않는다. 가장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한 적합한 위치는 밑에서 1/3쯤 되는 곳이다. 명문은 21행 10자이다. 아직까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명문】

康熙四十五年丙戌四月日雲興寺鑄鐘于印

施主

施主金德男兩主」劉自眞」金壽春」趙知明」朴堃立」裴水命」朴秋吉」林德生
三綱 太哲」贊機
持殿 守宗
方丈 雪輝
化主 思信
副化士 天日」就印」天淨」就暹
主上殿下壽萬世

10. 곡성읍 월봉리 도림사(道林寺) 승탑



1) 회계당(檜溪堂)탑

* 크기 : 높이 110

【전면】

乙丑五月日

檜溪堂



2) 부운당(浮雲堂) 탑

* 크기 : 높이 122

【전면】

浮雲堂

壬申年



3) 선적당(善寂堂)탑

* 크기 : 높이 117

【전면】

善寂堂

康熙四十九年

庚寅三月日

도림사 승탑원은 절에 오르기 전 약 500m 지점에 위치하는데(월봉리 산27-1), 여기에는 승탑 3기가 있다. 왼쪽부터 첫 번째에 있는 회계당(檜溪堂)탑은 을축년(乙丑, 1685년 추정)에, 부운당(浮雲堂)탑은 임신년(壬申, 1692년 추정)에, 선적당(善寂堂)탑은 1710년(康熙四十九年庚寅)에 조성되었다.

11.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泰安寺) 동종



- 소 재 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태안사) • 문화유산지정 보물 제1349호(2002.10.19.)
- 제작연대 1581년(萬曆九年) • 크 기 전체높이 96.7, 종신높이 80, 지름 66

태안사 동종은 원래는 천순 원년(1457)에 만들었는데 그것이 깨어져서 만력 9년(1581)에 다시 주조하여 만든 것이다. 몸체의 표면에는 상대와 하대, 연곽 등이 표현되었다. 이는 통일신라와 고려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동종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반면 상대 아래에는 원형 범자가 띠처럼 두르고 연곽은 몸체 중심에 가깝게 자리한다. 범자 문양의 표현이나 연곽의 위치 변화는 조선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요소이다. 몸체에 보살상과 같은 부조는 나타나지 않고 연곽 사이 하단에 4개의 당좌가 있다. 명문은 14행 13자이다.

【명문】

天順元年三月日大鍾鑄爲破
又萬曆九年四月日大鍾改鑄次
金四百余斤入鑄

大鍾大施主 熙比丘
供養大施 律黃凡
兩主各各結願修喜施主
同成正覺

供養主 印軒
化士 惠崑
施主 性容此丘
施主 記保体
施主 金世

施主 金
施主 韓順和

12.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泰安寺) 금고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태안사) • 문화유산지정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 제389호(2025.3.6.)
- 제작연대 1770년(乾隆三十五年庚寅) • 크기 지름 82.5, 폭 17.5

1770년에 제작되어 태안사에서 사용되어 온 금고이다. 금고는 불교 의식구 중 하나로 주로 공양 시간을 알리거나 대중을 불러모을 때 사용되었으며, 금고(金鼓), 금구(禁口), 금구(金口), 반자(半子), 반자(飯子), 반자(盤子) 등으로도 불렸다. 북과 같은 형태를 가진 금고는 뒷면이 뚫려 있으며 측면에는 달아낼 수 있도록 2~3개의 고리가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금고는 865년에 만들어진 금구가 있으며 고려시대에 제작된 금고가 많이 남아 있다.

태안사의 금고는 원래 회회당의 마루에 걸려 있던 것으로, 측면에는 두 줄의 태선을 두어 구획한 다음 그 안에 조성기를 새겼는데, 조성기에 의하면 건륭 25년(1770) 고흥 능가사(楞伽寺)에서 제작되었다.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명문】

乾隆三十五年庚寅六月日興陽楞伽寺金器鑄成

施主秩 大施主 日信 通政 神覺 見總 美性 都監 前任持 永和 別座 愛學 持殿 璘海 堂司 達 摠
片手 白改積 助力 太優 美訓 住持 近淑 三綱 應訓 就善 帶訓 持事 法訓

13.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 청동대바라



- 소 재 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태안사) • 문화유산지정 보물 제956호(1988)
- 제작연대 1447년(正統十二年丁卯)/1454년(景泰五年甲戌) • 크 기 지름 92

태안사에 소장된 1447년에 조성하고 1454년에 개조한 청동대바라이다. 불교 타악기의 일종으로서 그 형태는 마치 서양 악기인 심벌즈와 유사하다. 바라는 냄비 뚜껑같이 생긴 두 개의 얇고 둥근 놋쇠판으로 만들며 놋쇠판 중앙의 불룩하게 솟은 부분에 구멍을 뚫고 끈을 꿰어 그것을 양손에 하나씩 잡고 서로 부딪쳐서 소리를 낸다. 불교의식무용의 하나인 바라춤을 출 때 양손에 바라를 들고 춘다. 『백장청규(百丈淸規)』에 따르면 불전에 향을 올릴 때라든지 설법을 하거나 큰 집회를 행할 때 그리고 장례의식을 하거나 새로운 주지를 맞아들이는 불교의식 때 수행자가 올렸다고 한다. 지금도 범패(梵唄) 등과 같은 창불가찬(唱佛歌讚)의 의식법구로 사용되고 있다. 대체로 크기는 한사람이 춤을 추면서 사용하기 편할 정도로 작다.

명문은 모두 세 곳에서 발견되는데 두 개의 바라 표면의 가장자리(주연부) 한 곳씩과 그 중 끝부분이 파손된 곳 하나의 중앙에만 각각 시계방향으로 100여 자씩의 명문을 각각 점선각(點線刻)으로 기록하였다. 바라의 양쪽 표면에는 양 표면 외연부에 기록된 명문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나 문구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한쪽 바라의 경우 그 표면 중앙부에도 추가된 명문을 확인할 수 있

다. 명문은 6행 228자이다. 현재 국립광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① 바라 1(테두리)

桐裏山泰安寺大鉢正統十二年丁卯八月日造成大功德主孝寧君施主安城李氏革末純化主持寺戒行海云

景泰五年甲戌三月日改造大功德主孝寧大君高靈夫人申氏安城夫人李氏持寺大禪師尙珠大化主
戒能敏

② 바라 2(테두리)

桐裏山泰安寺大鉢正統十二年丁卯八月日造成孝寧大君施主安城夫人李氏化主持寺戒行海云

景泰五年甲戌三月日改造大功德主孝寧大君高靈夫人申氏安城夫人李氏持寺大禪師尙珠化
主信戒能敏(以上周緣部)

③ 바라 2(중앙)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孝寧大君 月峰
權孟敬面用明妻六月後生

14.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 적인선사(寂忍禪師) 탑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태안사) • 제작연대 872년(咸通 13)/1928년
- 크 기 귀부(높이 85, 가로 152, 세로 197)

872년에 세운 적인선사(寂忍禪師) 탑비는 동리산문을 개창한 적인선사(寂忍禪師) 혜철(慧徹, 785~861)의 행적을 기록한 비석을 말한다. 태안사 북쪽 언덕에 자리한 적인선사탑(국보)의 오른쪽(향좌측)에 위치한다. 파손된 옛 비편은 탑비 오른쪽 옆에 놓여있는데, 비 표면이 많이 훼손되었으며 겨우 몇 글자 정도 판독이 가능하다. 옛 비문은 화엄사에 소장된 필사본이 『조선금석총람』에 수록되었다. 비신은 1928년 9월 9일에 새로 세웠으나 귀부는 원래의 것이고 이수는 『태안사사적』에서는 광자대사의 것을 엮었다고 한다. 원래의 글은 신라 한림랑(翰林郎) 최하(崔賀)가 지은 것이지만, 김돈희(金敦熙)⁵⁶가 고치고 줄여서 전면에 적은 것이고, 후면의 글은 구산후학(龜山后學) 영호(映湖鼎鎬)가 삼가 적은 것이다.

적인선사 혜철(慧徹)의 자는 체공(體空), 속성은 박씨(朴氏)이고 경주사람이다. 동리화상이라고도 부르고 시호는 적인(寂忍)이다. 탑호는 조륜청정이다. 제자로는 고려 태조의 신임을 받은 윤다와 도선·경보 등이 있다. 선종 9산문의 하나인 동리산문(桐裏山門)을 개창한 사람이다. 15세에 출가하였으며, 30세가 되자 당나라에 유학하여 중국에서 선종승려로 명성을 떨치던 지장선사(智藏禪師)에게 수학하였다. 55세까지 중국을 두루 돌아다니며 선종사상을 공부하다가 귀국하였다. 처음에는 무주 쌍봉사에 머물렀다. 후에 곡성 태안사로 옮겨 동리산문을 개창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861년 77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탑비는 경문왕의 명으로 872년에 건립되었다. 비문을 지은 사람은 중국 당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했던 한림랑(翰林郎) 최하(崔賀)이고, 글씨를 쓴 사람은 경주 황룡사 구층목탑 찰주본기와 삼랑사비문 그리고 흥덕왕릉비문을 쓴 이로 알려진 중사인(中舍人) 요극일(姚克一)이다. 요극일은 여러 승려의 비문을 썼는데 통일신라시대 구양순체의 대가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다.

여기에서는 신비의 내용을 싣는다.

【전면】

[두전] 寂忍禪師碑頌

武州桐裏山大安寺寂忍禪師碑頌并序

新羅翰林郎臣崔 賀奉 教撰 朝鮮惺堂居士金敦熙改書

禪師諱慧徹字體空俗姓朴氏其先京師人及其祖父寓於朔州善谷縣是太白山南也娠禪師初母氏夢一胡僧儀形肅雅來

坐寢榻訝而覺之曰必得持法之子當爲國師矣禪師自幼舉措異常至如誼戲之中不撓自靜觸羶腥見屠殺則嘔血傷情

⁵⁶ 김돈희(金敦熙, 1871~1937) : 자는 공숙(公叔), 호는 성당(惺堂),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한말에 법부주사와 김사를 거쳐 중추원총탁을 지냈다. 1919년 서화협회(書畫協會) 창립 때 13인의 발기인 중의 한사람으로 참여하였으며, 1921년에는 제4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尋寺繞佛唱梵學僧冥符宿業斷可知已年當志學出家止浮石寺聽講華嚴退讓其領悟同學皆驚
泊二十二受大戒夢見五
色珠在懷中茲後念重浮囊不以諸緣損法不以外境亂真竊念本師遺教海隔桑田諸祖微言地無
郢匠乃以元和九載秋八
月駕言西行詣龔公山智藏大師藏即曹溪嫡孫馬祖一公之法嗣也久坐西堂法門甚盛方來以萬
數禪師繞座請益大師一
識如舊密傳心印於是禪師豁然靈通仍留執勞無幾西堂終化遂遠遊到西州浮沙寺披尋大藏日
夕專精至三年以違親歲
積宣法心深乃旋國開成四祀春二月也朝野傳以相賀曰璧去無人珠還得寶能仁妙旨達摩圓宗
盡在此矣遂於武州管內
雙峰蘭若結夏時值陽亢山枯川渴州司懇求禪師炳香凝念小間雨下滂沱四境得大有又居理嶽
默契谷野火四合欲燒庵
舍師端坐鳴指白雨暴霖以滅之嘗住天台山國清寺預知有禍拂衣而去不久舉寺染疾死者十數
人入唐初與罪徒同船到
取城郡郡監覺之枷禁推得歎禪師不言黑白亦同下獄具申奏准教斬三十餘人訖次當禪師師徒
容怡然自就刑所監不忍
便殺尋有後命而并釋放唯師獨免如此寂用可得思議乎哉谷城郡東南有山曰桐裏中有精舍名
曰大安其寺也千峰掩映
一水澄流龍神呈之瑞異蟲蛇遁其毒形斯三韓勝地也禪師擁錫來遊爰開教化之場用納資稟之
客漸頓雲集賢愚景附文
聖大王聞之謂現多身於象末頻賜書慰問兼所住寺四外許立禁殺之幢仍遣使問理國之要禪師
上封事若干條皆時政之
急務王甚嘉焉王侯致禮亦不可勝言也時春秋七十有五咸通二年春二月六日無疾坐化支體不
散神色如常即以八日安
厝於寺松峰起石浮圖之上聞禪師原始剋終慮年代久而其跡塵昧以登極八年夏六月降綸旨碑
斯文以鏡將來仍賜諡曰
寂忍名塔曰照輪清淨則聖朝之恩遇足矣禪師之景行備矣其詞曰 唯我大覺現多身性本空寂
用日新既律且禪無我人
高山仰止莫與隣寶月常圓照圓津福河澄流蕩六塵漸頓如雲來爲寶語默隨根求珠真雨撲山火救
昆珍 時患魃旱感龍神
非罪臨刑後命臻預逃殃禍及無因遷化忽諸天大椿門徒百其血染巾賜諡寂忍塔照輪斯恩永世
何萬春

【후면】

생략

〈무주 동리산 대안사 적인선사 비송(碑頌)과 서(序)〉

선사(禪師)의 이름은 혜철(慧徹), 자는 체공(體空), 속성은 박씨(朴氏)로, 그 선조는 서울[경주] 사람이다. 그 할아버지에 이르러 삭주(朔州) 선곡현(善谷縣)에 우거하였는데, 이곳은 태백산의 남쪽이다. 선사를 임신하였을 무렵에 그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한 서역 승려가 모습과 태도가 엄숙하고 단아한데 와서 침상에 앉았다. 어머니가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깨어나 말하기를 “반드시 법을 지닌 아들을 얻으리니 마땅히 국사(國師)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선사는 어렸을 때부터 행동거지가 보통 사람과 달랐으니, 떠들고 노는 가운데 가도 떠들지 아니하고 자정하였으며, 누린 것이나 비린 것을 닿거나 도살하는 것을 보면 피를 토하고 마음 아파하여 절을 찾고 부처를 돌면서 범어를 노래하니 학승(學僧)의 명부(冥符)가 숙업(宿業)임을 결단코 알 수 있다.

이미 나이가 지학(志學)에 이르자 출가하여 부석사에 머물며 화엄을 배웠는데 물러나서는 그 깨달은 것을 지으니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22세가 되었을 때 대계를 받았는데, 꿈속에서 오색 구슬이 품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후로는 부낭(浮囊)⁵⁷을 진중히 생각하며 세상 인연으로써 법을 손상하지 않았고, 외경(外境)으로써 진리를 어지럽히지 않았다. 가만히 생각하길 ‘본사(本師, 석가모니)의 유교(遺教, 가르침)는 상전벽해처럼 되버렸고, 조사(祖師)들의 미언(微言)은 땅에 영장(郢匠)⁵⁸이 없다’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원화(元和) 9년(814) 가을 8월에 서쪽으로 가서 공공산(龔公山) 지장대사(智藏大師)를 찾아가니, 지장은 곧 조계(曹溪)의 적손인 마조(馬祖) 도일(道一) 공의 법을 이은 사람이다. 오랫동안 서당(西堂)에 앉아있으니 법문이 매우 성대해져서 찾아오는 자가 수만이였다. 선사가 둘러앉아서 배우기를 청하자 대사가 한 번 보고도 옛날부터 안 것 같아 비밀히 심인을 전하였다. 이에 선사는 활연히 신령으로 통하고 그대로 머물면서 노력을 하였는데, 얼마 아니되어 서당이 임종하니, 마침내 멀리 나가 놀며 서주(西州) 부사사(浮沙寺)에 이르러 대장경을 펼쳐보고 밤낮으로 오로지 정진하길 3년이 되었다. 모국을 떠난 지 여러 해가 되고 법을 펼칠 마음이 깊어져 곧 고국으로 돌아오니 개성(開成) 4년(839) 봄 2월이였다.

57 부낭(浮囊): 물을 건널 때 사용하는 공기주머니로, 여기서는 배를 타고 중국에 건너가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였다.

58 영장(郢匠): 초(楚)나라 장석(匠石)이라는 말이다. 그가 자기 짝의 코끝에다 하얀 흙을 살짝 발라 놓고는 ‘자귀를 바람 소리가 나게 휘둘러서[運斤成風]’ 흙만 떼어 내고 사람은 다치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가 『장자(莊子) 서무귀(徐無鬼)』에 나온다.

조야의 사람들이 전하여 서로 경하하며 말하기를 “옥같은 사람이 가버려 사람이 없더니 구슬이 돌아오니 보배를 얻었다. 능인(能仁, 부처님)의 오묘한 뜻과 달마의 원만한 중지가 다 여기에 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무주(武州) 관할 내의 쌍봉난야(雙峰蘭若)에서 여름 안거를 할 때 햇빛이 짙은 때에 놓여 있어서 산천이 말라붙었다. 주사(州司)가 선사에게 간절히 청하니 선사가 향을 사르고 정신을 집중하였고 잠시 후 비가 주룩주룩 내려 사방이 크게 얻었다. 또 이악(理嶽)에 거처하며 묵계(默契)할 때 골짜기에 들불이 사방에서 일어 암자를 태우려 하였는데, 선사가 단정히 앉아 손가락을 튕기자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져 불을 모두 꺼버렸다. 일찍이 천태산(天台山) 국청사(國淸寺)에 머무를 때는 미리 재앙이 있을 것을 알고 옷을 털고 떠났는데, 오래지 않아 온 절에 전염병이 돌아 죽은 자가 십여 명이었다.

처음 당나라에 들어갈 때 죄인의 무리와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취성군(取城郡)에 도착하자 군감(郡監)이 이를 알고 칼을 씌워 가두고 추궁하였다. 선사는 흑백을 말하지 않고 또한 같이 하옥되었는데, 군감이 사실을 갖추어 아뢰고 하교에 따라 30여 명을 목베었다. 마침내 순서가 선사에게 이르자, 선사는 얼굴빛을 낙낙히 하고 스스로 형장에 나아갔는데 군감이 차마 바로 죽이라고 하지 못하였다. 곧 다시 명령이 있어 석방되니 오직 선사만이 (죽음을) 면하였다. 이처럼 선적의 쓰임[寂用]은 생각하고 의논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곡성군(谷城郡) 동남쪽에 산이 있어 ‘동리(桐裏)’라 하였고 그 속에 암자가 있어 이름을 대안(大安)이라 하였다. 그 절은 수많은 봉우리가 막아 가리고 한 줄기 물이 맑게 흐르니, 용신이 상서와 신이를 드러내고, 해충과 뱀은 그 독과 모양을 숨기니, 바로 이곳이 삼한(三韓)의 승지(勝地)였다. 선사가 석장을 잡고 와서 노닐며 이에 교화의 도량을 열고 자질을 갖춘 사람을 받아들이니, 점교·돈교를 닦는 사람이 구름처럼 모이고, 현인과 우매한 이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문성대왕이 이를 듣고 상말(象末)의 시대에 여러 몸으로 나투었다고 이르고, 자주 서신을 내려 위문하면서 또한 주석하는 절의 사방 바깥에 살생을 금하는 당(幢)을 세울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를 물으니, 선사는 봉사(封事) 약간 조를 올렸는데, 모두 당시 정사의 급무라서 왕이 매우 가상히 여겼다. 왕후(王后)들이 예를 올린 것 또한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당시 춘추는 75세요, 함통(咸通) 2년(861) 봄 2월 6일에 질병이 없이 앉아서 천화(遷化)하니, 지체가 흠어지지 않고 신색이 보통 때와 같았다. 곧 8일에 절의 송봉(松峰)에 안치하고 돌을 세워 부도로 하였다. 임금께서 선사의 모든 행적을 듣고 세월이 오래되면 그 자취가 티끌처럼 흐려질까 염려하여 즉위한 8년(868) 여름 6월에 윤지(綸旨)를 내려 이 글을 비에 새김으로써 장래의 거울이 되게 하셨다. 곧이어 시호를 내려 적인(寂忍)이라 하고, 탐명을 조륜청정(照輪淸淨)이라 하니 성조(聖朝)의 은혜로운 대우가 넉넉하였고, 선사의 빛나는 행적이 갖추어졌다. 사(詞)는 다음과 같다.

唯我大覺現多身	우리의 대각께서는 여러 몸을 나투시니,
性本空寂用日新	성(性)은 본디 공적하나 그 작용은 날로 새롭네.

既律且禪無我人
 高山仰止莫與隣
 寶月常圓照圓津
 福河澄流蕩六塵
 漸頓如雲來爲賓
 語默隨根求珠眞
 雨撲山火救昆珍
 時患魃旱感龍神
 非罪臨刑後命臻
 預逃殃禍及無因
 遷化忽諸夭大椿
 門徒百其血染巾
 賜諡寂忍塔照輪
 斯恩永世何萬春

율(律)을 지키고 선(禪)을 행한 무아(無我)의 사람이니,
 높은 산처럼 우리르되 더불어 짝할 이 없네.
 보배로운 달처럼 항상 원만하여 중생의 길을 비추니,
 복된 물줄기가 맑게 흘러 육진(六塵)을 쓸어가네.
 점돈(漸頓) 공부로 구름처럼 모여들어 손님이 되고,
 설법과 침묵은 근기에 따라 참된 보배 구하네.
 비가 산불에 쏟아져 곤진(崑珍, 절)을 구하였고,
 가뭄을 걱정하자 용신(龍神)이 감응하였네.
 죄인이 아니로되 형장에 나아가니 후명(後命)이 이르렀고,
 미리 재앙을 피하자 남들은 까닭을 알지 못했네.
 홀연히 천화(遷化)하니 대춘(大椿)이 일찍 죽음이라,
 백명이 넘는 문도들 피눈물로 수건을 적시네.
 시호를 적인(寂忍)이라 하고 탑은 조륜(照輪)이라 함에,
 이 은우(恩遇)가 세상에 영원하리니 어찌 만년 뿐이리요.

신라의 한림랑 신 최하(崔賀)가 왕명을 받들어 찬하고, 조선 성당거사(惺堂居士) 김돈희(金敦熙)가 고쳐 쓰다.

15. 죽곡면 원달리 태안사 광자대사(廣慈大師) 탑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태안사) • 문화유산지정 보물 제275호(1963.01.21.)
- 제작연대 950년(光德二年庚戌)
- 크기 비신높이 93, 너비 70, 두께 22.5 귀부(높이 87.4, 가로 133.2, 세로 174.6)/이수(높이 93.9, 가로 161.2, 세로 55.3)

광자대사 윤다(允多, 864~945)의 행적을 기록한 탑비는 현재 태안사 일주문 옆 부도밭에 있다. 원래는 광자대사탑과 함께 사찰 향좌측 골짜기에 위치한 서부도에 있었는데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라 한다. 비신은 임진왜란 때 파손되어 오른쪽 상부와 하부가 결실된 잔편이 있으나 마멸이 심하여 판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나 『조선금석총람』에 대부분의 전문이 전해지고 있다. 비문은 손소(孫紹)가 지었으며, 글씨를 쓴 사람은 결락되었고, 문민(文旻)이 글씨를 새겼다. 거북 받침 위에 네 귀퉁이마다 이무기의 머리 조각을 장식한 머릿돌이 얹혀 있다. 파손된 비신은 옆에 세워져 있다. 탑비는 대사가 입적한지 5년후인 950년에 세웠다. 1832년 청나라 고증학자 유희해(劉喜海)가 우리나라 금석문을 모아 편집한 『해동금석원(海東金石苑)』의 기록에는 이 탑 비신(碑身)의 높이가 5.2척,

너비가 3척으로 나타나 있다.

광자대사(廣慈大師)는 법명이 윤다(允多)이고, 자는 법신(法信)이며, 광자는 시호이다. 비문의 내용은 그가 출가하여 법을 받고 전하는 과정, 효공왕의 측근에서의 불심에 대한 문답, 고려 태조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았던 내용 등이 실려 있다.

독자의 편의를 위해 이미 출판되어 나온 원문과 번역문을 실는다.

【원문】 [출전: 『韓國金石全文』 中世上篇(1984), 판독 허흥식]

有唐高麗國武州故桐裏山大安寺 教諡廣慈大師碑銘并序
太相前守禮賓令元鳳令兼知制 誥上柱國賜紫金魚袋臣孫紹奉 教撰
沙榮監賜緋魚(以下缺)

若夫擊虛發響苟應就悟之能取實藏聲豈是處迷之術門縱潤而不可得進岸雖明而難以獲逾
至理在中守株者無定見性真宗非外窺管者莫以傳心曩植曠劫之道芽方鑄
多生之法器是以運開一千甲子始遇聖明歷周五百星霜再逢賢哲或稟七淨而傑出或蘊十智以
挺生自古既稀至今爲貴兩全雙美者卽我大師也
大師法諱允多字法信京師人也其祖考等皆族盛簪纓以傳孝義家記而亂來拋墜聲譽而耳口聞
言其妣朴氏受性溫和爲人貞潔自幼未嘗於俗未長(以下缺)
經勤修於佛事迨其岳降分娩等閒由孝感而易爲苦霜董之出疾是以咸通五年四月五日誕生
大師初放蓬矢之日雙柱絕倫將辭襁褓之季三亭轉麗遊(以下缺)
遊而居定有方禮度而顛沛無墜扇枕之令譽早著鄉閭搗灰之捷詞夙馳遐邇春秋纔當八歲有志
三歸遽告二親願別蝸門要投禪教 父母益爲鞠養倍(以下缺)
前猶是縈紆未能允許 大師潛然曰出家脩道利益不無直饒翁子之錦衣定勝山僧之毳衲哀鳴
重沓諮告再三深認盛情固難橫奪登時一諾明日辭膝下(以下缺)
步而雲遊四海行駐唯伴孤影炎涼倏歷數年自此周迴跋涉於遼東迤邐遠詣於桐裏參覲 和尚
頰相面目顧盼形容數日後侍奉上方和尚曰(以下缺)
古語心專石可穿志切泉俄涌道非身外卽佛在心宿習者覺於刹那蒙昧者滯在萬劫如來說諭爲
精鈍則再語爲根利則略言汝身好看心在吾說也 汝自(以下缺)
於伽耶岬新藪受具後但繫心猿無縱意馬戒瓶方挈油 不敬不偏志於書宵綱砥心於瞬息不戶
不牖見大道不崑不海得神珠芳聲既震於四法侶遠自於八表(以下缺)
法祖 西堂傳於 徹徹傳於 先師如如傳於 吾師卽 西堂曾孫也 大師傳法化於 西堂
卻不勞於西學割世緣於東城眞實際本空(以下缺)
善誘於東人學無學之宗終資祇夜師無師之旨必籍修多遂使弄一心者大信一音纏九結者漸海
九業多多方便而引導輕輕威力而折摧化緣周於鯤岑蹤(以下缺)

跡徧於桃野不忘其本卻歸故山纔經兩宵忽有山賊入寺擬劫衣物直到上方 大師還然而無罣不動禪座被威鋒之辭惡扶慧刃之降魔賊徒無(以下缺)

衝突 大師自無罪過言訖禮拜走數見此模樣不免思惟至夜化夢有一戰將入於殿內見勿它那七軀末座向大師書(以下缺)

是量忍兩字而已睡覺驚訝起來監嗽端坐偶言曰也大奇也大奇白日狐疑了不料清宵蝶夢成古人有言一忍得長樂者一忍住世久好重忍兩字豈徒然(以下缺)

哉 大師因此永獲安禪久居僧寺 黃波 如而洞達禪源超然聖言離聲色裏出是非關衲子盈(以下缺)

門慕義投仁雲趨霧聚叅禪學道虛屆實歸孝宗大王趨向谷風遐飛綸翰願開慧眼以祐國祚于時羅運傾否兵火頻起弓裔亂紀甄萱盜名天命有歸國朝新造(以下缺)

背梗狼煙往來辛苦於沙門裨終無於王

神聖大王乘時聖望主開代 明君富安邦撫俗之宏機通護法契理之神術萬機之暇留心玄門自微時飽聆大師之聲價因遣郎官賈御札入山而請曰仰德日久願接梵儀師已老矣

恐難行脚何妨騎乘一詣九重 大師曰老僧由來未嘗騎馬至於齡年山僧亦是王民何敢方命以錫杖芒鞋步至輦下上大喜令止儀賓寺安頓數日後召入上殿勿趨上下床接之待以賓禮群臣竦然上問曰古師云心

即佛是心如何 大師答曰若到槃者不留於佛心問佛有何過即得必此 答曰佛非有過心自無過 問曰朕受天之佑救亂誅暴何以則生民保乂對曰殿下不忘今日之間

國家幸甚生民幸甚 問曰大師以何德行化遵衆生對曰 臣僧自救可了何敢解脫他縛此日玉音琅琅不憚雲興之問大師四辯臺臺無碍瓶瀉之

答云六祖意不欲得觸道然師語了道慧亦去也若具載文繁括而略錄伏念 今上大王威齊兩曜講沙而道叶乾坤德秀重瞳治民而令無邪黨歸依五衍豈異於中印匿王尊仰三禮有用於西天戒日正法興邦之代修文植本之君尊美斯今罕見 振古 大師

三禮而退命安置興王寺黃州院王旭郎官遙仰清風平傳尺牘願為弟子冀效從師遂寂滅而數年山間而復況內議令皇甫崇太常忠良日監大師之供饋如執侍者之職大師益不安一日

諗于上曰麋鹿野縱甘伏丘壑猥承御命來住王域恐懼情深軒鶴梁鷓未足喻也伏望許從微情俾雲歸古山魚游深壑為賜大矣上許之令歸桐裏古山命本道守相畫給田結奴婢以供香積不忘外護之風每展八行之禮仍為壇越久受保持各效陳雷允舊分 大師至開運二年荒落為辜二月二日召衆有言曰生也有限滅而未定吾今欲行各官珍重佛言波羅提木又是汝大師吾亦以此言囑汝汝等遵行吾不死矣

令焚香念佛合掌奄然而逝俗季八十二僧臘六十六於是緇流號慟歎津樑之已摧禪伯咨嗟見法輪之永閉至於飛禽憫然走獸悽愴平日爽耳之(以下缺)

潺湲澗水變作哀聲多年悅耳之鬢鬚山雲皆成慘色感動蠶植毫楮焉周遂以其時事申聞尋蒙
朝令建塔本山財出官廩役以近民莊嚴周密彫琢甚妙上首門人等復告于朝曰先師臣某幸蒙知
遇國恩罔極生死俱榮而塔上之銘闕焉恐先師臣平日樹立之道行漸(以下缺)

至淪沒伏乞睿澤 從許樹豐碑者爰命微臣延揚禪化紹才非七步學昧五車直言
而否歎朱生斤斧而有禰氏事不獲已抑綴爲文銘曰

偉哉開士了達眞筌法門杳杳至理玄玄化符海外道冠日邊雲歸深洞月落澄淵波瀾意氣平等心
田今朝示滅何處談禪雞山岫煩不水逶迤土地有緣棲遲在斯解虎道峻救

蟻恩垂石臻聽講樹向來儀兩楹忽夢隻履俄遺無法可說有稱廣慈清淨三業蕩除六塵歸於桐裏
際會金人依化提拔彷彿波輪玄談浩瀚大慧精神將登彼岸劫火焚薪介衆安仰哀號蒼旻可久可大
萬歲不磷爰述不朽聊記貞珉

光德二年歲次庚戌十月十五日立 鐫字文旻

[출전:『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高麗篇1(1994), 해석문 이지관]

〈유당(有唐) 고려국(高麗國) 무주(武州) 동리산(桐裏山) 대안사(大安寺) 광자대사비문(廣慈大師 碑文)과 서문〉

대저 허공을 쳐서 메아리를 나타나게 하는 것은 진실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능력에 응하는 진실
만은 취하고 소리를 감추려 한 것이니, 어찌 이것이 미혹에 처하는 술문(術門)이 아니겠는가. 비록
넓으나 피안(彼岸)으로 나아갈 수 없고, 비록 밝으나 그 경지를 넘기는 어려운 것이다. 지극한 이치
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루터기만 지키게 하는 자는 견성(見性)할 수 없으며, 진종(眞宗)은 마음 밖
에 있어서 규관(窺管)하는 사람은 심인(心印)을 전해 받을 수 없다. 여러 생(生) 동안 도아(道芽)를
심였으므로 비로소 다생(多生)의 법기(法器)를 주조하였다. 그리하여 불교가 발상한지 약 1천년 후
에 비로소 중국으로 전래되었고, 그로부터 약 5백 성상을 지난 뒤에 우리나라 스님들이 중국으로 유
학하러 가서 현철(賢哲)을 만나고 법을 전해 받아 귀국하였다. 그 중에는 칠정(七淨)을 이어받아 걸
출하였으며, 혹은 십지(十智)를 쌓아서 높이 빼어났으니, 예부터 희유할 뿐 아니라 지금도 존귀한
데, 선과 교를 양전(兩全)하여 쌍미(雙美)한 분이 계시니 곧 우리 스님이시다.

대사의 법휘는 윤다(允多)요, 자는 법신(法信)으로 경사(京師) 출신이다. 그의 조부모는 귀족으
로서 고관(高官)을 역임하였으며, 효도와 의리를 소중히 여겨 충효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가문을
지켰지만, 난리가 나서 몰락하였다. 그러나 명성과 칭송은 많은 사람들의 귀와 귀로 들렸고, 입과 입
으로 옮겨 자자하였다. 어머니는 박씨(朴氏)로 성품이 온화하여 사람됨이 정결하였다. 어릴 때부터
속되지 않았으며, (결락) 성심성의로 불사(佛事)를 닦아 산악(山岳)과 같은 정기를 받아 잉태하고
또 어려움 없이 분만하였으니, 효감(孝感)을 말미암아 순산함이 마치 가을에 서리를 맞은 썸바귀가
쉽게 뽑히듯 산고없이 함통(咸通) 5년 4월 5일에 탄생하였다.

대사가 처음 봉시(蓬矢)를 쏘는 날에 쌍주(雙柱)가 절륜(絶倫)하였다. 장차 강보(襁褓)의 나이를 지나 삼정(三亭)이 전려(轉麗)하여 (결락) 멀리 집 밖에 나가서 놀되, 항상 장소를 일정하게 하였고, 예의와 법도는 아무리 위급한 조차전패(造次顛沛)의 경우라도 예를 그르치지 아니하였다. 지극히 효도를 다하여 선침(扇枕)의 칭송은 어려서부터 고향 주변에 널리 알려졌으며, 추회(槌灰)와 같이 민첩한 변재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 갔다. 나이 겨우 7~8세에 이미 불교에 몸을 던져 수도할 뜻을 품었으니, 부모에게 와문(蝸門)을 이별하고 선교(禪敎)에 입문하기를 청하였다. 이때 부모는 더욱 애절하여 (결락) 더욱 애정에 얽혀 허락하지 못하였다. 허락을 받지 못한 대사(大師)는 잠연(潛然)히 실망하였고, 이를 본 아버지는 설득하되 “출가 수도하는 것도 이익이 없지 않으나 옹자(翁子)인 주매신(朱買臣)의 금의출세(錦衣出世)하는 것이 어찌 산승(山僧)의 취납(毳衲)인 누더기로 고행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슬피 울며 거듭거듭 만류하여 뜻을 바꾸도록 하였으나, 아버지는 마침내 아들의 뜻이 굳고 굳어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마침내 허락하였다.

대사는 다음날 부모의 슬하를 떠나 (결락) 걷고 걸어서 구름처럼 사해(四海)로 행각하였다. 다니거나 머무름에 오직 외로운 자신의 그림자와 벗할 뿐이었다. 이와같이 어느덧 염량(炎涼)이 바뀌어 수년이 지났다. 이로부터 다시 발걸음을 돌려 요동(遼東)을 거쳐 길을 재촉하여 전라남도 곡성군 태안사가 있는 동리산(桐裏山)으로 가서 상방화상(上方和尚)을 친견하였다. 서로 면목(面目)을 대하고 형용(形容)을 돌아보았으니 며칠 후 상방화상(上方和尚)을 시봉하게 되었다. 화상이 말하기를 “(결락) 옛사람이 말하되 마음이 오르면 돌도 가히 뚫을 수 있고, 뜻이 간절하면 땅에서 갑자기 샘물이 솟아오르게 된다. 도(道)는 몸 밖에 있지 않으며 부처님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속세(宿世)로부터 익힌 자는 순간인 찰나(刹那)에 깨닫게 되고 몽매한 자는 만겁에도 생사에 윤회하여 벗어나지 못하니, 부처님께서 일러 주시되 ‘정신이 어두운 자는 재삼 여러 번 일러주어야 하지만 근기(根機)가 수승한 사람은 말을 생략한다’고 하였으므로, 너는 스스로를 잘 살펴보고, 나의 말에 걸려 있지 말라.”라고 하였다.

스스로 (결락) 가야갑신수(伽耶岬新藪)에서 구족계를 받은 후로는 다만 마음과 생각이 원숭이나 말처럼 이리저리 멋대로 치닫지 못하도록 잡아매고, 병에 기름을 따르는 것처럼 기울어지지 않게 하였다. 계(戒)를 받은 후로부터 유발(油)을 기울어지지 않게 하였다. 계를 지키려는 굳은 마음은 주야로 한결같고, 수도하려는 강철 같은 마음은 순간에도 쉬지 아니하였다. 대문과 창문을 열고 들어가지 아니하여도 대도(大道)를 보았으며, 곤륜산에 오르거나 여해(驪海)에 들어가지 않고도 쉽게 신주(神珠)를 얻었다. 도덕 또한 고매하여 아름다운 명성은 사방에 떨쳤고, 법을 배우고자 하는 법려(法侶)들이 8표(八表)로부터 모여 들었다.

(결락) 법조(法祖). 서당지장(西堂智藏)은 혜철(慧徹)에게 전하였고, 혜철은 여(如)인 도선(道詵)에게 전하였으며, 여(如)인 도선(道詵)은 우리 광자(廣慈)스님에게 전하였으니, 즉 서당의 증손(曾孫)인 셈이다. 대사는 서당(西堂)의 법통을 전해 받았으니, 수고롭게 서학(西學)을 하지 않고도

세상의 인연을 동성(東城)에 베풀었다. 참으로 실제(實際)가 본공(本空)한 줄 깨달았으며 (결락) 동인(東人)을 바른길로 인도하였다. 무학(無學)의 종지인 선(禪)을 배우되 마침내 지야(祇夜)를 의지하고, 무사(無師)의 취지(趣旨)를 스승으로 하되 반드시 수다라(修多羅)를 가자(假藉)하였다.

드디어 일심(一心)을 닦는 자로 하여금 일음(一音)의 교리를 믿게 하며, 구결(九結)에 얽힌 사람으로 하여금 점차로 구업(九業)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인도하였으니, 위력으로 사견(邪見)을 꺾고 교화한 인연이 제잠(鯤岑)에 두루하였으며, (결락) 심사구도(尋師求道)한 자취가 도야(桃野)에 두루 닿지 아니한 곳이 없었다. 행각 중에 있으면서도 항상 본사(本寺)를 잊지 아니하다가 고산(故山)으로 돌아왔다. 이틀째 되던 날 밤에 갑자기 산적이 절에 침입하여 의물(衣物)을 빼앗고자 상방화상(上方和尚)의 방으로 들어왔다. 대사는 우연히 뜻밖의 일을 당하였으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좌(禪座)에서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위봉(威鋒)을 당하여서는 오히려 그들의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지혜의 칼로써 마구니들을 항복시켰다. 적도(賊徒)들이 (결락) 충돌함이 없었다. 대사는 도적들에게 죄란 본래 없는 것이라 하여 허물을 탓하지 아니하니 스님의 말이 끝나자 도적들은 공손히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 광경을 지켜본 대중들은 감탄하였다. 그날 밤 꿈에 한 전장(戰將)이 법당에 들어가 칠구(七軀)의 물타나(勿陀那)를 보았는데, 맨 끝에 있는 물타나(勿陀那)가 대사를 향하여 (결락) 중인(重忍)이란 두 글자를 적었다. 꿈을 깨고 놀라 일어나 세수한 다음 단정히 앉아 생각하되 “이상하고 이상하다. 백일천하(白日天下)에 의심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밤중에 나비의 꿈을 꾸는 것은 고인(古人)이 겪은 사실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되, ‘한번 참는 것은 영원한 기꺼움을 얻게 되고, 또 한번 참는 것은 세상을 살아감에 편안함을 얻게 된다’고 하였으니, 중인(重忍)이란 두 글자가 어찌 비범한 일이겠는가!” (결락) 대사는 이로 인하여 길에 참선하며 오래도록 이 절에 있게 되었다.

(결락) 선의 근본을 통달하였고 성인의 말씀을 초연히 여겼으며, 성색(聲色)의 소굴을 떠나 시비(是非)의 관문을 벗어나게 되었다. 납자(衲子)들은 (결락) 스님의 문 앞에 가득하고 의리를 사모하며 인(仁)을 따르는 이들이 구름과 안개처럼 모여들었다. 참선학도하는 자들은 빈손으로 와서는 마음 가득 채워 돌아갔다. 효종대왕(孝宗大王)은 대사가 산곡(山谷)에서 드날리는 도풍(道風)을 흠모하여 윤한(綸翰)을 보내어 지혜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나라 또한 복되게 해주기를 발원하였다. 이미 이때에 신라의 국운이 기울어져 자주 병화(兵火)가 일어났고, 궁예(弓裔)는 어지럽게 난동하고 견훤(甄萱)은 자칭 왕이라 하여 이름을 도용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천명이 왕건에게로 돌아가 고려라는 새 나라를 건립하게 되었다.

(결락) 한 때 낭연(狼煙)이 높이 올라 왕래하기가 고통스러웠으므로 스님들은 따로 왕을 도울 길을 찾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신성대왕(神聖大王)이 때를 타고 성주(聖主)가 되어 한대(開代)의 명군(明君)으로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세속을 편하게 하는 평기(宏機)를 풍부하게 가졌으며, 불법을 보호하고 진리에 계합(契合)하는 신술(神術) 또한 능통하였다. 나라 일을 보는 여가에는 마음을 향

상 현문(玄門)에 두었다.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대사의 명성을 널리 들었기에 낭관(郎官)으로 하여금 어찰(御札)을 가지고 스님이 계시는 동리산으로 보내어 청하되 “도덕을 앙모한 지 이미 오래되오니 스님의 거룩한 모습 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스님께서서는 이미 연로하셔서 보행하시기 힘들 터이오니, 말을 타고 구중(九重)으로 오신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대사가 말 씀하시되 “노승(老僧)이 출가한 이래로 이제 80살에 이르기까지 아직 말을 탄 적이 없습니다. 산승(山僧)도 역시 왕의 국민이니 어찌 감히 왕명을 거역하겠습니까?”라고 하고는 석장망혜(錫杖芒鞋)한 보행으로 연하(輦下)에 도착하니 임금이 크게 기꺼워하여 의빈사(儀賓寺)에 모시고 며칠 동안 편안히 쉬시게 한 다음, 상전(上殿)으로 영입하였고, 임금 스스로 상(床)에서 내려와 공손히 영접하여 빈객(賓客)의 예로써 대우하였다. 군신들이 이를 보고 그욕이 놀랐다.

임금이 묻되 “옛 스님이 말하길 마음이 곧 부처라 하니, 이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하자 대사가 대답하되 “만약 열반의 경지에 도달한 이는 불(佛)과 마음에도 머물지 아니합니다.”라고 하니, 다시 임금이 묻되 “부처님께서 어떤 경지를 지나서야 이 열반의 세계에 이르게 됩니까?”라고 하였다. 대답하되 “부처님은 지나는 과정이 없으며, 마음도 또한 그대로일 뿐 경과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니, 재차 묻되 “짐이 하늘의 도움을 받아 난세를 구제하기 위해 흉폭한 무리들을 주살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생민(生民)을 잘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대답하되 “전하께서 오늘의 묻는 그 마음을 잊지 않으시면 국가가 부강하고, 생민(生民)이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임금이 묻되 “대사는 어떠한 덕행으로 중생을 교화하십니까?”라고 하자, 대답하되 “신승(臣僧)은 힘이 없어 자신을 구제함은 가능하지만, 어찌 감히 다른 사람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때 왕은 옥음(玉音)이 낭랑하여 구름이 일어나는 듯한 질문을 꺼리지 아니하였고, 대사는 사변(四辯)이 물이 흘러가듯하여 걸림 없는 것이 마치 병에 물을 쏟아붓는 것처럼 답하였으니, 육조(六祖)스님의 뜻인 도(道)에 저촉하려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스님의 말씀은 (결략) 삼도(三道) (결략)라 하고, 지혜도 또한 (결략)라 하였으니, 이상과 같이 문답한 것을 자세히 실으려면 글이 너무 번다해지므로 총괄하여 간략하게 기록하는 바이다.

엎드려 생각하노니 (결략) 이제 상(上)께서 (결략) 대왕(大王)의 위엄이 양요(兩曜)와 같고 설법하는 소리는 건곤(乾坤)에 미치며, 덕이 빼어나 두 개의 눈동자를 가졌다. 백성을 다스리되 사당(邪黨)이 없게 하고, 오연(五衍)에 귀의하였으니, 어찌 중인도의 파사익왕이 삼보(三寶)를 존중한 것과 다르다고 하겠는가! 서천(西天)의 계일왕(戒日王)과 함께 정법(正法)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움과 동시에 문(文)을 닦고 근본을 심은 임금이니, 이와 같이 위대한 성군은 고금(古今)을 통하여 드물게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대사(大師) (결략) 삼배(三拜)를 하고 물러가면서 흥왕사에 모시도록 명하였다. 그 후 황주원(黃州院) 왕욱(王旭) 낭관(郎官)이 멀리서 스님의 청풍(淸風)을 앙모하고 편지를 보내 제자가 되어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희망한다고 하였다. 드디어 열반을 수년 앞

두고 산간(山間)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의령(內議令) 황보숭(皇甫崇)과 태상(太常) 충양일감(忠良日監)이 대사의 공양구(供養具)를 살피되 마치 집시자(執侍者)와 같이 하므로 대사는 더욱 마음이 불안하였다. 어느 날 임금께 고하되 ‘사슴이 들판에서 자유롭게 놀 듯 산 중에서 조용하고 편안하게 있도록 놓아 달라’고 간청하였다. “외람되어 어명을 받아 왕성(王城)으로 내왕하니 점차 정에 끌려 부자유함이 헌학(軒鶴)과 양제(梁鷯)로도 비유할 수 없나이다. 앞드려 바라옵건대 신승(臣僧)의 작은 생각을 가납하시어 구름처럼 고산에 돌아가서 마치 고기가 깊은 물에서 노는 것과 같이 하여 주시면 그 은혜 참으로 크다 하겠나이다.”라고 하였다. 이 같은 스님의 간청을 들은 왕은 허락하여 동리산(桐裏山)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도(本道)의 수상(守相)에게 명하여 전결(田結)과 노비를 헌납하여 향적(香積)을 제공토록 하였으며, 외호의 가풍(家風)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팔행(八行)의 예를 펴서 돈독한 단월이 되어 불교의 보존과 유지의 의무를 받아서 각기 진뢰(陳雷)를 본받았다. 진실로 (결락).

대사는 개운(開運) 2년 전충 대황락(大荒落) 2월 2일에 대중을 불러 놓고 말씀하되 “생(生)이란 유한한 것이며, 멸(滅) 또한 그 시기가 미정(未定)한 것이다. 내 이제 떠나고자 하니 각기 뜻있게 잘 살도록 하라. 부처님께서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는 곧 너희들의 위대한 스승이라’ 하였으니, 나도 또한 이 말씀으로 너희들에게 당부하노니 너희들이 이를 잘 준수한다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향을 피우고 염불을 하게 하고 합장하고 엄연(奄然)히 입적하니, 속년(俗年)은 82세요, 승랍은 66이었다. 이때 스님들은 통곡하면서 나루터의 다리와 큰 집의 들보가 이미 무너졌다 탄식하였고, 신백(神伯)들은 애통해 하면서 법륜(法輪)의 문이 영원히 닫혔다고 슬퍼하였다. 심지어 새 들마저 답답해하고, 짐승들은 슬퍼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귀를 시원하게 해주던 (결락) 잔잔하게 흐르는 석간수도 애성(哀聲)으로 변하였고, 다년간(多年間) 눈을 즐겁게 하던 산에 덮인 자옥한 구름도 모두 참담한 빛으로 변하였으며, 곤충과 식물들까지도 애통해 한 이 사실을 지필(紙筆)로 어찌 다 적을 수 있으리오.

당시의 이러한 기조(奇兆)를 왕에게 보고하였더니 임금이 본산(本山)에 대사의 탑을 세우게 하되, 경비는 모두 국고에서 부담하게 하고 역부(役夫)로는 부근 주민을 동원토록 하였다. 공사를 마치니 장엄이 주밀(周密)하고 조탁(彫琢)도 매우 우아하였다. 상수문인(上首門人)들이 다시 조정에 건의하되 “선사신(先師臣) 아모가 다행하게 임금님의 도움을 입어 탑을 세웠으니, 국은(國恩)이 망극하여 생전과 사후에 걸쳐 함께 영광이오나 아직 탑에 따른 비명(碑銘)이 없어 선사께서 생전에 쌓은 도행(道行)이 점차로 (결락) 운몰(淪沒)할까 두렵사오니 비를 세우도록 윤희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다. 왕은 수비(樹碑)를 허락하시고 미신(微臣)인 저에게 비문을 지어 스님의 선화(禪化)를 선양(宣揚)토록 하라 명하셨으나, 소(紹)는 칠보시(七步詩)를 지을 만한 재주도 못되며 학문(學問)도 오거(五車)의 책도 읽지 못한 변변치 아니한 선비이므로 굳게 사양하였지만 마지못하여 주생(朱生)과 같이 근부(斤斧)를 잡고 예씨(禰氏)를 칭찬하는 것이니 부득이하여 억지로 역

어 비문을 지었다. 명(銘)하여 가로되,

偉哉開士	위대하신 태안사 광자대사여!
了達眞筌	진리의 방편을 요달하시고,
法門杳杳	깨치신 그 법문(法門) 심오하오며,
至理玄玄	지극한 그 이치 깊고도 깊네.
化符海外	그의 덕화(德化) 해동에 널리 전하고,
道冠日邊	도덕은 해가 뜨는 동국을 덮었네.
雲歸深洞	자재한 그 행적 구름과 같고,
月落澄淵	지혜는 달빛이 맑은 물에 비치듯,
波瀾意氣	파란(波瀾)과 이기(理氣)는 하늘을 찌르듯,
平等心田	평등한 그 마음 대원경(大圓鏡) 같아,
今朝示滅	갑자기 오늘에 열반하시니,
何處談禪	어디서 다시 만나 선(禪)을 들으랴!
雞山岫煩	계산의 멧부리도 근심스런 빛이고,
不水逶迤	구불구불한 냇물도 흐르지 않네.
土地有緣	땅에도 인연이 있어서,
棲遲在斯	이곳에서 지내시며 정진하셨네.
解虎道峻	호랑이의 싸움을 그치게 하고,
救蟻恩垂	개미를 구제하듯 자비가 깊어,
石臻聽講	강설(講說)을 할 적에는 돌들도 경청하였고,
樹向來儀	나무도 그를 향해 점두(點頭)하였네.
兩楹忽夢	어느 날 꿈에 양영간(兩楹間)에 누었다가,
隻履俄遺	신 한 짝만 남겨놓고 훌훌히 갔네.
無法可說	스님의 분상(分上)엔 설(說)할 만한 법 없건만,
有稱廣慈	광자(廣慈)란 그 칭호가 있게 되었네.
淸淨三業	삼업(三業)은 청정하여 연꽃과 같고,
蕩除六塵	육진(六塵)은 탕제(蕩除)되어 청량과 같아,
歸於桐裏	행각(行脚)을 마치고 동리산(桐裏山)으로 돌아와,
際會金人	모든 대중 한 곳에 모아 놓고서,
依化提拔	수발다라 비구가 최후법 듣는 듯,
彷彿波輪	살타파륜이 법을 구함과 같았네.
玄談浩漭	현묘(玄妙)한 그 말씀은 넓고도 깊어,

大慧精神	대혜(大慧)의 지혜라야 헤아릴 수 있네.
將登彼岸	내 이제 피안(彼岸)에 오르려 하니,
劫火焚薪	겁화(劫火)가 이내 몸을 태울 것일세.
介衆安仰	대중들은 누구를 우리를 것이냐며,
哀號蒼旻	하늘을 부르면서 애통해하였네.
可久可大	덕업은 오래가고 광대하여,
萬歲不磷	만세(萬歲)가 지나도록 닳지 않으리.
爰述不朽	이에 영원할 비문을 기술하고,
聊記貞珉	이에 비명(碑銘)을 기록하노라.

태상(太相) 전수예빈령(前守禮賓令) 원봉령(元鳳令) 겸지제고(兼知制誥) 상주국(上柱國) 사
 자금어대(賜紫金魚袋) 신(臣) 손소(孫紹)가 왕명을 받들어 비문을 짓고, 사찬(沙粲)으로서 (결락)
 비어대(緋魚袋)를 하사받은 (결락)가 비문을 쓰다.

광덕(光德) 2년 경술년 10월 15일에 세우고, 문민(文旻)이 글자를 새기다.

16. 검면 괴정리 정장령(鄭掌令) 하마비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검면 괴정리 산269-4 • 제작연대 미상(1900년 추정)
- 크 기 전체높이 127, 비신높이 89, 너비 48, 두께 12

검면 흥복마을 농협창고 건너편 산아래에 있는 하마비는 장령을 지낸 정인(鄭寅, 1561~1621)의 하마비로 13대손 병량(柄良)이 건립하였다. 지대석 위에 월두형 비신이 세워져 있다. 정인은 초계 정씨로 자는 여청(汝淸), 호는 송곡(松谷)·합강정(合江亭)이다. 예조참의 건(虔)의 6세손이고, 승의 부위(承義副尉) 숙겸(淑謙)의 손자이다. 문과에 합격하여 장령이 되었고 춘추관 기주관을 역임했으며, 사후 우참찬에 추증되었다. 손자 정운봉(鄭雲鵬)은 병자호란 때 창의하였다. 검면 운교리에 묘가 있다.

【전면】

草溪人鄭掌令公下馬碑

【후면】

十三代孫 柄良

17. 곡성읍 동산리 운강정(雲江亭) 표석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동산리 97(동산) • 제작연대 미상(1723년 이후 추정)
- 크 기 높이 73, 너비 212, 두께 38

동산리에 있는 운강정(雲江亭) 표석은 동산리 마을회관에서 서쪽으로 난 동산길을 따라 50m쯤 가다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그 향우측에 ‘南陽亭’이라는 정자 주변에 세운 ‘조유검문경송씨이효 열정려’ 건물 뒤 밭가에 자리한다.

커다란 자연석 편평한 앞면에 큰 글씨로 ‘雲江亭’라는 정자명을 횡서로, 그 향좌측에 두 줄로 ‘趙公遺址’라는 내용을 종서로 음각하여 새겼다. 내용으로 미루어 이 곳이 ‘雲江亭’라는 정자가 있었던 곳으로 조공의 유지임을 밝힌 것이다. 조공은 정려각의 주인공인 조유검(趙有儉, 1633~1665)을 말한 것으로, 효자조유검정려를 명받은 해가 1723년(景宗三年癸卯)이므로 그 이후로 추정된다.

【전면】

雲江亭

趙公 遺址

18. 죽곡면 동계리 봉황대(鳳凰臺) 표석



- 소재지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동계리 599 • 제작연대 미상
- 크 기 가로 96, 세로 89

조그마한 바위 면에 새긴 봉황대(鳳凰臺) 암각은 동계마을 오른쪽 높다란 곳에 세운 ‘진주강씨효 열복호문정려’ 돌담 바로 앞에 위치한다. 자연석 바위의 평탄한 표면에 위에서 좌로 횡서로 ‘鳳凰臺’를 음각하여 새겨놓았다. 좌우측면과 뒷면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 상태 그대로이다. 봉황대 글자 아래에는 종서로 사람의 이름이 6줄 정도 원래 새겨져 있었지만 왜일인지 ‘主李竹溪’라는 글씨만 남겨 놓고 정으로 쪼아 글씨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주인 이죽계(李竹溪)는 진주강씨의 남편 이기의(李基義)를 가리킨 것이 아닌가 한다. 그의 호는 가옹(稼翁), 본관은 전주(全州)로, 처음으로 구보(溝洫)를 통하게 하여 백성들이 고루 혜택을 받게 하였다.

【전면】

鳳凰臺

主李竹溪

색인

ㄱ

- 가옹(稼翁) 135, 136, 323
 감찰(監察) 27, 92, 147
 강공좌(姜公佐) 202
 강륜(姜倫) 202
 강자형(姜自亨) 202
 강혜(姜諲) 202
 거사대(去思臺) 44
 거사비(去思碑) 110, 111, 122
 경주이씨(慶州李氏) 183, 186, 198
 고경명(高敬命) 167, 168, 244
 고달방(古達坊) 29, 166
 고득뢰(高得賚) 22, 163, 164, 166
 고병중(高柄中) 88
 고수례(高守禮) 163
 고영호(高永豪) 22, 163, 164
 고용후(高用厚) 244
 고효륜(高孝倫) 164
 고희(高熙) 163
 공순종(孔順宗) 86
 곽중석(郭鍾錫) 9, 194, 197
 관개 73, 80, 136
 관동(館洞) 51
 관음사 295, 296
 광자대사(廣慈大師) 15, 17, 24, 306, 311, 312,
 314, 319
 구보(溝洫) 135, 323
 구사맹(具思孟) 249
 구성재(龜成齋) 192
 구암사(龜巖寺) 203, 204
 구연익(具然翼) 19, 29
 권기(權芑) 204
 권학비(勸學碑) 16, 20, 64, 65
 금산전투 244
 기묘사화(己卯士禍) 291, 293
 기우만(奇宇萬) 160, 162, 195, 209, 211, 214,
 219, 267
 기정진(奇正鎭) 164, 169, 200
 김계보(金季甫) 170
 김교학(金敎學) 196
 김규찬(金奎贊) 220
 김기태(金基台) 211
 김노숙(金魯淑) 14, 23, 237, 238
 김도근(金度根) 21, 117
 김만길(金萬吉) 19, 33, 34
 김몽애(金夢愛) 14, 23, 241, 242
 김반(金槃) 33
 김방묵(金邦默) 109
 김병수(金秉洙) 16, 21, 141, 142
 김봉식(金鳳植) 136
 김상현(金尙鉉) 82, 83
 김석명(金錫命) 152, 153, 158

김성언(金性彦) 109
 김성재(金成在) 60
 김성추(金成秋) 220
 김소석(金召奭) 22, 170, 172, 174
 김약(金躍) 170
 김응성(金應星) 165, 167
 김익후(金益煦) 33
 김장생(金長生) 33, 256, 261
 김재봉(金在琫) 22, 199, 200
 김정(金淨) 293
 김정국(金正國) 282
 김정익(金正義) 196
 김종(金淙) 170
 김종순(金種順) 262, 263
 김종한(金宗漢) 27
 김종현(金宗鉉) 64, 65
 김진현(金鎭賢) 20, 71, 72
 김창옥(金昌玉) 14, 23, 209
 김천일(金千鎰) 167, 168
 김치운(金致瑱) 83
 김태광(金兌光) 14, 23, 226, 227
 김태명(金兌明) 228
 김태현(金台鉉) 226
 김해김씨(金海金氏) 14, 23, 241
 김혜(金諱) 13, 22, 174
 김홍석(金洪錫) 226, 228
 김흥조(金興祚) 83

ㄴ

남곤(南袞) 291
 남궁침(南宮忱) 21, 132, 134
 남양정(南陽亭) 214

남원부사 12, 29
 남한산성(南漢山城) 282
 노영수(盧永壽) 16, 19, 27
 노종(盧琮) 87
 농은(農隱) 272
 능가사(楞伽寺) 295, 302

ㄷ

담재(淡齋) 160, 161
 대안사(大安寺) 314
 덕계사(德溪祠) 291, 293, 294
 덕수이씨(德水李氏) 22, 188
 덕암(德菴) 92, 194, 195
 덕양사(德陽祠) 275, 287, 290
 덕양서원(德陽書院) 23, 278, 287, 289
 도사(都事) 142
 동리산(桐裏山) 314, 315, 318, 319
 동리산문(桐裏山門) 306
 동천처사(東川處士) 216
 둔산(屯山) 171, 175, 272

ㄹ

류기수(柳期壽) 22, 151, 152, 153, 160, 192
 류기영(柳基永) 53
 류담(柳潭) 22, 152, 192
 류보(柳普) 173
 류연(柳演) 15, 23, 222, 225
 류요영(柳堯永) 157, 158
 류육(柳堉) 196
 류정춘 160
 류제(柳濟) 173
 류집(柳漬) 16, 20, 61, 63

류창영(柳彰永) 160
류충수(柳忠壽) 22, 156, 157, 192
류한모(柳漢模) 16, 19, 53, 54
류한영(柳漢永) 157, 158
류헌(柳憲) 22, 155, 159, 160, 161
류흥철(柳興澈) 153

□

마승(馬勝) 22, 183, 187, 188, 189
마영(馬榮) 189
마인섭(馬寅燮) 47
마중규(馬仲規) 22, 189, 190
마천목(馬天牧) 13, 22, 183, 185, 186, 187, 189
무관 106, 120, 204
무송윤씨 202
무오사화 192
묵암(默庵) 54
묵용실(默容室) 51, 52
문경송씨(聞慶宋氏) 14, 23, 214, 216
문민(文旻) 311, 320
문옹(文翁) 65, 127, 129, 203
문익준(文益峻) 21, 120
문태송(文泰松) 64, 65
미은(眉隱) 58
민철호(閔喆鎬) 20, 96, 119

ㅂ

박기모(朴基模) 64, 65
박노홍(朴魯洪) 141, 143
박동남(朴東楠) 136
박맹길(朴孟吉) 47
박상래(朴庠來) 141, 143

박상화(朴尙華) 22, 201
박선(朴瑄) 168
박언배(朴堰培) 14, 23, 252, 256, 261
박연(朴堧) 201, 252
박영래(朴英來) 60
박정근(朴正根) 52
박정원(朴廷元) 257
박제만(朴齊萬) 21, 118
박준(朴俊) 168
박희순(朴希淳) 19, 35
배정식(裴正植) 14, 23, 212, 213
배현(裴暉) 14, 23, 212, 213
병암산(屏巖山) 85
병인양요 63
병자호란 207, 208, 321
봉황대(鳳凰臺) 24, 323
불망비(不忘碑) 8, 66, 101, 102, 105
비봉재(飛鳳齋) 191

ㅅ

사가독서(賜暇讀書) 291
사창(社倉) 93, 133
색리(色吏) 109
생원(生員) 133, 134, 171, 173, 175, 196, 200
서계사(西溪祠) 292, 294
서기보(徐箕輔) 17, 284, 286
서기순(徐箕淳) 20, 102
서산사(西山寺) 23, 45, 295, 296
서양권(徐良權) 16, 20, 59, 60
서옥정(徐玉貞) 175
석우(石愚) 46, 49
석은(石隱) 87, 88

석판 14, 15, 207, 209, 210, 212, 237, 239, 241
 선정비(善政碑) 8, 71, 72, 107, 114, 120, 131
 설보(雪狀) 80
 설신 81, 158
 설촌 84, 85
 성모재(誠慕齋) 176, 182
 성훈(成渾) 249
 성황사(城隍祠) 275
 소해(蘇邈) 21, 132, 133, 134
 소헌왕후(昭憲王后) 271
 손소(孫紹) 311, 320
 송근학(宋根學) 47
 송병순(宋秉珣) 281, 283
 송상희(宋祥熙) 19, 40, 41
 송순(宋純) 174
 송해용(宋海容) 173, 175
 숙호사(肅豪祠) 141
 순창조씨(淳昌趙氏) 22, 155, 172, 173
 시혜불망비(施惠不忘碑) 51, 52, 67
 시혜비(施惠碑) 8, 89, 144, 145
 신기선(申箕善) 275, 279
 신득홍(申得洪) 21, 121
 신명희(申命熙) 290
 신석정(申錫正) 64, 65
 신석주(申錫疇) 19, 37
 신석지(申錫祉) 16, 146
 신석희(申奭熙) 275, 279, 290
 신송주(申松舟) 171
 신승겸(申崇謙) 23, 275, 287, 290
 신언룡(申彦龍) 251
 신윤조(申潤祚) 16, 20, 73, 89, 91
 신응조(申應朝) 258

신이강(辛二剛) 239
 신이정(愼爾定) 21, 122
 신익(申儼) 124, 131
 신정희(申正熙) 287, 290
 신중(申縱) 16, 20, 68, 69, 70
 신철수(申喆秀) 290
 신태일(申泰一) 146
 신태준(申泰俊) 141, 143
 신희구(申弼求) 248
 신헌(申穗) 287, 290
 신헌태(申鉉台) 27
 신흠(申混) 21, 106
 신흠구(申泓求) 14, 23, 266, 267
 신흠(申欽) 125, 290
 심건택(沈健澤) 271
 심광형(沈光亨) 22, 203, 204, 281
 심기(沈錡) 22, 204
 심낙린(沈樂麟) 109
 심동신(沈東臣) 92, 194
 심문영(沈文永) 19, 44, 292
 심민각(沈民覺) 281
 심민겸(沈敏謙) 281
 심선(沈璿) 281
 심영석(沈英錫) 233, 234, 236
 심온(沈溫) 271
 심의한(沈宜澣) 271
 심정택(沈晶澤) 251
 심정화(沈廷和) 33
 심회(沈澮) 23, 271, 272

○

안사백(安師佰) 14, 23, 229

안영(安瑛) 168, 244
 안인(安仁) 158, 204
 안정자(安亭子) 229, 231
 안제원(安濟遠) 16, 20, 22, 92, 93, 193, 195, 233
 안제학(安濟學) 291, 293
 안중섭(安重燮) 92
 안천보(安天保) 271
 안효인(安孝仁) 233
 안효천(安孝天) 15, 23, 233, 234
 애홀불망비 16, 21, 137, 139, 140
 애홀비 20, 97, 137, 139
 양경로(梁敬老) 173
 양녀 202
 양대박(梁大樸) 168, 243
 양득춘(梁得春) 251
 양사재 125
 양상채(梁相采) 47
 양종세(楊宗世) 281
 양진홍(梁進鴻) 251
 양해주(梁海周) 55, 56
 어재윤(魚在潤) 19, 20, 36, 75
 어전(漁箭) 184
 언양김씨 170, 172, 174
 엄주화(嚴柱華) 47
 연안이씨(延安李氏) 157
 염촌(念村) 38, 39, 231
 영귀서원(詠歸書院) 123, 244
 영모재(永慕齋) 183, 185, 186, 187, 188, 189, 190
 영사비(永思碑) 8, 92, 93, 96, 98, 99, 102, 103,
 104, 112, 113, 115, 117, 118, 119, 194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16, 19, 20, 21, 30, 33,
 40, 43, 45, 46, 59, 60, 68, 69, 74, 76,
 78, 95, 100, 108, 109
 영수정(永守亭) 92, 194
 영영불망비 16, 21, 135
 예산면(曳山面) 157, 196, 217
 오대정(鰲戴亭) 170
 오봉사(梧峰祠) 252
 오운섭(吳云善) 47
 오창근(吳昌根) 251
 오치윤(吳致潤) 16, 20, 87, 88
 오태덕(吳泰德) 195
 오한영(吳漢永) 47
 옥천설씨(玉川薛氏) 13, 14, 22, 189, 190
 완산이씨(完山李氏) 14, 23, 252, 260, 261
 용담고씨(龍潭高氏) 154
 용산재(龍山齋) 275
 운강정(雲江亭) 24, 322
 운흥사(雲興寺) 297
 유광모(柳光模) 248
 유리(由吏) 109
 유세불망비(遺世不忘碑) 146, 147
 유팽로(柳彭老) 168, 243, 248
 유허비 271, 275, 276, 281
 유혜불망비(遺惠不忘碑) 56, 83, 141
 유혜비(遺惠碑) 16, 17, 19, 20, 27, 29, 48, 49, 53,
 54, 55, 57, 58, 61, 63, 77, 80, 81, 84, 85, 87, 88
 유희춘(柳希春) 63, 195
 육항(陸晃) 168
 윤근수(尹根壽) 244, 249
 윤다(允多) 306, 311, 312, 314
 윤상섭(尹相燮) 152, 154
 윤상은(尹相殷) 81
 윤세영(尹世英) 20, 80, 81

윤정진(尹定鎭) 257
 윤창현(尹昌鉉) 248
 윤하(尹河) 171, 173
 윤황(尹煌) 257
 윤희선(尹會善) 21, 114, 130
 의관(議官) 68, 70
 의리장비(衣履藏碑) 22, 164
 의병(義兵) 123, 167, 168, 208, 248, 249, 250,
 252, 282
 이경(李璈) 23, 292, 293
 이귀종(李貴宗) 77
 이규헌(李奎憲) 21, 108, 109
 이기돈(李基墩) 22, 57, 176, 179, 180
 이기린(李基麟) 176
 이기의(李其義) 16, 21, 135, 136, 264, 323
 이남재(李南宰) 92, 93
 이돈상(李敦相) 20, 105
 이동직(李東稷) 21, 107
 이면상(李冕相) 20, 76
 이명두(李明斗) 22, 182
 이몽득(李夢得) 22, 198
 이방(吏房) 77
 이병은(李炳殷) 251
 이봉규(李鳳奎) 250
 이사성(李思性) 136
 이상악(李尙岳) 16, 19, 57, 58
 이색(李穡) 123
 이서구(李書九) 19, 30, 233, 236, 260
 이성(李穉) 22, 191
 이성석(李聖錫) 16, 20, 82, 83
 이수업(李壽業) 57
 이양(李揚) 188
 이유원(李裕元) 20, 103, 265
 이윤규(李潤圭) 250
 이음규(李崑圭) 136
 이익원(李益源) 16, 20, 61, 62
 이인우(李仁宇) 141, 143
 이재극(李載克) 179
 이진(李詮) 191
 이조식(李祖植) 20, 94
 이종익(李鐘翊) 21, 137, 138, 139, 140
 이종휘(李種徽) 21, 126
 이태근(李泰根) 46, 51
 이항(李恒) 195
 이해창(李海昌) 176
 이현영(李顯永) 20, 97
 이호준(李鎬俊) 19, 31, 32
 이홍경(李弘慶) 176, 179, 182
 이흥발(李興浚) 21, 123, 207, 208, 239
 이희인(李喜寅) 85, 86
 이희하(李熙夏) 19, 38
 인화선정비(仁化善政碑) 31, 32
 일명(一命) 47
 임정처사(林亭處士) 157
 임진왜란 12, 165, 167, 168, 176, 178, 243, 282,
 287, 311
 임홍준(任弘準) 20, 98, 99

ㅈ
 장군묘 163
 장영문(長永汶) 83
 장응전(張應甸) 160
 저존재(著存齋) 152
 적인선사(寂忍禪師) 15, 24, 305, 306

- 정기두(丁箕斗) 16, 20, 77
정기로(鄭基老) 16, 20, 64, 65
정달근(鄭達謹) 251
정동시(鄭東時) 66, 67
정동신(鄭東臣) 92, 93
정려각 214, 220, 222, 229, 233, 236, 252, 266, 322
정려비 207, 209, 212, 226, 228, 237, 239, 241
정렬각(旌烈閣) 17, 23, 243
정묘호란(丁卯胡亂) 252, 261
정봉현(鄭鳳鉉) 199, 200, 249
정석(鄭瀆) 222
정세창(鄭世昌) 21, 113
정수조(鄭遂祚) 83
정운봉(鄭雲鵬) 321
정의림(鄭義林) 46, 47, 68, 70
정인(鄭寅) 321
정인모(鄭仁模) 176
정인석(鄭寅奭) 222, 224
정일우(丁日宇) 16, 19, 51, 52, 55, 56
정일택(丁日宅) 16, 19, 20, 21, 45, 46, 47, 48, 49,
66, 67, 70, 144, 145
정임국(丁任國) 77
정종원(鄭宗源) 196
정진묵(鄭晉默) 19, 20, 42, 74
정철(鄭澈) 249
정충사(旌忠祠) 165
정혜택주 13, 14, 22, 186
정화석(鄭華錫) 20, 21, 100, 115, 116
제방 55, 73, 131
조광조(趙光祖) 291, 293
조규환(曹圭煥) 251
조륜(照輪) 310
조면채(趙勉采) 82, 83
조유검(趙有儉) 14, 23, 214, 322
조인석(趙寅錫) 47
조인영(趙寅永) 20, 101, 102
조장교(趙章教) 78
조정태(趙廷台) 60
조정호(趙井浩) 60
조종필(趙鍾弼) 229, 232, 294
조지곤(趙智崑) 171, 175
조학점(趙學點) 19, 43
조희구(趙禧九) 47
종용당(從容堂) 244, 249
죽림촌(竹林村) 153, 158
죽림헌(竹林軒) 153
죽산(竹山) 85
지동림(池東濂) 55, 56
진사(進士) 64, 65, 86, 92, 100
진주강씨(晉州姜氏) 14, 23, 135, 202, 262, 264,
265, 323
진주성 165, 166, 167, 168
진준(陳俊) 171, 173, 175
- ㄸ
- 참봉(參奉) 46, 47, 51, 52, 55, 56, 67, 70, 137, 139,
140, 153, 162, 178, 179, 180, 181, 195, 262,
263, 282
창의사(倡義使) 167, 168, 207
채희징(蔡希澄) 168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19, 21, 35, 36, 42, 106, 121
청백선정비 19, 37
초강서원(草江書院) 258
최경회(崔慶會) 165, 167, 168

최명환(崔鳴煥) 64, 65

최원(崔瑗) 21, 112, 128, 129

최유경(崔有慶) 85

최익현(崔益鉉) 152, 154, 222, 225

최홍민(崔弘岷) 16, 20, 84, 85

충렬문(忠烈門) 252, 261

E

탐진최씨(耽津崔氏) 196

태안군수(泰安郡守) 12, 80, 81

태안보(泰安湫) 80

태한정(太漢鼎) 168

ㅍ

판석(板石) 53, 226, 228, 262

포충사(褒忠祠) 244, 249, 250

풍천노씨(豐川盧氏) 194, 195

ㅎ

하동정씨(河東鄭氏) 22, 176, 177, 180

학교 5, 6, 52, 65, 68, 138, 140, 161, 222, 285

한병섭(韓炳燮) 55, 56

함벽정(涵碧亭) 89, 90

함풍이씨(咸豐李氏) 14, 262, 263

함허정(涵虛亭) 203

해남가장(海南假將) 167

향약(鄉約) 54, 61, 62, 69, 85, 87, 88, 92, 93, 194,
284, 285, 286

향약비문(鄉約碑文) 17, 23, 284

향약소 92, 93

향약유혜비 16, 20, 61, 63

향약 창시비 61

허권(許權) 281

허서(許瑞) 14, 23, 239, 240

허소(許紹) 207

허정량(許廷亮) 14, 23, 207, 208

허지희(許之熙) 207

호락산(虎樂山) 272

홍균(弘均) 249

홍승조(洪承朝) 47

홍승회(洪承會) 47

홍정주(洪鼎周) 20, 95

홍진연(洪晉淵) 21, 111, 248

홍희철(洪羲喆) 21, 110

화장산(華藏山) 276

황백언(黃伯彦) 64, 65

황신묵(黃愼默) 164, 169

황위(黃暉) 165

황진(黃進) 167, 168

효곡(曉谷) 68, 69

효열복호문(孝烈復戶門) 264

효자시(孝子柿) 231

훈장(訓長) 47, 83

홀민불망비 19, 38

홀민영사비 21, 115, 116

흥학불망비(興學不忘碑) 20, 94

흥학비(興學碑) 8, 21, 11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호남한국학 금석문자료집 2

곡성 금석문

조선시대편

인쇄 2025년 11월 20일
발행 2025년 11월 30일

발행인 홍영기(원장)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152번길 53-27, 4층
전화 062-603-9600 팩스 062-941-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기획총괄 권수용
자료정리 정옥경
자료조사 정선중, 황호균, 김은수, 정지용, 이중효
자료번역 손왕호, 정명수, 남춘우, 안 현, 장유승

편집제작 도서출판 사람들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180번길 12
전화 062-227-7820 팩스 062-227-7823

비매품

ISBN 979-11-94466-13-0(03090)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5 호남국학진흥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
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우로
03090



9 791194 46613 0
ISBN 979-11-94466-13-0

